

건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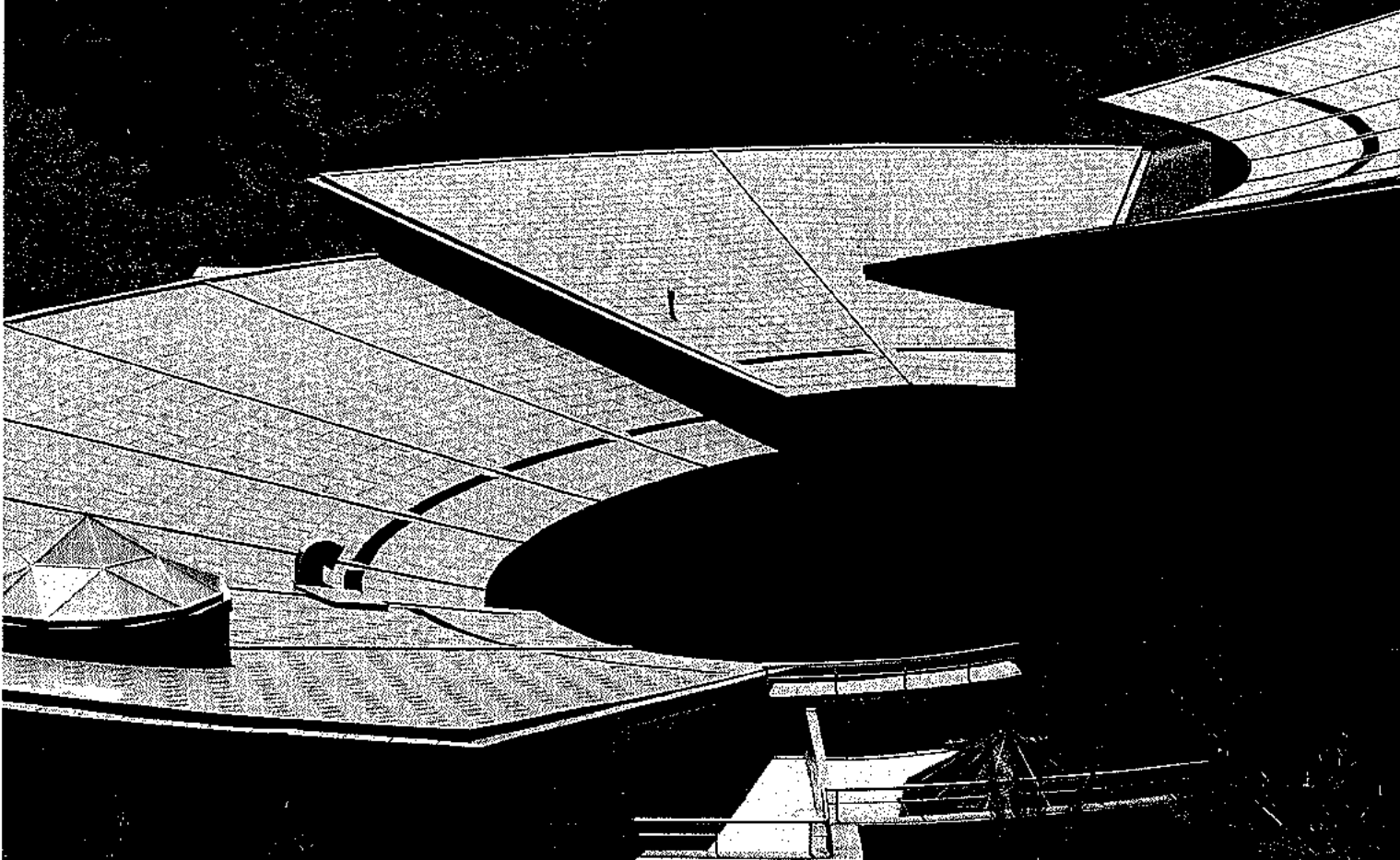
1998 **06** vol. 350

칼럼 IMF시대에 맞게 된 「건축문화의 해」

작품리뷰 갈평 피정의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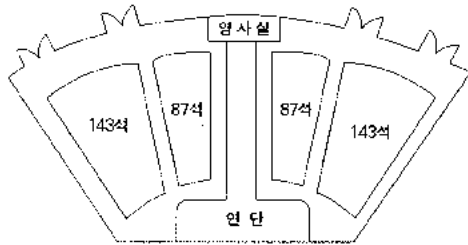
테마기획 지역건축탐방⑧ - 대구, 구미, 김천(상)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개관 - 김인호(완)



K O R E A N A R C H I T E C T

대한건축사협회 회관 대관안내



대강당(460석)

대강당

- 기업 및 단체의 정기총회/세미나/강연회/교육·연수 등 대규모 회의 장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면적 : 143평(계단식)
- 수용인원 : 460(좌석수)
- 부대시설 : 녹음/음악/영사실/무대/무대영상막/흑판/OHP/VPM/SP

회의실 임대료 및 기자재 사용료 기준

1. 회의실 임대료

(단위 : 원, VAT별도)

구분	좌석수	임대료	
		기본요금(3시간)	초과시간(시간당)
대강당	460석	330,000	66,000

- 사용시간 : 하절기(3월~10월)/09:00~18:00, 동절기(11월~2월)/09:00~17:00

* 회원 및 관련단체와 장기사용(년10회 이상)의 경우 상가금액의 30% 할인.

2. 기자재 사용료

(단위 : 원, VAT별도)

장비명	사용료(1일 1회 기준)
비디오	30,000
OHP(오버헤드 프로젝트)	20,000
VPM(비디오 프로젝션모니터)	100,000(비디오 포함)
S/P(슬라이드 프로젝트)	2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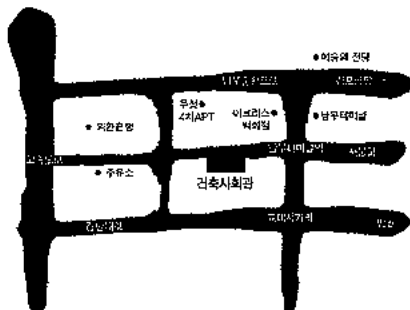
3.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시 예약금으로 임대료의 10% 이상을 납부

- 현수막 규격

• 대강당 : (가로) 900cm×(세로) 90cm

약도



대관 문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건축사회관 대한건축사협회 총무부
상당 · 예약실(전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동쪽방향 150m 좌측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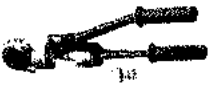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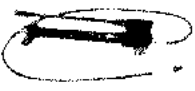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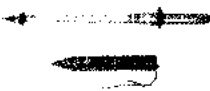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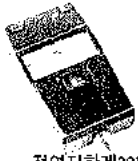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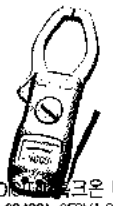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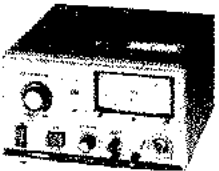
TEX : 581-5711~4

FAX : 586-8823 / 585-4958

계측기 및 전설공구

MULTI 누설전류계로 절연저항 비교측정, 누전사고예방, 10,000V 절연저항계 KYORITSU

전기감리 • 소방감리 장비 판매중

 누설전류계 M4000 φ40 mm 0.01mA 누전사고예방	 유압식 단자 압착기 9H-150(14"~150")	 전선압착기(유압식) EP 430(Y-35)	 유압식 절관전공기 SH-10(2"3"4")		 접지 저항계 다차셀 41050~2000 Ω
 누설전류계 M4000 φ80 mm 0.01mA 누전사고예방	 유압 압착기 12호 A (14"~325")	 유압 수동 펌프 HP 700A	 특고저압검전기		 접지저항계 41020~1,000 Ω
 COS MOS 가스 측정기 LNG LPG x P 702SA	 DIGITAL 소음계(1350) 35~130db	 비접촉식온도계 ST-2P-18~400°C ST-6L-20~500°C	 비접촉식온도계 PM 30L-18~370°C R31L RL 30~30°~1200°C		 메타 2007 600A 750V 2002 1000A 750V
 절연저항계 3213A 500V 1,000V 1,000V 2,000	 디지털 크로메터 234301 650V 1,000A	 접지저항계 3235	 다기능계측기 MET500		 절연저항계 3165 500V 1,000M 3166 1,000V~2,000M
 005 Aims 레온 가스측정기 R134a R22 R12	 절연장갑 강화	 50,000V 내전압시험기	 후크온식 접지저항계		 절연저항계(3123)10,000V
 DC Hydrot tester 60kV 5mA	 절연유산가측정기(HD 101)	 절연유 시험기(HDSS)	 계전기 시험기(8510)	 절지공구	 온도기록계 SR 1,000 UR 1,000 UR 1,800

취급회사 제품



KYORITSU KIKUSUI 내전압 시험기
MULTI 누설전류계 MUSASH O.T 테스트
IZUMI 압착기 HIOKI 계측기

국산

메가 흑크메타 아쓰테스타 소방장비 차압계

YOKOGAWA 기록계

내전압 시험기 제작전문

현대전기

서울시 종로구 장사동 199-1

TEL : (02)279-0427, 278-3944

FAX : (02)273-87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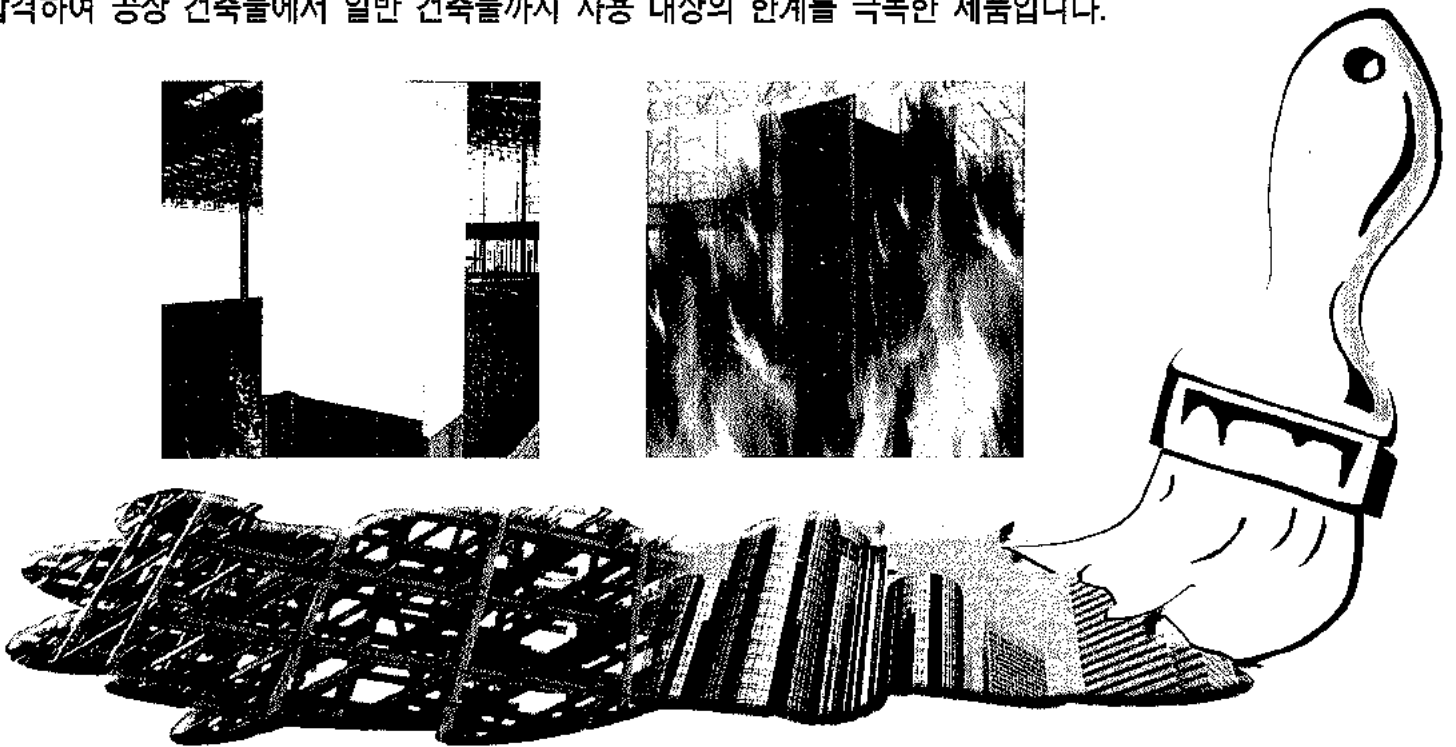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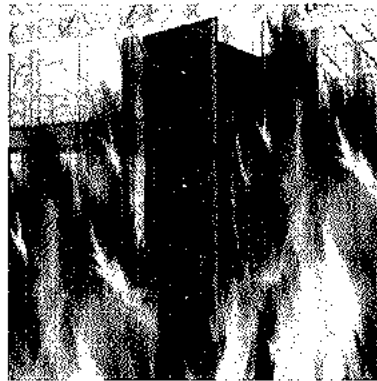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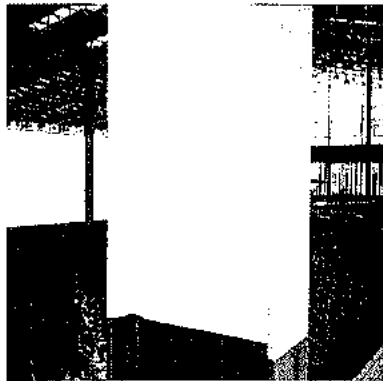
첨단 철골내화 페인트



FIRE CONTROL 국립건설시험소 고시 제 1996-33호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

취급, 보관, 시공, 화재등 어떠한 단계에서도 냄새, 분진, 가스등의 유해 위험요소가 전혀 없는 청정내화재 FIRE CONTROL은 페인트 타입으로는 국내 최초로 일반 건축물용 시험에 합격하여 공장 건축물에서 일반 건축물까지 사용 대상의 한계를 극복한 제품입니다.



용도

철골 구조의 건축물 / 철골 구조의 공장 시설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 창고 물류센터 / 근린 생활시설 / 발전소 선박, 프랜트, 산업시설

특성

- 자체 독성이 전혀 없는 무해 재료이다.
- 화재시 유독한 연기를 방출하는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발포성형체가 그대로 유지되는 완전 불연체이다.
- 시공시 페인트 타입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안전상 문제점이 전혀없다.
- 시공후 깨끗하고 미려한 외관을 유지하며 자체강도, 부착강도가 강하여 변형, 변질이 발생하지 않는다.

성능

대 상		내화시간	사용부위	도막두께
내 화 구 조 조 지 정	일반건축물 공장(2층이상) 창고, 물류센터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2.95mm 상도:3.20mm
	공장(1층,중2층)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	1시간	철골 (기둥,보)	하도:0.05mm 중도:1.95mm 상도:2.20mm

FIRE CONTROL은

건축법 제2조 제7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화성능을 갖춘것"으로써 내화구조 의무화 건축물의 준공검사시 필수적인 내화성능도로입니다.

H 하이템주식회사
HITEM CO., LTD.

본사: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4동 92-4
남성 B/D 4F
TEL:(02)535-7230(대) · FAX:(02)535-6503
공장: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묵리 861
TEL:(0335)33-6074~5

신기술 혁신으로 안전을 생각합니다.

한국화재보험협회
부설 방재시험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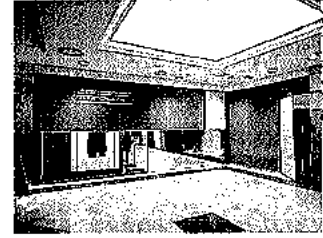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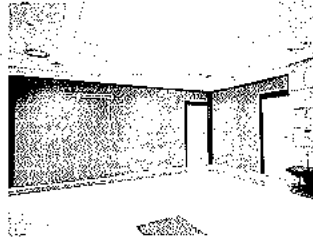
실용신인등록 제076984호
PUMA상표등록 제281348호
일본국(출) 평성4년 37180호

“푸마방화셔터는 별도 방화문이 필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종래의 방화문, 방화셔터의 2중
구조를 하나의 방화셔터 시스템
으로 통합했습니다.

경제성 절대만족, 안전성, 편의성
충족만족 시키며 세계최초로
방화셔터를 “푸마”의 신기술로
완성시켰습니다.



푸마 방화 셔터만이 당신에게 만족을 드릴 것입니다.

푸마셔터 설치업체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도파 상계점 • 현대백화점 압구정점 • 롯데쇼핑 본점, 청량리점 • 대구 동아쇼핑 • 신세계 영동점 • 경방빌 프라자 • 부산 리베라 쇼핑 • 영동 SS 패션매장 • 대한투자신탁사옥 • 제일은행 구본점 • 하이아트호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호텔 • 워커힌호텔 • 숙초아남하이츠 • 세브란스빌딩 • 영도 구청사 • 아주대 무속병원 • 제주중앙병원 • 보령제약사옥 • 중앙대학교 • 이화여대 • 외 100여 업체사공 |
|--|--|

세계전시회 출품

- '93 동경 GOLD LIVING SHOW
- '93 서울 국제건축건설전
- '94 경향 하우징페어

- 푸마 방화셔터 국내 총판
- 전문건설업·창호·철물면허보유
- 국내유일 설계·제작·설치업체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
東樂産業株式会社

본 사 : 서울특별시 九老區 九老3동 154-7
TEL : 838-4545(代)
FAX : 838-0474
공 장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공단 156-14 B/L

제조원 : **아 주 셔 터 공 사**

대한민국정부

발표한 공문(서신)의 요약을 작성한다.

성	과	처	장
국	무	신	행

전무시책소개

1. 1998. 11. 10. (금) 11:00

공문시행

1998. 11. 10. (금) 11:00

공문시행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1998. 11. 10. (금) 11:00

이제부터  정부시설공사 선정 프로그램인 EMS-1234로

- 내역작성을하여 발주처에 디스켓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 수많은 발주처, 설계사무소, 시공회사들이 EMS-1234와 R.C, K-FIN를 찾는 이유를 아십니까?

고려전산이 견적/적산 프로그램의 표준화와 전산내역 입찰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 애프터 서비스

- 분기별로 일위대가와 자재코드 단가 관리를 해드립니다.
- 지속적인 Up-Grade
- 철저한 교육(매주 정기 교육 실시)
- 지속적인 사후관리

● 적용분야

- 설계사무소, 감리사무소, 적산용역사무소, 관공서, 시공회사, 교육용

적산용역 업무문의

☎ (02)278-9095

본 사 :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59-5 현우빌딩 4층

TEL : (02) 529-6071~4

FAX : (02) 529-6075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koreasoft.co.kr>

E-MAIL: koreasb@koreasoft.co.kr

메뉴얼에서부터 내역까지

통한 내역작성

창문으로 새어나가는 달러 해강 수퍼사시가 막아드립니다



에너지 절약형 독일식 시스템 창호 해강 수퍼사시는 다년간의 연구와 노력 끝에 국내최초로 100% 국산화를 실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시스템 창호를 최고의 품질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 여러분께 한발 더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다격실 구조와 밀폐성 높은 EPDM 가스켓, 복층유리를 사용하는 해강 수퍼사시는 단열, 방음효과가 탁월하며 윗열기 개폐방식의 도입으로 공기의 자연순환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학적인 환기방식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연구개발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설 것을 약속 드립니다.

해강 수퍼사시 구입 및 문의처

- 서울 사무소 및 전시장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8-2 남경빌딩 2층 TEL : (02)548-4041(대) · FAX : (02)543-3647
- 부산 : (051)501-9006 ■강남 : (02)3442-0657 ■강북 : (02)264-5506 ■대구 : (053)551-1770 ■승파 : (02)3401-8262
- 인천 : (032)431-6732 ■의정부 : (0351)877-3808 ■안성 : (0333)656-7504 ■천안 : (0417)575-8196 ■대전 : (042)633-5591
- 강동 : (02)474-1661 ■라인 : (02)552-3530 ■마산 : (0551)51-0011 ■제주 : (064)48-4811 ■성북 : (02)914-3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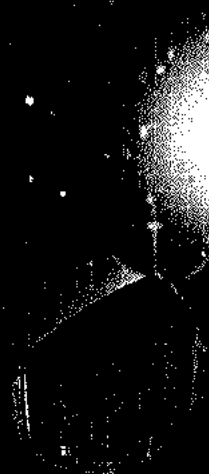
「**건축사지**」는
회원 여러분의
“터”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회원 서로가 뉴스와 정보를 공유
할수 있도록 회원의 작품과 관련된 소개는 물론
회원 활동과 건축계 주변의 소식들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구분	내용
준공작품	최근 준공된 프로젝트 (슬라이드 필름 5컷 내의(본회의 촬영가능), 설계개요, 설계소묘 (200지 원고지 3~4매), 기본 도면(배치, 단면, 평면))
계획작품	최근 계획하거나 진행중인 프로젝트 또는 미실현 작품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간략하게 200지원고지 2매 내의))
현상선거	최근 현상선거 경기에 응모하였거나 입상한 프로젝트 (투시도 또는 모형사진 1매, 주요도면 1~2매, 설계개요, 설계소묘 (간략하게 200지원고지 2매 내의))
회원동점 및 기타소식	건축여행, 세미나 참가, 회의 및 회원사를 소개할 만한 신탁장기, 기타 건축계 주변의 활동사항이나 알리고 싶은 내용 등(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보도자료 및 관련사진 1~2매(분량 제한 없음))

원고마감 : 매월 20일(수시 접수가능)
보내실 곳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지」편집팀
(우편번호 137-070)
문의 : 「건축사지」편집담당
전화 02-581-5711~4
팩스 02-586-8823

'98 한국건축문화대상



한국건축문화대상은 우리건축의 본질과 이 시대의 정서 그리고 기능성이 구현된 역작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한국건축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마련된 건축공모전입니다. 기성건축인의 창작의욕 고취와 신인등용의 장으로써 한국건축의 정통성과 활력을 이어나갈 '98한국건축문화대상'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참여를 바랍니다.

응모부문 및 대상

▶ 공공건축물부문

- 응모대상 : 97년 9월부터 98년 8월 기준 중 준공된 국내건축물
- 응모지역 : 건축사, 시공자, 건축주

▶ 계획건축물부문

- 응모대상 : 알의 실감한 설계의 타지와 환경의 조화를 작품상 창작작품으로 이전 국·내외 공모전에 응모하지 않은 작품에 한함
- 응모지역 : 없음
- 응모자격 : 일반 건축분야 설계업무 종사자(건축사법외 소기업자 제외) 및 건축관련학과 대학원 재학생
- 제한 : 1차 및 대학의 건축관련학과 재학생
- 일반국민 : 없음

응모방법

▶ 공공건축물부문

- 작품자료 : 작품설명, 건축물사진(8" x 10" 사이즈 10~20매), 설계도면의 수록된 1/4000의 사진집 2부 제출(건축사, 시공자, 건축주에 대한 관련 소견서 포함)
- 1차 사진집 심사 : 통과한 작품에 한해 2차 현장사진을 심사하며 폐년제를 시행 별도 분포

▶ 계획건축물부문

- 제출(지표) : 90cm x 90cm 1매 및 작품설명서(A4용지 1매 분량, 1부 제출)
- 모형(지표) : 90cm x 90cm 이하 : 90cm x 75cm, 높이 75cm 이하 1점 제출
- 1인 1작품에 한함(당첨작품 응모 불가)
- 작품수시 : 10시부터 18시까지
- 주제설정 : 우리들 도시의 역사기 10여 가지 가운데로 분구하고 그 분구속에서 한 가지의 것처럼 어설피는 표현을 한다. 이는 우리가 도시현대사가 개발의 진화에 주도 당하여 그 평행선을 잃어버리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도시는 거역과 욕망이 서로 대립하고 긴장하면서 진정하려 한다. 애 것이 있는가하면 또 것도 있고, 야금야금과 우월의 것이 있고, 성의 속, 농부의 낮은 등이 어울려 오

를 시간 속에서 그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들이 갖게 된 개발은 지남 수 심연동안 시 것, 큰 것, 유용한 것, 빠른 것 등 많은 도시속에 담고자 하여 우리의 기원과 혼란을 점점 사라지게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는 그유의 도시성은 이미 대부분 상실되었다.

도시에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난 총리대공의 이러한 경지의 난국은 이 개발의 희생과 무관하지 않으며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를 다시 집중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위 우리의 군자는 어디인가. 우리가 개발의 미명으로 저우로 했던 우리의 혼란이 남은 도시의 한 조각을 재발견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건축을 시작하려 한다. 그것은 우리의 관중하인들 살아시간 속에 지인한 자국어에 대해서 소유할 수 없는 우리의 리얼리티이다. 이로써 우리의 도시는 굳어있게 되고 또한 미라워 연결된 것이다.

※ 주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대한건축사회의 명칭 '건축사'에 7월호 참조.

작품접수

▶ 접수기간

- 공공건축물부문 : '98. 8. 17(월) ~ 8. 20(목) 09:00 ~ 18:00
- 계획건축물부문 : '98. 9. 21(월) 09:00 ~ 18:00

▶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조정실
- 별도의 참가비(출품료)가 없으며 출품원서는 작품접수자에 한해 접수 당일 현장에서 교부함

심사위원

▶ 공공건축물부문

- 장시원(건축사사무소 그늘가 대표)
- 김평문(화인대 건축공학부 교수)
- 김이영(삼신서출명원 정선과장)
- 변 용(통합건축사사무소 원도시건축 대표)
- 신현식(중앙대 법학교수)
- 오윤동(통합건축사사무소 한림건축컨설팅 대표)
- 정 훈(서울경제신문사 논설위원)

▶계기건축공무원

집기전(대한건축사협회 이사장 봉명건축 대표)
 봉명건축(의정부 건축공학과 교수)
 방천진(연·보통건축사사무소 대표)
 송효성(종합건축사사무소 이보진 대표)
 임영섭(호서대 건축학부 교수)
 양승환(양천건축사사무소 대표)
 이광철(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수상작발표 및 시상·전시

- 수상작 발표: 1998년 10월 26일(수) 서울경제신문(임대주택에서 한때 개최됨)
- 수상작 전시회: 1998년 10월 27일(화)~11월 2일(토)/장소:주후공고*
- 시상식: 1998년 10월 27일(화)/장소:주후공고

●기타 준공규정

- 계획건축물분류는 매년제작사 유리, 플라스틱, 비닐 등 방사성 재료의 사용을 함함
- 작품제출 당일 접수장내에서의 폐년제작작업을 함함
- 준공건축물분류의 제출 작전집을 1부는 사후보존용으로 반환하지 않음
- 준공건축물분류의 제출작 이상의 표본은 행사후 상설전시관 위해 완성이 불가함

●시상내용

▶준공건축물부문

대형(1층)	중형(2층)	소형(3층)	초소형(4층)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대상(1점)

▶계획건축물부문

- 대상(1점): 상급 500만원 및 상장
- 은상(2점): 상급 각 350만원 및 상장
- 동상(3점): 상급 각 100만원 및 상장
- 입선(다수): 상급 각 30만원 및 상장
- 동성이상 수상자중 대학교학성에 한해 양어 입대복합사를 거쳐 2인류 선별, 38년 11월중 소피랑카주지 계획전 여정인 ARCTIC(아시아권 건축협회)와 함께 해외에 36점 부친 하여

한국건축문화대상시행위원회

- 주최 / 대한건축사협회, 건설교통부, 서울경제신문사
- 후원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대한주택공사, 주택공제조합, 한국주택협회
- 문의 / 대한건축사협회 기획조정실(Tel. 581-571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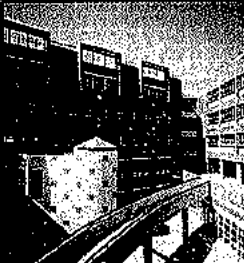
푸스코시티▶
(95년 제1회 대상수상작)



대법원청사▶
(96년 제5회 대상수상작)



민정각▶
(94년 제3회 대상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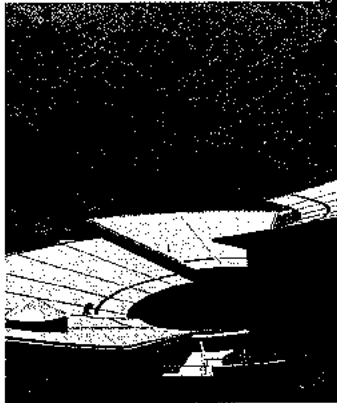
LG화학 기술연구원▶
(97년 제6회 대상수상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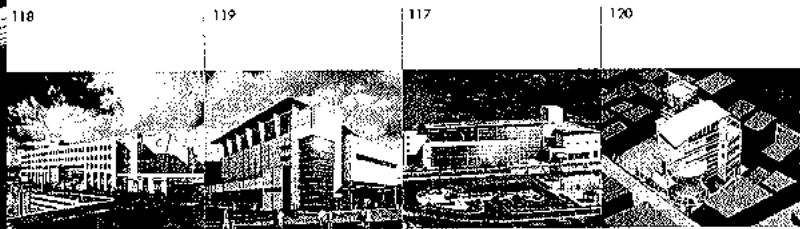
한법저프소▶
(93년 제2회 대상수상작)



차례 1998 06 350호



갈평 피정의 집(강석원작)



발행인: 김영수
 편집기획: 편집위원회
 편집위원: 방철린(위원장), 송효상(부위원장)
 동정근, 심영섭, 양남철
 편집부장: 정효상
 편집·취재: 조한국, 유태일, 진현경
 발행처: 대한건축사협회
 (협회창립일: 1965년10월23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03-55
 우편번호: 137-070
 전화: 대표 (02)581-5711~4
 팩시밀리: (02)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인쇄인: 어봉수/정문사 (02)266-4655

Publisher: Kim Young-Soo
 Editor: Editorial Committee
 Editorial Member: Bang Chul-Lin, Seung Hchoh-Sang, Dong Jung-Geun,
 Shim Young-Sub, Yang Nam-Chul
 Assistant Editor: Editorial Team
 Publishing Office: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Address: 1603-55 Seocho-dong, Seocho-gu,
 Seoul, Korea
 Zip Code: 137-070
 Tel: (02)581-5711~4
 Fax: (02)586-8823
 U. D. C: 69/72(054-2) : 0612(519)

칼럼	IMF시대에 맞게 된 '건축문화의 해'	임창복	14
작품리뷰 / 갈평 피정의 집		강석원	16
	대담: 기하학적 볼륨의 완결성과 전통성의 현대적 수용	김형우	26
	비평: 내성적 건축	신재익	30
회원작품	천주교 백석동교회	김태인 · 이웅익	34
	베스콘연구소	마성호 · 박주환	38
	대우건설기술연구소	이항섭	42
	도림 투산베아스타워	김재욱	46
	고려 포리머 사옥	한재원 · 최병일	49
	알바니 인터내셔널 코리아 공장	이철호	52
공청회	건축법 및 건축사업 개정방안		54
테마기획 / 지역건축탐방 ⑥: 대구 · 구미 · 김천(상)		편집디렉터/이정호	67
	영남 중부권의 지역성과 도시경관	김한배	68
	대구의 전통구조물과 역사적 환경들	예명해	75
	대구건축의 지역성 탐구	권종욱	85
	대구시민의식과 도시	하재명	90
작품노트	무궁화동산 청소년 수련의 집	최낙진	97
기획연재	한국의 건축가 ⑫ - 김인호(완)	박정우	100
기고	중국의 건축사제도와 외국건축사에 대한 자격인정(증) 방법	이관영	106
건축마당	협회소식		111
	건축계소식		113
	현상설계		11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122
	신입회원		124
	게시판		125

Column

Celebrating "The Year of Architectural Cultures" in the Period of IMF-Aid

Yim Chang-Bok

14

Review / Kalpyung House of Retreat

Kang Suk-Won

16

Interview The Wholeness of Geometrical Volume and the Contemporary Adaptation of Tradition

Kim Hyung-Woo

26

Critique Introspective Architecture

Shin Jae-Eok

30

Works

Paeksuk-dong Catholic Church

Kim Tae-In & Lee Yong-Ik 34

Bescon Center

Ma Sung-Ho & Park Ju-Hwan 38

Daewoo Institute Construction Technology

Lee Hang-Sup 42

Doosan Bear's Tower

Kim Jea-Wook 46

Korea Polymer Co. Building

HanJae-Won & Choi Byoung-Il 49

Albany International Korea

Lee Cheol-Ho 52

Open Hearing

On the Revision of Laws for Building and Architect

54

Theme Study /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6]: Taegu · Kumi · Kimchon [1]

Lee Jung-Ho 67

Characteristics and Cityscape of Cities

in the Youngnam Inland Area

Kim Han -Bae 68

The Traditional Constructions and Historical

Environments in Taegu

Yea Myung-Hai 75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e of Taegu

Kwon Jong-Wook 85

The Civic Consciousness and the City of Taegu

Ha Jae-Myung 90

Design Note

Youth Training Center of Mugunghwa Hill

Choi Rak-Jin 97

Serial

Korean Architect, Kim In-Ho(E)

Park Jung-Woo 100

Feature

Chinese Registration System and Mutual Recognition

Lee Kwan-Young 106

Architects' Plaza

KIRA News

111

Archi-net

113

Competition

117

Statistics

122

New Members

124

Bulletin Board

125

전국시도건축사회 및 건축상담실 안내

■ 서울특별시건축사회/(02)581-5715~8

강남구건축사회/(02)517-3071 · 강동구건축사회/(02)484-6640 · 강북구건축사회/(02)903-3425 · 김시구건축사회/(02)4-7168 · 관악구건축사회/(02)884-0048 · 광진구건축사회/(02)446-5244 · 구로구건축사회/(02)852-2275 · 노원구건축사회/(02)933-8076 · 동대문구건축사회/(02)923-6213 · 동작구건축사회/(02)815-3026 · 마포구건축사회/(02)333-5251 · 서대문구건축사회/(02)333-6411 · 서초구건축사회/(02)552-8468 · 성북구건축사회/(02)2-5117 · 송파구건축사회/(02)423-9158 · 양천구건축사회/(02)33-2892 · 영등포구건축사회/(02)632-2143 · 용산구건축사회/(02)717-6607 · 은평구건축사회/(02)388-1486 · 종로구건축사회/(02)735-0905 · 중구건축사회/(02)31-5748 · 중랑구건축사회/(02)437-7356

■ 부산광역시건축사회/(051)633-6677

■ 대구광역시건축사회/(053)753-8900~5

■ 인천광역시건축사회/(032)437-3381~4

■ 광주광역시건축사회/(062)521-0025~8

■ 대전광역시건축사회/(042)485-2613~7

■ 울산광역시건축사회/(052)74-8836 · 66-5651, 7930

■ 경기도건축사회/(031)47-6129~30

고양지역건축사회/(0344)63-8902 · 광명건축사회/(02)684-5845 · 구미지역건축사회/(0346)63-2337 · 부천지역건축사회/(032)684-1554 · 성남지역건축사회/(0342)755-5445 · 수원지역건축사회/(0331)41-7987 · 시흥지역건축사회/(031)634-4121 · 안산건축사회/(0345)80-9130 · 안양지역건축사회/(0343)49-2698 · 의정부지역건축사회/(031)876-4553 · 이천지역건축사회/(0338)635-0545 · 포항지역건축사회/(0333)657-6149 · 포천지역건축사회/(0339)375-8645 · 용인지역건축사회/(0325)38-0140

■ 강원도건축사회/(0361)54-2442

김릉지역건축사회/(0391)835-7371 · 삼척지역건축사회/(0394)31-8706 · 속초지역건축사회/(0392)33-5091 · 영월지역건축사회/(0373)374-9658 · 원주지역건축사회/(0371)43-7280 · 춘천지역건축사회/(0344)54-2442

■ 충청북도건축사회/(0431)223-3684~6

옥천지역건축사회/(0475)32-5752 · 제천지역건축사회/(0443)43-6253 · 홍천지역건축사회/(0441)847-3082

■ 충청남도건축사회/(042)256-4088

공주지역건축사회/(041)6154-3955 · 보령지역건축사회/(0452)34-3367 · 부여지역건축사회/(043)835-2217 · 서산지역건축사회/(0455)681-4295 · 천안지역건축사회/(0417)55-4551 · 홍성지역건축사회/(0541)32-2755

■ 전라북도건축사회/(0652)251-6040

고신지역건축사회/(0654)452-3815 · 남원지역건축사회/(0671)33-2030 · 익산지역건축사회/(0653)52-3786

■ 전라남도건축사회/(062)335-9944 · 364-7567

목포지역건축사회/(0631)72-3349 · 순천지역건축사회/(0661)743-2457 · 여수지역건축사회/(0652)33-2009

■ 경상북도건축사회/(053)744-7800~2

경산지역건축사회/(053)812-6721 · 경주지역건축사회/(0546)772-4710 · 구미지역건축사회/(0546)51-1537~8 · 김천지역건축사회/(0547)32-6688 · 문경지역건축사회/(0581)53-6677 · 상주지역건축사회/(0582)535-8975 · 안동지역건축사회/(0571)57-464 · 영주지역건축사회/(0572)34-5580 · 영천지역건축사회/(0536)34-9256 · 칠곡지역건축사회/(0545)774-7025 · 포항지역건축사회/(0562)44-6029

■ 경상남도건축사회/(055)146-4530~1

거제지역건축사회/(0558)835-3432 · 거창지역건축사회/(0598)43-6090 · 김해지역건축사회/(0528)35-5682 · 밀양지역건축사회/(05527)355-1323 · 삼천포지역건축사회/(0593)33-9779 · 양산지역건축사회/(0523)84-3050 · 울산지역건축사회/(0522)74-8836 · 진주지역건축사회/(0591)745-6403 · 창원지역건축사회/(0557)645-7420

■ 제주도건축사회/(064)62-3248

서귀포지역건축사회/(064)62-2233

IMF시대에 맞게 된 ‘건축문화의 해’

Celebrating “the Year of Architectural Cultures” in the Period of IMF-Aid

임창복 / 성균관대 건축과 교수

by Yim Chang-Bok

6월 대란설이다, 8월 폭동설이다 해서 비야호로 경제위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느낌이다. IMF 자금지원 이래 고금리, 고실업, 고환율에다 주식폭락 등으로 우리의 경제지표는 온통 우울한 것 뿐이다. 그래서인지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쳐왔는데도 별로 관심이 없는 모양이다. 오히려 선거 이후 터져 나올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집중시키며 숨을 죽이고 있는 것이 요즘의 사회 형국이다.

건축설계사무소의 업무도 건설경제활동의 한 부분임을 감안할 때 건축사들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음은 우리가 다 아는 바이다. 다니던 사무소를 그만 둔 수많은 젊은 예비건축사, 오랫동안 경영하던 사무소를 축소 조정한 중견 건축사 그리고 아젠 나이가 좀 들었다고 내몰린 경험 많은 노장 건축사들은 이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암울하기만 한 요즘 건축계에 한가지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

문화관광부가 내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이 땅의 건축인이려면 감회가 없을 수 없다. IMF시대에 그것도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맞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것 같다. 특히 20세기의 마지막 해 1999년에 건축문화의 해를 갖는다는 것은 ‘지난 백년’을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백년’을 준비하라는 우리 사회의 주문도 함께 있는 듯하다. 따라서 그 동안 누적된 건축계의 문제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건축계 내부적인 모순도 극복하고, 사회에도 적극적으로 건축분야의 정체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건축문화의 해를 자기 모순의 극복과 도약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우선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서 특히 새로운 다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건축사 모두가 ‘건축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건축이란 인간의 각종 활동기능의 수용을 전제로 한 조형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분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일반인들이 건축의 의미나 건축분야의 전문성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다. 그 원인으로 건축사들은 사회가 선진국에서처럼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다고 푸념하지만, 건축과 관련된 영역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이 그들의 역할을 제대로 사회에 알리는 데 게으르거나,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연유된 측면도 많다고 본다.

내년에 맞게 되는 건축문화의 해에는 건축사 자신들의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해서도 스스로가 건축의 문화적 측면을 이해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건축이 이윤극대화를 위한 비즈니스 건축사들만의 영역으로 존재할 때 사회로부터의 존경을 기대한다면 이것은 좀 지나친 욕심이 아닐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건축사들이 그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란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몇 년전 파리의 한 집합주택을 방문했을 때 보렐이라는 젊은 건축가가 자기 작품을 찾아주는 방문객들에게 팜플렛을 나눠주며 안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나중에 대화를 하며 알게 되었지만 파리시에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기에 자기가 나와서 일반시민들과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 젊은 건축가의 노력에 시민들은 애정어린 존경심을 마음 한 구석에 담게 되

지는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

건축문화를 보다 넓게 알리려면 자기 자신의 작품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유산인 문화재나 유명작가의 현대 건축물을 네트워크화해서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의 마련도 필요하다.

우리 나라에는 고건축뿐만 아니라 현대 건축물 중에도 우수한 것이 많이 현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는 문화의 일부분으로 만들어내느냐가 관건이다. 지나간 얘기가 되었지만, 궁정동 안기는 박대통령이 서거한 마지막 장소라는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었지만 분풀이의 대상으로 삼아 없애버렸고, 중앙청도 철거를 하더라도 일부는 지하화해서 극일의 상징장소로 만들 수 있었는데도 순간의 한풀이로 끝낸 것은 못내 아쉬운 대목들이 아닐 수 없다.

과거의 문화재나 현존하는 건물을 네트워크화할 때 너무 예술성에 치우칠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그 장소와 역사를 증언해 주는 일반 건물도 훌륭한 자원이 된다는 시각의 유지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각종 건축관련 워크숍의 개최나 유명 건축가의 작품 모델 만들기 등으로 일반인들이 친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도 매우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변인구를 보다 확대시키려면 건축사들이 나서서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자원하여 건축문화의 중요성을 소개해 주는 일이 필요하다.

예술적 재능이 많았던 루이스 칸도 그가 고등학교 시절 대학 진로를 앞두고 고민할 때, 그가 다니던 고등학교를 방문해 건축분야를 소개해 준 필라델피아 지역의 한 무명 건축가 덕분에 건축분야를 택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칸은 건축이 과학과 기술에 속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그 특강을 듣고 난 후 건축분야가 갖는 문화예술적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다.

필자도 집 아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10여년 전 일일교사 제도라는 게 있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건축강의를 해 본 경험이 있다. 주제로 무엇을 택할까 망설이다가 주거건축이 좋을 듯해서 '우리의 아파트단지'와 해외의 집합주거단지'를 비교해서 슬라이드로 보여 주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대단치 않은 내용으로 일일교사 시간을 '때우고' 돌아왔던 것으로 기억된다. 저녁에 집의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래도 은근히 일일교사 강의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좀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집 아이 말로는 강의가 끝나자 몇몇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우리 동네 아파트를 부수러 가자고 외치는 친구도 있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엉터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속상해 하는 아이도 있었다고 전해 주었다. 어린아이들이지만 느끼는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건축의 중요성을 조금이나마 일깨워 주었다는 생각을 하게 했다.

아마도 건축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건축가 스스로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참여하는 길만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본다.

건축이란 결국 건물에 부가가치를 더하는 것 아닐까? 일반인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교육 없이는 건축의 새로운 영역이 개척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건축의 해를 맞으며 건축사들이 도시의 공공 영역에 대한 관심도 새롭게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현재 일반인들에게 인식되고 있는 건축의 영역은 단위건물의 '설계'와 '시공'으로 한정되어 있는 듯하다. 따라서 건축물을 설계하는 건축사가 단위 건물을 설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우나 도시의 공공영역이나 토목 시설물을 다룰 수 있는 디자이너로 인식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 물론 건축사에게도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도시의 육교나 교량, 그리고 도로의 선형 디자인에는 관심만 가지면 좋은 이미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국의 유명한 교량들이 건축가와 교량구조 전문가들의 협력에 의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건축사란 구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이기 때문일 것이다.

건축의 해를 맞이하여 건축사의 관심영역을 단위 건축물에 국한시키려 하기보다는 도시 환경에 이르기까지 폭이 넓음을 이해시키고 참여가 가능한 점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지방도시의 정체성 찾기'라든지 '건축가가 제시하는 도시 개선의 비전' 등은 건축사들이 참여해서 커다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 관련 프로그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이러한 현안 과제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려면 건축 3단체의 통합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도 건축 3단체는 매월 한차례 함께 모여 건축계의 현안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동안 그런 대로 큰 잡음 없이 각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WTO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요구되는 건축사 인증제도, 건축교육에 대한 개선문제, 특히 최근 교육부의 학부제 도입을 건축과에도 적용하고 있는 현안 등에 직면하면서 3단체의 대처방안을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보인다. 각 단체의 고유 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열심이지만, 국내외적 긴급상황에 공동으로 대처해야 하는 분야에서는 그리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 특별히 긴급하게 다루어야 할 상황인 경우 3단체가 분야별 통합운영체제를 가동시켜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이제 내년에 맞게 될 건축문화의 해가 어느 한 단체만의 전치가 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건축계가 안고 있는 자기 모순을 개선하고 새로운 한 세기를 다함께 준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갈평 피정의 집

Kalpyung House of Retreat

작품리뷰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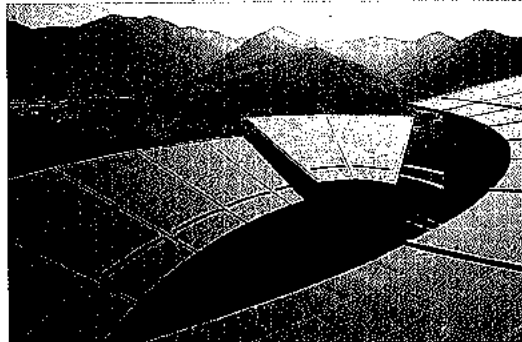
강석원 / 구름가 건축도시연구소
Designed by Kang Suk-Won

건축개요

위치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11-2 번지외 2필지
지역지구	농림, 준농림
대지면적	8,312㎡
건축면적	1,284.7㎡
연면적	3,954.9㎡
건폐율	17.98%
용적률	44.38%
규모	지하1층, 지상5층
구조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Location Kalpyung-ri, Ohchun-up, Nam-gu, Pohang City,
Kyungbuk Province
Area Classification Agriculture Area, Semi-Agriculture Area
Site Area 8,312㎡
Building Area 1,284.7㎡
Total Floor Area 3,954.9㎡
Building Coverage Ratio 17.98%
Gross Floor Ratio 44.38%
Stories 1 Basement Floor, 5 Stories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본관사진 : 박영채, Photographer : Park Young-Chea



지붕 상세

포항시가지를 훌쩍 벗어나 남쪽으로 한참을 내려가다 보면 오천이라는 소읍이 있고, 여기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 갈평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다. 이 마을의 어귀에 오래 전에 세워진 수녀원이 있고, 수녀님들이 여기서 과수원을 가꾸고 밭일, 들일을 하면서 수도하는 수도장이 야산에 자리잡고 있다. 이 야산이 피정의 집이 들어선 위치이다. 간혹 지나가는 차량 소음외에는 바람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가 전부인 조용한 곳으로 일상에서 벗어나, 신앙인들이 피정하기에는 그야말로 천혜의 조건을 두루 갖춘 곳이다.

건물은 기하학적으로 타원형의 평면 형태와 1면 경사지붕을 갖는 형상으로 계획되었다. 동서방향인 타원의 장축이 건물의 전면동과 후면동을 구분하게 된다. 전면동은 건물의 현관과 사무실, 식당과 소성당, 강당, 강의실 등의 관리, 교육 기능과 수녀원을 배치하였고, 후면동은 전체를 피정의 집으로 계획하였다. 피정의 집인 후면동은 경사지를 그대로 이용하여 전면동보다 레벨이 반층 정도 높게 계획 되었으나, 전면동으로 인해 외부와 격리되게 배치시켰다. 타원형 평면의 중앙부에는 동심형의 중정이 약30m×20m의 크기로 계획되었다. 중정은 건물의 전후면동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중정은 일종의 마당으로 교육, 야외미사, 사색, 휴식 등의 장으로 활용되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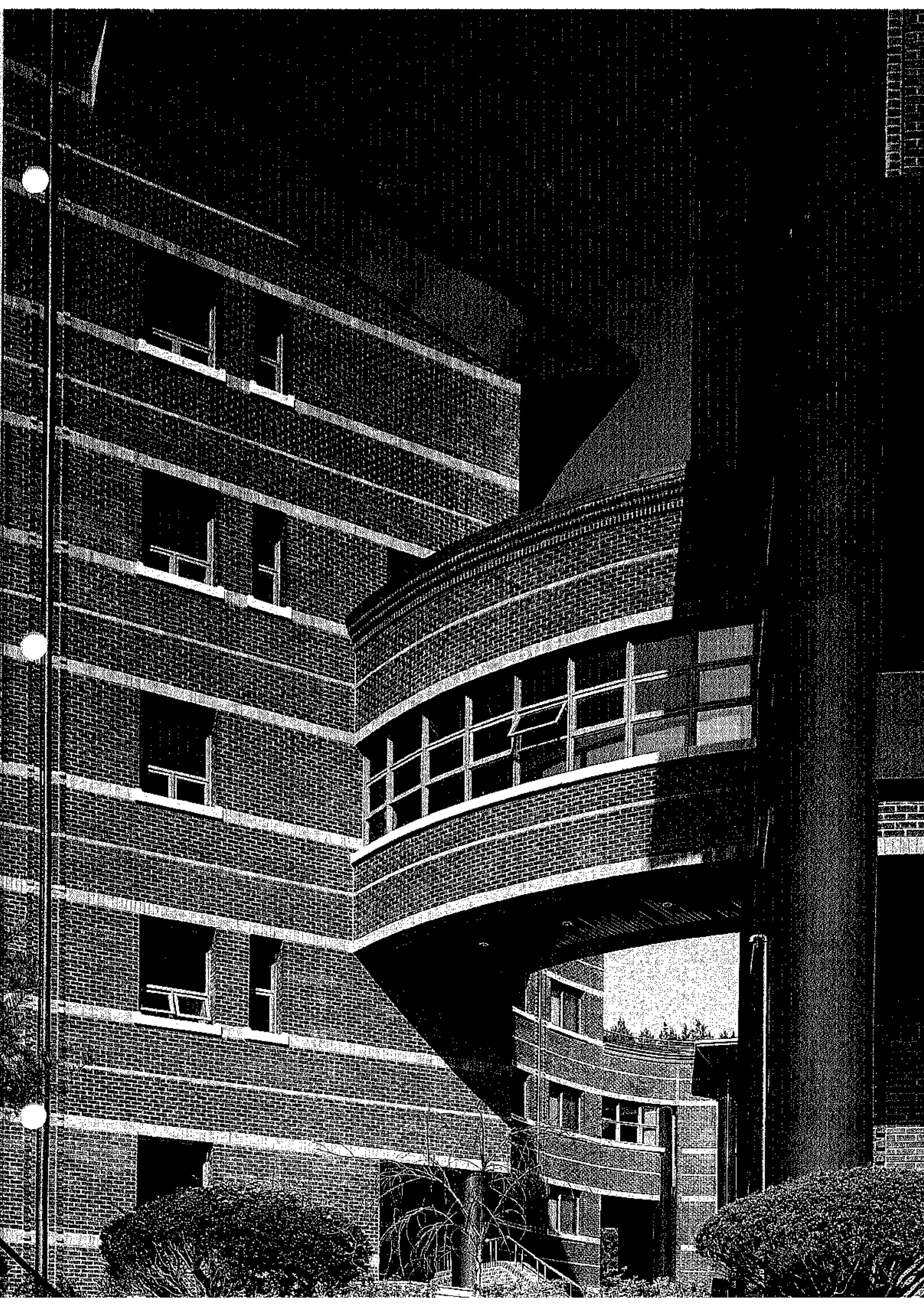
건물의 외장은 전부 적벽돌로 마감하였고, 중정 방향으로 경사진 지붕은 동판으로 덮었다. 좌우의 일부 기둥과 보를 노출시켜서 입면에 변화를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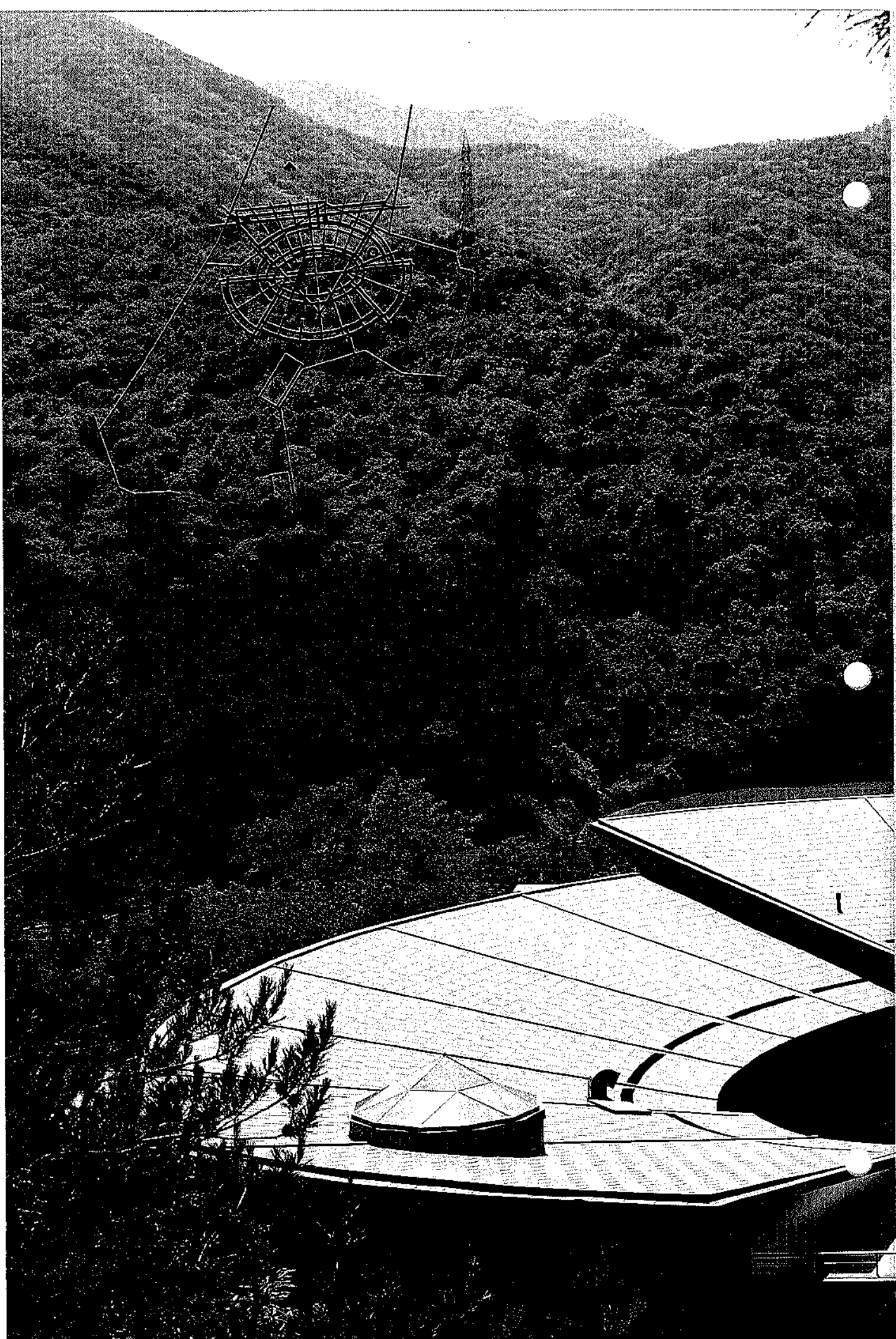
On the south of Pohang city lies a small town of Soeub, and a bit far from this town is even a smaller village called Kalpyung. Near the entrance of the village is an old Convent, where on a hill, with orchards and fields, nuns work and contemplate. This hill is the site for the House of Ret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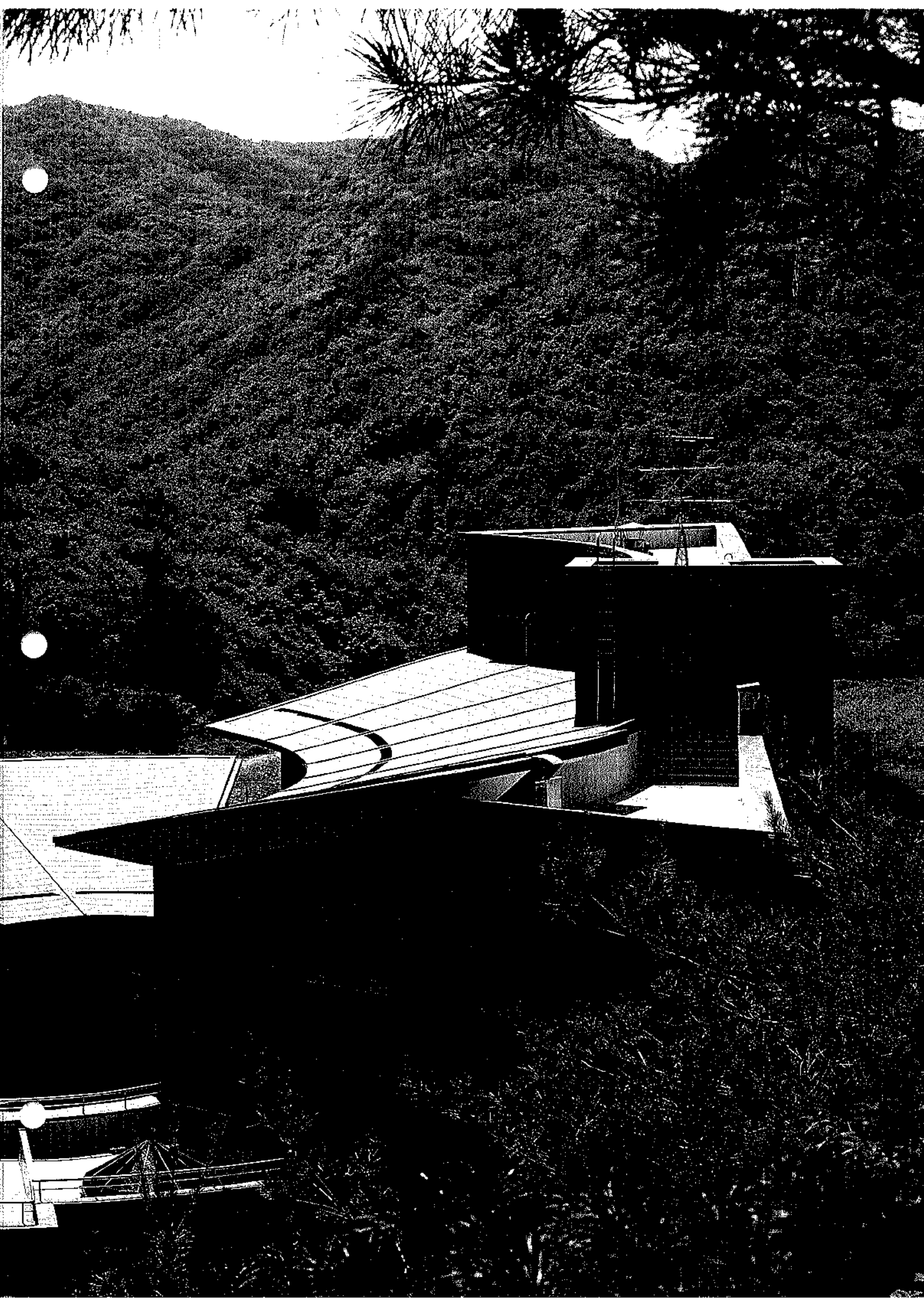
Besides the rare noise of automobiles passing by, all you can hear there is the sounds of the wind, the birds, the nature. It is a place of peace totally departed from the everyday life, which provides an ideal condition for retre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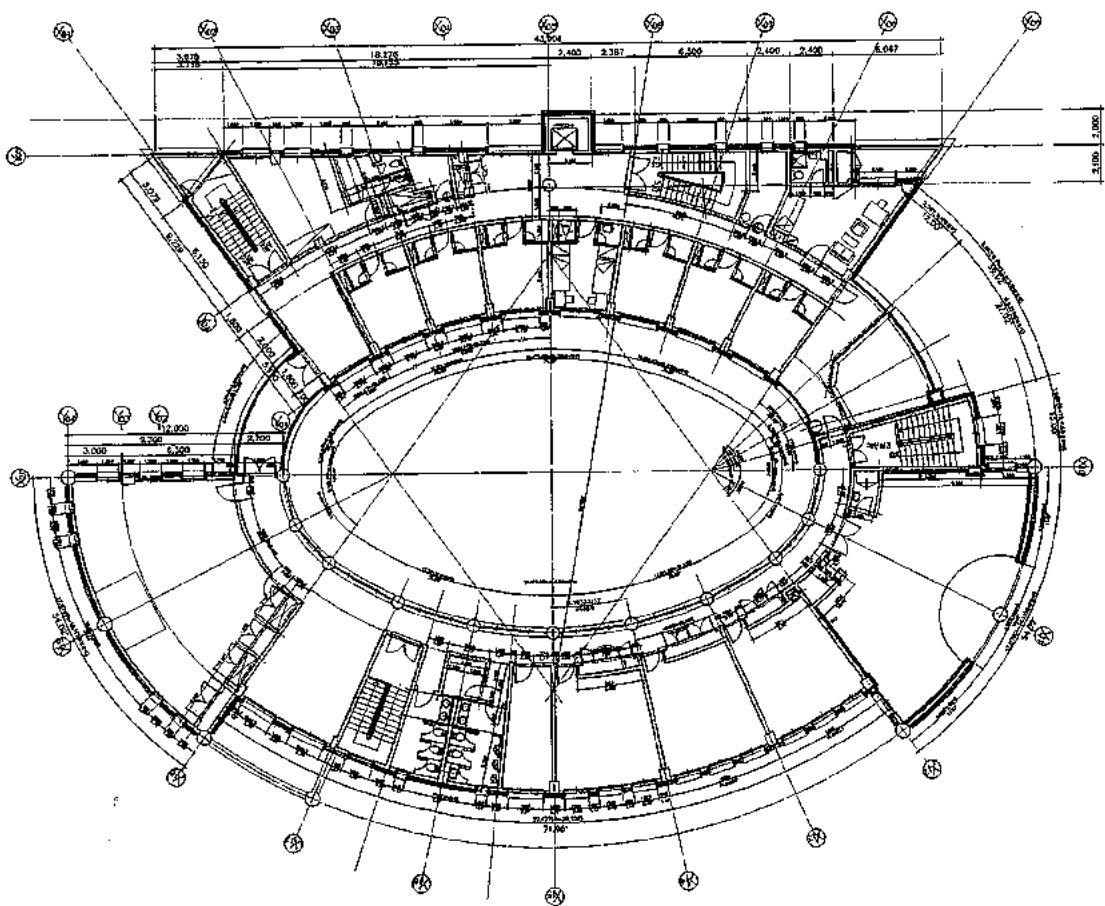
The plan of the project was conceived as an oval shape with a single slanted roof. The apseline of the oval parallel to the east-west axis separates the building into two parts. The frontal piece holds the entrance to the facility, education and management-related spaces such as the offices, cafeteria, small auditorium, chapel, lecture halls, and the convent, whereas the whole rear part is used as a space of retreat. This latter portion uses the geography of the land and is half-level lifted from the frontal building, which blocks the house of retreat from the outside world. In the middle of the oval-shaped layout is a court with the dimension of 30m x 20m. The court is surrounded by the two buildings, and is used as a garden for education, rest, meditation and religious ceremonies.

The exterior finishings were done by red bricks, and the slated roof towards the court was covered with copper plates. Portions of the columns and girders were exposed to add variations to the ele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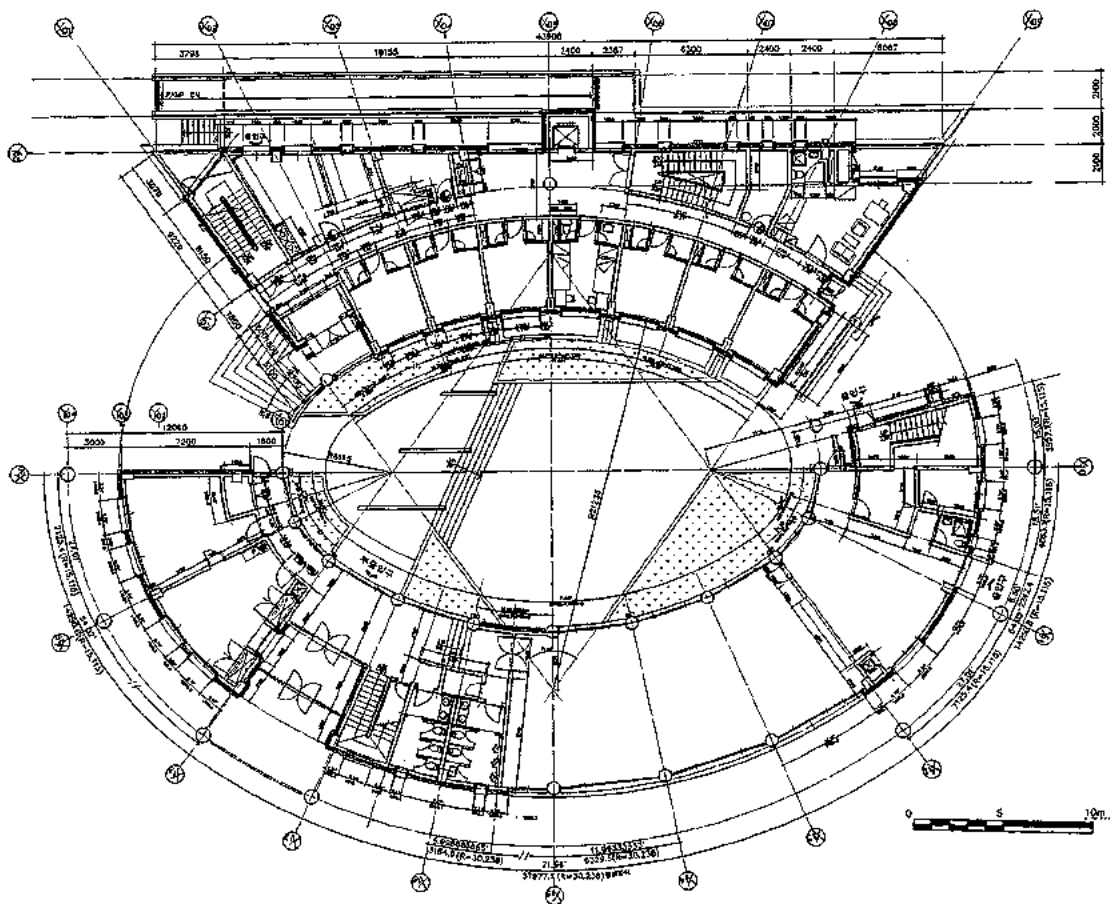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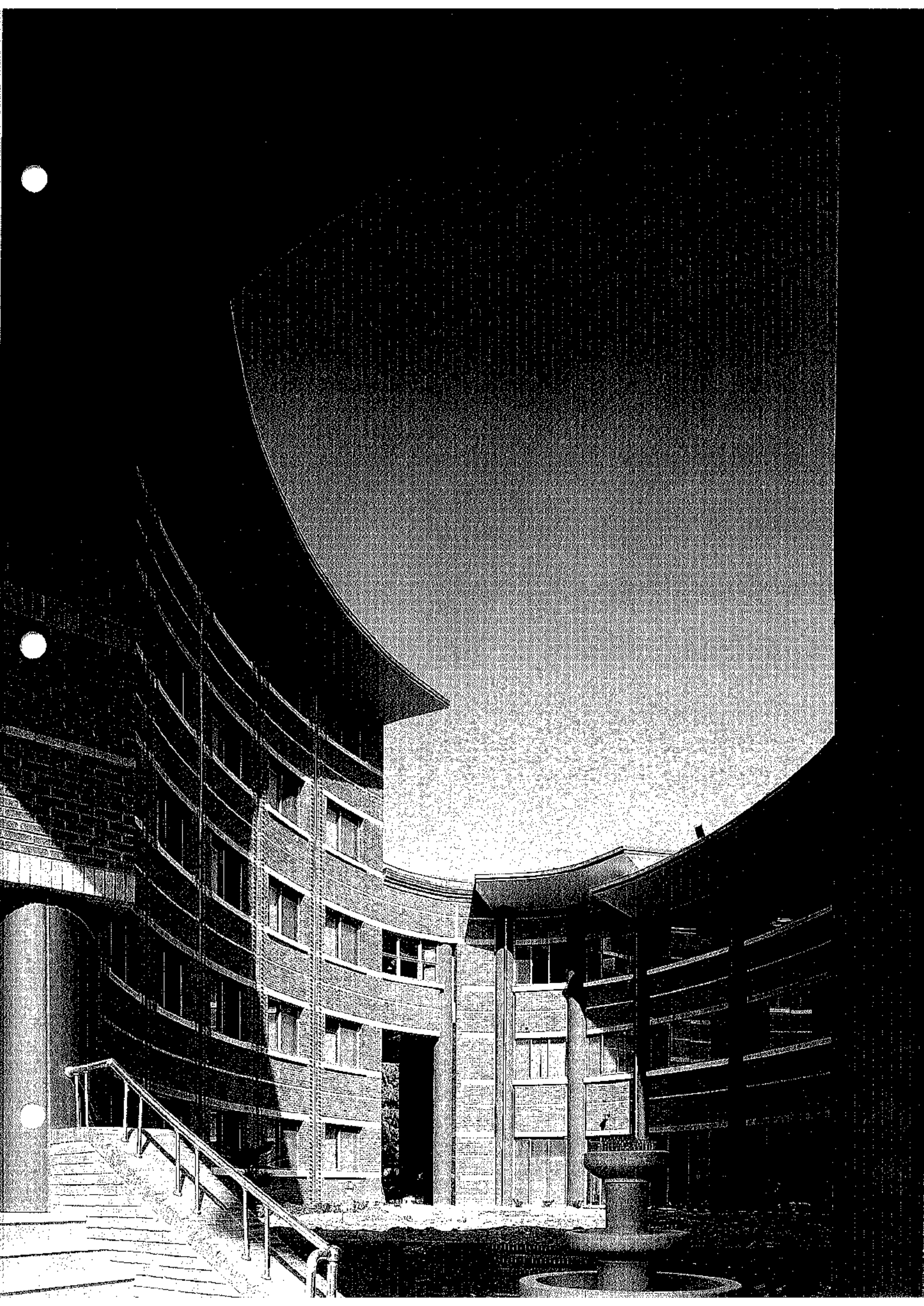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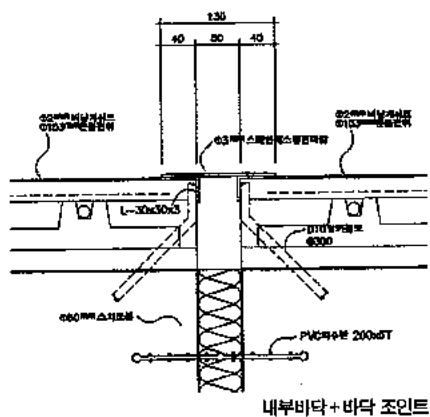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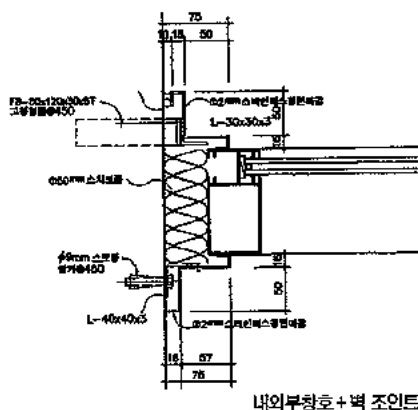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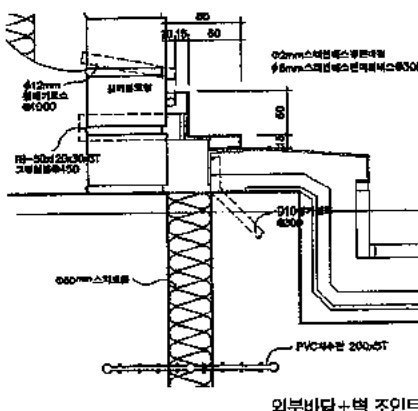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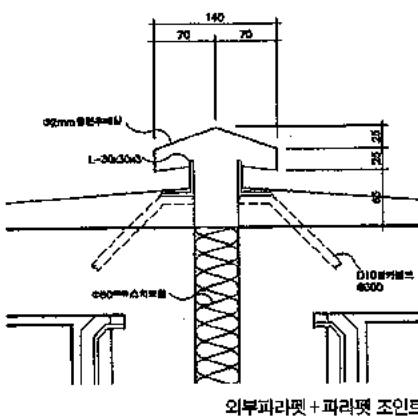
내부바닥+바닥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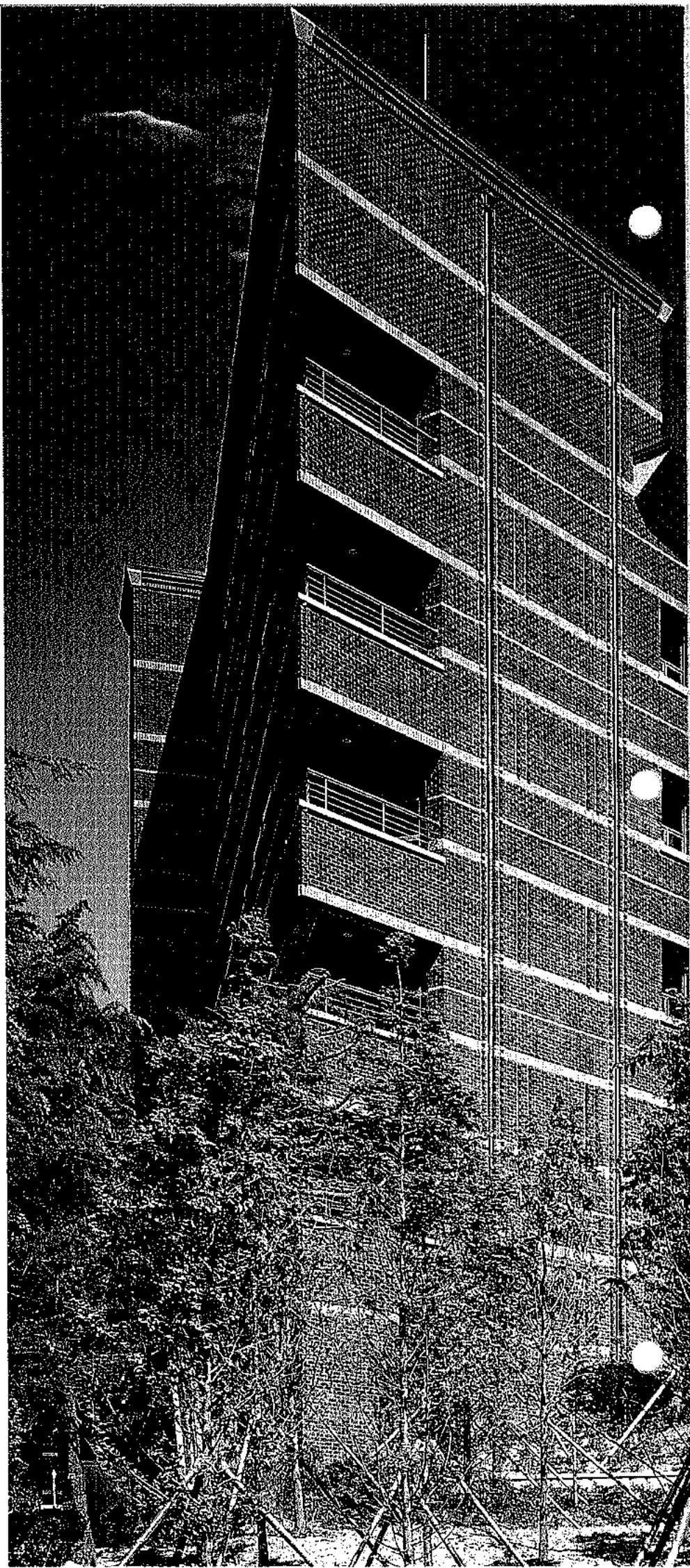
내외부랑랑호+벽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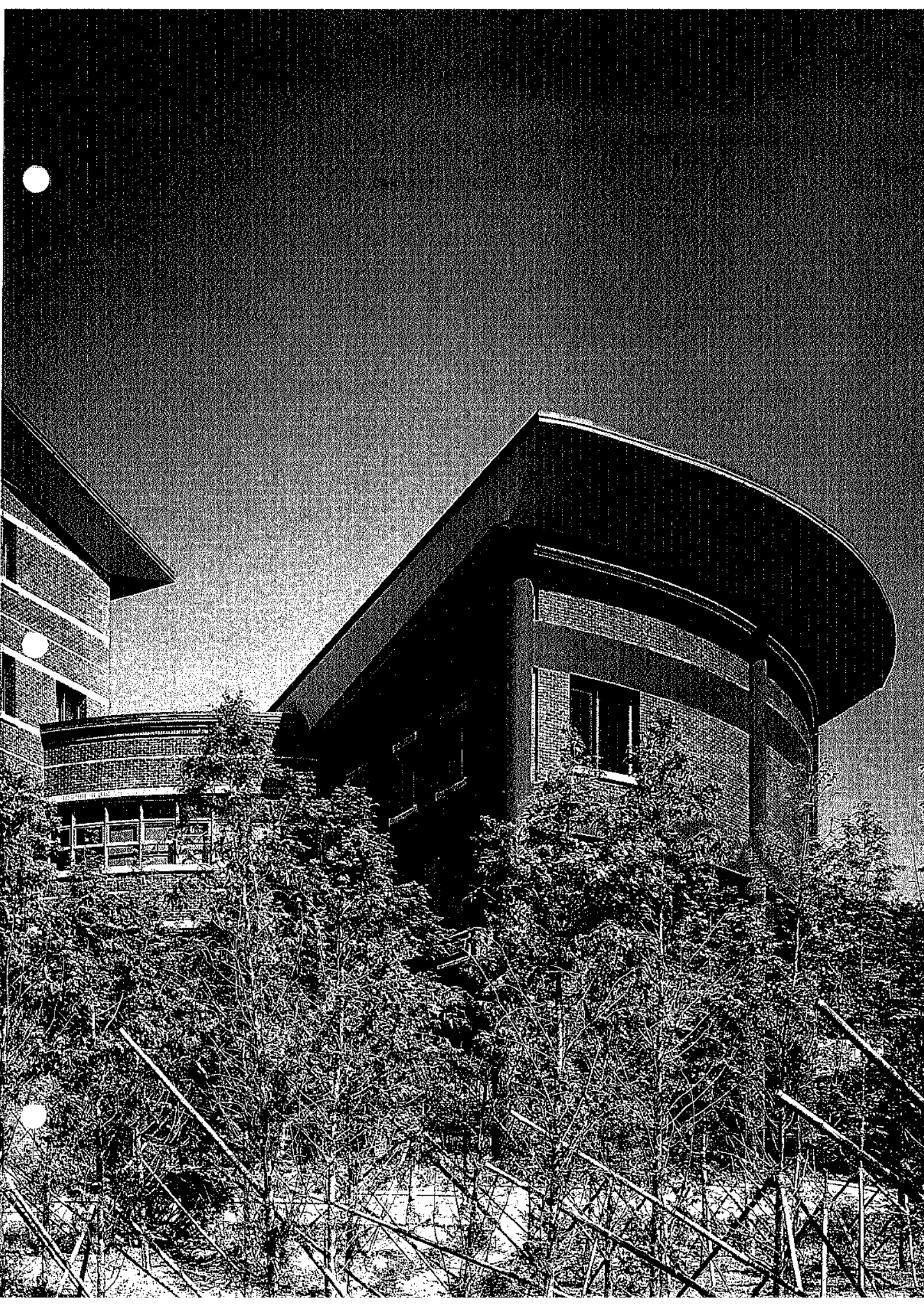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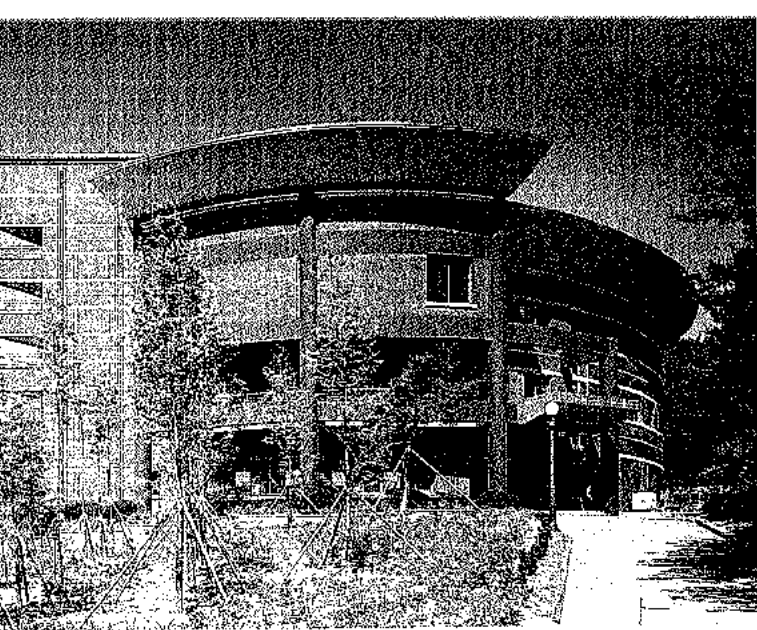
외부바닥+벽 조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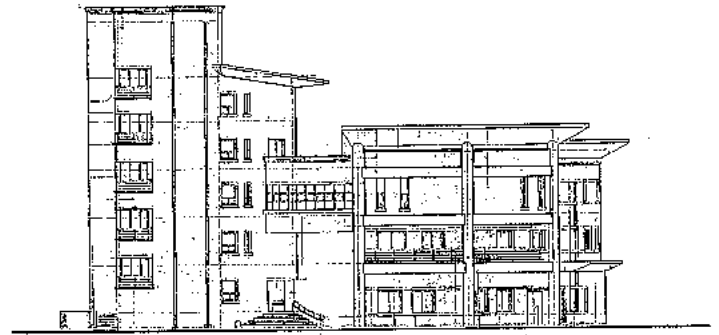
외부파라넷+파라넷 조인트







경관녹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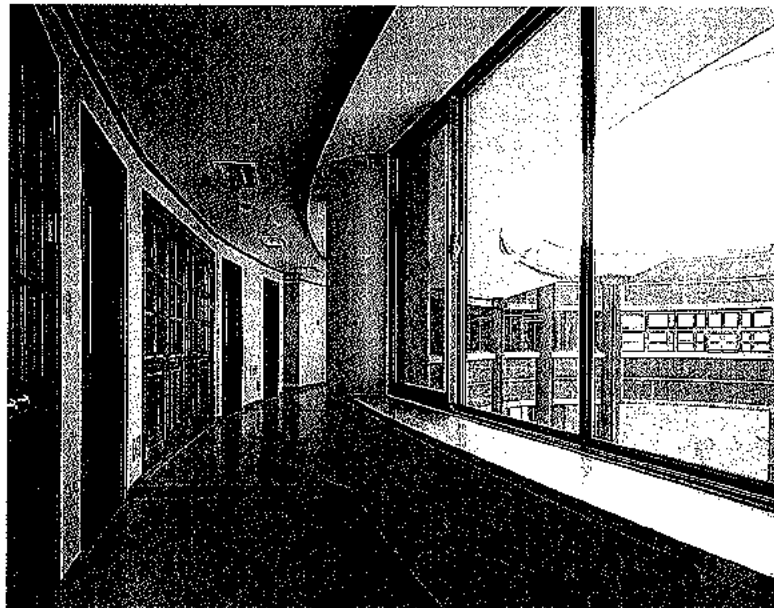


좌측면도





3층 성당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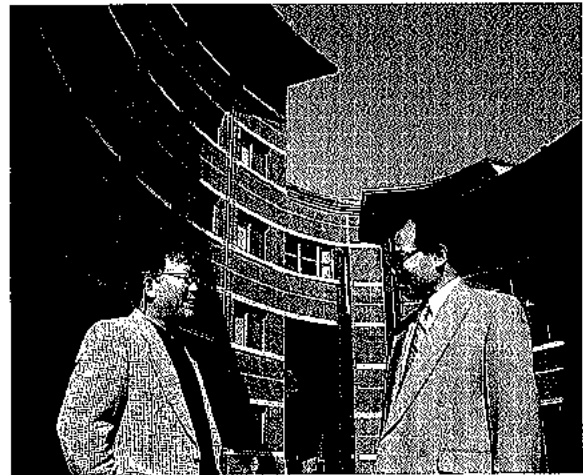


기하학적 볼륨의 완결성과 전통성의 현대적 수용

The Wholeness of Geometrical Volume and
the Contemporary Adaptation Tradition

대담자/김형우(홍익대 건축공학과 교수)
설계자/강석원(그룹가 건축도시연구소)
by Kang Suk-Won VS Kim Hyeong-Woo

일 시/98. 5. 20(수) 오후 14:00
장 소/갈평 피정의 집 응접실



「갈평 피정의 집」 중정에서 대담을 나누고 있는 강석원(왼쪽)과 김형우(오른쪽)

최근 건축가 강석원씨의 작품이 건축매체에 소개된 적은 드물다. 건축사협회에서 분당의 시범주택단지에 있는 연립주택을 추천하여 진행했으나, 강석원씨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 갈평리 11-2번지에 소재하는 갈평 피정의 집을 대상작품으로 정하였다. 이전에 이 작품을 전혀 접한 바 없는 대담자와 비평자는 현장에서 건축물을 답사한 뒤 대담에 들어가기로 하였다. 아침 7시부터 김포공항이 짙은 안개에 묻혀 10시30분까지, 포항행 비행기의 탑승안내 방송을 기다리며 건축가, 사진기자, 편집기자와 함께 도면을 펼쳐가며 미담의 방문자와 건축을 상상해 보았지만, 실감이 오지 않았다. 오늘날 공개가 가능하다는 제약된 시간과 현지의 기상이 걱정되었지만, 막상 포항에 도착했을 때에는 초여름 같은 날씨가 기다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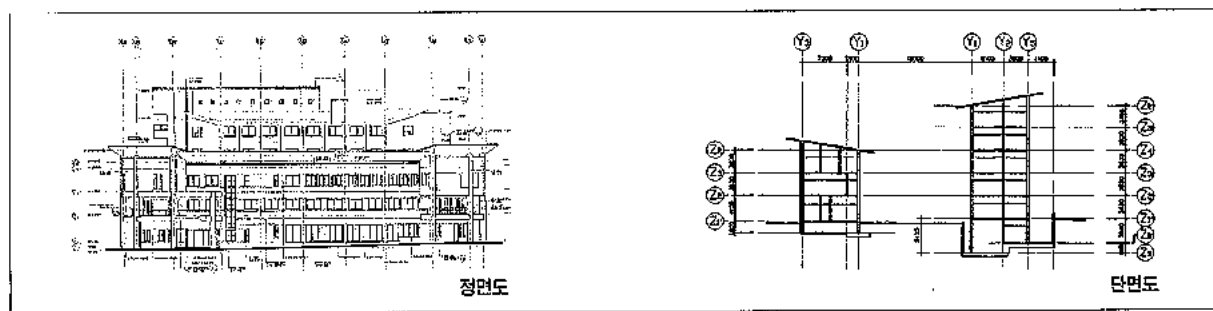
김형우_____우선 갈평 피정의 집에 대해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강석원_____예수성심수녀원 소속의 수녀는 약 5백여명인데 1년에 1회 이상의 피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정의 집이 기본이지만 이를 관리할 수녀원과 연수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두동의 건물이 분리되면서도 통합된 건물군을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3층의 수녀원과 5층의 피정의 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에서 각각 연결 통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수녀들을 위해 사용되지만, 이밖에도 일반신도와 외부인의 연수에 이용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외부와의 교류는 병원과 연계하여 신체무자유자의 일시적인 시설로도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형우_____최근 중정을 채택한 일련의 건축물이 많은데, 특히 종교 관련 건축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설계의도에서 추구하고 계신지요?

강석원_____생활공간은 자연 속에 집을 짓더라도 조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축물로 에워싼, 건물의 영역을 규정하는 경계가 되는 공간을 지니기 위해서 중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중정의 의미는 건축물의 사용자가 누리는 공간이며, 격의 없는 공간으로써 외부와 차단되게 하는 시도를 반영한 것입니다. 마드리드 소재 주스페인 한국 대사관의 경우는 대사관의 기능상, 외부에서 드러나지 않는 차폐성, 방호성 시각적 프라이버시를 획득하려는 데 있으며, 특히 지역적 건축과 전통의 반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기후와도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강화에 있는 인천 가톨릭 신학대학 경우에는 신학도들이 누리는 숙정한 생활공간의 확보에 있습니다. 성당을 중심으로 기숙사동과 교사동이 에워싸고, 그 속에서 생활하는 신학도들의 영역을 지키려는 데 있습니다. 갈평 피정의



피정의 집

집의 경우에도 피정을 하는 수녀들의 상징적 공간영역으로 관상과 내향적인 생활의 반영에 주안되어 있습니다.

김형우_____ 피정의 집은 폐쇄적이거나 온둔적인 입지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 종래에는 낮은 건물들이 마을들과 어울려지거나 지면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평리의 경우는 상당히 높은 건물의 매스가 전원에 우뚝 솟아 있으며 너무 건물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한 대로 생활공간을 가리거나, 개구부를 불투명하게 처리하는 등의 어려움이 있지 않았는지요.

강석원_____ 피정의 집은 가리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일반적으로 가리고 있습니다. 피정의 집, 기숙공간에서는 외부를 가려서 금욕적인 신앙생활의 공간을 의도하였습니다. 밖에 투명 창호를 두고 내부에 창호지 문을 둔 것은 일상과 다른 공간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죠. 피정의 집은 중복도를 채우고 있는데, 일반적인 단위 실은 중정을 향해 있고, 층별로 사감실과 운동방은 보이지 않지만 발코니 쪽으로 나가면 전원을 전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휘어진 복도에서는 직접 복도 끝의 개구부는 보이지 않지만, 중앙에 있는 엘리베이터 홀에도 반투명한 창호지의 개구부가 있기 때문에 어둡지 않고 마주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사감실과 큰 단위 실은 단체가 왔을 때 공동으로 생활하는 방이기도 합니다.

김형우_____ 선생님의 작품에서 기하학적인 매스와 구성은 지속적으로 변용 발전하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정방형, 원형, 팔각형, 타원형과 같은 평면형을 채우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요?

강석원_____ 사각형은 짧은 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범속한 디자인이라면 원형과 타원형 등의 특이한 형태는 일상에서 체험하지 못하는 볼륨의 감각을 제공합니다. 원형은 큰 볼륨으로 되었을 때 내적인 공간의 구성이 완결됩니다. 김수근 선생님이 말한 대로 「원형의 볼륨에서 완결성을 추구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크지 않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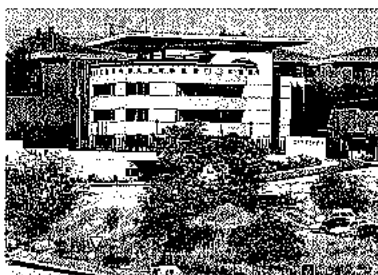
시설이기 때문에 타원형의 형태를 채택해 중재적인 해결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짧은 볼륨일 때 수평따를 강조해 이러한 형태적 제약에서 벗어나려고 했지요. 평면을 택한 것은 수녀원에서 운영하는 피정의 집이 여성을 위한 건축이기 때문에 여성의 모태적 공간이나 부드러운 여성의 감각을 표현하려고 시도한 것입니다.

김형우_____ 갈평 피정의 집에서 외부로 드러난 원주와 보의 결구와 내향적인 중정공간, 주두를 가지고 있는 원주의 표현 등은 선생님이 추구하고 있는 한국 전통공간의 표현과 디테일의 구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통공간의 표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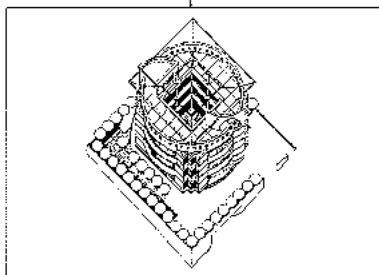
강석원_____ 전통공간을 콘셉츄얼하게 표현하는 것은 처음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생활하는 공간에서의 공간적인 감각을 누리기 위해서는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는 공감적인 체험의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전통의 현대화는 주장이 아니라 설득력있는 감각의 공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평면적인 공간의 구성으로 중정을 채택하였다고 전통적인 공간이 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형적으로 재료의 느낌과 색채를 적용하는 것이 좀더 쉬운 방법입니다. 내부공간에서 기능적인 접근을 시도하여 실용성 있는 공간을 확립하는 것이 나의 꾸준한 작업 속에 이어지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하나씩 더 생각하여 완결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김형우_____ 선생님의 작품에서 정방형 격자의 개구부와 서구적 감각을 지닌 색채의 사용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색채의 사용에 나타난 일관성은 어떤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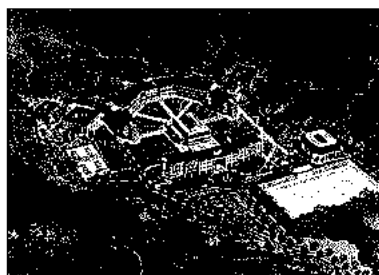
강석원_____ 색채는 공간을 풍부하게 하고 특징있게 하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맛있는 공간의 대비와 자극일 수 있으며, 평이한 공간을 활력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질제와 균형을 지니도록 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수성페인트와 같은 일회성의 색채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건축의 색채는 재료의 색채로써 영속성을 지녀야 합니다.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주스페인 한국대사관



인천 가톨릭 신학대학

다. 개구부의 색채는 건축의 내·외부를 콘트롤하고 있으며, 제가 주로 즐겨 사용하는 적벽돌의 재질에서는 연두색, 초록색과 같은 보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적인 특성을 지니는 문 짝판, 내부공간의 벽면에서는 노랑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갈 평 피정의 집에서는 외부의 원주와 보 등에서 노출콘크리트 위에 우리 전통건축의 기동색인 적갈색을 사용하였는데 최근 복원된 창경궁과 종묘 등의 고건축에서 적갈색과 초록색 계열의 색채의 대담한 배색조화에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김형우 _____ 1970년대에 귀국하여 보여준 선생님의 건축은 구성적이고 면적인 표피의 구성과 기능적인 공간의 구성으로 상당히 깔끔한 건축의 표정을 가졌습니다. 1980년대에는 포스트모던한 건축의 영향이랄까 서구지향의 고전적 건축을 추구하는 성향을 보이기도 합니다. 강남의 에스모드 빌딩에서는 수평띠를 강조하고 있고 갈평 피정의 집에서도 수평띠가 보여지는데, 디자인에 어떤 원칙이 있는지요?

강석원 _____ 적은 볼륨에서 수평선은 안정감을 나타내기 때문에 주로 사용되고, 벽돌로 외벽에서는 벽돌의 단순한 면적인 처리보다는 벽돌의 다양한 재질과 색채를 구사하여 풍부한 외관을 이루려고 한 것에 있습니다. 창대의 아래 인방을 화강석으로 처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조적조 외벽에서 수평띠는 벽돌쌓기의 하루 적정량을 쌓는데 필요한 적도를 제공해 줍니다. 역시 외벽 마감이 벽돌로 이루어진 인천 가톨릭 신학대학의 경우에는 핑크색과 라이트 브라운의 재질이 사용되고 있는데, 고식적인 벽돌의 면적 채움에서 벗어나 재료의 풍부함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김형우 _____ 3층의 성당에는 제대 뒤로 개구부를 뚫어 자연을 차경으로 사용하고 있던데...

강석원 _____ 제대 뒤를 개구부로 개방하는 것은 국내에서 시도한 예가 없기 때문에 성직자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요. 미사를 볼 때 신부를 중심으로 하는데 개구부를 통해 배경이 들어오면 산만해지고, 주변에 매료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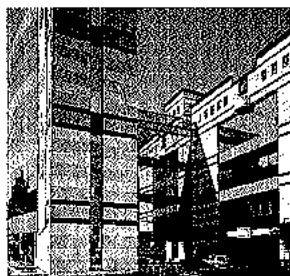
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설득을 하였습니다. 제대 위에 천창을 뚫어 햇빛을 유입하면 집전하는 신부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배경은 자연히 흐려진다고 봅니다. 또 미사는 하루에 한 번정도 열리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3번정도 되기 때문에 긴 시간을 자연과 대화하면서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시를 벗어나 전원의 피정의 집에서는 외부와 내부가 소통되고 하늘과 교호할 수 있도록 의도했습니다. 성직자들은 전면 에 스테인글라스를 채움하려고 했습니다만 저는 사계절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이 자연의 무한한 아름다움이고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형우 _____ 아직까지 중정의 마당은 완결되지 않고 생소한 디자인의 분수가 시공 중에 있는데, 처음 의도한 계획과 차이가 있는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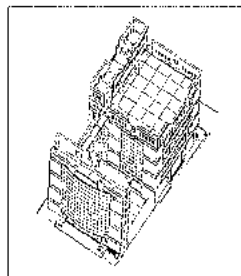
강석원 _____ 건물주 측에서 다양한 욕구와 의욕들을 직접 시공하여 채우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왕사 위에 유색 조립식 볼록을 깔고 타원형의 한쪽 모서리를 사선으로 잘라 내주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부출입구의 축선을 맞춰 3개의 병렬된 H형강 띠를 바닥에 넣어 액센트를 주려고 했습니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과장된 분수가 건축가의 의도를 떠나 건물주 측에서 강행하고 있습니다. 중정은 안전한 공간으로써 숙정과 생활의 영역으로써 다양한 액티비티를 기대해 봅니다.

김형우 _____ 처음 이 건물의 도면을 보면서 타원형의 지루한 면이나, 형태 종속의 디자인이 주는 무위를 생각했습니다만, 현장에서 살펴 볼 때 중정으로 통하는 에디쿨러 외 큰 공허부와 3층의 수녀원과 5층의 피정의 집이 보여주는 볼륨의 위계, 두 볼록 등이 3층에서 연계되므로 해서 이어지는 공간의 완결감과 외벽의 물출과 기둥과 핫드레일이 연출하는 로기아(Loggia)의 구성 등은 무한히 다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배치도에서 도면 대지의 형상과 건물이 앉은 위치가 너무 콤팩트하게 걸려 있던데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강석원 _____ 설계 초기의 배치는 자금과 달랐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필지가 한정되어 있고, 좀더 자유로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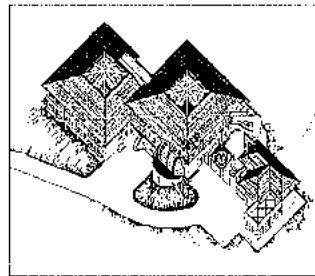
에스모드 빌딩



에스모드 빌딩



성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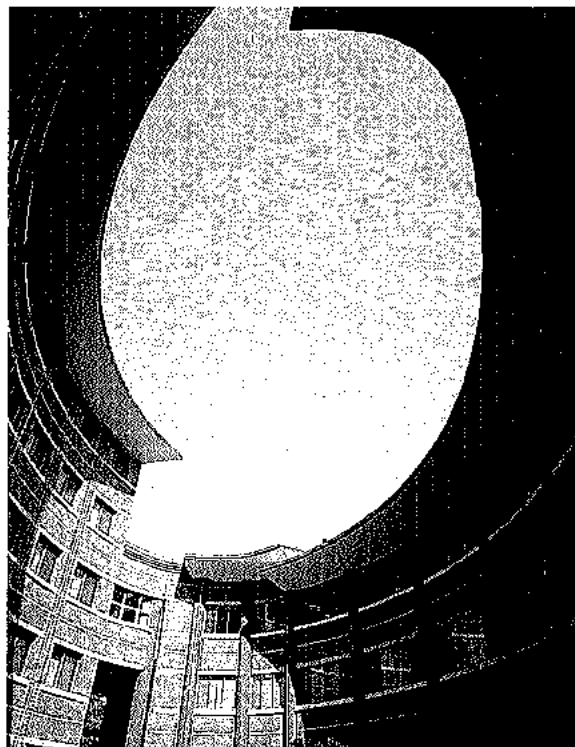
성지원

배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허가과정과 시간을 요했습니다만, 더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어 현재의 상태에서 대지의 경계는 다르게 펼쳐진다는 것을 상정하였습니다. 기존의 사제관과 일상 이 건물을 관리하는 수녀원 건물을 남향으로 배치하여 기능적인 면과 식당 주변이 양호한 수림대로 막혀 있어 시각적인 여유로움과 풍치를 즐기도록 하였습니다. 도로측에서 보면 특이한 건물의 외관을 주목하게 되는데, 가끔 지나치는 여행객들이 호텔로 알고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식재를 하여 도로측에서 좀더 가려지도록 계속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 확실적인 수준의 식재는 좀더 재고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도로 측에는 수벽을 이루고 그 안쪽의 외부 공간에서는 면적이 조경과 물, 조각 등이 안온하게 펼쳐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형우 _____ 타원의 외측으로 높게 솟아있는 경사지붕은 우리 전통건축의 상층하는 지붕의 느낌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경사면의 지붕을 의도한 특별한 배경이 있는지요?

강석원 _____ 이미 마드리드의 스페인 주재 한국 대사관 등에서 휘어진 지붕의 양감을 시도한 바 있습니다. 전통건축 지붕의 현대적인 표현에 주안하였고, 계속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만 원래에는 아래서 쳐다보는 경사면을 알루마늄 복합패널로 시공하려고 하였습니만 지금처럼 콘크리트 면으로 되어 둔중한 볼륨이 약간 이질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쉽습니다. 내부에서 바라보는 휘어진 지붕면의 구성은 의도한 대로 힘찬 내부공간을 포획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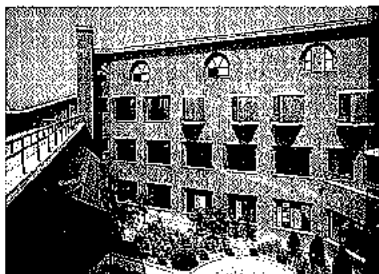
김형우 _____ 각진 모서리 면에서 벽돌이 어긋나면서 만들어지는 벽돌의 디테일 처리와 안쪽에서 물 흐름을 삽입하게 수직으로 띠를 이룬 절곡면과 원형기둥으로 내려오는 물 흐름을 위에서 주두처럼 돌려서 처리한 것과 같은 많은 건축적 디테일의 완결성은 특히 조적조 벽돌 외벽구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여온 풍부한 시공에 대한 감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시공이 이루어질 때의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파정의 집

강석원 _____ 설계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설계기간을 가지고 적절한 시공단가를 확보해 건축주에게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시공자가 경기의 변화나 다른 여건의 변화로 일관성있는 작업이 되지 못하고, 변경을 시도하기 때문에 건축주와 설계자가 통일된 집행으로 시공을 리딩하는 것이 끊임없이 추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에서 안정된 건축인력을 가지지 못하고 집행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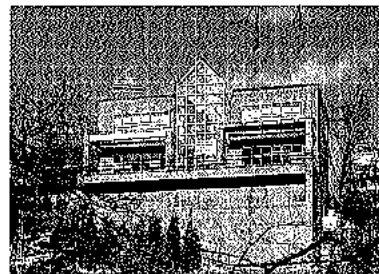
김형우 _____ 그 동안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직을 맡아 오면서 국제적인 한국의 건축적 위상을 높인 것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임중 발표한 작품이 많지 않지만 선생님은 국제적인 시각에서 한국건축의 발전과 현대적 수용이 근년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더욱 작품세계에 정진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랜 시간 면담에 응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천주교 대전교구청



천주교 대전교구청



구름가 건축 사옥

내성적(內省的)건축 Intropective Architecture

신재익/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hin Jai-Eok



갈평과 루도비코 신부님

갈평 피정(避靜)의 집은 도시에서 제법 떨어진 산골에 위치하여, 도시의 혼잡과 먼지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갈평은 경주와 포항의 오른쪽 중간쯤에 위치한다. 경주쪽에서 접근하자면 경주국립공원을 가로지르는, 유명한 드라이브 코스 중의 하나인 경주시에서 감포로 넘어가는 4번 국도를 따라 산을 넘어가서, 다시 기림사쪽으로 꺾어져 포항으로 넘어가는 산길인 929번 지방도를 따라 노루목을 넘어 내려가다 보면, 넓다란 저수지 진전담을 만나게 되고, 이를 돌아가면 오른쪽에 만난다. 피정의 집 밑으로 예전의 성당 등 몇 개의 작은 집들이 남아있고, 건물 뒤로는 바로 갈참나무, 소나무가 우거진 산으로 연결된다. 프랑스 태생의 남 루도비코 신부(루이 데랑드 1895-1966)는 1923년 우리 나라에 입국하였고, 처음에는 부산 범일동에서 활동하다 1934년 영천 일대에 자리를 잡았다 한다. 그가 1935년 영천에서 몇몇 마을 처녀들을 모아 창설한 예수성심시녀회는 이제 5백여명으로 늘어났고, 현재 대구에 본부를 두고, 영남 일원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피정의 집이 들어선 주변 일대는 루도비코 신부가 사회봉사를 위해 마련한 자리로써, 은퇴한 후에도 거주하던 건물이 남아있기도 하다(신축건물 옆에 일제시대에 지어진 자그마한 사제관이 남아있으며, 루도비코 신부가 사용하던 흔적들을 찾아 볼 수 있다).

건축가 강석원과 그의 작품

건축가 강석원은 이제 막 60대에 들어선 원로 건축가로서, 최근까지('96. 2 ~ '98. 2)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왔다. 그는 대학을 마친 후 청년기의 중요한 10여년을 프랑스에서 건축활동을 한, 우리 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경력의 소유자로서, 1978년 귀국한 이후 다작은 아니지만, 주택을 비롯하여 대학 건물, 사무실, 천주교 성당, 수도원, 해외 공관 등 다양한 작품 활동을 했다.

그의 작품 중 대표적인 작품을 살펴보면, 기념비성이 뛰어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탑('82), 매성과 평면에

서 기하학적 구성과 합리적인 성향을 보여준 그룹 가 사옥('86), 세련된 입면 처리와 조형성을 보이는 에스모드 빌딩('89), 과감한 조소적인 성향의 천주교 남천교회('91) 등을 들 수 있다. 그의 대부분의 작품은 일견 평범해 보이기도 한다. 그렇게 보이는 이유는 단정하고 엄격한 매스를 지키면서 합리적인 내부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건물 외관도 현란하지 않은, 기하학적 구성을 이루고 있다. 그의 이러한 작품경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건축에 관한 그의 사고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의 작품들은 작가의 말을 빌리자면, 건강한 건축¹⁾, 혹은 정확한 건축을 지향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건강한, 혹은 정확한 건축은 형태의 간결성과 경제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이야기하는 '좋은 건축'은 철저한 자기 제어의 과정을 거쳐 남은 정제된 것이다. 그는 스스로 건축이 얼마나 건강해 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 주 건축적 관심사²⁾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에 대해 그는 명확한 조건의 해석과 기술적 문제의 해결을 지적하였다. 그는 하자를 최소화하는 것까지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그의 사고는 건축가의 사회적인 책임을 의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기 사옥에 대해서도 외적 책임을 언급하고 있다³⁾ 따라서 그가 이야기하는 건축가의 책임은 단순히 건축주의 입장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적인 혹은 물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즉 사회를 이끌어 나아가야 하는 존재로 건축가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건축가의 책무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갈평 피정(避靜)의 집

이 집은 완만한 경사지를 수평으로 고른 다음 남향으로 배치되었다. 주변은 준농림지대로 한적한, 전형적인

1) 건축가 강석원, 한국의 현대건축가론/9, '공간' 지, 87, 10, p.93, 박길용과의 대담.

2) 앞글, p.94.

3) 작품노트/강석원, '정형성에서의 표현', '공간' 지, 86, 4, pp. 89, 그룹 가 사옥에 대한 박길용과의 대담.

산골 마을이다. 인접한 필지들도 수녀회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거나 여러 개의 필지 중 아마도 대지로 구획된 부분만 이용하여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지구획이 불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서 현장에서 느끼는 자유로운 배치는 배치도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다. 배치도에서의 배치는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여유가 별로 없도록 교묘하게 건물이 끼워 들어가 있다. 전체 구성은 타원형의 중정을 가운데에 두고 건물이 둘러싸고 있다. 배치평면은 타원의 윗부분에 삼각형을 끼운 형태로 되어 있다. 건물은 기능에 따라 두 동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북쪽동이 피정하러 모인 사람들의 숙소로 사용되는 5층의 건물이며, 남쪽동은 공용시설동으로 1층에는 사무실과 식당, 2층에는 수녀원, 3층에 성당과 소강당, 그리고 회의실들을 두어 기능적으로 숙소들과 연결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피정의 집은 '피정을 위한 집'을 말하며 피정의 사전적인 의미⁴⁾는 "避驂靜念" 혹은 "避世靜修"의 줄임말로, 풀이하자면 소란함(혹은 세상)을 피하여(避) 조용히(靜) 묵상(혹은 자신을 닮음)에 잠긴다는 뜻이다. 평상시의 생활에서 물러나와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4세기까지는 수도자나 은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개념이었으나 오늘날에는 평신도에게까지도 확산되어, 세부적인 활동 내용은 대상 집단이나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건물의 경우도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나 주로 예수성심수녀회의 5백여 수녀들이 사용하기 위해 지어진, 정통적인(?) 피정의 집이다. 안해준 수녀의 말씀에 따르면, 1년에 한 번은 만 8일씩 하느님에게 가까이 가는 기회를 갖는데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라 한다. 구도자들도 자주 자기 욕심이 생겨나 이러한 수도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자기 방식대로 하기 때문에 피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건물의 주용도는 한 번에 70여명씩, 이 수녀회의 수녀들이 모여서, 기도 및 집회를 통해 일종의 재교육을 받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예산도 그 동안 수녀회에서 개미처럼 모아온 저축을 이용하였다고 한다.

전체적인 건물의 구성을 숙소동과 공용시설동으로 나누었는데, 중정을 사이에 두고 묶은 것은 건축가의 피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되기도 하지만, 또 더 나아가서는 건축가의 건물에 대한 개념과도 관련이 있다. 이 건물에서의 중정은 건축을 하나의 완결체로 만들어 준다. 구도자들의 생활이 속에서 떨어지기 위해서는 단지 장소가 산간벽지에 위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건축물도 마치 상처를 달여 있어서 바깥과는 단절되도록 할 수 있다. 숙소동의 각 방은 남향을 하고 있어서 창을 통해 보이는 것은 중정과 건너편 공용시설동이다. 그만큼 외부와는 단절되는 셈이다.⁵⁾ 다시 말하자면 숙소에서 지내는 동안에는 철저하게 외부와 떨어진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공용시

설동과 함께 어울려 같이 숙박한 그룹이 공동의 생활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이 건축물은 공동체의 이상적인 세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건축가 강석원은 지속적으로 중정을 이용한 건축을 지어왔다. 성지원('87), 천주교 대전교구청('91), 스페인 한국대사관('96) 등의 건물에서 중정은 전체 건물의 구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리고 그의 사옥이나 에스모드 빌딩도 넓게 보면 중정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복잡한 골목길에서부터 벗어난 자기만의 공간을 가진 에스모드 빌딩이건, 자연에 묻혀 있으면서도 새로운 자기만의 공간을 만든 이 건물이건, 외부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새로운 이상적인 세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건축관은 어쩌면 이제는 구태의연한 근대주의적인 발상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건축에서 지향하는 바는, 모던이든 포스트 모던이든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인류의 역사 이래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인간은 건축을 통해 자기가 살 세상을 창조해 왔다. 이 인공의 세상은 각 시대마다의 합리성을 추구한 결과이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의 보편적인 특징이 된다.

작가가 이 건물에서 주변, 혹은 바깥으로부터 독립된 중정을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전체가 구성되도록 한 것은 하나의 독립된 존재로서 건축을 인식하고, 그것 자체의 정체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제껏 건축가 강석원이 추구해 온 정체성은 결코 현란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을 통해서가 아니다. 그는 쉬운 형태, 혹은 간결한 형태를 통해 자신의 '건강한 건축'을 이루어 왔다. 이 건물에서도 이러한 건강성은 마천카지어나 여기에 중정이 덧붙여져서, 바깥으로는 닫히고 안으로는 열린 내성적(內省的)인 건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건축형태상의 내향성은 피정의 집이라는 건물의 프로그램과 어울려 전체 건물의 완결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우리는 오늘날 IMF시대를 맞아 거품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고 있다. 건축계에서도 마찬가지 이겠다. 그리고 많은 반성과 회한에 빠지게 한다. 건축계도 그동안 지나친 거품을 누려왔던 것인가? 이제 막 건축에서 양적 문제를 해결하고 질에 대해 일반인들의 관심이 생겨나 본격적으로 건축을 꽃 피울 수 있는 시점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이러한 시련을 맞은 게 아닌가? 그러나 과거의 반성도 중요하지만 과거의 잘못만을 따질 때는 아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건축이 필요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훨씬 의미가 있다. 다른

4) 박도서 엮음, 가톨릭교리사전, 카톨릭출판사, 1992

5) 이에 비해 공용시설동은 개구부들이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 특히 성당에서 제단 앞벽을 유리창으로 한 것은 그러한 의도를 더욱 명확해 해준다. 자연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성당은 아마도 이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서 건축적으로도 가장 흥미로운 부분일 것이다.

분야와 마찬가지로 IMF가 건축계에 준 교훈은 지극히 명료하다. 그것은 건축가의 지나친 작위나 과장된 몸짓에서 벗어나 보다 건강한 건축, 진솔한 건축의 요청이라 하겠다.

아마도 IMF시대 이전에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 이 건물도 몇 가지의 문제를 찾아 볼 수 있다. 이 건물을 방문하였을 때 느낀 점은, 건축주가 요구한 프로그램 및 대지조건 때문에 생겨난 결과이긴 하였으나, 피정의 집으로써는 건물의 규모나 높이가 너무 큰 것이 아닐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휴양지의 깨끗한 호텔에 온 느낌이 드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연에 묻혀 피정을 하는 것이, 어쩌면 더

욱 종교적인 내면성이 강조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또한 아쉬운 점을 한가지 지적하자면 건축가의 의도와는 달리 중정이 바뀌어 버린 점이다. 애초의 의도는 비워진 공간으로 설계된 것으로 보이는데, 방문해 보니 분수가 설치되는 등 수녀회에서 바꾸고 있는 중이었다. 흔히 벌어지는 경우이겠으나, 건축물이 완성되면서 건축가의 의도가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내부의 가구들이 건축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배치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외부공간의 꾸밈 혹은 조경의 변경에 의해 건축가의 의도가 살아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건물의 중정은 수도원의 클로이스터처럼 되지는 못하더라도 침묵과 정결의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 그렇게 완성되지 못할 것 같아 아쉽다.

Kalpyung and Father Ludvico

The house of retreat in Kalpyung, somewhere in between Kyungju and Pohang, is located quite far from the city, in a rural region free from the disorders and contamination of urban environments. Beneath the newly constructed house are little houses that include the old church, and behind it is the mountain with white oaks and pine trees. French-born Father Ludvico (Louis Derande: 1895-1966) has arrived in this country in 1923, and after serving missionary duties in Pusan, moved to the Yongchun area in 1934. The next year, he has gathered young women from the region's villages and formed the Jesus Sacred Heart Convent, which now has a member reaching 500 people and, with its headquarter in Taegu, participates in various activities in Ilwon, Yongnam Province. The site of the house of retreat is from where Father Ludvico had performed his social services. Later, after retirement, he had lived in a small hut within this area, which is still there to this day. (Beside the newly built house, a small house for priests, constructed in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remains, where we can see the traces that the Father had left.)

Architect Kang Suk-won and his works

Kang Suk-won, who has just turned 60, is one of the senior architects of Korea, and has until recently, as the head of the Korean Institute of Architects, been in charge of various architectural activities. After graduation from the university, he took an unusual path, spending 10 years of his youth in France. In returning to Korea in 1978, he has designed a number of architecture works, though not abundant in quantity, such as university buildings, offices, churches, monasteries and diplomatic residences. His well known works include the monumental Korean-American Amity 100th Anniversary Tower(82), the geometrically composed Group Ga Building(86), the S-Mode Building(89) that

manifests a refined sense of formal construction, and the Roman Catholic Namchun Church(91) with strong sculptural features. Since his works enclose rationally developed interior spaces with precise and neat mass composition, they may seem to be rather ordinary. The geometrically controlled elevations also defeat any flashy touches. Thes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obviously can be traced back to his own architectural way of thought.

His works, in the architect's own words, seeks "a healthy, or precise, architecture." This can be interpreted as a simplified and economized approach to architectural forms. A good work of architecture, according to Kang, should be a pure product developed through the process where the architect maintains total self-control. His main concern for architecture is to what degree can a work of architecture be healthful. To this, he has suggested a crisp analysis of conditions and a solution on technical problems. He even mentioned a method to minimize the defects of a building.

These thoughts seem to be rooted on the acknowledgement of the architect's social responsibility: He has even talked about the external responsibility on the building for his own firm. Hence his idea of responsibility is not confined to the economical or ethical issues from the client's view, but more concerned with the society as a whole, where the architect is conceived as a catalyst for social developments.

Kalpyung House of Retreat

This building was placed on a flattened site, which was previously sloped, facing south. It is surrounded by fields and mountains, a typical rural landscape. The neighboring lands also seemed to belong to the Convent, but only fractions were being used for buildings. The borders of lots were very irregular, which explained the unconstrained,

free arrangement of buildings felt during the visit. This was totally unexpected from the speculation on the drawings of the layout, which displayed a tight placement of building within the site. The overall plan consists of buildings surrounding an oval-shaped court, where a triangular mass penetrates the upper part of the oval. The buildings are separated in two parts along their functions: on the north stands a 5-story-lodging facility for the visitors, and on the south a building for multi-purpose general uses. The first floor of this building has the office and cafeteria, the second floor the nunnery, and on the third floor the chapel, small auditorium and the conference room, functionally linked to the lodging building.

The house of retreat is literally the house for retreat, an act of tranquil self meditation. To retreat, one must first get away from the busy everyday life, and seek the messages of God. Until the 14th century, this was confined to the religious monks and hermits, but nowadays general believers also participate in this act. Details in the retreat may vary among religious groups, and so does the architecture that holds them: according to one nun, this Convent makes it a rule to have a chance to meet God closely for 8 days every year. Without these occasions, one can get tempted by the greeds of everyday life. Hence the main function of this work is to hold 70 people at once, where the nuns of the Convent come together and go through a retraining program. The budget for the construction of this facility was the sum of savings from the Convent's members.

The division of the whole into buildings for lodging and general use, and connecting them through a middle court can be based on the architect's interpretation on retreat, but also his concept of a building. Here, it is this court that integrates the architectural elements into one whole. To shelter the nuns from the outside world, it is not enough to simply locate this building in a rural area: the architecture should also be closed to the outside, like a castle. The rooms of the lodging building are facing south, where the windows are open to the court and the other building, and nothing else. During the staying in this facility, one is disconnected from the outside world, instead forming intimate group within. The architecture seeks an ideal state of communal life.

Architect Kang has steadily used the court in his works. Sungjiwon(87), Roman Catholic Taejon Parish Church(91), and the Spanish Embassy(96) take up the court as an important integrating element. The office building for Group Ga and S-Mode can also be viewed as hybrid examples. Whether it is the S-Mode building securing its own space within a complex urban fabric, or this Convent building

establishing its own space within the grand nature, the idea of constructing one ideal space, independent from the neighboring context may seem a little bit out of date. But what we basically ask of architecture cannot be so conditioned to all those -isms such as Modernism or Post-Modernism. That we build our living environment through architecture has not been changed through history, and this artificial world that we created is the result of reason depending on the era. They become a general feature of architecture.

That this work is centering on a court, disengaged from the outside, using this to construct the wholeness is in coherence with the architect's idea of architecture, which is an independent entity, having its own identity. This value, in Kang's works, is not achieved through incomprehensible methods: easily recognized, simple forms build the bridge to his idea of a healthy architecture. In this recent work, this aspect is further developed by the addition of the court, which is closed to the outside and open to the inside, to an introspective architecture, that cannot be more appropriate to its function as a house of retreat.

The Remaining Stories

This country under the IMF aid is now striving to get rid of all the bubbles that contaminated this society. The same can be said in the field of architecture. The situation has a double-sided connotation: although it is right to burst the bubble, it was also an age when we could finally think of the quality, not quantity, of architecture. Now we should focus on not the defects of the past but on what sort of architecture should we seek in the future. The precept of this financial crisis is apparent: What we need is a healthy, decent architecture, deleting the overstatements and artificiality of the architect.

This work, designed before this crisis period, also shows traces of these flaws. The first impression was, although it might have been the result of the client's program requests and the site condition, the overall project was too grand on its scale. As a space for retreat, it wouldn't always be so beneficial to have the atmosphere of a high class hotel. Having a space of meditation in nature would have been much more suitable. Another point that was rather disappointing is that the court had not been built as initially intended. It was conceived as an empty space, but when I visited the place they were building a fountain in it. Modification of the client on a finished architecture is a common phenomena: Interior layout of furnitures often ends up quite different from the idea of the architect, and in outdoor spaces landscape may alter due to the gardening of its users. The Convent would have been much better with a silent and void court.

천주교 백석동교회

Paeksuk-dong Catholic Church

김태인 · 이용익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

Designed by Kim Tae-In & Lee Yong-Ik

설계를 시작하며
빈땅에서
첫 미사를 드릴 때
생각했습니다.
“성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탄 밤에도
밖에서 떨며 미사드릴 때
아기 예수 오심을 기다리듯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아
기도 드렸습니다.

이제 성당을 짓는
첫 단계인 설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비람을 모아
하느님의 거룩한 집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로 첫 시작을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소서
아멘

이 기도문은 설계를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제 책상 머리에 항상 붙어 있는 기도문입니다. 제 자신에게 다짐하고 처음 일을 맡았을 때의 설렘과 두려움과 기쁨을 항상 기억나게 해줍니다. 처음 설계를 맡게 된 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신비입니다. 성당건축을 위한 자료와 규모를 정하는 등 여러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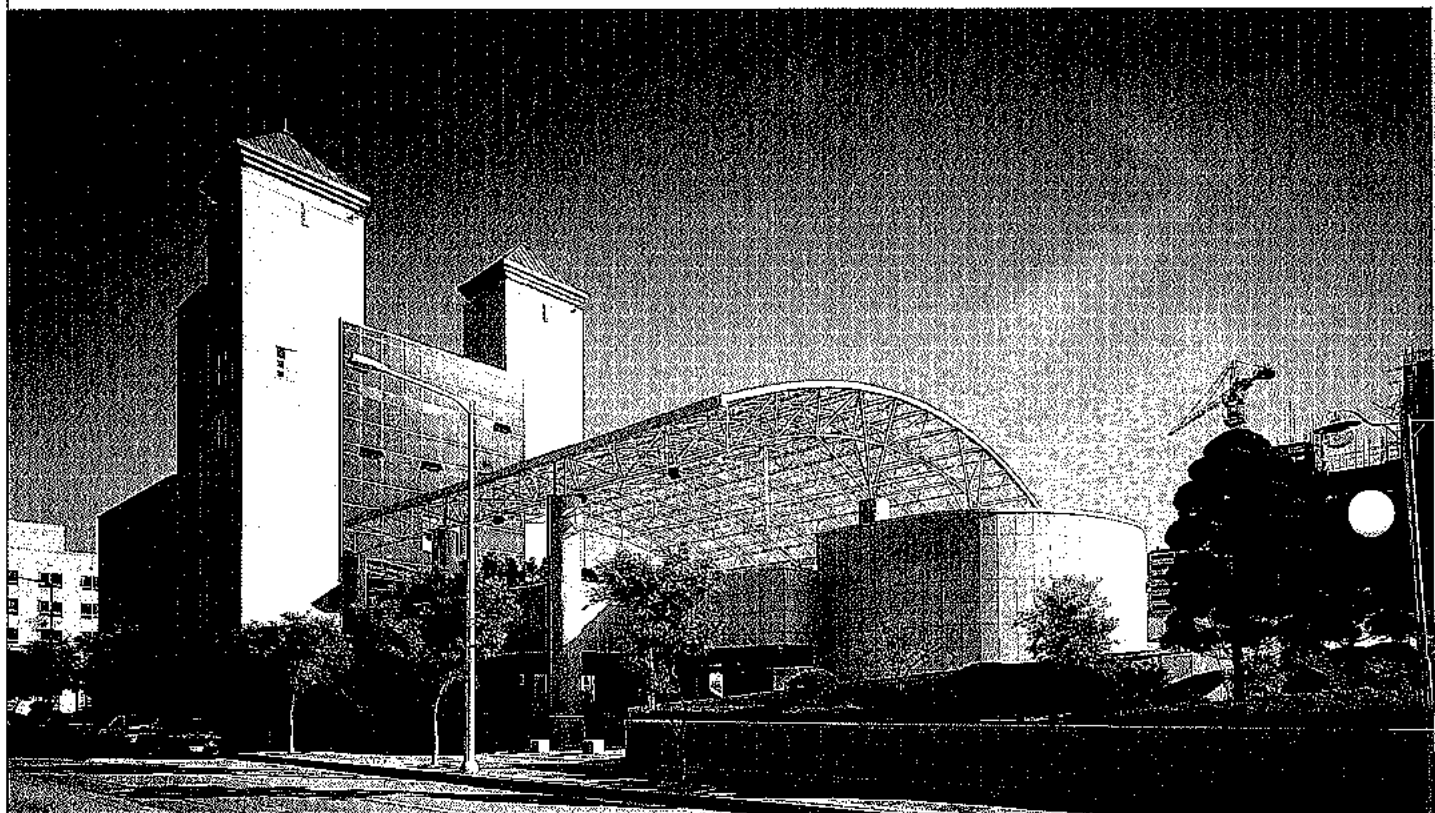
해 온 일이 제자신에게 준비하게 하심이었다는 설리에 놀라움과 감사함이 큼니다. 저는 늘 가슴에 이 말을 품고 다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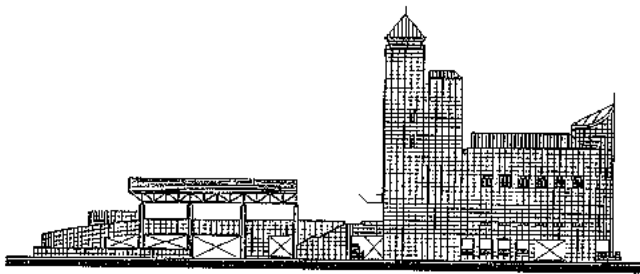
“기억하게 하소서 설계를 맡기신 뜻을”

“성당 공동체에 애정을 가지고 일하라는 말씀” 하느님께서는 저를 믿음으로 인도하시고 생활하게 하시었습니다. 애정으로 본당 공동체에 참여하고 우리의 바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제게 주신 능력을 잘 쓰도록 해주시으며 모두의 바람이 우리의 성전으로 드러나도록 기도드립니다. 설게 과정에서 건축심의가 세 번에 통과되는 등 여러 어려운 과정이 많았지만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루시는 하느님(로마서 8, 28) 말씀으로 용기를 얻었고 또한 그렇게 되는 것을 본 증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판관기 6, 16)는 말씀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성당은 벽돌만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백석동 성당 공동체의 마음과 정성이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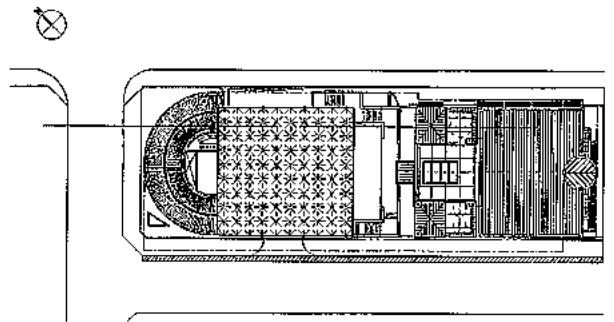
끝으로 신부님 말씀 중에서 한 구절 인용합니다.

"기도하며 참을 얻고
마음을 모으고
서두르지 말고
계으르지도 말고
노력해 나갈 때
결국 모든 일을





북서측면도



배치도

하느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부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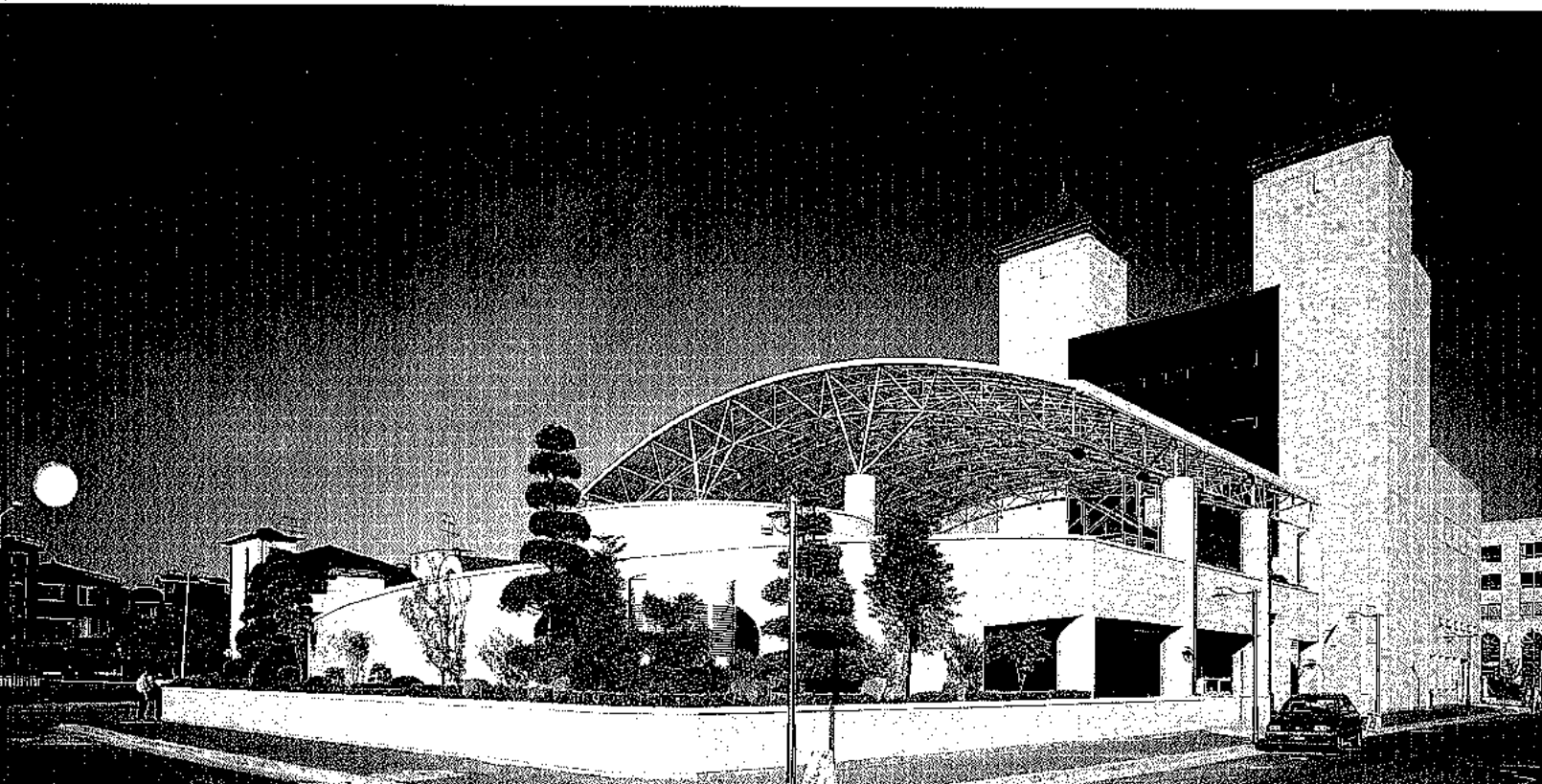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 애정을 보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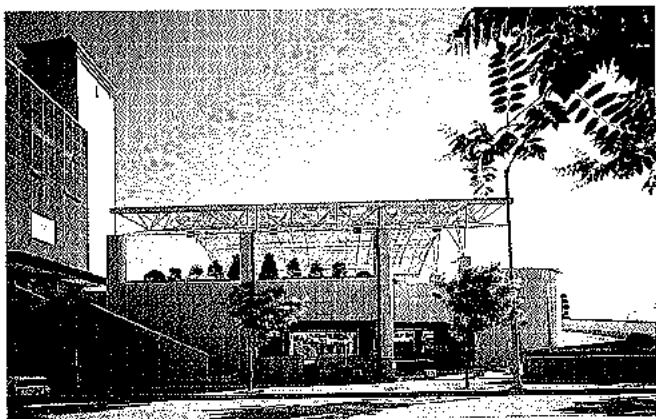
이 성당은 일산 신도시의 동측에 위치하여 상업 지역과 주거 지역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지에 건축되었다. 도시설계상의 종교용지와 주차장 용지의 2필지에 성당과 주차 건물을 별도로 지어야 하였으며 엄격한 지침을 지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건축 심의도 3번에 통과되었고 건축 과정에서도 까다로운 절차 및 제한이 많았다. 종교 용지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평일에는 일반인도 주차장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주일에는 신자들의 차량 이용이 편리하도록 계획하였다. 대성당이 위치한 주차장 2층은 미사후의 많은 신자 이동 및 확산에 편리한 장소로 제공될 것이며 다양한 옥외 행사 및 만남의 장소로도 이용되리라 기대된다. 사제관, 수녀원은 제한된 대지의 용적률 규제에 인하여 성당 상부에 위치시켜 수직적 동선처리로 연결하였으나 사제와 수도자의 생활환경이 쾌적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외관은 성당의 상징성과 도심지대의 인지성을 고려하여 전통적 개념에서 출발한 현대적 표현 양식으로 계획하였다. 2개의 대칭적인 첨탑에서 절제되고 정돈된 이미지와 단순함을 강조하여 주변 상업지역의 복잡함 속에서 지표성이 드러나도록 하였다. 주차장 건물과 성당건물이 기능상, 외형상 어울림이 가장 어려운 해결점이었으며 후에 여러 가지 평가가 내려질 것으로 예측된다. 멀리서 보면 좋아 보

이는 것이 가까이 보면 미흡한 시공 정밀도에 아쉬움이 많았으며 사용하면서 여기 저기 개선을 해 나가 완성된 성전으로 되기를 빈다. 1995년에 시작해 4년 동안 여러 과정을 거치고 여러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하나의 이룸을 위해 공동체의 기도와 봉헌이 성전의 기초가 되고 머릿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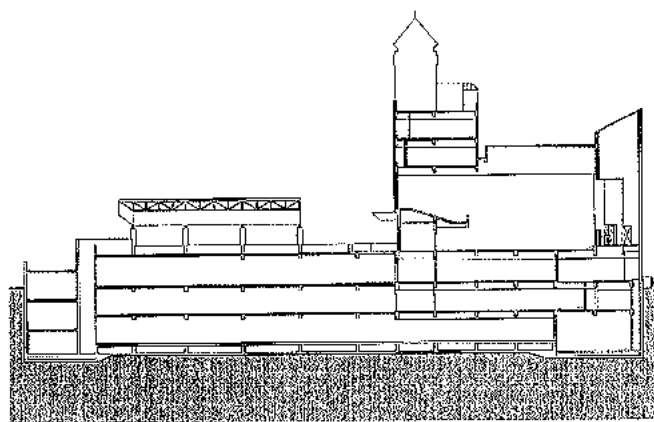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1290번지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도시설계지구(일산신도시)		
주요용도	종교시설	대지면적	2,538㎡
건축면적	1,676㎡	연면적	7,409㎡
건폐율	66%	용적률	132.9%
규모	지하2층, 지상5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철골조-스페이스 프레임		
내부마감	바닥 - 화강석, 러버타일 벽 - 트레버틴, 석고 플라스틱, 천장 - 텍스 홈폼제		
외장마감	바닥 - 석재 타일, 벽 - 운천석 버너 마감 지붕 - 동판		
설계담당	조웅귀, 송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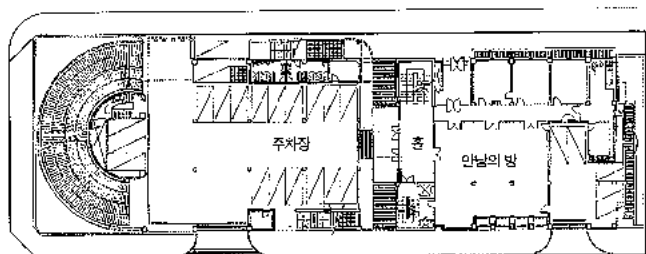




북동측에서 본 주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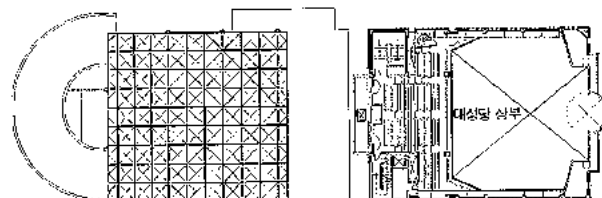


침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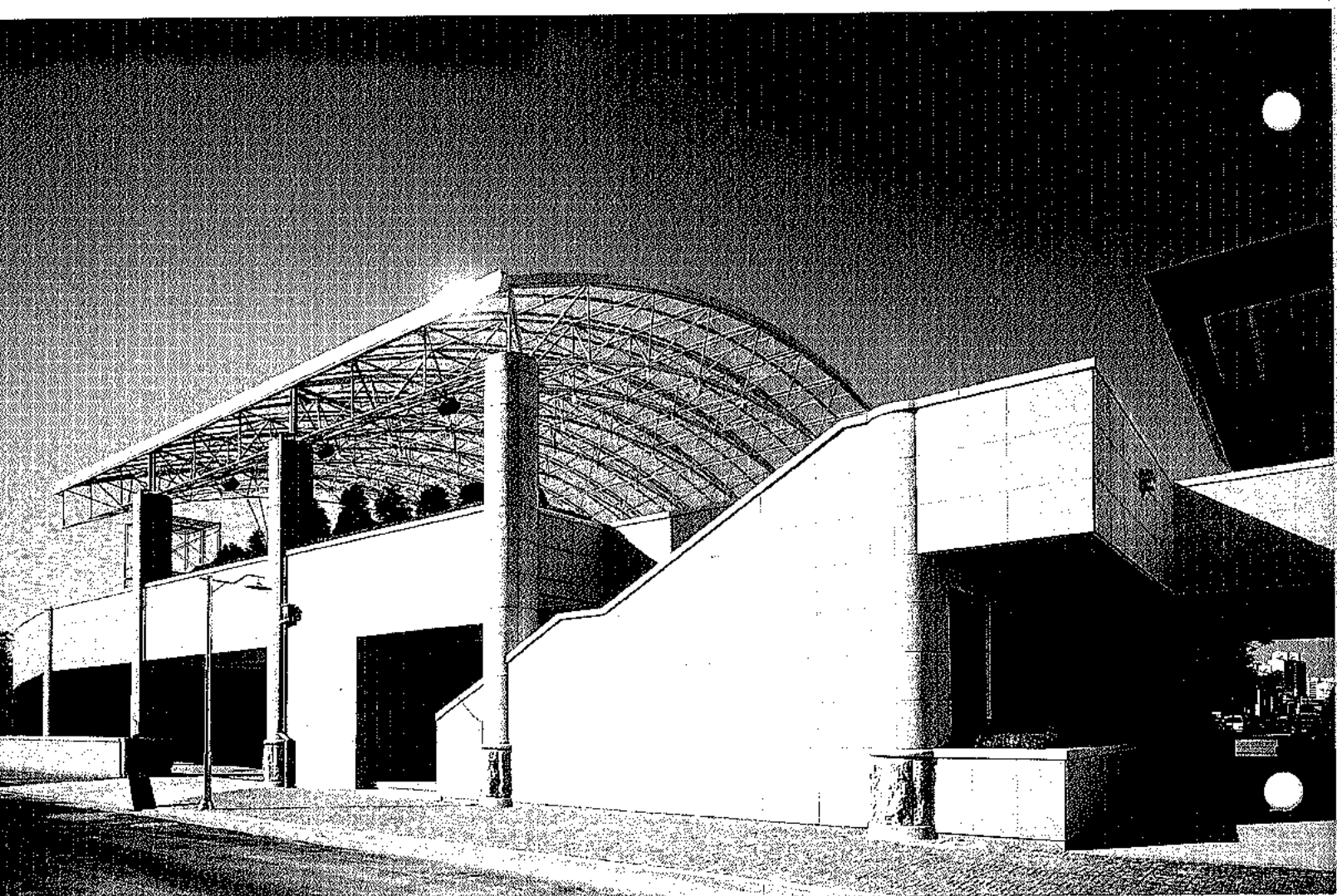


0 5 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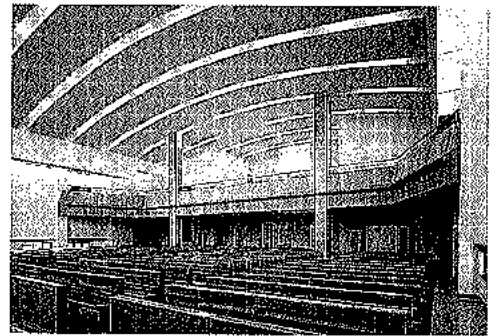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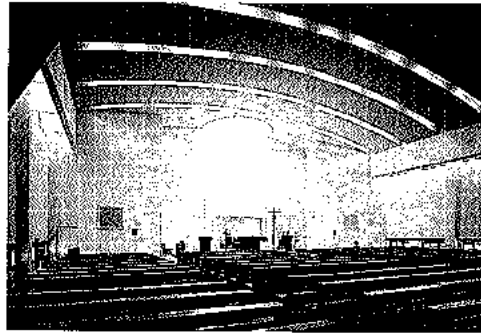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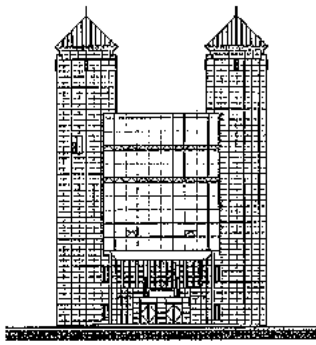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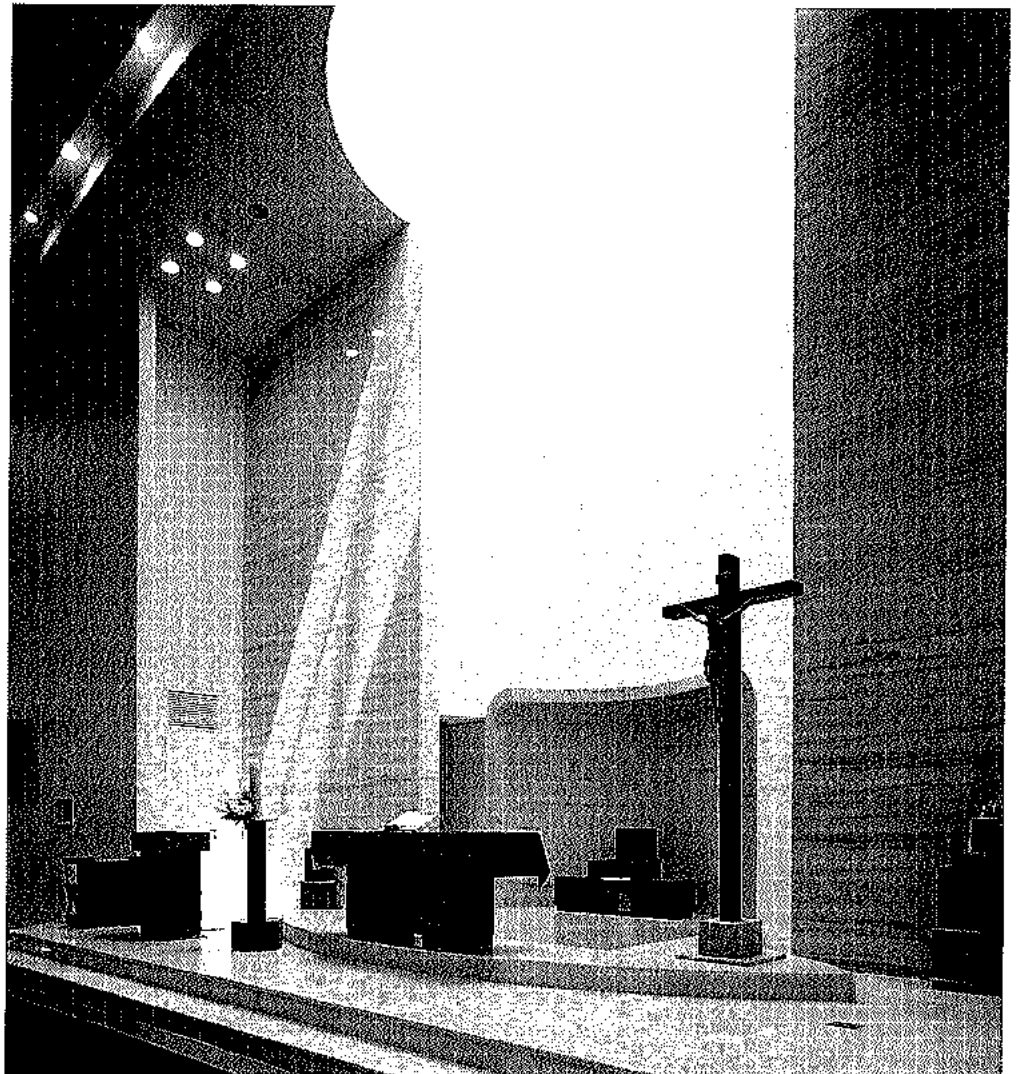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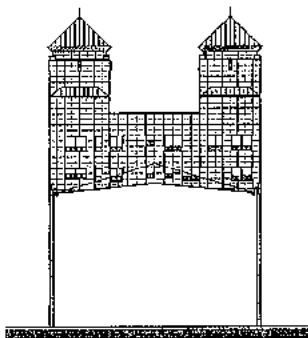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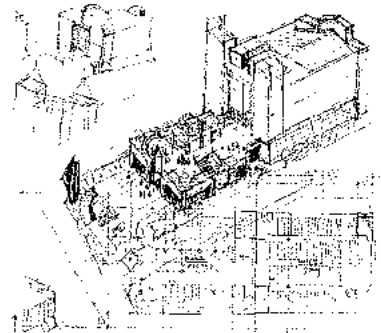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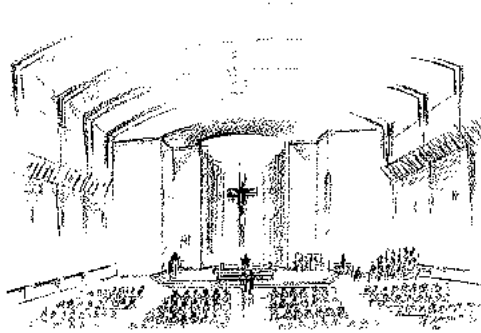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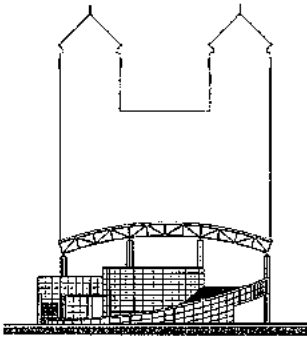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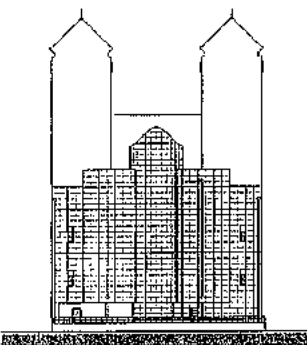
남측에서 본 주차장



대성당



대성당 제대 상세



베스콘연구소

Bescon Center

마성호+박주환/M.PAA(주)엠펙 종합건축사사무소

Designed by Ma Sung-Ho+Park Ju-Hwan

저녁무렵의 도심의 가로는 매순간 변하는 현란한 네온 사인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화려한 광고판이 자신의 이름을 대변하는 건물들 사이에, 건물자체의 상징성과 솔직함으로 자리매김하고픈 욕구로 이 Project는 출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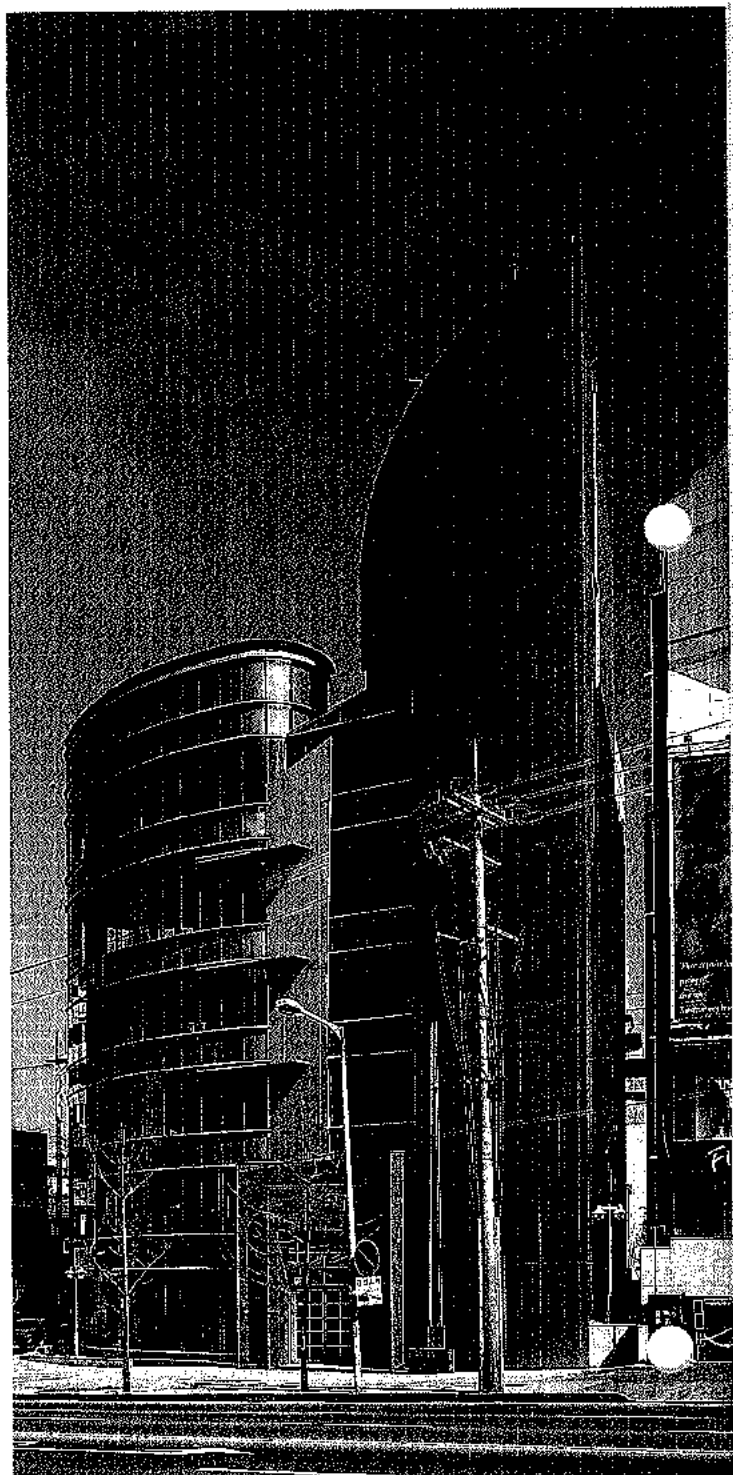
브라질 국회의사당이 국민의 눈을 상징하듯,

베스콘 연구소 Site는 가로와 축과 대지의 축이 25° 정도의 각도로 만나고 있다. 이 각각의 축을 충족시키는 배치개념의 설정은 매스개념과 함께 베스콘 연구소가 갖는 이미지 개념의 설정에서도 의미를 같이한다. 이 연구소의 주업무인 콘택트 렌즈 전문업체의 이미지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앞에 서로 다른 건물군이 나열해 있는 동호대로변에 투명하면서 보석같은 형태의 이미지로 가로변의 변화를 주기로 한다. 타원형의 전면 커튼월은 동호대교 진입방향의 시선을 잡고 건물 안쪽으로 스며들어가는 계단실의 은백색 알루미늄 커튼월면이 그 반대방향의 시선을 끌어 당긴다. 이 두 Mass와 면을 별도의 커튼월이 묶어놓고 이들의 변화에 대한 연계와 완충을 담당하게 한다. 이에 비해 측면은 단정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돈하여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Mass의 구성을 바로 잡는다. 베스콘연구소가 다양한 재료를 취함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잃지 않음은, 각 재료의 나열이 아닌 조화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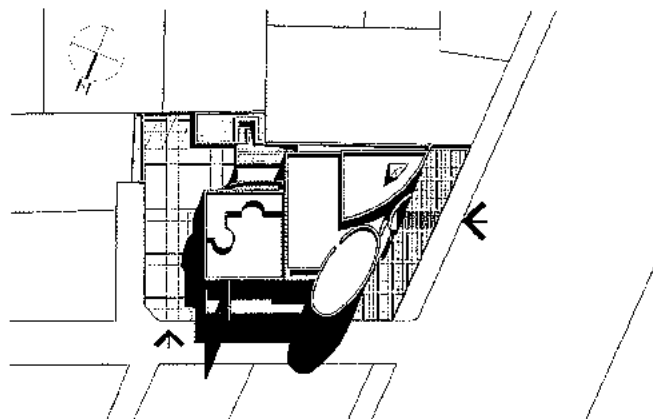
익명성이 강조되는 지금 베스콘연구소는 화려한 간판이 아닌 표정있는 이름으로 이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동호대교로 향하는 차량의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 이 건물이 변치않는 도심의 한 얼굴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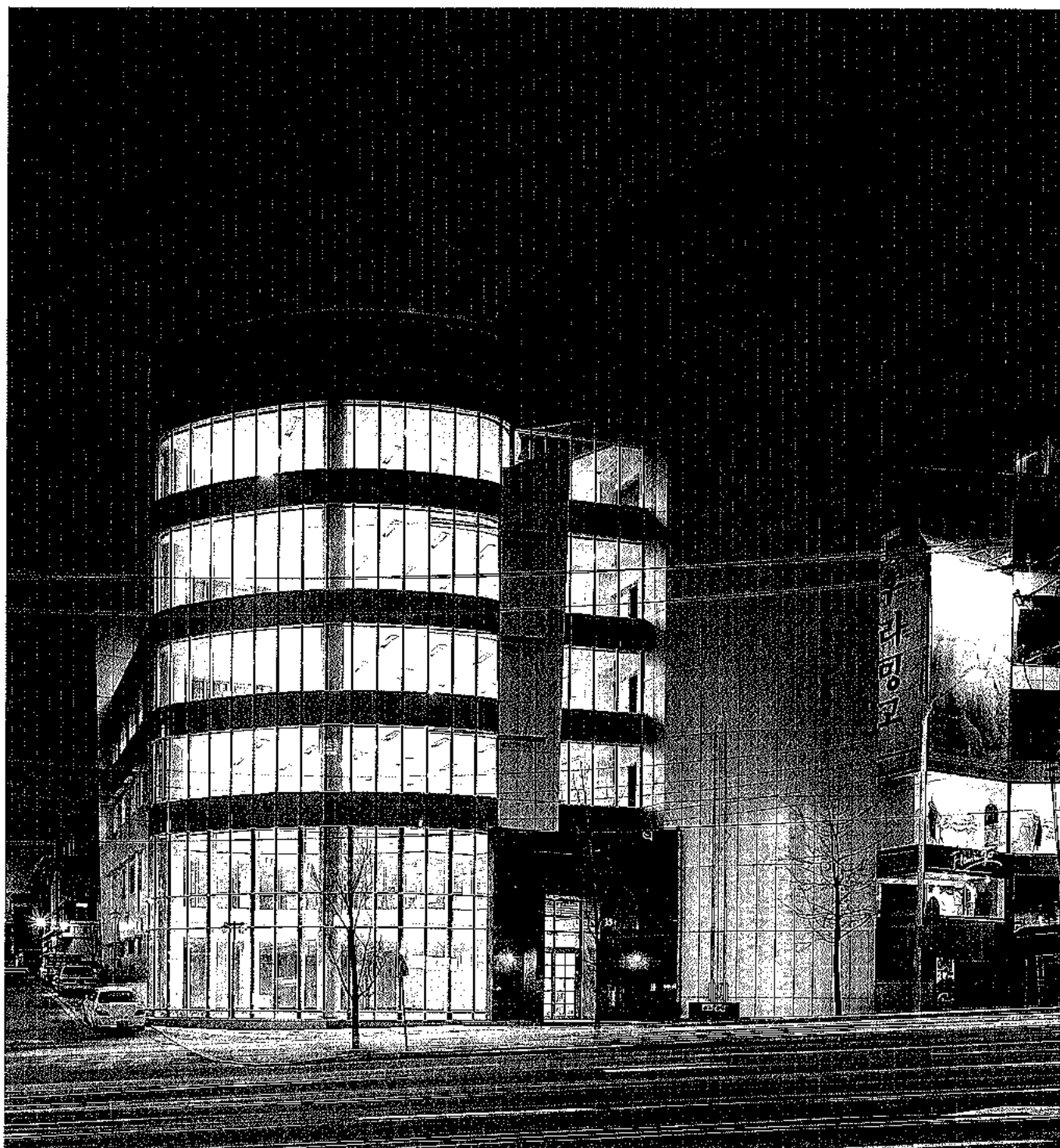
위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90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4종 미관지구,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061.9㎡
건축면적	554.73㎡
연면적	3,300.06㎡
건폐율	51.3%
용적률	233.25%
규모	지하2층, 지상6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외장마감	알루미늄복합패널, THK16복층유리, 노출 콘크리트
내부마감	화강석페턴깔기, 드라이월시스템, 금속재천정마감, 아트론 뿔집
설계담당	최기남, 김웅래, 차병록, 박민규, 이진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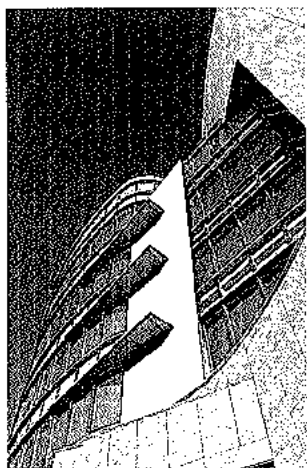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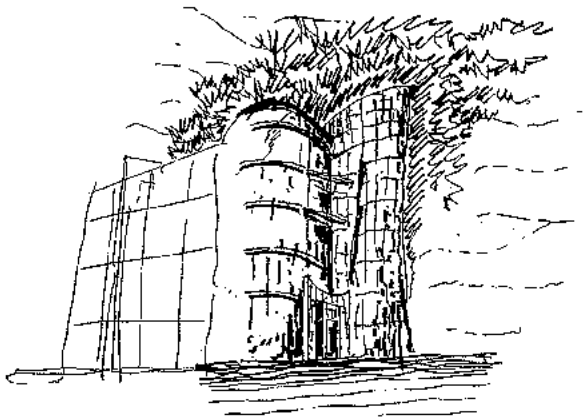
남서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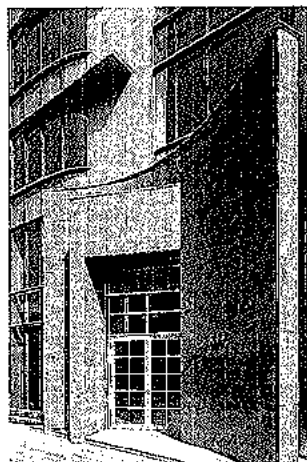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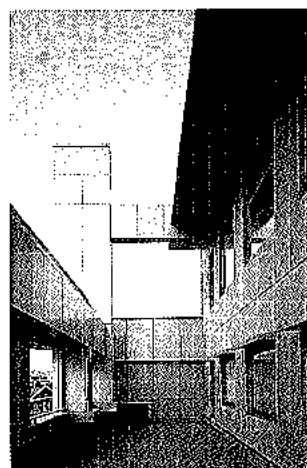
서측 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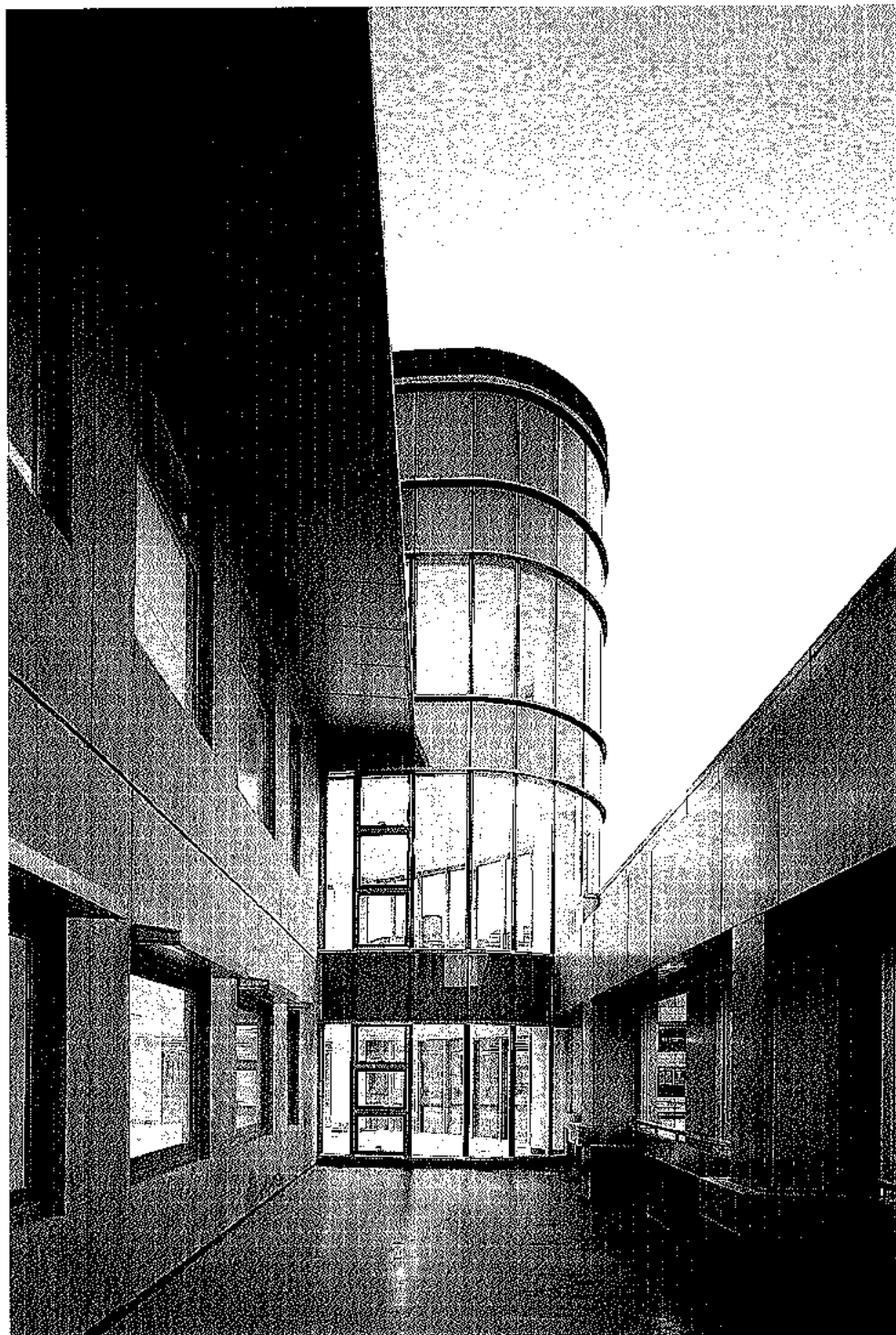
주출입구에서 올려다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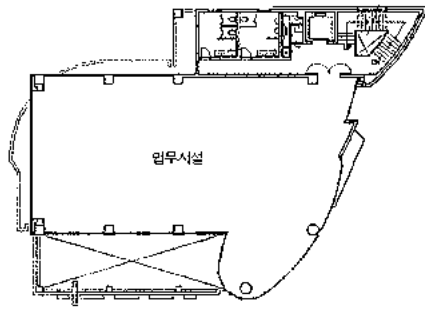
주출입구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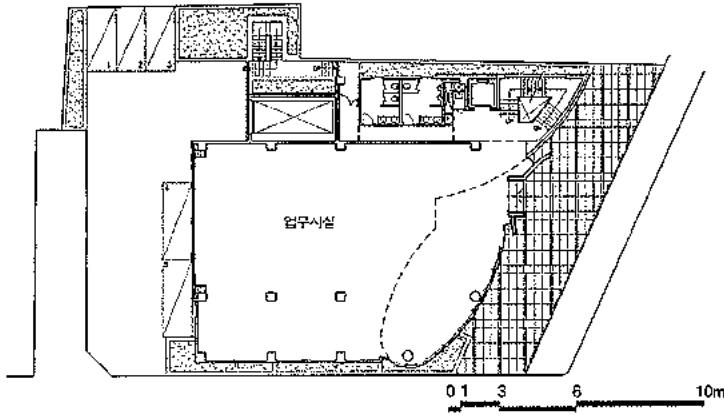
5층 외벽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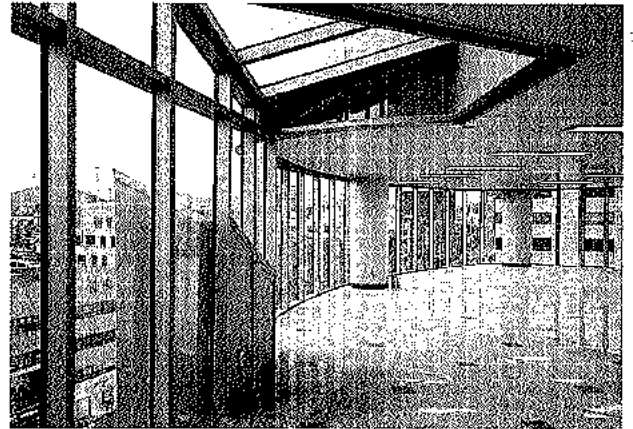
서측에서 본 전면 커튼월 상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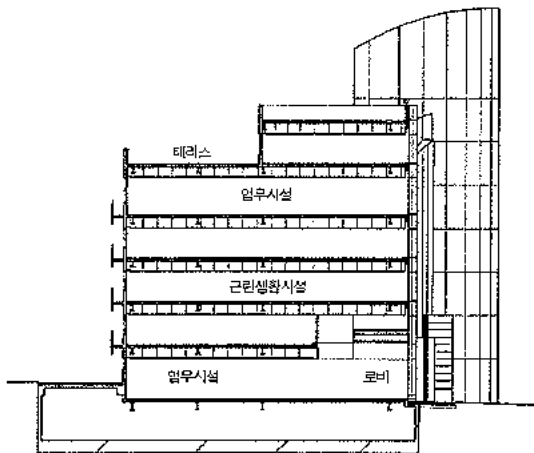
5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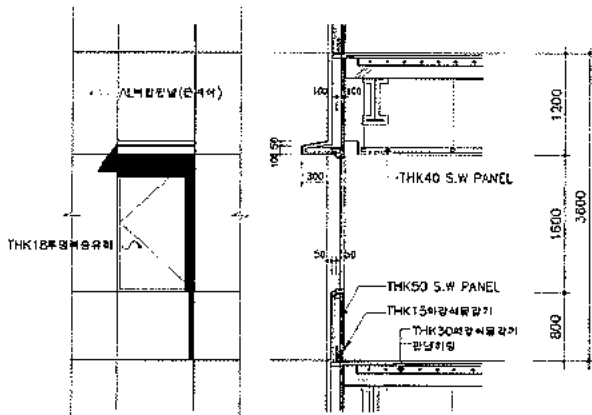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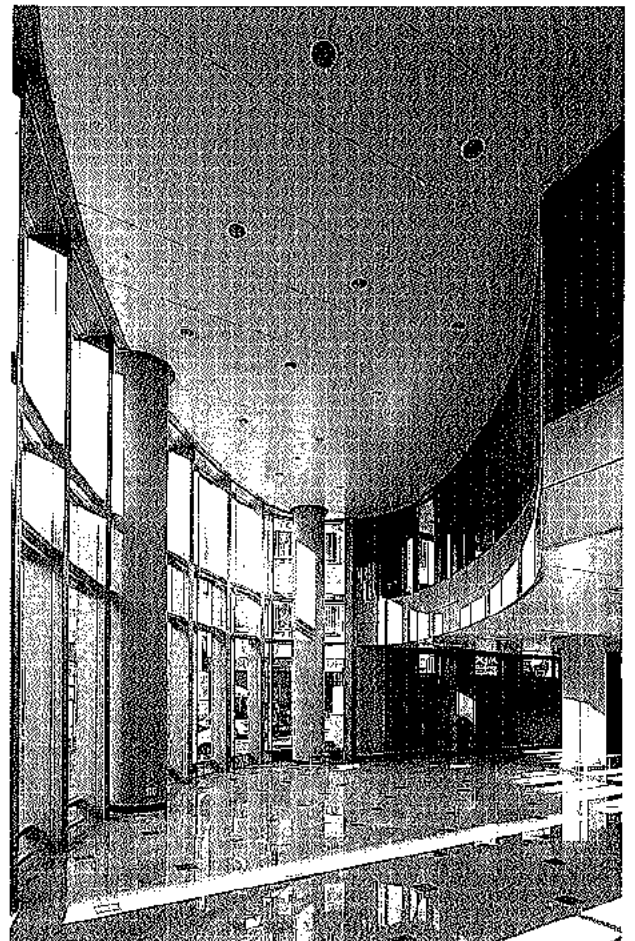
6층내부



횡단면도



창호 상세도



1층 로비

대우건설기술연구소

Daewoo Institute Construction Technology

이항섭/ (주)남산종합건축사사무소+대우건설기술연구소

Designed by Lee Hang-Sup

수원 국도변에서 1km거리의 경기 과학고등학교와 인접해 있는 대우 건설 기술연구소는 연구관리동과 6개의 실험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관리동은 그 기능외에 다른 주제가 있는 건물로서 일반 건물의 평균에너지 소비량의 1/3로 가동되는 초에너지 절약건물이다. 71가지의 에너지 Saving기술이 적용되었고, Twin core system, Double skin, Solar collector, 3중 단열유리 System 창호, 단열 Shutter, Cool tube system등이 설치되어 에너지를 획득하고 보존할 수 있는 시설들이 계획되었다. 이밖에 21세기 정보화 사회를 지향한 영상회의 기능이 구비된 시청각 회의실, 세미나실, 대회의실이 갖추어져 있는 국내 최초의 Intelligent 건설연구소이다.

Master Plan 및 배치계획

건설연구소 기능의 특성상 평탄한 대지이어야 좋다. 그러나 이 부지는 40m의 고저차를 가진 동고서저의 경사와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있다. 효율적이고 무리없는 정지를 위해서 경사에 따라서 5개의 단으로 계획하였다.

진입로에서 안접되고 가장 낮은 Level에는 상주인원이 많고 연구소의 상징성을 갖게될 연구관리동을 배치하였다.

모든 실험동은 대지축과 평행하게 배치되었고 이 건물은 남북축에 따라 정남향으로 배치하여 일사량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게 하였다. 전면에는 채광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옥외주차장을 두었으며, 그 아래 지하에는 대회의실을 배치하였다.

연구관리동과의 사이에는 Sunken Garden을 두어 Double Skin의 채광을 극대화하고 지하층의 식당 및 통로에 채광을 확보하였다. 3단 Level에는 연구관리동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중앙실험동을 인접배치하였고, 중량물을 취급하고

Mass가 큰 대형구조실험동을 이어서 배치하였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건폐율, 조경면적의 확보와 경사지의 폐쇄감을 해소하고 지하공간의 활용을 위해 공동실험동과 음향실험동을 경사를 이용한 1면 개방을 지하실로 계획하였다.

4단에는 상주인원이 적고 경량물을 실험하는 설비실험동과 지반공학실험동을 배치하였으며 마지막 5단에는 잔디로 조경하여 옥외실험장으로 계획하였다.

평면계획

연구관리동은 에너지에 가장 유리한 Twin Core 평면으로 양측면에 주·부출입구를 두고 그 중간을 7.2×10.8Span 5 Bay로 이루어져 전시공간과 중회의실이 배치되었다. 지하에는 Sunken Garden을 중심으로 체력단련실, 식당과 전면에 400명 수용의 대회의실을 배치 하였으며 세미나가 있을때에는 4개의 실로 분할하여 이용할 수 있게 계획하였다. 2, 3층에는 관리실과 연구실로 바닥에는 IBS를 위해 Free Access Floor를 설치하였고 옥탑층에는 도서관과 옥상정원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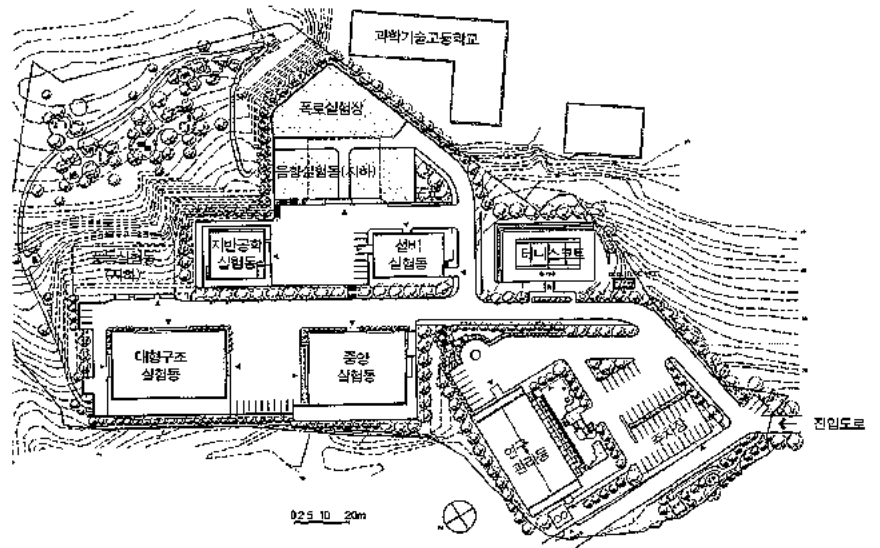
입면계획

연구소 Image에 맞는 단순하고 기하학적인 입면 형태로 연구관리동은 측면의 양 Core Mass와 전면의 Double Skin과 Solar Collector를 조화시켰고 남측에는 전면창으로 에너지 획득에 유리하게 하고 북측에는 창크기를 최소화하여 열손실을 최소화시켰다. 외부 마감으로는 연구관리동이 알루미늄패널, 100mm외단열, 3중 단열복층유리 및 시스템 창호를 사용하였고 실험동은 노출 콘크리트, 컬러유리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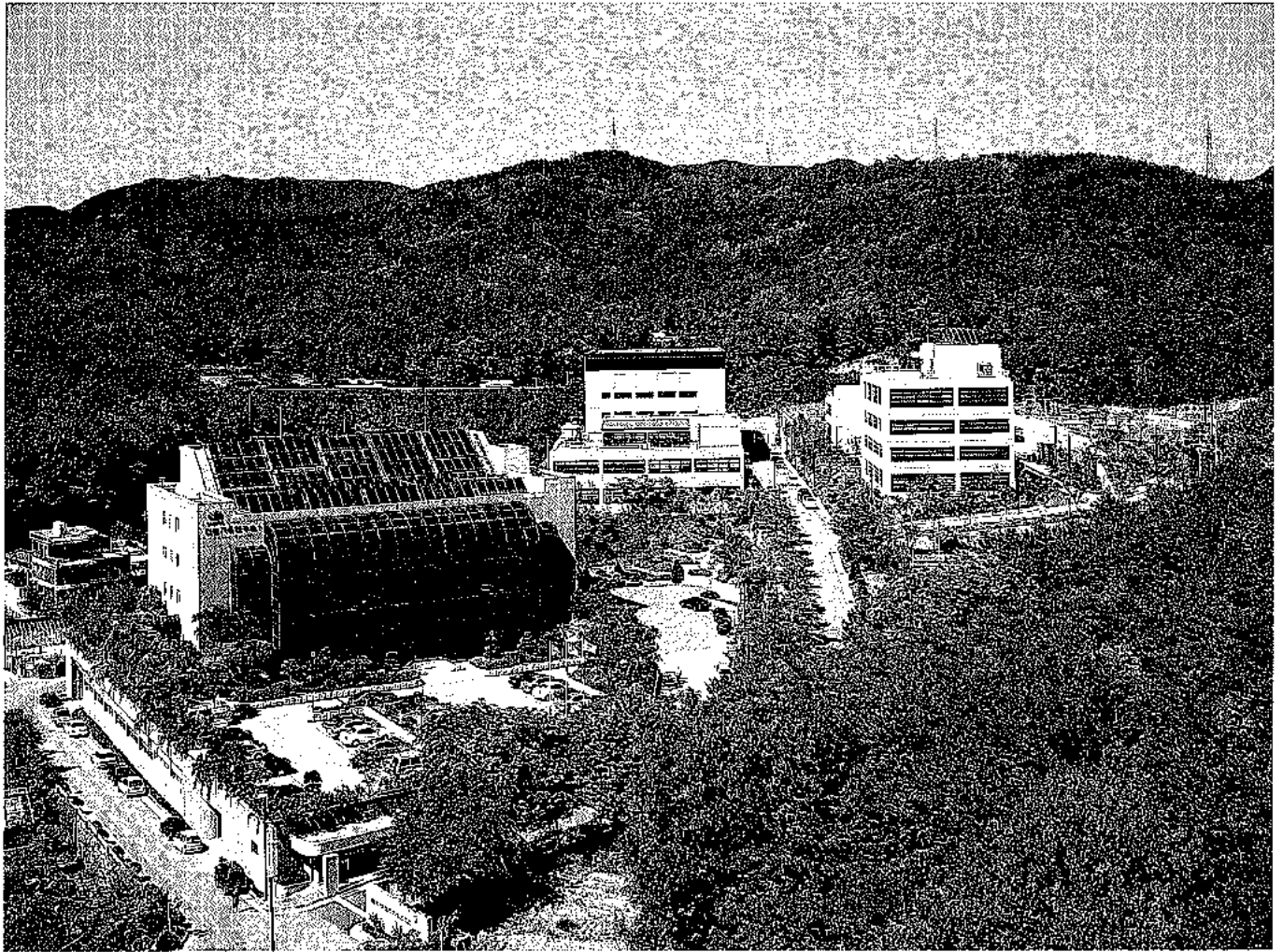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산 24, 25
지역지구	자연녹지지역
대지면적	30,517㎡
연면적	16,748.98㎡
건폐율	13.29%
규모	지하1층, 지상3층(연구관리동)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 Truss(대형구조실험동) Post Tension Girder(대회의실)

주차대수	71대
기획설계	박철립, 조철근, 김주식, 심재혁
건축설계	윤노영, 이준혁, 정교선, 유인식, 이준엽, 최현근, 권혁봉, 박웅준
구조설계	신상익
기계설비	목원광성엔지니어링
전기설비	우림 컨설턴트
조경설계	권영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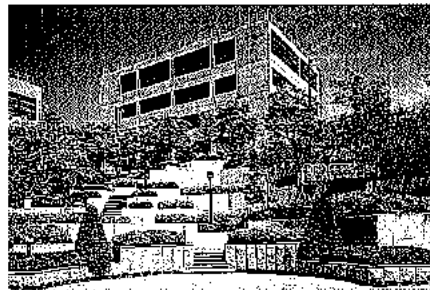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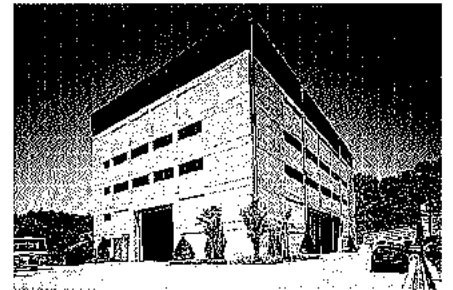
단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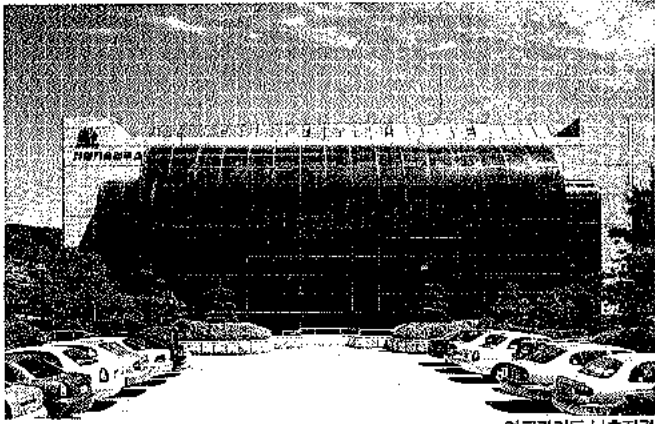
지반공학 실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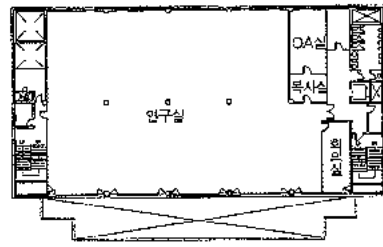
선비 실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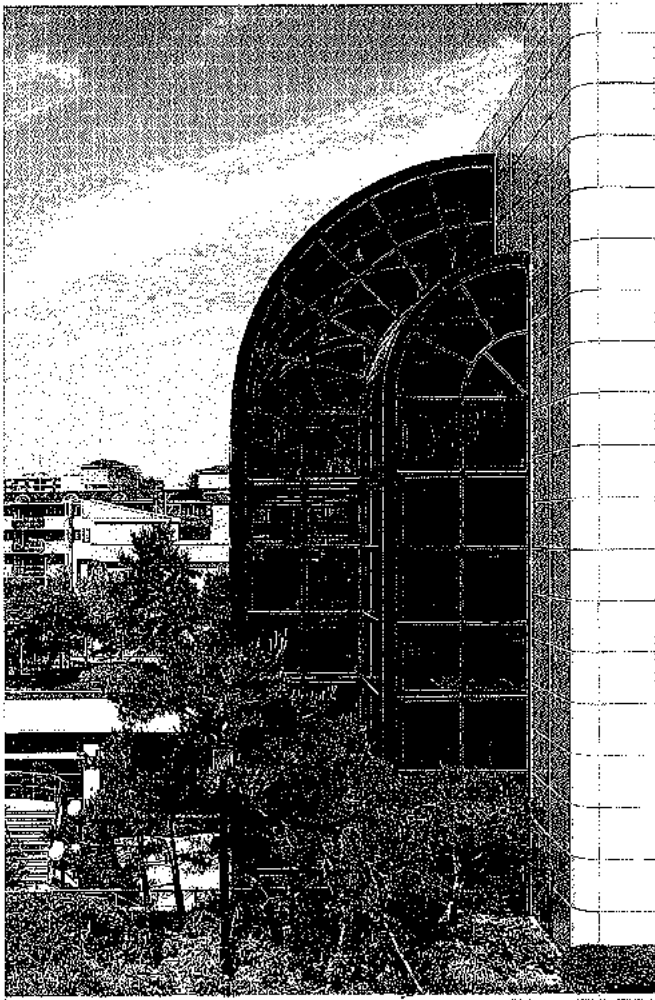
대형구조 실험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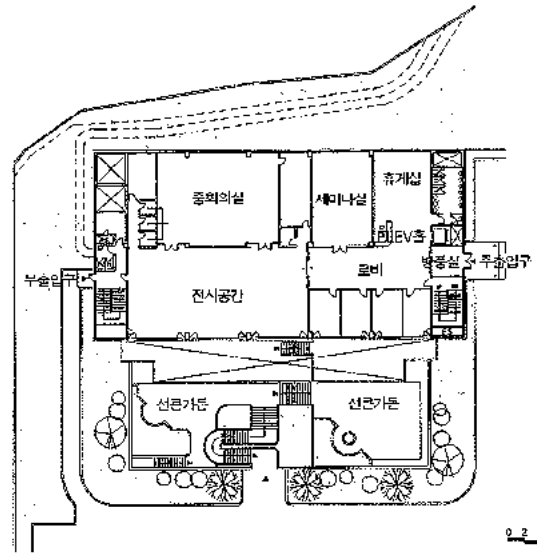
연구관리동 남측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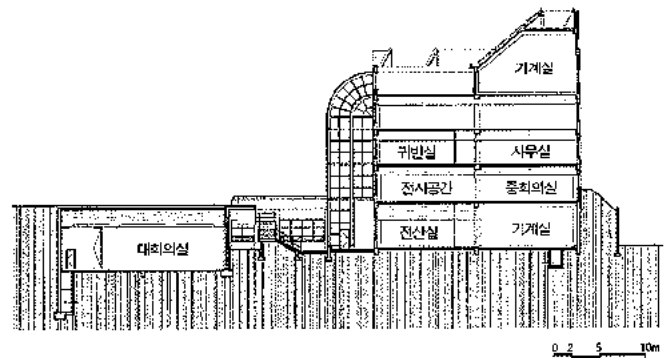
연구관리동 3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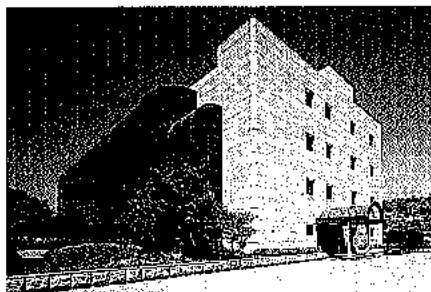
연구관리동 Double Sk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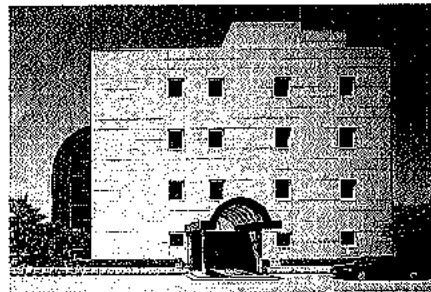
연구관리동 1층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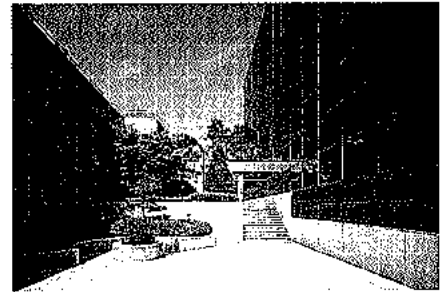
연구관리동 횡단면도



연구관리동 동남측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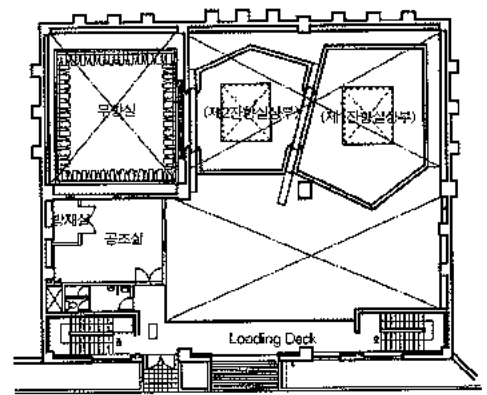
연구관리동 동측 입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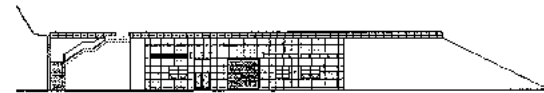
연구관리동 선관가든



연구관리동 Double Skin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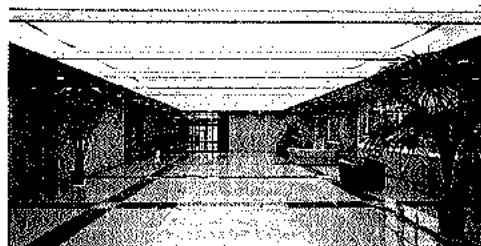
음악실합동 지하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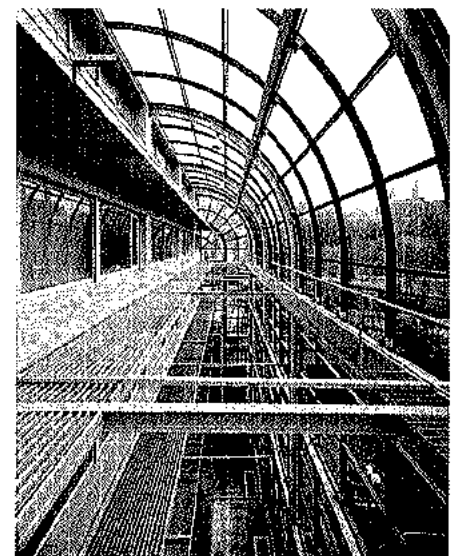
음악실합동 입면도



연구관리동 대회의실



연구관리동 1층 로비



연구관리동 Double Skin 내부

도림두산베어스타워

Doosan Bear's Tower

김재욱 / 종합건축사사무소 정우건축

Designed by Kim Jae-Wook

대지는 80미터의 가로공원 도로 중간에 25미터도로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작은도로 맞은편에 36층의 파크타워와 마주 보고있고 주변으로는 30층의 희훈빌딩과 25층의 새솔타워, 25층의 한일타워, 금호타워, 선경빌딩 등 대규모 고층주상복합 건물군이 형성되고 있어 가로공원을 중심으로한 상업지역의 향후 발전방향의 지표가 되고있다. 이성과 같이 가로공원지역은 구로공단의 사회기반시설을 근거로 한 새로운 지역발전의 방향전환을 알리는 미래지향적 성향을 띄고 개발되고 있다.

인근의 저층주택가와 3~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들은 고층의 주상복합건물군과 묘한 대조를 이뤄, 아직 정돈되지 않은 지역성격을 반영하고 있다. 가로공원인근의 상가와 주택이 상업지역이라는 고밀도기능을 수용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점을 드러내고 있고, 단독주택은 상업적기능을 수용하는 복합형태로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어 주거기능과 상업기능이 강화된 새로운 모델을 창출하는 암시적요소로 존재한다. 넓게만 보이는 폭 80미터도로는 도로가운데에 가로공원이라는 원형공간이 있어 인근지역의 부족한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로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를 축으로하는 고층건물군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을 강조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두개의 방향성이 교차하는 모퉁이대지로서의 본건물은 축이 교차되는 위치로서의 상징성과 복합용도로서의 기능이 어우러진 형태를 요구하고 있다. 대지가 갖고있는 이러한 조건은 대지의 최대한의 활용을 추구하게 되었고 고기능의 복합건물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팽창된 건물의 규모에 비해 협소해진 대지는 사람과 차량동선의 원만한 해결과 휴식공간의 부족현상은 또다른 고민거리가 되었다. 다만 가로공원이 앞마당처럼 눈앞에 펼쳐있어서 다소 위안이 되고있지만... 저층부 지붕을 활용한 옥상정원은 거주자인 아파트 주민의 주거기능을 보완해주는 휴식처로 제공

되도록 하였다. 근생과 오피스텔의 상업공간은 기능성을 고려하여 보행자동선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는 횡단보도를 통한 건물로의 자연스런 유도를 반영하는 진입동선을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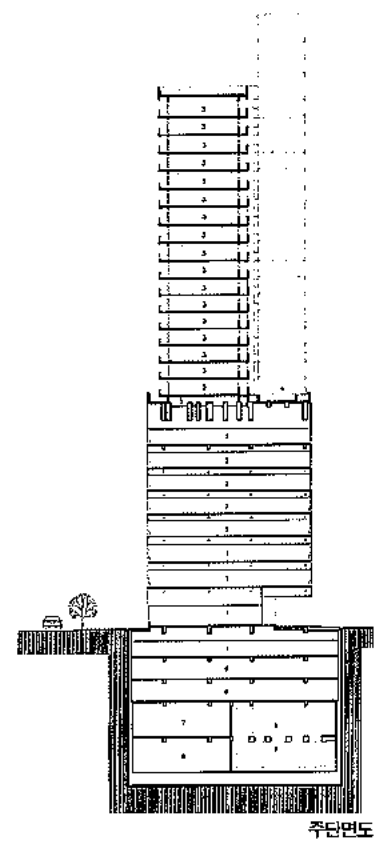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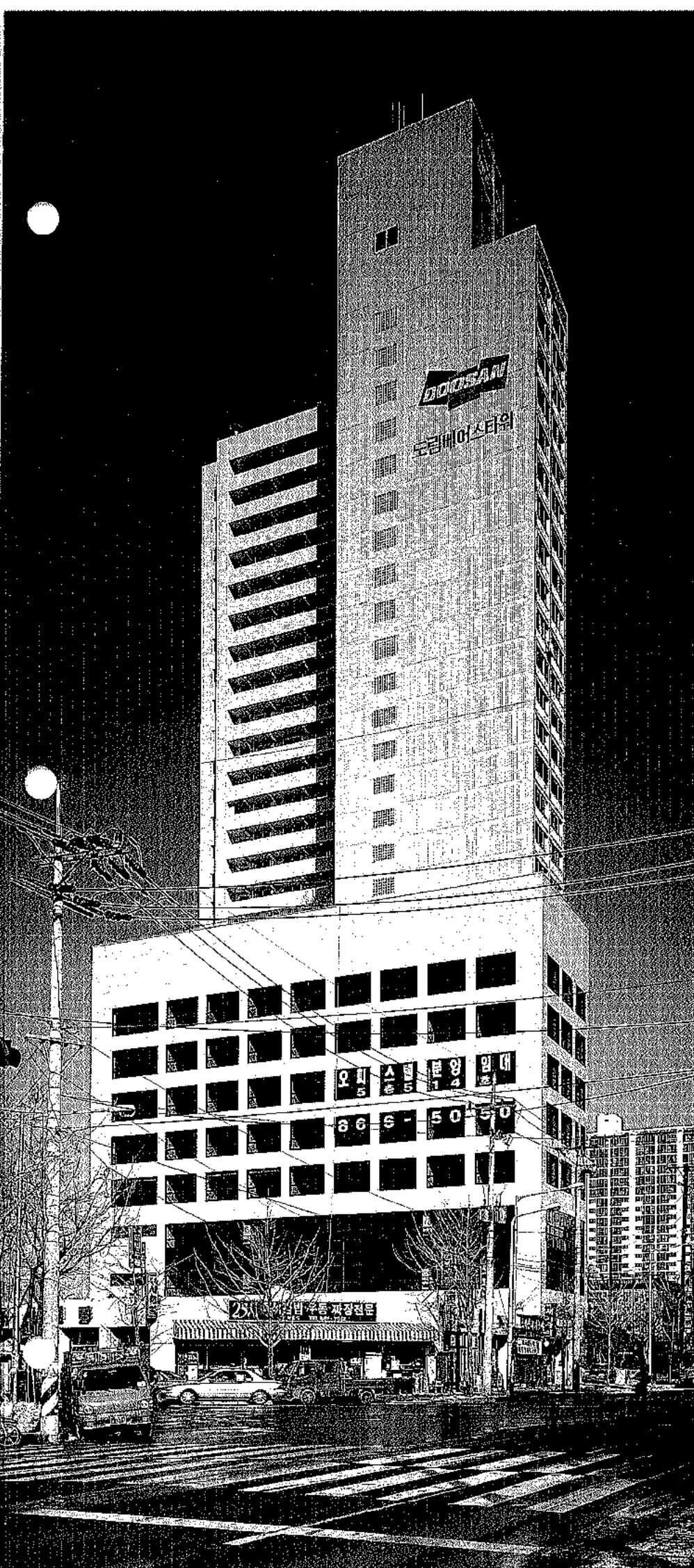
기둥과 보가 엮여가는 저층부의 상업공간들과는 달리 칸칸이 계획되는 벽식조 아파트의 특징적 기능구조는 Mass의 분리를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용도만큼이나 이질적인 형태는 한옥속의 양옥처럼 엉겨주춤한 이미지로 인하여 설계자의 고민거리로 만들고 있다. 저층부와 고층부를 단일 Mass로 처리하면 간편한 해결방안이라고도 할 수 있으나 아파트공간에 무수한 기둥들을 박아넣어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불필요한 공간들을 만들어내 그에따른 경제적부담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된다는 것을 설계자로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하여 각각의 효율성을 살리는 구조형태를 인정하면서 둘의 조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전환을 하였는데 다양한 용도에 맞는 입면구성에 있어서 직선이 가지는 단순함의 힘을 단계적으로 조절하여 격자형으로 전체이미지를 통일하였고 그 단순함이 모퉁이 대지로서의 Landmark적 Image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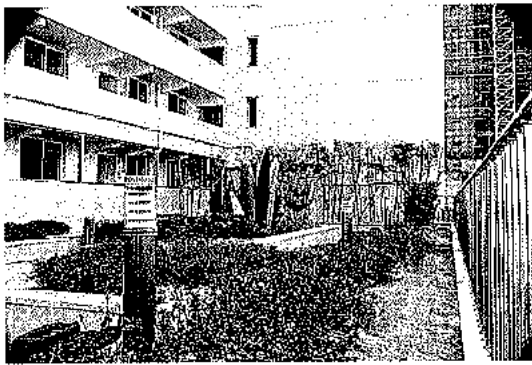
각기다른 구조의 두 Mass는 원충적 기능을 요하는데 Transfer Girder라는 대규모의 구조체를 필요로 하였다. 초기의 계획에서는 철골트러스조로 검토되었는데 때맞춰 발생한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철골조의 특성상 갖게되는 Tension은 벽식조의 아파트용벽에 균열을 유발하게되는 결함이 예상되어 일체식구조인 SRC-Super Girder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또한 시공과정에서 Built-Up Beam의 국내제작 한계상황이 야기되어 결국 RC-Super Girder로 설계, 시공되었다. 복합용도 건축물의 특성상 기계, 전기 등의 설비계통이 복잡하게 얽혀지는데 인체의 혈관과 같이 원활한 흐름과 정밀성을 요구하고 있어 효율적 공간구성과 집약적인 설비를 도모하기 위하여 PFP공법의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건축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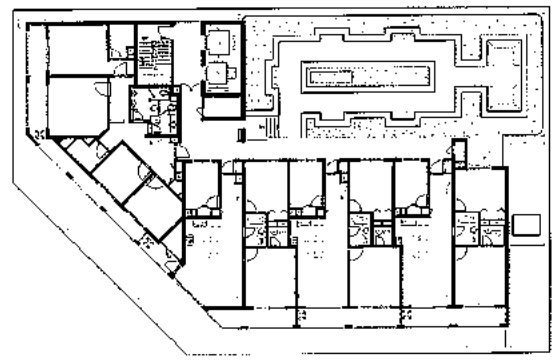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10-4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511.00㎡
건축면적	912.35㎡
연면적	20,235.93㎡
건폐율	60.38%

용적률	984.64%
층수	지하5층, 지상25층
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벽식구조
주요설비방식	FCU+AHU
주요용도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외부마감	화강석, 석재질스프레이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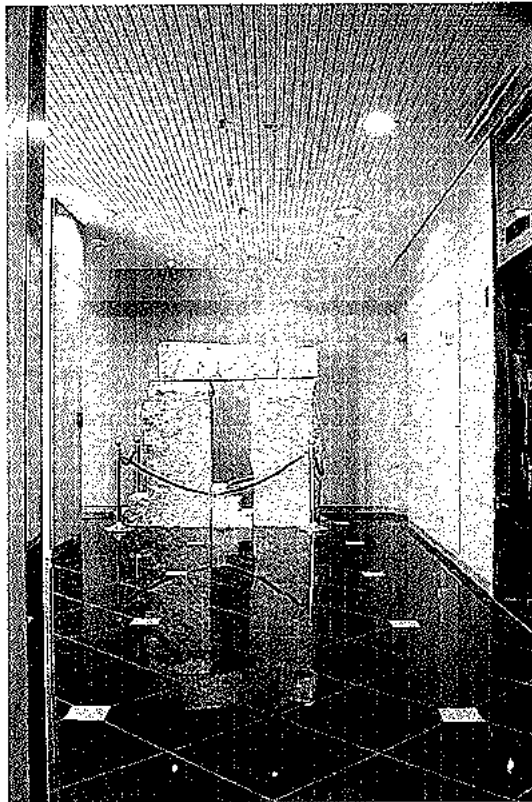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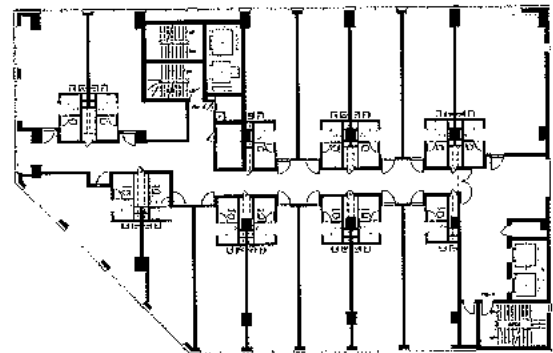
9층 옥상정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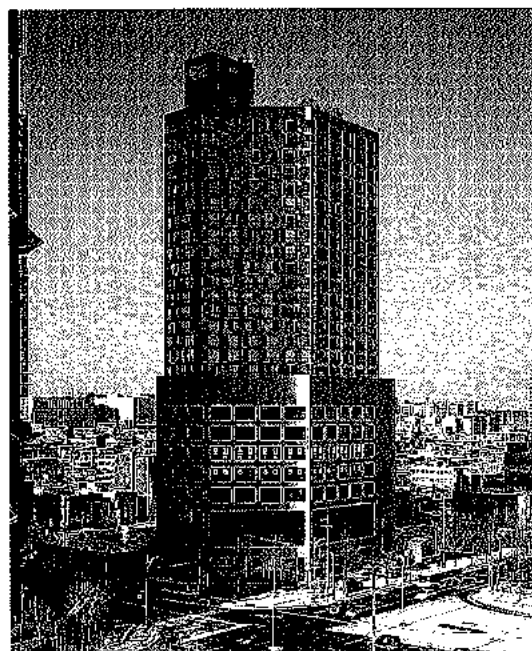
9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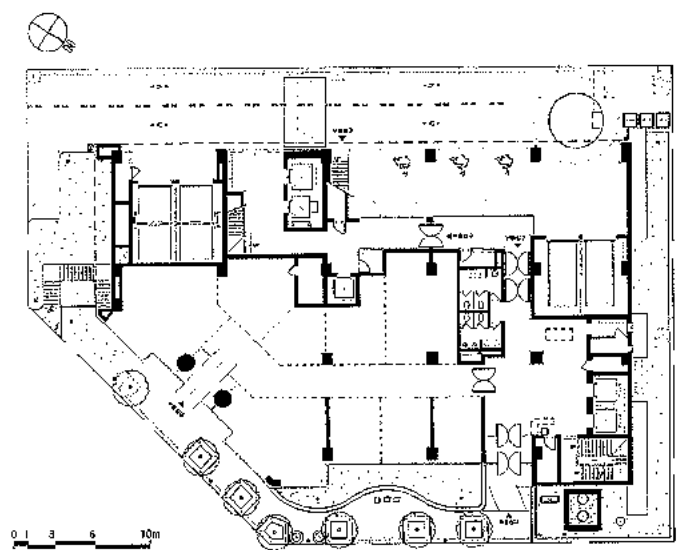
1층 로비



4~7층 평면도



전경



1층 평면도

0 1 3 5 10m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On the Revision of Laws for Building and Architect

건설산업의 개방화에 대비하고 국민편의위주의 건축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5월 14일(목)에 본협회 강당에서 개최됐다. 우리 협회가 주최하고 건설교통부가 후원한 이번 공청회에는 건축사를 비롯 건축관련단체와 시민단체, 관련학계 전문가들이 참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오전 10시부터 열린 건축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국민편의 위주의 건축허가 제도 개선,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정비, 시대변화를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체계로 개편, 건축기준의 합리화 등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있었고, 이어 14시 30분부터 열린 건축사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에서는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 유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축사등록업무 대한 건축사협회에 이관,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자기업무용 사옥 설계 허용,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건축사 행정처분기준의 조정 등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이번 공청회 결과는 보다 광범위한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번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으로 건축행정 절차나 건축 관련 각종 기준을 비롯하여 건축사제도의 미래 지향적인 합리적 기틀 마련의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본 지에서는 주제발표 전문과 토론내용을 요약 정리하여 게재한다.



주제발표 및 토론자

제1주제: 건축법 개정방안

좌 장 이문보(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발표자 이재욱(건설교통부 건축과장)
토론자 김종익(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사무국장)
김천주(대한주부클럽연합회 회장)
김재열(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담당 과장)
변영진(서울특별시 주택국장)
김영하(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김기철(대한건축사협회 이사)

제2주제: 건축사법 개정방안

좌 장 이명호(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발표자 최중수(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
토론자 배병휴(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
신용묵(소비자보호원 주택생활용품 팀장)
정기용(건축사사무소 기용)
양 갑(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이사)
최찬환(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이세훈(서울특별시건축사회 회장)

건축법 개정방안

Theme: On the Revision of Building Law

이재욱 / 건설교통부 건축과장
by Lee Jae-Ok

I. 개정배경

- 가. 건축법은 '62년 경제개발계획 착수와 동시에 제정·시행
- 건축물의 구조안전, 토지의 효율적 이용,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 건축문화창달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제정되었고, 제정 이래 토지이용도 제고와 국민편의 증대를 목적으로 21차례에 개정
- 나. 건축법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규제의 대명사처럼 인식
- 국민의 법으로서 보다는 건축사 등 전문가의 법으로만 인식되어 국민과의 괴리발생
- 다. 건축기준은 도시환경보호, 건물의 안전이라는 공공복리의 확보와 개인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양면이 있어 중립적 대안을 찾기 어려운 점이 있다.
- 라. 이번 개정안의 주요방향
-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중 반드시 필요한 것을 제외하고는 폐지하여 처리절차를 최소화, 각종 건축기준을 현실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투명성 확보 법령의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개정

II. 개정 주요내용

1. 건물의 용도변경 절차의 간소화

- 가. 현행은 천여종의 세부 건물용도를 32개 용도군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21개로 축소하여 건물신축시와 사후관리의 행정절차를 간소화
- 건물용도를 크게 묶어 허가없이 임의사용 가능범위를 확대, 허가서 및 건축물대장에 세부용도를 기입하지 아니하고 21개 용도군중 하나만 기재하게 함으로써 대장상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인다.
- ※현행은 영업허가시 사전에 세부용도가 기재된 대장사본 요구
- 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 용도변경 허가대상 11개 시설군을 5개로 줄이고, 신고대 상중에서도 건축기준이 강한 것에서 약하게 적용되는 용도의 변경은 용도지역내 입지기준에 적합하면 행정 절차없이 건축사의 확인으로 변경가능
- ※용도지역내 입지기준, 주차장, 피난 등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일군내에서 자유변경이 가능

<11개 시설군>	<5개시설군>	
관람집회, 숙박, 판매유통, 여객운송	다중이용	↑ 신 고 ↓ 임의 변경
공장산업, 위험물저장 및 처리	산업시설군	
교육, 의료 및 요양시설군	교육 및 의료	
주거, 영업업무시설군	주거 및 업무	
기타시설군	기타시설군	

2. 건축허가 처리절차의 간소화

- 가.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절차 간소화
-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인 대형건물은 시·도지사 사전승인후 시장·군수가 허가하던 것을 시·도지사가 사전승인 없이 직접 허가토록 하여 허가처리기간을 단축
- 나. 도시설계구역내 건축허가제를 전문가 확인제로 전환
- 건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계획적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설계구역에서는 민간전문가인 건축사의 확인으로 건축을 허가
- 다. 미관지구내 건축심의절차 폐지
- 미관지구내에서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건물미관에 대한 심의를 받도록하고 있으나, 개별건물에 대한 심의로는 지구전체에 대한 미관향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미관지구안의 건물건축시 미관기준을 미리 정하도록 하고 건축심의절차를 폐지(1개월이상 단축가능)

3. 신기술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률체제로 개편

- 가. 기술적인 내용은 법령에 근거만 두고, 지침형식으로 고시하여 법령을 단순화, 투명화
- 기술발달에 따라 변화 가능성이 큰 구조안전·피난·설비 기준 등은 전문가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법령에 근거만 두고 설계지침으로 고시하여 신기술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건축법령을 정기적으로 검토·개정할 수 있도록 건축제도 개선위원회를 운영
- 건축법은 전문성과 생활법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므로 전문가와 일반인의 의견을 동시에 수렴할 수 있도록 전문가·소비자단체로 구성된 건축제도개선위원회를 운영하여 법령이 정기적(2~3년)으로 개정되도록 한다.

※ 미국의 경우 공무원보다는 법제위원회에서 3년마다 정기적으로 개정

4. 법령에서는 원칙적인 내용에 한하여 정하고 예외적인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중심의 건축제도로 운영

가. 용도지역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중 필수적인 것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예외적인 것은 조례로 정한다.

-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주택, 근린생활시설, 근린공공시설 등 지역지정취지에서 볼 때 필수적인 용도는 법령에서 정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필요가 있는 용도는 조례로 정한다.

나. 대지는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된 것을 조례로 예외적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

5. 건축기준을 현실성있게 개선

가. 일조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

1) 북쪽 대지경계에서 건물높이의 1/2을 띄우도록 한 일조기준을 남쪽에서 띄우도록 한다.

- 현행 기준적용이 필요한 곳은 조례로 정하여 북쪽에서도 띄울 수 있도록 한다.

2) 상업지역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호텔 등 다른 건축물과 동일하게 일조기준의 적용을 배제한다.

- 현행은 공동주택은 북쪽대지경계로부터 건물높이의 1/2, 채광창이 있는 면은 대지경계로부터 1/4를 띄어 건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호텔 등 다른 건물은 동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일본의 경우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도로너비에 의한 건물높이 제한을 구역별 최고높이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단순화, 투명화

1) 도로너비를 기준으로 복잡하게 규정되어 이해하기 난해한 건물높이제한을 시장·군수가 구역(Block)별 최고높이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 구역별 건물높이를 더 높게 할 필요가 있는 건물은 건축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규정을 현실성있게 개선

1) 고의분할은 제한하되 부득이하게 발생된 자투리땅에 대하여는 건축을 허용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일반주거지역: 60㎡

일반상업지역: 150㎡

일반공업지역: 200㎡

Ⅲ. 건축법 개정방안 세부내용

1. 건물 용도군의 축소조정을 통한 절차 간소화

건축물의 용도는 수백종으로 미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야 개별법에 의한 영업허가가 가능하며 이 경우 모든 관계법을 검토해야 하므로 상당기간 소요

현행	개정
- 현행 모든 건축물을 32개 군으로 분류 사용(세부용도: 수백종) • 건축허가시 32개 군의 이름과 수백종중 1개 용도를 기입 • 건축물대장작성시 수백종중 1개의 용도를 변경하더라도 기재사항을 변경	- 용도를 크게 묶어 21개 용도군으로 축소 • 건축허가시 21개군중 하나의 군이름만으로 허가하고 세부용도 기입을 폐지 • 세부용도 변경시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불필요부터 사용까지의 건물의 호적을 기록하여 작성하는 것이나, 등기법과 영업허가 등

※ 건축물대장: 건물준공 후 허가부터 사용까지의 건물의 호적을 기록하여 유지관리업무 등에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나 등기법과 영업허가 등 타 법령에서 이를 활용하고 있다.

※ 현행은 수백종의 건물용도를 32개 군으로 분류하여, 용도지역안의 허용기준, 피난기준 등 건축기준의 적용 대상을 정하고 그 중에서도 11개 시설군으로 변경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한다.

○기대효과

용도군의 축소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가 대폭 축소될 뿐 아니라 건물을 건축주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2.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제의 신고제 전환

준공되어 사용중인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구조설계 등 제반 건축기준을 검토하여 건축한 것이므로 사용중인 건축물에

현행	개정
- 11개 시설군으로 용도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용도변경시 검토기준이 없다(신축기준과 동일).	- 신고하면 용도변경 가능 → 11개를 5개로 축소 - 검토기준을 명문화, 투명화(구조안전, 피난·도시계획상 허용여부 등을 고시) ※ 보완조치: 건축사 등 전문가의 구조안전확인을 거쳐도록 한다.
- 건물용도별 등급 분류기준 없다(11개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함).	- 구조·피난 등 건축기준이 강한 것부터 약한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상위건물은 하위로 변경시 행정절차 없이 사용가능

대하여는 신고만 하면 변경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11개 용도군 : 관공집회, 숙박, 판매유통, 여객운송 : 다중이용
주거, 영업업무 : 주거 및 업무
교육, 의료 및 요양 : 교육 및 의료
공장산업, 위험물저장 및 처리 : 산업시설군
기타시설군 : 기타시설군

○기대효과

기업의 신속적인 업종변경으로 경제여건변화에 조기 대응가능(중전 1~3개월 소요 → 2주내 처리 가능)

3. 대형건축물의 시·도지사 사전승인 제도 폐지

시장·군수·구청장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건축물을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했으나, 시·도지사가 직접 허가토록 하여 허가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

현행	개정
- 대형건축물 허가시 시·도지사의 허가전 승인 필요 ※ 대형건축물 : 21층 이상, 연면적 10만㎡ 이상 • 사전승인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고 관계기관 의견을 들어 승인 • 허가권자는 시·도지사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허가	- 시·도지사의 허가전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직접 허가토록 함

○기대효과

처리기간이 4개월에서 2개월 이내로 단축

4. 도시설계가 수립된 곳에서는 건축사의 확인으로 건축을 허가

도시설계수립지역은 건축법상의 건축기준이 모두 적용되어 수립내용에 따라 건축하면 가능하므로 민간 전문가의 건축행정 참여폭을 확대하고 국민편의를 위하여 건축사 또는 확인으로 허가를 갈음하고자 한다.

현행	개정
- 도시설계가 수립된 지역에서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절차로 건축허가 • 특별설계구역 등에서는 건축위원회 심의절차가 필요하는 등 처리절차가 타지역보다 복잡	- 도시설계수립지역에서는 건축사의 확인만으로 건축을 허가

○기대효과

도시설계를 수립하면 2중으로 규제한다는 이미지를 없애고 민간 전문가를 건축행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건축허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5. 건축심의 절차 간소화

미관지구안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더라도 개별건축물에 대한 심의가 되어 지구전체의 미관증진에 한계가 있으며, 허가처리 지연 등으로 국민불편 야기

현행	개정
- 미관지구안에서는 단독주택을 건축하더라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 미관지구안이라 하더라도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폐지 • 미관지구안에서는 허가권자가 건물 색채·형태에 대한 기준을 마련

○기대효과

미관지구 전체에 대하여 색채와 형태에 대한 기준을 정하도록 하여 지구전체의 미관을 향상시키고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국민편의 증진

6. 자치단체의 조례제정범위 확대

현행 건축법에서 대부분의 건축기준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으나 극히 한정적으로 위임하여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자치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위임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정
- 건축기준을 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으나 제한적으로 위임 •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내 허용되는 건축물을 제한적으로 위임 • 일조기준의 경우 대지의 위치에 따라 크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법령에서 직접 규정	- 조례 제정폭의 확대 • 필수용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 조례로 모두 위임 • 일조 등 각종 건축기준을 지역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기대효과

지역실정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기준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색있는 지방도시를 육성하고 민원해소에 기여

7. 도시설계 제도의 활성화

현행 건축법령상의 건축기준은 개별대지와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어 기존도시를 계획적인 도시로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개발 수단인 도시설계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81년 도시설계제 도입 이래 62개 지구에 불과

현행	개정
-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설계지구를 지정하여 도시설계 수립이 가능 • 도시설계 수립기준이 신개발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 기존 시가지에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크다. • 도시설계수립지침에 따라 설계내용에 모든 건축기준이 적용 • 도시설계를 수립하면 국민은 2종규제로 인식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공고하면 수립가능토록 지정절차를 간소화한다. • 기존도시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수립기준을 시·군·구별의 실정을 감안하여 작성 • 건축물 높이 또는 색채 등 몇 개의 기준만으로도 수립가능토록 한다. • 도시설계수립지역에 건축사 확인으로 건축을 허가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기대효과

계획적 도시 육성을 통한 도시환경개선

8. 법령내용중 기술적·전문적 내용 분리

건축법령에 구조안전·피난·설비 등 전문기에 한정되는 분야의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은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또한 신기술을 적기에 반영하기 어려워 건축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현행	개정
- 건축법령에 구조기준, 피난기준, 설비기준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으로 국민이 어렵게 인식 • 법령에 규정되어 기술발달에 따라 신속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	- 구조·피난·설비기준은 건축사 등 전문기에 한하여 검토되는 것이므로 지침형식의 "설계기준"으로 고시 • 기술발달에 따라 신속적인 개정가능

○기대효과

건축기술 발달내용을 적기에 반영할 수 있으며 법령에서 전문용어의 사용이 적어지므로 법령내용의 이해증진에 도움이 된다.

9. 건축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건축법령의 개정이 일부 이해단체의 압력이나 담당 공무원 필요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법령이 체계를 잃고 매년 수회 개정하여야 하는 사례 발생

현행	개정
- 건축법령의 개정이 규제개혁위원회 등 경제여건변화에 따라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법령이 체계를 잃음. • 법령개정시 공무원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개정된다.	- 건축사, 학계, 허가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건축제도개선위원회 구성 • 2~3년 1회 정기적으로 건축법령을 개정하여 민의 수렴

○기대효과

2~3년에 1회 정기적으로 법령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함으로써 건축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꾸준한 연구개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10. 일조기준의 합리적 개선

일조관련 건축기준은 건축물 높이를 결정하는 조항으로 내용이 복잡하여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질의가 많아 이를 국민의 정서에 일치되도록 개선

현행	개정
- 일조확보를 위하여 북쪽의 이웃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물높이의 1/2을 띄어 건축 • 북쪽에 정원을 두게 되는 결과 초래 -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을 적용 • 이웃경계로부터 높이의 1/2을 띄어 건축 • 창문이 있는 벽면은 높이의 1/4을 띄어 건축	- 원칙적으로 남쪽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띄어 건축토록 하여 • 남쪽에 정원을 둘 수 있도록 하되 • 기존건축물로 인해 민원의 우려가 있는 곳은 조례로 정하거나 허가권자가 판단하여 종전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상업지역내 공동주택에 대한 일조기준 적용배제 • 호텔 등 일반건축물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 공동주택사업단지 등 상업지역에 불가피하게 조성되는 주택단지에 대하여는 일조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상업지역에서는 일조기준을 적용치 아니한다.

○기대효과

정원을 남쪽에 두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 고유의 주택배치양식과 일치시키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기후변동(겨울 북서풍, 여름 남동풍)의 통풍·난방 등에 유리하며 상업지역내 일조기준을 배제함으로써 기형적인 형태의 건물을 균형감있는 건물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여 상업지역의 미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상복합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여 직주근접과 야간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다.

11. 도로사선제한 등 건물높이제한 규정의 합리화

건축법령에서 도로너비에 따른 건물 높이 산정이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조문별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므로 기준을 단순화하고 투명화할 필요가 있다.

현행	개정
- 건물의 높이가 도로폭의 크기에 따라 제한 • 도로너비의 1.5배 이하로 제한 • 2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 예외조항 등이 있어 완화	- 구역(Block)에 따라 최고높이를 정하여 제한 • 구역별 절대높이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에서는 원칙(도로너비의 1.5배이하)만 정하고 예외적 적용사항은 조례로 정하여 운영

○기대효과

건물높이기준을 절대높이 제한으로 변경하여 단순화함으로써 국민이 알기쉽도록 하고 건물높이를 증가하고자 하는 건축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하여 민원 완화. 또한 대지가 접한 도로의 너비에 따라 건물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유연성이 개재되므로 허가권자가 구역내 사회간접시설의 정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공정성에 기여

12. 자투리땅 활용방안 강구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개설 등 공공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지적도에 이미 분할되어 발생된 소규모 대지에 정상적인 건물의 건축이 불가능하게 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임시건축물을 건축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구조안전 등의 문제 발생하므로

현행	개정
-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최소한의 규모를 정하여 그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건축가능 • 최소규모 이하의 대지에 건축금지 • 최소규모 이하로 분할금지	- 발생된 소규모대지(자투리땅)에는 건축을 허용하되, 앞으로 발생하는 것은 예방 • 최소규모 이하 대지에는 건축가능토록 하되, • 최소규모 이하로 분할금지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일반주거지역: 60㎡
 일반상업지역: 150㎡
 일반공업지역: 200㎡

개선 필요

○기대효과

자투리땅 소유주의 민원을 해소하고 정상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도시미관 증진과 사용자의 인권을 보호

건축법 개정방안 토론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Building Law

I. 총론

IMF라고 해서 용적률을 모두 풀 것 같아 우려했다. 주택경기는 수요의 문제지 규제 때문에 침체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규제를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본다(김종익).

소비자는 소비자의 돈으로 건물을 짓는데 돈준 것 만큼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 그리고 건축법이 건축주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 편법, 비리, 부조리 발생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있는 같다. 절차 및 기준의 객관성, 투명성, 간소화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본다(김천주).

공청회가 왜 열리는지,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중요하다고 본다. 총리실 규제개혁내용을 보면 상당수가 건축관련 내용임을 알 수 있다. 또 공무원 비리를 살펴보면 건축, 소방, 위생 등 건축이 항상 빠지지 않는다. 모든 규제를 다 풀고 재검토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말해 최소범위의 규제 안에서 기준 및 절차가 투명성을 유지해야 된다고 본다(김재열).

“규제완화 = 국가경쟁력/경기회복”이란 등식에 밀려 “환경”과 “삶의 질”이 평가절하되는 상황에서 소비자는 오히려 “지도, 감독”을 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규제 완화 때문에 공공 및 좋은 제도를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규제 완화가 건축 무정부운동 같다는 인상이다. 자치단체가 요구할 내용을 중앙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물론 불가피한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건축활동에 왜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가?란 근본적인 물음을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공금자 위주에서 소비자 위주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자는 건축주, 건축사, 시공자가 아닌 시민이 주인으로 건축물은 사회적 공공재다. 따라서 공공은 소비자를 대표해야 된다고 본다(변영진).

건축 3단체의 제도 개선내용이 합의 도출되지 못한 것에는 아쉬움이 있다. 건축주와 관(공공)의 역할 재고하에 공익적인 건축물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 전체적 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각론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본다(김영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은 건축법이 아니라 주축법과 건기법, 소방법, 주차장법 등으로 건축법의 규제완화는 한계에 도달한 듯하다. 또 건축법상 건축설비는 시행절차에 많은 혼선과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건축설비의 정의 및 내용이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일반인이 인식하는 "건축설계"와 실재는 다른데 기술부문의 설계와 건축설계는 구분되어야 하며 건축설계도 기획, 계획, 기본, 실시 등과 같이 단계별 구분이 필요하다(김기철).

II. 주제별 토론내용

1. 건물의 용도변경 절차의 간소화

용도군을 축소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절차 간소화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로 용도군을 축소한다면 교통난 및 주거환경 악화가 될 수 있으므로 용도군 기준을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도 보수적인 입장이다(김종익).

용도군 축소 및 절차 간소화가 오히려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확대하는 건 아닌지...(김재열).

규제완화보다 규제합리화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 규제보다 유도로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 또 입주기준의 적합성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본다(김영하).

용도군을 축소 조정한다 해도 해당법 용도가 건축을 대장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혼란이 우려되며 또다시 건축문제로 되돌아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용도변경은 건물 시설군 합리적 검토가 필요하다. 또 관련법 규제도 이번에 같이 개정되어야 된다고 본다(김기철).

2. 건축허가 처리절차의 간소화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 일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도시설계구역내 건축허가제를 건축사 확인만으로도 허가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근본적으로 도시설계와 상세계획이 통합되어야 하며 인센티브제도를 활용하여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절차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운용 공무원의 자질(시각 및 역량)이 필요하다고 본다(김종익).

도시설계에 대해서는 반대다. 물론 논리적으로는 하자가 없지만 도시설계의 질이 낮아질 것이다. 도시설계나 지역지구 용도규제가 무엇이 다른가? 그리고 전문가 확인제로 전환한다면 구체적 기준이 필요한데 구체적 기준은 설계의 창

작성을 제한한다. 독일의 상세계획도 허가제는 포기하지 않는다. 미관지구내 건축심의절차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법에서도 과도하게 허용하는데 심의 조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2층 주거지역 용적률이 400%인데 어떻게 심의를 안하나? 객관화하기 어려운 사항을 공론화를 통해 기준을 만드는 것을 심의의 기능으로 봐야한다. 심의의 문제는 관행이 야기하는 불공정성과 불합리성의 문제로 필요한 것 심의할 수 있도록 조례위임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변영진).

대형건축물에 대한 사전심의 폐지는 시기상으로 한다면 대형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절차 간소화는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 일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도시설계구역내 건축허가제를 전문가 확인제로 전환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김영하).

도시설계 부문에 대해서는 찬성이다. 건축법에 맞다면 신고로써 가능토록 하고 책임(과실책임)은 법검토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본다. 또 벌칙규정은 위법이므로 행위자 책임원칙에 의해서 이득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김기철).

3. 신기술을 신속히 수용할 수 있는 법률체제로 개편

기술적 내용을 단순화하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건축제도개선위원회는 운영 및 실행력의 문제가 관건이긴 하지만 찬성이다(김종익).

건축제도개선위원회 운영은 찬성이다. 이를 운영하자면 공무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공무원 처우 개선 필요)한데 비전공 공무원을 건축직으로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불가능하다면 일정기간 교육후 식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김영하).

4. 지방중심의 건축제도 운영

전적으로 찬성이다. 법과 조례의 역할 분담을 명문화,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종익).

잘못하면 지방의 집단이기주의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김천주).

광역자치단체 조례와 기초자치단체 조례 통합이 필요하다고 본다(변영진).

5. 건축기준을 현실성있게 개선

남향선호의 전통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주거지구 환경열악이 우려되므로 '일조기준을 현실에 맞추록 개선'하는 안에 대해선 보수적 입장이다. 그리고 도로사선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고 본다.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가 허용 못하는 것을 법으로 정해줄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규로도 영세필지 늘어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국가매입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김종익).

일조기준에 있어서 북쪽을 이격 못할 곳도 많다. 좁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며, 남쪽 재량권에 대해선 찬성이다. 서쪽 이격이라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도로사선제한에 있어 구역별 높이를 조정하는 것에는 찬성이다(김천주).

일조기준에 있어 반대한다. 우리나라는 겨울이 길며 매우 춥다(일조권 폐지 반대). 또 남향이격은 분쟁 심화가 우려된다. 북쪽 이격을 원칙으로 두고 남쪽이 가능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업지역 아파트 일조기준은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리고 블록별 높이제한은 조례로 위임해 높이보다 용적률로 컨트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변영진).

일조기준에 있어 일조권으로 인식되어 남비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 같다. 정북방향 이격기준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계획적인 개발지에서는 일조기준을 폐지해 시범적으로 실시해야 된다고 본다. 그리고 사선제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유도 방안의 연구가 필요하며 전문분야별 심도있는 검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블록별 높이 제한하는 데 있어 도시설계 및 상세계획이 연계되어야 하는데 도시설계 따로, 상세계획 따로 되어 있어 문제인 것 같다. 그리고 자투리땅은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필대지로 합필 및 공동개발 유도가 우선되어야 하며 주거지역 등 제한적으로 최소한 완화해야 된다고 본다(김영하).

한국에서 동지에 4시간 일조를 받으려면 건물 높이의 2.5배 이격해야 한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집을 동향이나 서향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남을 위해 자신의 대지를 이격하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고 도로사선제한하려면 다른 부작용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김기철).

Ⅲ. 제안사항

현재 소비자의 권리를 무시한 채 건축업자 혼자 모두 다하고 있는데 소비자가 직접 감리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제도화(감리자 직접선택제 도입)되어야 하며 APT도 소비자가 감리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서식 및 건축법을 쉽게 개정하여 소비자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어야 하며 소비자가 직접 허가 및 행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무원 자질 및 서비스가 향상될 수 있

도록 공무원의 처우개선이 되어야 하며 또 공무원이 현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전문가 공무원은 빨리 전문가로 바꾸어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건설업자(건축주)는 소비자가 아니다. 마지막 사용자 다시 말해 분양받은 이를 소비자로 봐야 한다. 대형이든 소형이든 집장사가 소비자를 대변하지 못한다. 소비자 위주의 법과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김천주).

건축분야에 비법령 규제가 제일 많은데 비법령 규제를 없애야 한다. 그리고 내부지침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김재열).

건축규제가 많다고 하는데 건축법이 아닌 관련 법 사항으로 주차장법과 도시정비촉진법 등의 문제다. 소방, 위생 등의 내용도 국무조정실에서 부처간 규제완화를 조정해야 한다(변영진).

전력기술관리법(산업자원부)과 소방법(행정자치부) 등 이중삼중의 감리가 되고 있어 적용의 혼란과 과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따라서 총리실의 관련부처 조정과 건축법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기준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안전 관련 내용은 더욱 강화되어야 된다고 본다. 각종 건축용어 정의의 불명확으로 업무와 일체되지 않는데 용어를 외국(영어)의 기준으로 번역하여 정의하면 명확해질 것으로 본다. 건축법이 정확하고 명확해야 관련기준 및 업무범위가 설정될 것이며 또 그렇게 된다면 업무 및 책임한계가 명확해지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 줄 수 있는 보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지하층은 현실적으로 행정자치부가 주장하는 대피기능이 없으므로(지층 1/2 노출) 총리실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다(김기철).

Ⅳ. 방청객 토론내용(건의내용 요약)

- 현장조사감사업무대행폐지: 공무원의 고유업무로 공무원이 수행해야 한다.
- 도시외곽의 고밀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 및 도시 난개발: 주거를 다시 도시로 끌어들이는 제도가 필요하다.
- 건축물의 위법 부실의 직접 당사자는 건축이며 이를 제재해야 한다
- 소규모 건축물 사전입주 제재 완화: 소규모 건축물 불가피한 경우 입주 신고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한다.
- 제도의 사각지대이며 민원발생의 주요 대상인 200평 이하의 소형건축물에 대한 시공하자 보상받을 수 있어야 한다
- 현재 위법건축물 향성화 계획은 없는가?: 계획 없다(건교부 답변)

건축사법 개정방안

Theme: On the Revision of Architect Law

최종수 / 건설교통부 도시건축심의관
by Choe Jong-Su

I. 건축사법 개정 추진배경 및 방향

가. 건축사법은 '93년 제정된 이후 8차에 걸쳐 개정되어 건축사 자질 향상으로 양질의 설계용역서비스 제공에 크게 기여해 왔다.

- '95 WTO 체제 출범과 '96 OECD 가입, 최근의 IMF 사태로 인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 개방으로 외국 설계업체의 국내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설계용역업의 국제경쟁력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소비자 권익신장에 발맞춰 부실설계로 발생하는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하고
- 민간자율화 추세에 부응하도록 건축사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나. 정부는 건축사제도를 개선하여

-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통해 건축설계용역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 설계부실이나 감리소홀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 건축사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으로 민간자율화 추세에 부응하고, 행정의 능률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II. 개정 주요내용

1.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가. 현행은 개인 건축사사무소와 법인 건축사사무소간에 특별한 구분이 없으나, 앞으로 이를 차별화하고 법인인 경우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 수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건축사사무소의 법인화를 통한 대형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은 건축사 3인 이상, 기술사(인정기술사 포함) 1인 이상을 구비토록 하고, 설립절차 등 제반 법인 설립요건을 법에서 정하며, 법인의 경우 건설기술관

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수행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지역에 건축사 1인만 상주시키면 자유롭게 지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 건축사사무소가 대형화되면 설계용역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건축 설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2. 건축사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소비자 보호강화

가. 부실설계나 감리소홀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고 건축사업무 관련 각종 보증업무를 수행하도록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 건축사공제조합은 먼저 입찰계약에 따른 설계 감리이행 보증업무와 설계 잘못으로 인한 하자 보수 이행 업무, 회원에 대한 금융대출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 장기적으로 출자금 적립정도를 보아가며 손해배상 등 공제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등 업무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나. 건축사공제조합이 설립되면

- 지금까지 건축사의 재정능력 한계로 부실설계로 인한 하자를 제대로 보수받지 못해 건축주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 공제조합에서 보수 보증업무를 수행하여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 또 건축사가 설계입찰이나 계약이행 보증 등을 위하여 일반 보증보험회사나 엔지니어링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 무거운 금융부담을 지던 것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의 건축설계 허용

가. 지금까지 건축물의 설계·감리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여 등록한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 건설업체와 당해건설업체 소속 그룹의 계열회사(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에 의한 계열회사)가 자기 사옥으로 쓰고자 건축법시행령 별표1제11호가항목에 의한 일반업무시설을 건축할 때에는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4. 건축사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가. 지금까지 시·도지사 업무이었던 건축사사무소 등록, 등록사항 변경, 휴·폐업 신고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하여 협회에서 전산 관리토록 하고, 협회는 정책자료에 필요한 등록현황 등 기본적인 통계사항만 건설교통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토록하여 건축사 편의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도모토록 하겠다.

나. 또한 건축사사무소 등록번호를 건축사 면허번호와 일치시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건축사사무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록 건축행정종합전산망과 연계하여 운용토록 하겠다.

※ 현행 등록번호는 지역마다 틀리므로 서울시 강남구에서 강북구로 주소지를 이전할 때에도 등록사항변경이 아니라 신규등록해야 하는 문제발생

다. 지금까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건축사는 시도를 방문하여 등록절차를 마치고, 건축사협회에 따로 회원가입신청을 하여야 했으나, 앞으로 협회에서 등록과 회원가입을 일괄 처리하게 되어 건축사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처리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가. 기사 2급자격 소지자에게 예비시험 면제

1) 현재 기사 1급자격 소지자는 7년의 경력이 있으면 건축사 예비시험을 면제하나, 기사 2급자격 소지자는 경력에 불구하고 예비시험을 면제하지 않던 것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예비시험을 면제해 주어 1·2급자격 소지자간에 형평성을 꾀하도록 하겠다.

2) 이로써 그동안 예비시험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추었음에도 처음부터 예비시험을 보아야 함으로써 건축사가 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연간 3~4천명에 달하는 기사 2급 자격소지자를 구제하고, 이론과 실무를 두루 갖춘 우수 인력이 건축사가 되도록 하여 건축사 자질향상에 기여하리라 본다.

나. 건축사 시험에서 점수기준과 인원기준을 병행 실시

1) 건축사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 취득한 자만을 합격자로 처리하던 것을 선발인원을 사전에 결정 예고하여 점수기준과 인원기준을 병행하여 합격자로 처리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건축사위원회에서 건축사 수급현황을 고려하여 선발예정인원에 의한 선발 여부 필요성을 시험공고전에 결정하고, 시험실시 후 시험 성적 결과에 따라 최종합격자 수를 결정토록 하겠다.

2) 이로써 시험문제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가 어느 해는 적은 인원이 되었다가 어느 해는 많은 수가 되는 등 일정치 않아 수험생들이 시험준비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앞으로 시험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안정적인 시험준비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봅니다.

6. 건축사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

가. 지금까지 건축사 행정처분 기준이 경직되게 운영되어 현장에 건축사재를 잘못 쌓아 둔 것과 같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도 일률적으로 건축사에게 3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업무정지 처분전에 경고 처분조치 등을 하고, 시정이 안되는 경우 업무정지를 하는 등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Ⅲ. 건축사법 개정방안 세부내용

1.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전문화 유도

설계용역업 대외개방에 따라 국내진출이 예상되는 외국업체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건축사사무소 대형화 필요

현행	개정
- 건축사사무소의 법인설립 요건 미비 • 대표자는 건축사여야 함 • 인적구성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법인사무소나 개인사무소 간 업무내용에 차이 없음	- 인적구성 등 법인설립 요건을 정함 • 현행과 같음 • 건축사 3명 + 기술사 1명 이상 등 -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에 인센티브 부여 •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 리 수행 등

○ 기대효과

국내시장을 지키고, 해외 건축설계시장 진출 기반 마련

2. 건축사공제조합 설립

부실설계로 하자 등이 발생하면 설계자가 이를 보수할 책임이 있으나, 공제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방치됨

현행	개정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없음	-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 하자보수 보증 업무 수행 • 설계이행 보증 업무 수행 • 회원에게 대출업무 수행

○ 기대효과

소비자 권익 신장 및 건축사 보호

※ 장기적으로 출자금 적립정도를 보아가며 손해배상업무도 수행

3. 건축사 관리 업무의 민간위탁

민간자율화 추세에 부응하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

현행	개정
- 건축사사무소 등록과 등록 사항 변경, 휴·폐업 신고 처리하는 시·도지사 업무임	- 건축사 등록 등의 업무를 건축사협회에 위탁 • 민간자율화 추세에 부응하 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줄여 행정의 능률성 향상

4. 건축사 행정처분 기준의 합리적 조정

건축사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처분 기준 시정 필요

현행	개정
- 행정처분내용이 과도하고 획일적 •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또는 방해한 때' 기술사법에선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나, 건축사법에선 과태료 100만원 또는 업무정지 1년 • '공사현장 위해방지' 위반 시 위반동기, 정도에 관계없이 무조건 영업정지 8월	- 유사자격제도와 형평성을 갖도록하고, 유연성 부여 •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토록 함 • '시정지시제도'를 도입하여 경미한 사항은 영업정지전 시정기회 부여

○기대효과

행정처분에 대한 신뢰성 확보

5. 일정경력 2급기사에게 건축사예비시험 면제

기술취득자에 형평성을 갖도록 한다.

현행	개정
- 기사 2급자격자는 실무경력이 있어도 건축사예비시험이 면제 안됨 ※기사 1급 소지자는 7년 경력이 있으면 예비시험 면제 • 기술취득자에 형평성을 갖도록 한다.	- 기사 2급자격자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으면, 건축사예비시험 면제 • 기술취득자간에 형평성을 갖도록 함

6. 건축사시험에 최소합격인원 사전예고제 도입

주관식 평가로 인해 안정적인 건축사 수급에 한계

현행	개정
- 건축사시험에서 60점 이상 받아야만 건축사 자격취득	- 최소 합격인원 사전예고제 도입 • 60점 이상 득점자가 미달 시 동 인원까지 합격 처리

○기대효과

효율적인 건축사 수급조절 가능

건축사법 개정방안 토론

Discussion: On the Revision of Architect Law

I. 총론

건축법토론에서도 국제화 개방화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궁극적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한 룰'에 의한 우위를 확보해야 생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공공성이 대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 물론 비합리적인 절차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합리적인 절차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건교부)가 경제나 행정(건교부와 타부처)에 밀려 생긴 것이 많은데 경제와 행정 사이의 잘못된 법제는 기술영역의 설자리를 없애버렸다. 이에 건축계에 정치력이 필요(정책결정에 건축인이 없음 = 오늘 문제의 핵심)하리라 본다. 건축법의 규제는 이미 완화된 더 이상 공공에서 인센티브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마저도 남지 않았다. 건축법 개정안이 공공의 역할을 포기하는 수준까지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최찬환).

문제의 핵심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봤으면 한다. 경쟁력이란 무엇인가? 개방화를 수직적으로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류를 경계해야 하며 개방화는 건축의 문화적 창조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건축물은 제조 상품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건축사법의 기본목적에 대해서 근본적인 접근을 '현실성'과 '자율성' 측면에서 봐야 할 것이다(정기용).

소비자가 건축사에 직접 설계 의뢰하는 경우 매끄러운 행정처리가 안되어서 생기는 민원이 대부분이며 또 건축사가 소비자보다 관공서의 입장을 우선하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설계된 주택을 시공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자 보상이 가능하지만 설계자 보상제도는 필요하게 된다. 소비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접근할 수 있게 '정보' 접근이 가능해야 된다고 본다(신용목).

설계사무소의 영세성과 회장의 입장으로서 회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방향으로 토론에 임하겠다.

독일에서는 건축법을 법과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교육하고 있다. 민생에 직결되는 복잡한 문제라는 기본인식이 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이세훈).

II. 주제별 토론내용

1.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

경쟁력은 종합화된 전문화가 필수로 전문화

를 해야만 업역을 확대시킬 수 있다. 그리고 사무소 규모의 탄력성(설립과 해체)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물론 강제적이고 형식적인 대형화는 반대다. 다양한 형태의 사무소가 존재해야 한다고 본다. 지사설립문제에 있어 외국회사의 지사설립을 규제할 수 없다. 국가간 교류에 위배요인이 된다. 또 그렇기 때문에 국내회사만 설립제한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본다(최찬환).

필요하지만 과거 종합과 단독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그리고 지사설립에 있어서 지방의 지사가 법인의 자격을 모두 갖는다면 지역에서 마찰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법인' 구성에 있어서도 전력기술자 보유하면 전력설계 가능토록 보완되어야 된다고 본다(양갑).

높은 감이 있다. 빨리해야 되고 지사설립문제에 있어서는 외국회사의 지사가 들어오는데 현 시점에서 국내 회사 지사 안된다면 모순이라고 본다(배병휴).

현재 외국건축가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10명 내외의 소규모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대형화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대자본을 위한 법제도 개정은 반대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설계자가 기술자문(각종지재 및 데이터)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 우리건축을 풀어내는 능력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정기용).

대형화보다는 전문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보다 중요한 것은 전문화된 업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가 오픈되어야 한다. 물론 대형화가 독과점체제가 되어서는 안된다(신용목).

현재도 대형사무소는 얼마든지 있다. 때문에 인위적인 인원을 '집합화' 하는 것에는 반대한다. 또 건축설계는 개인의 창작이 우선되는 작업이기에 지사설립하는 것도 반대한다(이세훈).

2. 건축사 공제조합 설립

소비자의 요구가 강력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병행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최찬환).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찬성이다. 물론 출자금이 문제이기는 하지만 재원마련의 가능성 검토 및 정부지원 대책이 필요하리라 본다(양갑).

건축사의 책임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기

본적으로 보험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정기용).

우선 소비자의 편의가 조합원보다 우위가 되어야 하며 설계상의 분쟁이 많아지고 있는 현 추세에 맞춰 도입되어야 한다. 또 하자부문에 대한 즉각적인 설계반영이 가능토록 운영되어야 한다(신용목).

소규모 건축물의 시공자 및 건축주의 책임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배상을 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이행 등 한정된 범위내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설계와 감리를 분리시행하는 등의 제도정비가 필요하리라 본다(이세훈).

3.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 설계허용

건축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의 중요함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 건설회사 설계인력 구성요건을 정하고 설계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설계도의 전문가 확인이 가능할 때 시험적으로 우선 운용해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최찬환).

건설회사 건축사 도면검토와 실제설계는 다르다. 따라서 설계능력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건설회사의 비용 절감을 위해서 원칙을 깨서는 안되는 것이다. 세부기준이 필요하겠지만 자가업무용 건축물은 본사사옥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양갑).

기존 건축사 업역에 관한 것은 별도의 문제로 그룹이 해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배병휴).

선진국에서 건설회사가 설계불가하다는 명시 규정이 없다고 시공회사에서 설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안된다고 본다(정기용).

건설회사의 투명성이 우선 전제가 되어야 품질이 보장될 수 있다(신용목).

건설업체 설계허용시 설계자는 시공자의 종속 관계로 전락할 것이므로 즉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이세훈).

4. 건축사 관리업무의 민간위탁

정부가 통계 등 일일이 모든 것을 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찬성이다(최찬환).

위탁업무에 대한 수행이 가능하도록 권한도 필요하며 건축사 자율에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양갑).

찬성이다. 다만 회비 및 가입이 강제되어서는

안되고 빠른 시일내에 임의가입으로 전환되는 것이 원론이라고 본다. 물론 회비는 적정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본다(배병휴).

강제가입시 협회의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서비스로 임의가입을 유도해야 된다고 본다(신용목).

위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며 비영리 단체인 협회가 회원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본다(이세훈).

5.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

기능인력 구성이 역피라미드가 아닌 피라미드 형이 되게 기능인력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건축사 인증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 업무가능자, 인터뷰시험, 경력심사, 사후평가 등으로, 또 건축사 협회 또한 자정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최찬환).

기사1급을 인정하면 기사2급도 인정하는 것은 상식이며 기술자처럼 인정건축사제도를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건축사 인원조정이 기존 건축사를 위한 수급조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배병휴).

경력, 심사, 실적이 투명하게 관리되어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건축사 시험도 건축사 배출 수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될 것이다(신용목).

4년제 대학 학력기준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 2급기사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 오히려 2급건축사에 대한 규제를 없애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이세훈).

6. 건축사 행정처분 기준 합리적 조정

법운용의 전환에 있어 처분이 아닌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장치가 필요하며 원인제공자를 대신해 뒤집어 쓰는 억울함은 없어야 할 것이다(최찬환).

소규모 건축물과 중대형 건축물의 행정처분 기준 달라야 하며 소규모 공사감리의 범위도 명확화해야 할 것이다(양갑).

행정처분 구축요소를 건축사협회에 이전, 건축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협회차원에서 법률고문을 통해 해결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협회도 공적이고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정기용).

“행위자 처벌”이 우선되어야 하며 소규모 건축물을 무자격자가 시공한다면 소비자 보호가 안될 것으로 본다(이세훈).

Ⅲ. 제안사항

현재 업무범위를 그대로 갖고 가다가는 공멸할 것으로 본다. 컨설팅업무, 기존건물 유지관리(잠재시장 큼), CM 등 전문화를 통한 건축사 업역확대가 필요하며 영세한 건축물 및 소규모 건물의 서비스가 향상되어야 한다. 소규모건축물의 설계와 감리가 부실해서는 국민의 인정을 못받을 뿐만 아니라 건축계가 국민으로부터 외면 당할 수 있다.

소규모 건축물 시공제도화에 있어서는 직영공사 범위가 건축물 품질유지를 위해 제도권안으로 들어와야 하며 건축사는 소규모 건물의 CM이나 턴키도 할 수도 있을 것이다(최찬환).

법이나 제도개선은 건축사가 자율성을 갖고 현실적인 건축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본다(정기용).

동역외종 건축사가 행정처분을 당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소비자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신용목).

Ⅳ. 방청객 토론내용(건의내용 요약)

- 건축사가 현장에서 품질에 대한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은 반드시 필요하다.
- 건축사협회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자금이 없다. 따라서 공제조합을 운영하기 전에 각 주체자별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
-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 설계행위 허용과 타직종 종사하는 건축사면허 취득자가 설계행위를 못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등록후 업무라는 원칙이 없다면 모두 풀어야 한다.
- 건축의 예술성과 기술성의 나누어 기술부분에 대한 건설회사 설계허용과 대형화가 가능하도록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지방자치 및 건축법의 권한 위임 취지에 맞게 건축사협회도 시도건축사회가 법인으로 될 수 있는 연합회 제도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건축사법상의 내용 반영도 필요할 것이다.

지역건축탐방 ⑥ - 대구 · 구미 · 김천(상)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 Taegu · Kumi · Kimchon

보수성과 대륙성 기후의 대표적인 도시로서의 대구와 근대화 공업도시의 상징인 구미, 교통의 중심으로 옛날의 번성에 대한 향수를 간직한 김천을 묶어 영남권 내륙도시 - 안동, 상주의 북부지역과 경산, 하양, 영천의 학원도시지역도 일부 논의되지만 - 의 도시건축문화에 대한 지역성 탐색을 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도시인 대구는 지금까지 구여 정치권의 중심지, 소비도시, 아파트 사업의 본거지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야권의 대표도시로 바뀌었다. 또 IMF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도시 중 하나로 지하철건설로 생활패턴에도 일부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역성에 대한 논의는 수년 전에 대구 건축지 1집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진 바 있고 또 가협, 사협, 학회의 3단체가 상호 협조하여 각종 디자인 아카데미 및 지산 건축전 등의 행사를 통해 지역의 중요한 장소 - 약전골목, 동성로, 신천변 등 - 를 대상으로 그 역사적, 문화적, 도시 환경적 측면에서의 중요한 의미로 인식하는 계기도 나름대로 많이 만들어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다양한 논의의 결과에서 보여진 것 같이 지역건축 및 도시에 대한 특성을 찾고 또는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대체적인 의견이 집약되는 시점에서 우리는 이번 특집을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 스스로 지역 건축인으로서의 의식을 새롭게 디자인 좋은 계기로 생각한다. 또 지역성의 구현을 위한 주체는 누구보다 지역건축인 스스로의 과제로서 그 소재는 지역고유의 특성을 발견하고 찾아내어 현실점에 맞는 건축적 어휘, 재료적 취급과 함께 현대건축의 본질적 요소인 공간성, 장소성과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실체를 만드는 것이므로 우린 단순히 감상적, 감정적 논의가 아닌 하나의 논리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현대의 보편화, 무 개성화 추세에 주목하여 단순한 지역성만으로는 한계를 가지는 것이 아닌 변증법적 관계로서의 세계화에 대한 기준도 동시에 탐구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지역성은 역사적, 문화적, 공간적 유산과 도시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특성의 결과일 수 있지만 우리의 장단점을 보다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진지하게 해결해 나가는 능동적, 적극적인 사고로서 대체해야 할 것이다. 생활패턴의 변화는 있겠으나 삶 그 자체의 정서는 크게 변하지 않을 듯 하므로 기존의 가치관을 점차 변화되어 가는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적용하는 지역성의 새로운 추구를 모색하는 계기로 삼고 싶다. < 이정호 / 편집디렉터 >

〈상〉	영남 증부권의 지역성과 도시경관 / 김한배(대구대 조경학과 교수)	068
	대구의 전통구조물과 역사적 환경들 / 예명해(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	075
	대구건축의 지역성 탐구 / 권종욱(영남대 건축공학과 교수)	085
	대구시민의식과 도시 / 하재명(경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090

〈하〉	구미 도시탐색 / 김익환(금오공대 건축공학과 교수)
	구미건축을 바라보면서 / 신현익(금오공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천 - 작은 도시의 매력 / 김종영(계명대 건축공학과 교수)

좌담: 영남 내륙권도시 - 보수, 근대, 공업의 이미지

- 일시: 1998년 5월 13일 18:30~

- 장소: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세미나실

영남 중부권의 지역성과 도시경관

Characteristics and Cityscape of cities in the
Youngnam Inland Area김한배 / 대구대 조경학과(도시환경설계)교수
by Kim Han-Bae

1. 지역성의 시대

1) 지역성, 정체성, 이미지, 테마

지역성(Locality)은 '그 지역다움'이다. 의미 상으로는 지역적 정체성(Local Identity)의 준말이라고 본다. 근대 이후의 일부 유럽도시들도 그러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해방이후 이제까지의 근대화 성장기에 서울은 반성할 겨를도 없이 미국도시들을 그대로 닮아갔으며(Manhattanization), 지방 도시들도 이러한 서울을 경쟁적으로 따라가는 바람에 전국은 수많은 소(小)서울로 채워져 갔고, 어느 곳에 가도 '그 곳 다운 곳'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이른 바 우리나라 도시들은 실존의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적 자본의 물량공세와 함께 덮쳐온 불우한 문화와 환경의 획일화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성의 징표가 지역성의 추구일 것이다.

상당수의 미래학자들의 견해는 후기산업사회의 정착은 영토국가개념이 붕괴되고 유수의 도시들이 이를 대신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의 저명한 도시건축가 아시하라(Ashihara, 1986)는 21세기 미래도시의 관건이 지방도시의 정체성의 발견에 있다고 한다. 이를테면 다가오는 시대는 도시의 시대이고 도시의 정체성이 도시환경의 중요한 평가척도가 되리라는 것이다. 지역정체성은 실상 어떤 물리적 실체라기보다 그 지역에서 느껴지는 고유하고도 독특한 총체적 분위기 또는 이미지이다. 각 지역 주민들의 사회문화환경과 자연·인공의 가시환경을 함께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이다. 이를 계획상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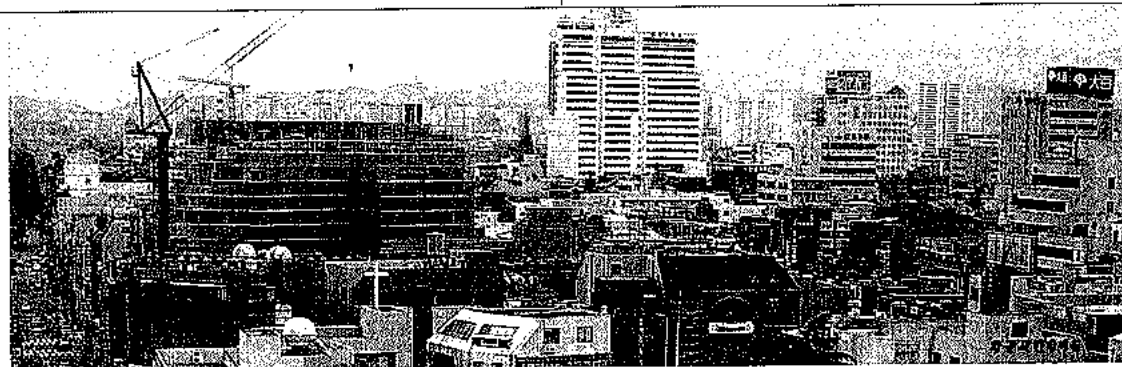
반영하기 위해 많이 쓰이는 요즘 용어가 '경관'과 '테마'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서의 '경관' 속에 총체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특히, 경쟁력있는 도시만들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는 그 도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테마를 만드는 일이다. 그 도시만이 갖는 독특한 자연환경과 고유의 특징을 살려 테마화하는 것, 이것이 경쟁력있는 도시조성의 기본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드웨어적인 환경조성과 함께 소프트웨어적인 테마있는 도시이벤트의 활성화가 함께 요구된다.

이렇게 볼 때, 지역성, 정체성, 이미지, 테마, 도시경관, 그리고 '장소성' 등의 개념은 지역과 도시의 고유한 특성을 표현하는 개념이자, 탈근대사회 환경관리의 상위목표를 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중부영남지역 도시경관에 나타나는 지역정체성의 특징들을 찾아보고 이러한 시각에서 지역환경의 향후 방향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2) 지역성 형성의 유형들

지역성이 형성되는 양상은 다음과 같은 여러 유형들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토속적(Vernacular) 유형으로, 작가의 의도적 계획·설계 없이 독특한 자연환경 기반과 주민들의 고유한 생활과 거주양식이 오랜 세월 상호누적되어 형성된 것이며 자생적, 유기적, 사실주의적 지역성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제주도나 하회마을, 유림 중세도시들이 대표적 예이다. 여기서는 지형, 민가의 집합적 형태, 길의 패턴, 재래시장 그들 공간에서의 살림살이 등이 지역성 구성의 요소들이다.

이와 대극(對極)에 있는 지역성의 유형은 의도적 도시설계의 결과로 형성된 도시의 개성이다. 과감한 정형적 도시설계의 사례인 파리(오스망에 의해 개조됨)나 북경(또는 경주와 교토)의 예가 대표적이다. 마지막으로 유려가 그다지 많지 않지만 한 사람의 탁월한 향토건축가나 또는 일군의 동질성을 갖는 건축가군에 의해 도시특성이 형성된 예로 가우디의 바르셀로나나 근대주의 건축의 전시장으로 불리는 시카고 등이 그



동성로에서 바라본 대구광역시 전경

에다. 첫 번째는 '주민' 이 두 번째는 '통치자' 가 세 번째는 '건축가' 가 지역성 형성의 주인공이 된다.

3) 지역성과 도시경관 · 도시설계 · 건축

앞서도 말했지만 우리나라 도시들의 지역성은 외관상 특히 취약하다. 이 취약함의 실체를 발견하여 스스로 인정하고 그 원인을 찾아 치유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이 기획이 가지는 참다운 의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취약성의 근본이유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은 타율적 근대화의 격랑과 그에 따른 역사유산의 파괴, 이를 계승할 사회문화적, 건축적 각성력의 빈곤이었다고 보인다. 단지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풍수사상을 근거로 입지하고 경관을 관리해 왔었기 때문에 주변의 '산' 과 '강' 등 자연경관이 뚜렷하고 아름다워 이것이 지역성의 기본 뼈대로 남아있고, 구시가지에는 지상부의 역사적 건조물들은 대부분 파괴되었으나 과거의 필지체계나 길의 형태 등은 그다지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이들이 과거의 역사적 분위기를 전해 주고 있다. 또한 근대 이후 최근까지 형성된 가로, 광장, 공원이나 건축물들 중에도 환경설계적으로 가치있고, 주민들에게 매력있게 느껴져 지역성에 기여하는 대상들이 적지 않다.

이들 현재 시점의 특징적 경관자원들과 지금은 뚜렷치 않으나 계획적 조성에 의해 부각될 수 있는 잠재적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내어 보존하고 활성화시킨다면 현재의 도시지역성을 현격하게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도시 전체적 차원에서 이러한 취지의 거시적 · 장기적 계획이 도시경관계획이고, 이는 도시설계나 도시건축, 공원 · 녹지계획, 도시조경 등 도시지역성을 형성하는 각 부문계획들을 총체적 입장에서 상호조절하는 원칙과 지침 역할을 할 수 있다.

2. 영남 중부권의 도시맥락

1) 영남 중부권 도시의 동질성과 개별성

영남지역은 지형적으로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거대한 분지로 낙동강을 중심으로 도시들이 남북방향

으로 분포하며,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남북도로 나뉘어진다. 경상북도는 전국 최고의 면적규모이고 남북의 길이가 160km에 이르는 거대 지역으로 영남지역의 생활문화권역은 사실상, 경상북도를 북부와 중부, 경상남도를 남부로 하는 세 부분의 권역으로 나뉘어진다. 북부는 안동 · 상주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상류 문화권, 중부는 대구 · 경주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중류 문화권, 남부는 부산 · 진주를 중심으로 하는 낙동강 하류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 본 특집의 기획진이 우리에게 요구한 김천, 구미, 대구는 이 중 영남 중부권의 대표도시들이다. 그러나 이들 세 도시간의 뚜렷한 지역적 동질성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차라리 영남의 특성있는 세 도시라 하는 것이 적합한 표현일 것이다.

대구는 인구 250만의 국내 제 3위의 대도시이고, 김천, 구미는 각각 인구 15만과 32만의 중급도시들로서 대구는 이 지역의 중주도시이고 김천과 구미는 대구에 상당부분 사회 ·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다. 도시역사로 보아서도 대구는 일찍이 삼한시대 때부터 부족국가 중심지였으며 통일신라의 천도후보지로 거론되었던 곳인 만큼 역사가 오랜 도시이고 경상감영이 설치된 지 400년이 가까이 오는 역사도시이나, 김천은 통일신라 때 일시 현(縣)이 설치된 적이 있고 당대의 대찰인 직지사가 현재까지 이어내려 오고 있기는 하나 본격적으로는 일제시대인 1930년대에 철도역의 설치와 함께 비로서 읍으로 승격된 후발도시이다.

구미 역시 고려시대에 일시 현이 설치되었고 조선초기에 일시 도호부가 설치된 적은 있었으나 본격적 도시로 조성된 것은 근대 해방 이후이다. 1960년대에 읍으로 승격되고 70년대 구미수출공단이 설치되면서 도시로 대폭 성장한 일종의 신도시라 그 역사적 · 사회적 성격이 대조적이다. 즉 시대적으로 대구는 조선시대, 김천은 일제시대, 구미는 70년대 이후의 근대화 시대에 조성된 도시로 각 시대를 대표하는 도시들이라 할 수 있다.

필자의 주 거주지가 대구이고 김천과 구미는 방문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관계로 실제 도시지역성을 면밀히 검토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본고는 각 도시별



구미시 전경

상문에 앞서 전체의 지역성을 개괄하는 도론(導論) 부분이므로 김천·구미의 경관특성을 개괄적으로 훑어보고 글의 주된 부분은 대구를 중심으로 도시경관과 지역성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려 한다.

2) 김천과 구미의 도시경관 특성

김천은 '추풍령 아래 첫 고을'이고 산악도시이며, 예로부터 4도(경북, 경남, 충북, 전북)가 만나는 맞꼭지각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서 교통과 시장이 발달한 교통도시이자 상업도시이다. 자연환경으로 보아 상하좌우가 산으로 둘러싸인(추풍령, 황학산, 삼도봉, 덕유산) 산악도시, 또는 전원도시로 스카이라인의 기복이 심해, 본인의 느낌으로는 자못 촌추는 듯한 극적인 경관을 이룬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인지라 철도와 고속도로가 도시의 중간을 누비고 지나가 도시공간이 동서로 삼분되어 있는 기이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김천하면 직지사가 떠올려질 만큼, 큰 절 직지사가 비록 시가지에서 보이지는 않으나 도시 이미지의 한 부분을 지배하는 상징적 경관요소가 되고 있으며 그런 의미에서 관광도시로서의 개발잠재력도 크다. 전후좌우의 산악이 웅대·수려하고 도시전체의 지형의 기복이 다양하여 동적(動的)이고도 특징적인 도시경관을 이루고 있기는 하나, 요즈음 전국적인 문제현상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주변산지 중턱까지 고층빌딩이 임립하여 경관의 특징적 흐름을 끊고 도시의 지역성을 훼손시키고 있다.

산악형 관광도시라는 도시이미지의 손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도시 나름의 제도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이 도시는 일제시대 조성된 대표적 도시 중의 하나로서 당시 많이 쓰이던 원형 로타리나 방사형 도로 패턴 등 소위 바로크식 도시양식과, 일본식 건물들이 많이 잔존해 있는데 이들도 이 도시의 역사와 지역성을 증언하는 역사경관자원으로 보존·활용하는 것이 도시개성 증진에 중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구미는 도립공원 금오산을 뒤로 하고 낙동강의

너른 물과 백사장을 마주하는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입지해 있다. 단지 경주나 대구와 마찬가지로 주산이 남쪽에 놓여있는 역풍수(逆風水)의 형국이다. 그러나 도시개발은 이러한 경관자원의 가시적, 활동적 이용(특히 접근성 문제)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전 도시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리라고 보인다. 특히 도시진입부에서 금오산의 전망을 가리는 개발행위를 제한해야 할 것이고, 구시가지 주민들의 낙동강변으로의 접근동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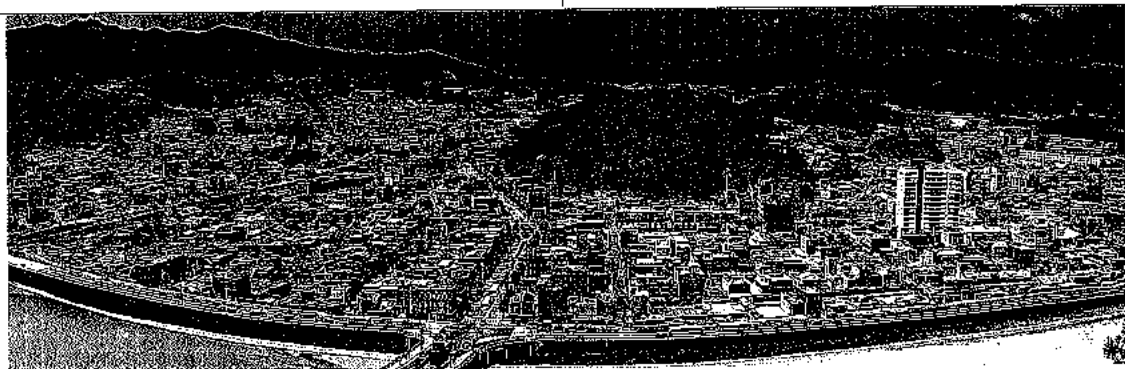
이 도시는 동측의 구시가지와 서측 구미공단단의 신시가지가 고속도로를 경계로 양분화되어 있는 두 얼굴의 도시이다. 저녁이 되면 한 쪽(서측)은 사람의 그림자조차 드물고 또 한 쪽은 많은 발길들이 어지럽게 붐비는 ... 생산을 미덕으로 아는 동쪽의 시가지와 소비를 미덕으로 아는 서쪽의 시가지가 나란히 자리잡고 있는(뿌리깊은 나무, 1983) 양극의 도시이다. 또한 서측 구시가지는 유기적 가로형태와 소규모 저층 상업 건물들로 이루어진 자연발생적 경관을, 동측 공단시가지는 차량운행을 척도로 한 정연한 격자형 가로망과 대규모 공장건물들로 이루어진 계획적 경관을 보이는 극단적 대조의 도시경관, 상호 아무 형태적 연관성도 없는 단절과 분리의 도시경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근대주의 도시계획의 최대 맹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분리적 조닝(Mono Zoning)'의 극단적 사례이다. 양 지구의 경관적, 도시활동적 융합을 위해서는 특히 공단지구 토지이용을 보다 복합적인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양 지구의 사이공간에 이들 이질적 경관들을 상호 완충, 전이할 수 있는 대규모의 공원·문화공간을 배치하는 것도 개선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3. 대구의 지역성과 도시경관

1) 대구의 역사와 자연

대구시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선사시대부터의 일이다.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과 비산동 일대에 걸



김천시 전경

쳐 퍼져있는 구릉 모양의 고분들과 여기에서 출토된 뽕나뭇잎으로 된 골각기 따위로 미루어 보면 적어도 삼천년 전부터 이곳에 취락이 형성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 취락이 달구화 또는 달구벌이라는 부족국가로 자랐으나 나중에 신라 영토에 들게 됨에 따라 대구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통일신라 초기에는 천도후보지로 거론된 바도 있었다.

조선시대인 1601년에는 경상좌도와 우도가 합쳐지면서 경상감영이 대구에 설치되었다. 경상도의 행정, 사법, 군무를 통틀어 맡아 본 경상감영은 그 뒤로 삼백년 동안에 걸쳐 존속하면서 대구시가 오늘날 삼대 도시에 드는 곳으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다. 지금 중국 포정동의 중앙공원에 남아 있는 선화당은 조선시대에 관찰사가 기거하던 집이었다.

조선조의 대구읍성은 임진왜란 1년 전인 선조 24년(1591)에 초축되어 영조 12년(1736)에 현재의 모양으로 석축으로 재축되었고, 선조 34년(1601)부터 관찰사영 소재지로 지정되어 조선 말까지 내려왔다(예명해, 1991). 이 대구읍성은 달성에 인접하여 동쪽으로 약 800m 지점에 축조되었으며, 이후 일제시 이후의 시가지 성장방향도 이러한 동쪽방향이 우선되었다. 조선조 당시 대구는 평양, 전주와 함께 3대 상업도시로 군림했던 지방의 대도시였다.

개항 이후 성벽이 철거되어 조선조의 도시 모습을 제대로 추정하기 어려우나, 조선조의 고지도와 개항기 - 일제초기 때의 실측지도를 비교해 철거 이전 읍성의 평면형태를 도상으로나마 복원해 볼 때, 조선조 당시의 도시 규모는 장직경 800m와 단직경 700m 정도로 보행권내 규모를 보이고 있다. 현재 북성로, 동성로, 남성로, 서성로 안쪽이다. 도시의 전체 형태도 읍성 일부의 모서리가 원형인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정방형에 유사한 형태였다. 조선조 당시의 읍성 내부 크기는 현재의 시가지 전 면적의 약 1/10~1/20 정도였던 것으로 파악되며 이 구 읍성의 자리는 현 도시내에서도 각종 공공건물들과 상업, 업무시설들이 밀집된 도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일제 식민지 시대에는 철도의 경유지가 되어 읍성에 인접하여 철도역이 설치되고 이에 따라 기존 성곽내를

관통하는 소위 중앙통 거리가 개통되었다. 6.25 사변을 기점으로 피난 군사도시로, 경부고속도로 개통 이후에는 전국규모의 산업도시로 급성장하여 1981년에는 직할시로 승격, 서울, 부산에 이은 한국의 세 번째 위계의 도시가 되었다. 대구의 현재 인구는 약 249만 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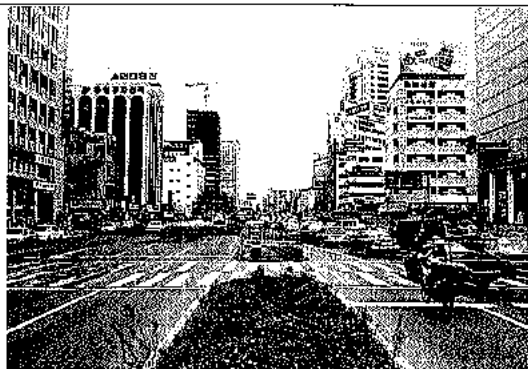
대구는 근대화 이후 앞서의 대구읍성을 중심으로 동심원적으로 성장하여 전체의 형상이 원형에 가까운 동심원상의, 그리고 명확한 단일중심의 도시구조를 보인다. 이는 도심부의 차량정체를 야기하고 도시를 좁게 느껴지게 하는 요인도 되나 그만큼 도심부의 활동성과 이미지가 강하고 이 부분의 환경관리의 중요성이 배가된다.

대구 is 알려진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지지형의 도시이고 특히 남측은 대구모의 앞산(비슬산)이 막고 있고 북측은 상대적으로 개방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상의 이유로 여름철의 남동풍이 차단되어 여름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더위로 유명하다. 북측은 금호강이 서류하여 서측의 낙동강에 합류되고 시내 중심부에는 신천이 시가지 중심부를 관통하여 북측의 금호강에 합류한다. 앞산은 이 도시의 전산(鎭山)으로 매우 큰 산이나 그 형태가 좌우로 퍼져있어 강력한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은 약하다. 대신 시가지에 인접하여 도시공원으로서의 기여도는 매우 높다. 이 앞산 자락까지 시가지가 이어져 있어 도심부는 고개 지형이 많다.

도시 북쪽 멀리 팔공산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 명산(名山)은 실상 시가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약 20km) 도시의 시각적 랜드마크 역할은 못하고 주로 주말의 행락지 역할을 한다. 대구 인근은 강우량이 적어 대소규모의 저수지가 많았는데 이들이 시가지로 편입되면서 공원·유원지로 바뀌어 이용되고 있다. 수성못과 성당못은 이러한 도심부에 가까운 수변공원이다.

2) 경관이미지 · 대표경관과 지역성

특정 도시의 공공(公共)이미지를 구성하는 여러 경관요소를 중에는 시민들이나 방문자에게 특히 도시전체의



대구의 가로전경(중앙로)



구미 공업단지 전경

이미지를 대표한다고 여겨지는 경관, 즉 '대표경관(代表景觀, Epitome Scene)'이라 할 만한 것들이 존재한다(Clay, 1973). 이들은 대부분 공공주민들이 그 도시내의 일상생활 속에서 반복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특징적인 경관요소이며 도시 전체의 경관과 그 사회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다. 도시의 특징적 산이나 스카이라인, 도시의 대표적 전경(代表的 全景), 특징적인 건물과 거리나 광장, 나아가서는 전체 도시의 특징적 평면형태라든가 하는 '도시의 얼굴(鳴海, 1988:32)'과 같은 것들이 그것이다. 이들은 우리가 한 도시를 방문하거나 오래 살았을 때, 그 도시에는 특히 눈에 띄거나, 인상적이어서 오래 기억되는 경관 또는 장소들이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곳 몇 경(소위 漢陽八景, 全州十景 등)'과 같이 지역 경관을 대표하는 것으로 인식된 경관요소들의 체계가 있었다. 이들은 쉬운 우리말로 는 보통 '명물(名物)'이나 '명소(名所)'로 불리던 곳들이다. 조선조 당시의 학자 서거정은 당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서 대구의 주요한 대표경관들을 '대구십경(大邱十景)'으로 읊은 바 있다. 즉, '금호강(金湖江) 배 띄우기', '입암(笠巖, 건물바위)에서의 고기잡기', '구암(龜峯, 連龜山)의 봄구름', '금학루(金鶴樓)의 밝은 달', '남소(南沼, 성당못)의 연꽃', '北壁의 향나무숲(도동 측백나무)', '동화사(桐華寺)를 찾아가는 중', '노원(櫺院, 노원 나루터)에서의 손 보내기', '팔공산(八公山)에 쌓인 눈', '앞산(砧山)의 저녁노을'이 당시 대구의 매력적인 대표경관들로서 노래되고 있다(이정웅, 1995). 이들은 대표 경관의 유형상 금학루와 동화사를 제외한 대부분이 자연경관 요소들이고 이들 위치는 대부분 금호강과 신천변에 접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즉 특징적 산이나 바위일지라도 대조적 짝인 '하천'과 만나 있을 때, 보다 강한 경승으로 압혀졌던 것 같다.

조선시대 대구읍성 주변의 경관요소들이 비교적 자세히 표현된 직자미상의 '遠城圖'가 있다. 이를 보면, 가까이 있는 경관요소로서는 '遠城'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어 있고, '新川', '砧山', '七星岩', '笠岩' 등의 자연요소와 '鶴樓', '龜岩書院' 등의 인문요소들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이 중 앞의 대구

십경과 중복되는 요소들로는 앞산, 입암, (금)학루, 구암(구암) 등으로 이들 역시 도시의 중심 하천인 '신천' 주변에 집중되고 있다. 이들 대구의 전통적인 경관요소들 중 입암(건물바위)과 남소(성당못), 동화사와 팔공산, 앞산 등은 현재 공원으로 개발되어 대구 도시경관의 매력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으나 나머지 경관요소들은 일부 소실되어 버렸거나 원형을 찾아볼 수 없게 변형되어 시민들의 의식에서 잊혀져 있다. 이들 대표경관들을 다시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복원하고 그 특징들을 강조한다면 현재는 많이 약화된 대구시의 전체 도시경관의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일조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천변은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청동기시대부터의 자석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구 상고사의 중심지역이기도 하면서(영남일보, '97.1.11) 전통적 경관요소들이 가까이 분포되어 있는 대구문화와 녹지경관의 축으로서의 잠재력이 가장 크다. 앞으로 이 선형(線形)의 녹지축은 대구 도시의 녹지문화환경과 도시경관을 일신케 하는 전략적 경관축으로 형성해야 한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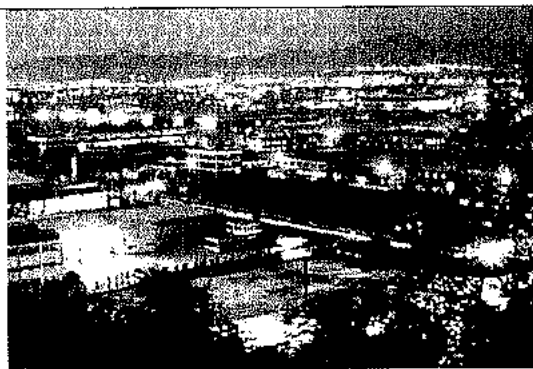
최근 99명의 대구시민들에게 직접면담을 통해 도시경관의 총체적 이미지를 다각도(총 8개 문항)에 걸쳐 조사해 본 적이 있다. 앞으로 보다 체계적 방법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을 상대로 조사해야 되겠지만 이를 통해 대구시민이 느끼는 도시경관 이미지의 대체적인 경향은 파악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여기서는 그 골자만 소개하기로 한다. 각종 설문 문항과 이미지 지도에 등장하는 경관자원들을 종합해 볼 때 그 내용상의 특성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 자연적 경관자원 — 팔공산, 앞산, 신천, 두류공원, 달성공원, 수성유원지
- 문화적 경관자원 — 대구타워, 동성로(대구 백화점), 대동로, 동대구로, 동대구역(두류공원, 달성공원)
- 시각적 경관자원 — 대구전경, 팔공산, 대구 타워, 동성로, 신천, 두류공원

이들 설문결과 중 특이한 것은 '동성로'가 대표적 경관자원인 것은 물론 '매력있는' 장소와 '싫어하는' 장소 양 문항에 공히 높은 빈도로 등장함으로써 극단적인 양면성



구미 구도심 전경



구미공단 야경

을 보였으며, 그 외의 설문 전항목에 걸쳐서도 가장 빈번히 등장한 가장 강력한 경관자원이었다. 동성로는 대구의 대표적 도심 상가로 다양성과 활기가 매력요인이며 활동적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장소이기는 하나 사회적 측면에서 향락과 사치의 중심이라는 부정적 의미도 가지고 있고, 시각환경에서도 그다지 세심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원인이 되어 이러한 극단적 호·불호의 양면성을 보여주게 된 것 같다. 이런 면에서 상업 시설 일색인 도심부에 녹지와 문화공간을 증대하고 보행가로 환경의 질을 높일 것이 요구된다.

특히 대구타워와 주변의 두류공원은 최상의 인지도를 보였는데 본 설문 외에도 지역 TV 뉴스의 배경으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대구의 새로운 상징경관이 되어 버렸다. 이는 타워 그자체의 시각적 규모와 위치에 따르는 가시성과 함께 두류공원은 입지가 중심도로변에 위치하여 높은 접근성과 가시성을 확보하는 까닭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타워 그 자체의 형태는 서울타워의 복사판적 형태로 대구의 특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두류공원도 형태적으로 그다지 특징적인 것이라 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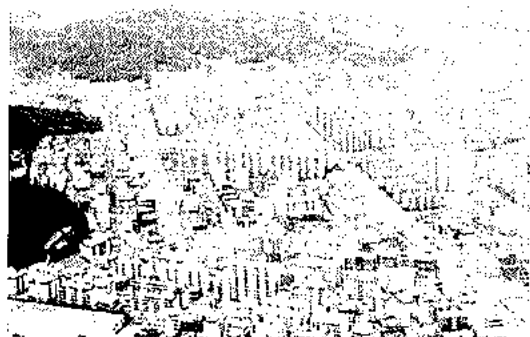
외야한 것은 외위로 '알산'은 그다지 높은 빈도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것은 시가지에서 가까운 대표적 산이며 최근까지 대구의 상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시가지의 고층화로 인해 스카이라인이 많이 가리워져 가시성이 떨어지게 되었고, 주변의 과다한 도로개발로 보행접근성이 떨어진 것이 중요한 요인이리라고 보인다.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요망된다. 그 대신 시가지에서 크게 벗어난 팔공산이 현저한 대표경관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많은 문화유적을 포함하고 있는 명산임과 더불어 근래의 진입로 확장과 차량이용 증가로 인해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현저히 다가간 까닭이라 보인다. 자연적 경관자원으로 그다지 높은 빈도는 아니나 새로이 등장한 것은 역시 신천이다. 최근 유지수 방류로 시민의 시각에 떠오르기 시작한 이곳은 환경정비방식상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매력있는' 곳은 동성로를 빼놓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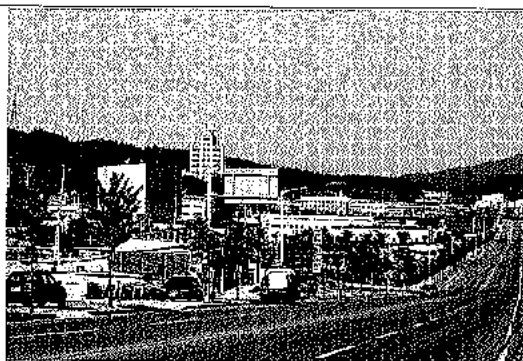
대부분 도심외곽의 공원이나 산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반하여, '싫어하는' 곳의 대부분은 도심부에 몰려 있어 도심부의 경관개선이 시급한 것을 알케워 준다. 또한 주변부의 공단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재래시장들도 도시의 매력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과감한 이전이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킨다. 특히 동대구역과 대구역은 이미지 지도에서는 우세한 요소로 나타났지만 설문에서는 주로 매우 '싫어하는' 장소로 나타났다. 여러 방향의 도시진입부를 포함하여 역과 공항, 터미널 등은 지역의 첫인상을 만드는 '도시의 얼굴'로서의 중요성을 갖고, 이들의 잠재력을 살리는 혁신적 경관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인다.

특히 '달성공원' 이외에 역사적 인자는 도시이미지에서 그다지 등장하지 않고 있다. 달성공원도 역사적 인자로 인식하고 있다기보다 오래된 공원으로 인식하고 응답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이는 역사경관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조사·발굴·보존 내지 활성화하여야 도시이미지를 보다 풍부하고도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역으로 제시하는 것과 같다. 역사적 환경의 개념은 최근 들어와 근·현대의 것으로까지, 나아가 정치·종교적 기념물만이 아닌 일상생활의 역사까지 포함해야 된다는 주장이 일반화되고 있다(Lynch, 1975; Jackson, 1980). 이런 입장에서 대구의 역사경관자원도 원시·부족국가 시대 → 통일신라·고려·조선조 → 일제 → 해방이후 등의 순으로, 상징적 건축물 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의 장소, 고유한 골목길 패턴 등으로 유형화하여 도시경관자원으로 보존하고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원시·부족국가 유산으로는 앞서 말한 지석묘군과 고분군, 달성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달성은 대구 도시유적으로서 최고의 것이자 대구의 상징이기도 하므로 복원·보존함이 필요하다. 통일신라와 고려의 유적은 아직 크게 알려진 바가 없으나 조선조의 유적은 경상감영과 향교(이전) 등이 남아 있고 읍성터와 약령시 골목, 주변의 조선조의 골목길의 체계는 특히 구체적 건조물은 없지만 중요한 '역사적 흔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일제 때의 것으로는 계산성당과 계산학교 주변



구미시 형곡시가지



김천공업단지

의 구미인들의 정착지와, 동문밖의 일인거주지 및 경북대 병원까지 일제시 건축물 등으로 구분하여 가구별로 보존 내지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근대건축물들은 현 도심 주변, 최근 현대건축물들은 대동·대서로 주변에 모여 있는데, 이들도 선택적·집단적으로 보존·관리할 필요가 있다.

4. 도시경관의 계획적 관리

이렇게 발굴된 경관자원들의 특성을 보존, 증진, 형성하는 것이 도시경관계획의 주된 내용이다. 즉 도시경관계획은 크게 '경관보존계획'과 '경관형성계획'으로 구성된다. '경관보존계획'이란 현존하는 경관자원들을 보존한다는 것이지만, 대상 그 자체를 보존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그를 향한 조망권역을 보존하는 것과 그곳에의 원활한 접근성(특히 보행접근성)을 확보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근지역의 부분적인 개발제한도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대상 경관요소가 시각적·의미적으로 잘 이해될 수 있게 하기 위해 주변 경관구성요소들(건축물들 포함)을 대상경관과 형태적·의미적으로 맥락성을 갖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존할 경관자원이 빈약할 경우 또는 그 자원이 잠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별도의 공간장치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거점적 경관조성을 통해 전체 도시경관에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다. 이것이 '경관형성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경관보존과 형성의 양대계획에서는 경관자원의 '가시성'과 '활동성', '의미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경관특성을 강화시키는 주요 방법이다. 이는 경관자원들을 보다 인간의 눈에 쉽게 띄고, 다가가기 쉽고, 쉽게 이해될 수 있게 도시공간을 관리하고 재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각각의 개념은 시각적 접근성, 신체적 접근성, 문화적 접근성이라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도시 전체의 경관자원들을 조사, 진단, 계획하고 제도적·기술적 실행방법을 강구함으로써 도시전체의 시각적·문화적 질을 높이고 지역성을 강화시키는 일이

도시경관계획이다. 특히 대구와 같이 빠른 기간에 급속히 성장해서 도시공간이 확산되고 도시경관이 산만해진 대도시의 경우에는 명료한 경관구조를 다잡아 주기 위해서도, 도시의 시각한경과 관련된 각 부문 세부계획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기 위해서도 도시경관계획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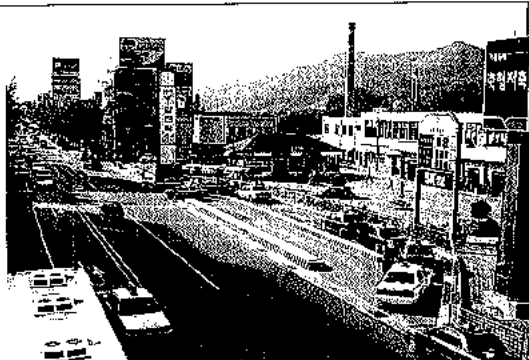
이러한 계획의 수립은 특정 전문가 개인에 의하기보다는 건축과 조경, 도시계획 전문가의 팀이 리더가 되고 이외 환경미술, 자연생태, 향토사학 등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문헌〉

김한배, 1998, 우리도시의 일출장기, 태림문화사
 뿌리깊은나무 편(1983), 한국의 발견 - 경상북도, 뿌리깊은나무
 예명해(1991a), "조선시대 대구읍성에 관한 연구(1)", 국토계획, 제26권 제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165~178
 예명해(1991b), "조선시대 대구읍성에 관한 연구(2)", 국토계획, 제26권 제3호,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pp.21~40
 이정웅(1995), 나의시골 나의자랑 대구, 대구 일봉출판사

嶋崎邦廣 編(1983), 景観からのまちづくり, 京都, 学芸出版社
 神戸市, 1982, 神戸市都市景観形成基本計画
 東京都, 1994, 東京都市景観形成基本計画
 尼崎市, 1985, 尼崎市都市景観形成基本計画

Ashihara, Y.(1986 in Japanese, 1989 in English), The Hidden Order, Tokyo, Kodansha International Ltd.
 Clay, G.(1973), Close-Up: How to Read the American City, Chicago, The Univ. of Chicago Press
 Jackson, J.B.(1980), The Necessity for Ruins, The Univ. of Massachusetts Press



김천역



김천시 중심부의 주택지

대구의 전통구조물과 역사적 환경들

The Traditional Constructions and Historical Environments in Taegu

예명해 / 대구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Yea Myung-Hai

1. 머리말

이 지구상에 인간이 축조한 단일 구조물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은 아마 성(城)이라 할 수 있으며 무기가 발달하지 못한 시기의 방어 시설물로는 성(城) 이외 특별한 방어시설물이 없었다. 특히 내·외침이 수없이 많았던 한반도에는 취락이나 도읍이 있었던 곳에서는 성(城)이 축조되어있지 않은 곳이 드물었다. 그래서 조선 초기학자 양성지(梁誠之)는 조선을 “山城의 국(國)”이라 하였다. 따라서 삼국시대 이래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역대 조정은 성조영(城造營)에 많은 인력과 경비 때문에 국가경영에 커다란 문제(걸림돌)가 되기도 하였다. 고래(古來)로 부터 우리조상들은 산성(山城)을 방수(防守)의 시설물로 중시하였고 평지에 위치한 부읍(府邑)에 성지(城池)를 구축하는 예는 드물었으나 조선조에 들어오면서 주요지방행정도시(읍)에 읍성(평지읍성)을 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조 이전에는 주로 산성을 방수의 요충으로 삼았으나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산과 평지와 연계되는 평산성을 많이 쌓았다.

대구지역에는 전투력이 빈약한 시기인 부족국가시대(初期部落國家時代)에 취락민들이 소집단을 위해서 해발 100m 전후의 대구평야의 낮은 구릉지에 축조한 토성과 삼국시대 이후 비교적 전투력이 발달한 시기에 일시적 필요에 의해서 팔공산 앞산 등의 고지대에 축성한 산성(山城), 그리고 조선시대 관아(官衙·관청)를 중심으로 에워 쌓던 현재의 대구중심인 평지에 축성한 대구읍성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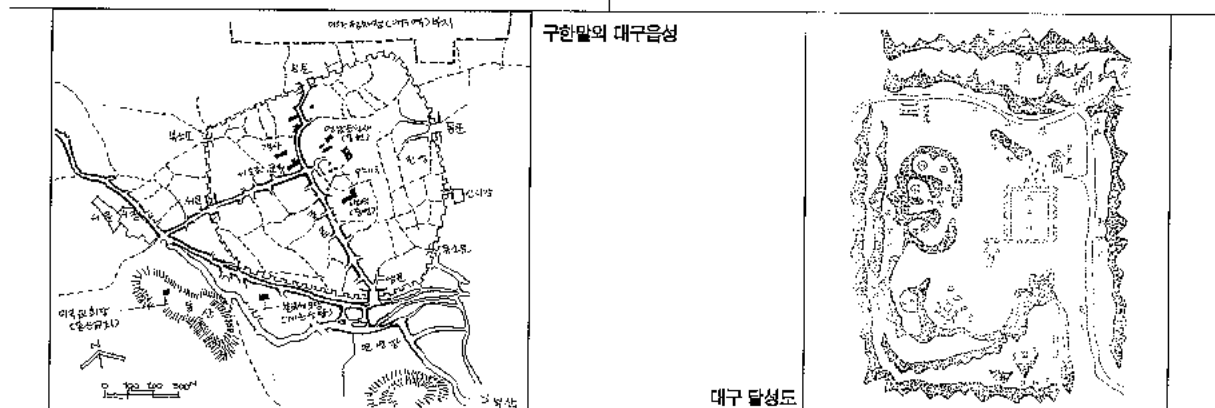
대구의 초기토성들은 신라시대 지역행정단위의 기본이 되었을 뿐 만 아니라 달성은 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행정중심지로서 관아가 있었던 곳이다. 성(城)은 대구의 도시공간을 구성하였던 가장 중요한 요소였으며 조선시대 대구부민이 만든 구조물 중 가장 규모가 컸다. 또한 대구약령시는 영시(令市)가 성시(盛市)를 이루었을 때 중국, 만주, 몽고, 일본 등의 거상(巨商)들까지 찾아와 교역하였던 점으로 보아 국제적인 면을 갖춘 관설시장으로서 선인(先人)들이 물려준 역사적 유산으로서 대구의 도시구성에 중요한 중심공간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겠다.

대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하여 전통구조물과 역사적 환경들이 많았으나 우리나라 대부분의 역사도시들이 그러했듯이 일제시대, 6·25, 60년대 이후 급속한 도시화과정, 문화유산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많이 훼손되고 변질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역사성을 가진 전통구조물과 역사적 환경들을 인식시키고 계승, 보존하자는 측면에서 이들 전통구조물과 역사적 환경들 중에서도 대구의 지역성을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대구달성(大邱達城)과 대구읍성(大邱邑城), 그리고 대구약령시(大邱藥令市)에 대해서 약술하고자 한다.

2. 대구읍성 내외의 주요시설물

조선시대 대구의 모습은 읍(邑)을 둘러싼 성이 있었으며, 거기에는 누(樓)가 있었고, 읍성 내에는 지붕 끝이 하늘로 젖혀 올라간 기와집 사이에 아주 높다랗게 치솟은 지방행정의 관할 관청이었던 감영(監營)이 현재의 중앙공원에 위치하였고, 전패(殿牌)를 안치하여 초하루 보름에 향궐말배(向闕望拜)하고 사신의 숙소로 사용하였던 객사(客舍)는 현 경북인쇄소 위치에, 조선시대 관설시장이었던 대구약령시장은 객사 주변부에 개시(開市)되었고, 대구부아(府衙)는 현 중부경찰서의 위치에, 대구진영(鎭營)은 제일극장부근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들 건물 사이로는 남작한 초가집이 있었다.

읍성(邑城)외에는 공교육장이었던 향교(文廟):



文廟)가 읍성의 동편 현재의 향촌동에 있었고, 동, 서, 남문밖에는 시민의 생활권인 시장이 형성되었다. 한국 본래의 여러 신(神)이나 유불사상의 영향을 받은 각종 사묘(祠廟)가 여기저기 있었는데, 그중 사직단(社稷壇)은 성서(城西)의 평리동에, 여단(厲壇)은 성북(城北)의 침산에, 성황단(城隍壇)은 성동(城東)의 연귀산에 위치하였고, 사교육장이었던 서원도 있었다. 그리고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던 불교는 유교에 밀려 대부분 산간에 자리하게 되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대구고을의 모습이었다. 이와 같이 읍성내(邑城內)는 관청과 민가를 함께 수용한 행정적, 군사적, 생활적 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데, 동서의 생활 축과 남북 축인 종로를 중심으로 한 행정적인 축으로 기능을 구분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읍성(邑城)을 경계로 주변지역은 행정중심지가 되었던 읍치(邑治)에의 강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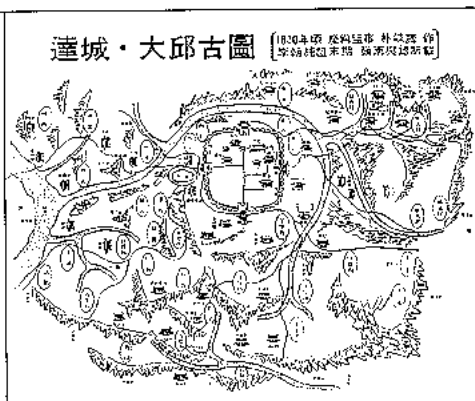
3. 대구달성(大邱達城)

대구지역에는 대구중심을 관통하였던 대구 구천(舊川)과 금호강 등 천변(川邊)을 따라 토성이 산재해있는데, 이들 성(城)들을 현재의 도시계획구역으로 살펴보면, 동구에는 봉무동토성(鳳舞洞土城), 용암산성(龍岩山城), 남구에는 응두산토성(龍頭山土城), 대덕산성(大德山城), 북구에는 노곡동산성(魯谷洞山城), 검단동토성(檢丹洞土城), 중구에는 달성(達城)이 위치하고 있다. 이들 성(城)은 신라시대 지역행정단위의 기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부족국가시대 대구지역에는 성(城)을 중심으로 대등한 세력을 가진 몇 개 집단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고 점차 이들 집단 상호간의 대립항쟁으로 세력의 집중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통일신라시대의 지방행정제도와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고고학적 유적 유물과 현재의 동산병원이 위치하고 있는 산명이 동산으로 불려지는 것으로 보아 달성으로 세력이 집중되어 대구의 중심세력으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대구달성은 경주 월성, 서울 몽촌토성, 마산 성산성 등과 같이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축성한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초기토성

이다. 그 성벽주(城壁周)는 약 1.3km, 높이 약 5m~12m 정도의 밑발굽형의 산성으로 산성이 갖추어야 할 조건은 대체로 다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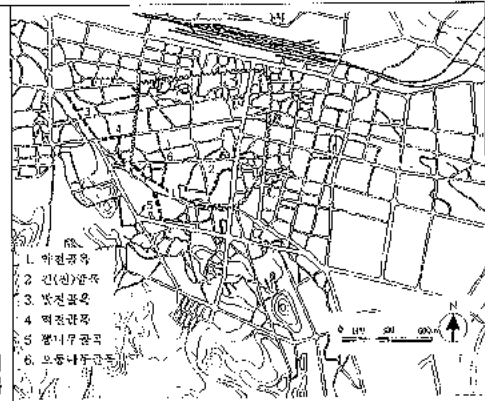
달성의 축조(築造)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기록에 의하면 신라 “첨해이사금(沾解尼斯) 15년(서기261년) 봄에 달벌성(達伐城: 達城)을 쌓고 나마국중(奈麻克宗)을 성주(城主)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구 지역의 성(城)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다. 신문왕 9년(689년)에는 신라의 수도(首都)를 경주에서 달구벌(達句伐: 대구)로 옮기려고 계획하였는데, 이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고 수도(首都)가 한반도의 너무 동남쪽에 치우쳐 위치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겠지만 달성주변에서 발굴된 최상급의 유적 유물과 경주의 대규모 고분과 비금가는 크기의 고분(비산동 59고분: 동서 약 100척, 남북 약 80척, 높이 12~18척) 그리고 큰 세력집단이 가지는 신분적 다양성을 입증하는 중하급의 고분이 다양하게 발견되는 점에서도 당시 달성을 중심으로 상당한 위치의 정치 세력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달성은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수없이 증개축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조선조에 편찬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誌), 여지도서(輿地勝覽), 대구읍지(大丘邑誌)등의 기록에 의하면 고려 공양왕 2년(1390년)에는 성벽을 석축으로 쌓았으며 성내에는 우물 못(池) 군창이 있었다고 전하며 세종조에는 달성이 천연적으로 험하고 성으로 지킬만 함으로 증수(增修)케 하고 대구군(大丘郡)을 대구도호부(大丘都護府)로 승격하였다. 그리고 조선시대 경상도의 행정관청인 경상감영이 일시적이나마 이치(移置)되어 경상도 전체의 행정중심지가 되기도 하였다. 청·일전쟁시에는 일본군이 주둔하였으며 1904년 11월에는 일본수비대장 야마다(山田大尉)와 일본거류민단이 공원을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1905년) 공원으로 조성함과 동시에 대구의 중심인 달성의 중앙부에 일본제국주의의 상징인 신사(神社)를 세워 대구의 정신을 앗아가려고 시도하였다. 이와 같이 대구중심부에 위치한 달성은 병기와 전술이 발전하지 못한 부족국가시대(대



달성·대구 고도(古圖)

조선시대부터 전래된 현재의 골목



구지역의 단위지역별 취락중심에서부터 신라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행정중심지로서 관아가 있었던 곳이며, 또한 대구민을 위한 군사적 방어시설물(보민처)로써 역할을 하였고, 선조 24년(1591년)에는 달성(達城)의 동쪽에 대구읍성이 축조되면서 읍성은 대구민의 일차적인 방어시설물로써 도시를 위요하고, 달성은 이차적인 읍성의 보완 방어시설물로써 달성(達城)과 읍성은 한쌍이 되어 대구는 이원적인 방어시설물을 가진 도시공간구조로 발전하게 되었고 지금은 매우 중요한 역사성을 갖는 대구서민의 휴식공간이 되었다.

4. 대구읍성(大邱邑城)

1) 토성조영(土城造營)

대구부읍지에 의하면 최초의 대구읍성(大邱邑城)은 부사(府使) 윤방이 선조 23년(1590년)에 선산(善山), 군위(軍威), 인동(仁洞)의 3개 읍민(邑民)을 징집(徵集)하여 대구부민(大邱府民)과 더불어 축성을 하였다. 축성연대는 대구읍지(大邱邑誌)와 선조실록(宣祖實錄) 등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청도, 성주, 영천, 경산, 인동, 상주 등 제성(諸城)과 마찬가지로 선조 23년(1590년)에 공사를 시작하여 다음해인 선조 24년(1591년)에 완공한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대구읍성(土城)은 선조 25년(1592년) 4월 21일 대구를 침공한 왜군(倭軍) 고니시 유키나카(小西行長)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이때 축성한 읍성의 규모나 구조에 대해서는 기록으로 전해지지 않아 구체적인 크기는 알 수 없으나 영조 12년(1736년)에 읍성을 재축(再築)하고 축성비(築城碑)를 세웠는데 이 축성비에 의하면 “부치(府治)의 북쪽에 토성유지(土城遺址)가 있으나 언제 창축(創築)되었는지 알 수 없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토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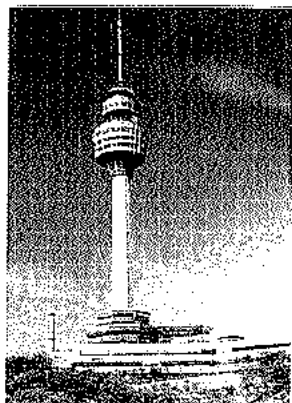
대구에 최초로 축성한 대구읍성(토성)은 임진왜란으로 완전히 파괴되었고 임진왜란 후 144년이 지난 뒤에 재축(再築)하였기 때문에 읍성은 형체를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리하여 대구는 임진왜란 후 140여년은 울타리(城)를 갖지 않는 지방도시가 되었다.

2) 석성조영(石城造營)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 八道總論 慶尙道編)에서 대구와 주변환경을 지리적 측면에서 서술한 내용을 보면 “대구는 감사(監司)가 있는 곳이다. 산이 사방을 높게 막아 북쪽에 큰 돌을 감추었으며 돌 중앙에는 금호강이 동에서 서쪽으로 흐르다가 하류에서 낙동강과 합친다. 고을 관아(官衙)는 강 위쪽에 있다. 일도(一道)의 정중앙(正中央)에 위치하며 남북으로 거리가 매우 고르고 또한 지형이 훌륭한 도회지(都會地)이다. 大丘 동남쪽에서 동래(東萊)까지 사이에 여덟 고을이 있어 땅은 비록 기름지나 왜국(倭國)과 가까워서 살만한 곳이 못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도 대구는 외침 이외의 인간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諸般條件)은 다 갖추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구는 외부의 침입에 대비한 방어시설(防備施設: 성곽)이 필요한 지역임을 말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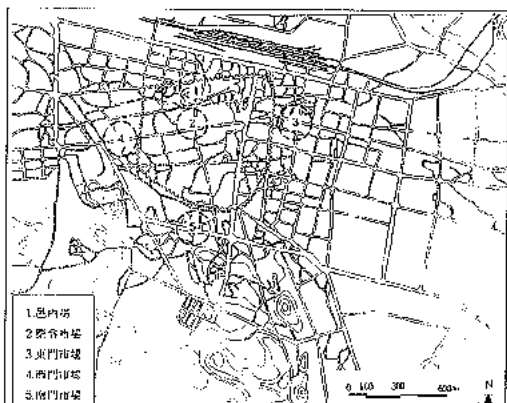
대구는 임진왜란 이전에는 지리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하다가 임진왜란시 명군(明軍) 왜군(倭軍) 등이 대구에 주둔하였거나 통과한 사례가 많아 임진왜란후에 비로소 군사적으로 중요한 위치임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임진왜란 이전에 경상도의 행정기관이었던 경상감영(慶尙監營)이 상주, 경주, 성주 등 거읍(巨邑)에 설치되었다가 선조 34년(1601년)에 감영(監營)이 대구부(大邱府)로 이치(移置)되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대구는 경상감영이 이치(移置)되면서 명실상부 경상도의 군사, 행정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된 동기가 되었고, 또한 경상감영과 대구부민을 위한 방어시설물인 성곽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구읍성(大邱邑城)은 영조 11년(1735년) 3월 경상도 관찰사 겸 대구도호부사(慶尙道觀察使 兼 大邱都護府使) 민응수(閔應洙)가 도입(到任)함으로써 축성(築城)의 논의가 원숙(圓熟)되어 축성이 실현되었다. 축성공사는 영조 12년(1736) 4월 8일에 석성(石城)의 돌을 다듬기 시작하여 동월 12일에 성(城)터를 닦고 4월 25일에 체성(體城)을 쌓아 6월 6일에 읍성을 완성하였다. 읍성이 완공된 그해 11월 신축일(辛丑日)에 준공식(竣工式: 落成宴)을 감영 선화당(監營 宣化堂)



대구타워

대구성을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



에서 개최했다. 축성비에는 읍성에 대한 축성경위와 동, 서, 남, 북문을 중심으로 구역별(區域別)로 분담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성역담당역원명단(城役擔當役員 名單)을 밝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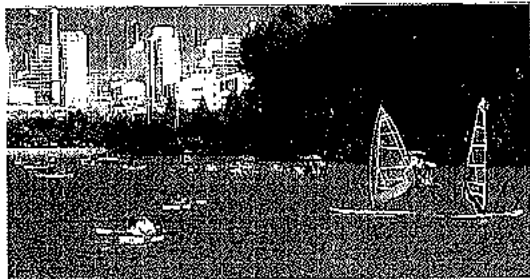
축성인부는 대구 부근의 잡색군(雜色軍)을 비롯하여 대구 칠곡의 인군(煙軍)이나 함경도(咸鏡道) 6진(鎭)의 속오군(束伍軍), 그리고 경상도내의 승군(僧軍)에 이르기까지 총 인원 78,584명이 동원되었고, 전체의 성벽은 백패(百牌)로 나누어 각기 패장(牌將) 한 사람씩을 두어서 일을 맡겨 매일 감사(監司)가 그 성과를 순찰(巡察)하며 감독하였다. 그 경비(監營)의 경비에서 지출하고 도내 각종 공장(工匠)을 모집하여 급료(給料)를 주었고 축성에 필요한 재료인 철(鐵), 회(灰), 석회(石灰), 목재(木材), 기기류(器機類)를 구입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수성창(修城倉)을 건립(建立)해서 성곽수리(修理)에 필요한 여러가지 기구를 비치(備置)하고 전포(錢布)를 축적(蓄積)해 두어 후일의 수리(修理)에 대비하였다. 수성창의 위치는 현 동성로(東城路) 2가에서 포정동(布政洞) 사이에 있었다고 전해지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읍성의 규모는 대구읍지(大丘邑誌), 대구부사례(大丘府事例)등 사료(史料)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축성비에 기록된 성곽의 규모를 영조척(營造尺)을 기준으로 미터 단위로 산정하여 보면 성의 둘레는 약 2,650m(2,124步), 성곽의 높이는 서남 약 3.8m(18尺), 동북 약 3.5m(17尺), 성(城)의 폭(幅)은 약 8.7m(7步), 여첩(女堞)은 819개로서 여첩의 1개의 길이는 약 3.23m이다. 또한 성곽의 동서남북에는 동문, 서문, 남문, 북문과 성벽의 동서에 암문(暗門)이 각각 1개씩 있었다. 이 문들은 석축(石築)으로 처음 개축(改築)했을 당시 동문을 진동문(鎭東門)이라 했고, 서문을 달서문(達西門), 북문을 공북문(拱北門), 남문을 영남제일관(嶺南第一關)이라 하였고, 암문(暗門)은 두개가 있었는데 동소문(東小門), 서소문(西小門)이라 하였다. 남문은 이중루(二層樓)로 되어 있었고, 동, 서, 남, 북중 가장 규모가 컸다. 남문이 가장 규모가 커던 이유는 우리민족의 남향존중사상(南向尊重思想)에 의한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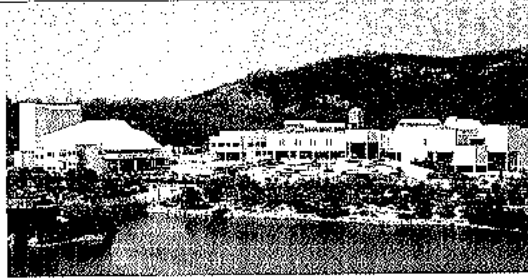
대구읍성(大丘邑城)이 영조 12년(1736년)에

부성(府城)을 석축(石築)한 이후 수성창(修城倉)을 두고 성(城)의 수리(修理)는 수시(隨時)로 행하여 졌으며, 축성후(築城後) 134년이 지난 고종 7년(1870년)에 성벽(城壁)의 대수리(大修理)가 행하여졌다. 이 공사에서 성벽(城壁)의 상부(上部)에 설치된 치첩(雉堞)은 모두 개축(改築)하였으며 성벽(城壁)의 일면(一面)을 더욱 확장하고, 성고(城高)를 높이는 한편 동서남북 네문의 문루(門樓: 櫓樓)를 개건(改建) 중수(重修)하고 성벽(城壁)위에 새로 네개의 누각(樓閣)을 세웠다. 이들 누각명은 동은 정해루(定海樓), 서는 주승루(籌勝樓), 남은 선혜루(宣惠樓), 북은 망경루(望京樓)라 하였으며 또 중간에 4개의 포(砲)를 증설(增設)하였으며 석돈(石墩)도 증축(增築)하였다. 또한 모든 문루는 단청(丹靑)을 칠하고 치첩(雉堞)은 백회(白灰)로 분장(粉裝)하였다. 영조때 쌓은 성(城)에는 없었던 포대(包臺)를 새로 만들어 총포전래(銃包傳來) 이후의 새로운 전술에 대응하도록 하였다. 이 공사는 관찰사 김세호(金世鎬)가 부임한 이듬해인 1870년(高宗 7年) 3~4월경에 공사를 착공하여 8~9개월간에 걸쳐 행해져 동년 11월에 준공(竣工)을 보았으며, 수리공사(修理工事)의 총경비(總經費)는 대체로 70,000전(錢) 이었다고 수성비(修城碑)에 기록하고 있다.

대구의 고지도(古地圖)와 현재의 지적도를 기준으로 읍성의 동, 서, 남, 북문과 2개의 암문(暗門)의 위치를 고증하여 보면, ① 동문(진동문: 鎭東門): 현재의 중앙공원 전면도로에서 동아백화점 남면도로와 동성로와 교차되는 도로상(제일은행앞) ② 서문(달서문: 達西門): 현재의 중앙공원 전면도로에서 대구경찰서를 거쳐 서쪽으로 뻗는 도로와 서성로와 교차되는 네거리상(구조흥은행앞) ③ 남문(영남제일관: 嶺南第一關): 대구경찰서에서 남쪽으로 뻗는 종로(鍾路)와 남성로가 교차되는 네거리상 ④ 북문(공북문: 拱北門): (株)백산 좌측도로와 북성로와 교차하는 도로상. 그리고 동장대(東將臺)는 현 중앙파출소에서 동성로를 따라 대구백화점으로 가는 도로상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으며, 남장대(南將臺)는 남성로와 서성로가 교차되는 모퉁이며, 북장대(北將臺)는 동성로와 북성로와 연결되는 구 관광호텔 건너편으로 현재의 대우빌



대구 수성유원지



대구 문화예술회관

딩 전면이며, 망경루(望京樓)는 북성로와 서성로가 교차되는 모퉁에 위치하였다. 동소문(東小門)은 현 대구백화점과 중앙 파출소와 연결되는 중간지점, 서소문(西小門)은 망경루(望京樓)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으로 서문교회입구 골목 앞 도로상이었다.

3) 대구읍성 철폐(大邱邑城 撤去)

우리나라의 주요 내륙도시의 읍성철폐는 일본인이 그 도시에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는데 대구도 마찬가지였다. 대구에는 1893년 9월에 처음으로 두 일본인이 대구 남문내에서 의약품과 잡화상을 시작으로 1894년 청일전쟁기에는 점포가 10호 가량 되었고, 1903~1904년 사이에는 남문바깥에서 달성산(달성공원)에 이르는 시가(市街)에는 일본인 상점으로 가득 메워졌으며, 일본인의 수도 1,500여명에 달하였다.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되었던 191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쌓았던 지방도시의 읍성들이 철폐되기 시작하였는데, 대구읍성도 마찬가지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1905년을 전후하여 대구역과 경부철도를 건설하면서 많은 수의 일본인이 대구에 들어오면서 역부근을 중심으로 북문과 동문바깥의 토지는 거의 일본인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 성벽을 경계로 성내는 한국인이, 성밖에는 일본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대구역을 중심으로 성북측(城北)에 일본인의 상권이 형성됨에 따라 성벽(城壁)은 일본인이 성내의 상권을 장악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벽자체가 민족적 저항의 상징물로 보았기 때문에 성벽을 해체하여 한국의 전통적인 질서를 허물고 그들의 식민지정착을 용이하게 하려고 성벽철폐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하여 일본거류민회에서는 매일적인 상징물이었던 성벽을 철폐함으로써 성내의 경제권을 장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벽철폐를 친일적 성향을 가졌던 군수 박중양에게 종용하게 되었고 박중양은 일본거류민회의 청에 따라 대구읍성의 철폐에 대한 보고서를 중앙정부에 올렸으나 발송 후 6일만에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으나 이미 성벽의 철폐는 상당히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다

대구읍성은 일본의 침략에 대비하여 우리 조상

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여 축성한 읍성이 임진왜란때 일본군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다시 증개축(增改築)되었으나 결국은 일본거류민회의 청을 받아들여 박중양에 의해서 한국정부와 대구시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06년~1907년 사이에 완전히 철폐되었다. 이렇게 하여 대구시가지의 구성(構成)요소 중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구조물이었기에 영구히 보존되어야 할 대구의 상징물이었던 대구읍성이 철폐됨으로써 전통적인 도시구조의 틀이 완전히 바뀌어 가장 대구적이며, 가장 한국적인 지방도시 분위기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대구의 도시공간구조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읍성(邑城)에 의해서 연유(緣由)해서 나온 말이나 지명 도로명 건물명 등이 현재에도 많이 남아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의 대구중심도로로 상징되는 동성로(東城路), 서성로(西城路), 남성로(南城路), 북성로(北城路)가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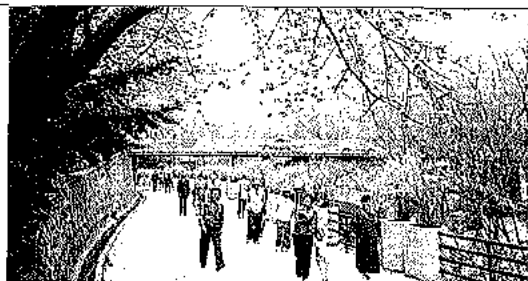
5. 대구약령시(大邱藥令市)

1) 약령시의 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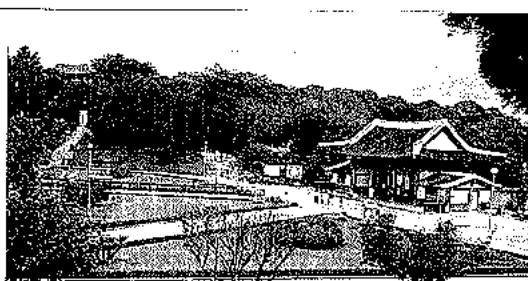
대구약령시가 언제쯤 창설(創設)되었지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세종조에 한약에 대한 향약(鄕藥)의 채취요령(採取要領) 진상(進上) 등과 식민시대에 발간된 문헌 논문 및 신문 등 대구약령시에 대한 직간접적인 중요기록을 보면

① 세종실록(世宗實錄)에 의하면 “각처(各處)의 수령(守令)들은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관할지역에 향약의 자생여부(自生與否)와 그 종류를 조사하게 하였고 향약채취시기를 조화시키기 위하여 향약채취월령(鄕藥採取月令)을 반포(頒布)하고 그 보관을 철저히 하여 약재의 약효변화를 방지하고 그 효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세종 30년(1448년)에는 각도(各道)의 감사(監司)에게 명(命)하여 향약의 채취시기를 적기에 하고 약재를 채취한 인명, 월일, 장소를 기록하여 진상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 각도 향약은 관할지역의 수령이 채취시기 보관 진상 등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② 대구약령시의 기원에 대해서 경상북도 산업



대구 앞산공원



대구 달성공원

과(産業課) 및 대구부(大邱府)의 조사서에는 “대구약령시의 사정통(事情通)인 양익순(梁翼淳)의 설에 의하면 약령시는 거금(巨金) 280년전 조선 효종때 경상, 전남, 강원 각도의 감찰관(監察官)이 그 도내(道內)에서 생산된 약재를 매상해서 이를 조정(朝廷)에 공헌(貢獻)하기 위해 각기(各其)의 감찰사(監察司)의 소재지인 대구, 전주, 원주에 명령으로써 약시(藥市)를 설치케한데서 비롯된 것이다”라 하였고 조선총독부 조사자료 제8집〈조선의 시장〉에도 “대구약령시의 기원은 거금(巨金) 260여년전 조선 효종년대에 국산을 중국에 공상(貢上)하기 위해 각 지방의 특산품을 조사해서 춘추(春秋) 2기(期) 이를 경성(京城)에 상납(上納)케 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 당시 이미 남한지방에 있어서는 많은 약재를 산출하고 있었으므로 경상북도로부터는 한약, 영일군의 광석, 경주의 옥석 등을 헌납하기로 되어 대구에는 관찰사(觀察使)가 있는 곳이어서 이들 산물은 먼저 대구로 모아져 그 중에서 우수한 것을 선택해서 공헌(貢獻)하고 남은 것은 상호교환 또는 매매(賣買)하도록 한 것이 약령시의 사발(始發)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③ 1923년 11월 16일 동아일보에 의하면 “전라—한약상조합취체(대표) 양익순씨의 말을 듣건대 거금 271년전 조선 효종때에 정부의 법령(法令)으로 특산재(特産材)를 진공(進貢)키 위하여 전국 삼처(三處)의 약시를 개설.....삼처의 영시(令市)는 경상도 대구 충청도 공주(公州) 강원도 원주인데 — 후략 —” 그리고 1923년 약령시관계서류철도 “오늘까지 영시에 오래도록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의 사정에 정통한 현 대구 약업조합취체역 양익순씨를 통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영시는 이조 개국 268년 효종 9년에 창시(創市)한 것이라고 한다. 즉 그것은 거금 271년 전에 속한다. — 후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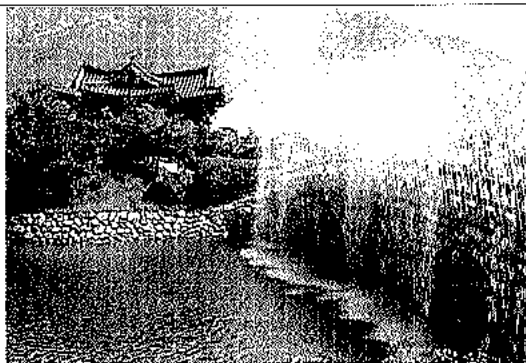
④ 黒正巖은 “조선은 옛날부터 약재의 명산지로서 일본과 중국이 이에 의존한 바 심히 컸음으로 조선은 매년 대량의 약재를 조공으로 또는 호시(互市)에 의하여 공급함이 보통이었다. — 중략 — 대구의 영시가 언제쯤 창설되었는지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일설에 따르면 효종 9년에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⑤ “영시는 속칭으로 약시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거금 약 200여년 전에 남북의 약재를 교환함으로써 전국에 천하의 양약(良藥)을 보급시킬 목적으로 대구에 연 2회 법령(法令)으로써 개시(開市)하게 한 것이 그 시초이다” 등 이상(以上)의 기록과 기연구들을 종합하여 약령시 발생에 대한 제설(諸說)들을 대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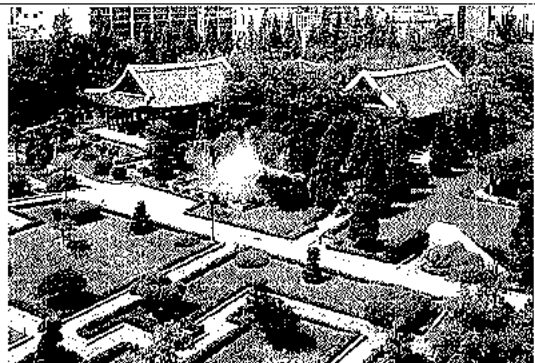
- a. 중국조공에 의한 발생설
- b. 일본의 조선 한약재 수요에 의한 발생설
- c. Messe(大市)설
- d. 지리적 특성에 의한 자연발생설
- e. 이상의 사항이 연관되어 발생되었다는 설

이와 같이 대구약령시는 1658년(효종 9년)에 창시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나 뚜렷한 문헌상의 기록이 없다. 약령시 즉 약재전문시장의 생성(成立)은 상당히 오래된 것이지만 문헌기록상으로 접하기는 어려우며 적어도 고려조부터인 것으로 추정할 뿐이며 약령시의 “令”자의 의미에서 조정이 솜을 내려 개시하도록 하였기에 약령시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는 설과 약초의 종류에 따라서 그 약초채집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약재매매 월령(月齡)의 차이에 의해서 “令市”라는 명칭이 붙었다고는 두가지설이 있다. 이 두가지설은 확실한 문헌에 의한 것이 아니고 단지 속전에 불과하다.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1452년에 저술)에 의하면 전국 각 도별로 약재생산량 중에서 자생약종은 경상도, 전라도 등 남부지방이 많은데 그 중 경상도가 가장 많았다. 또한 산이 많은 강원도지방에도 많으며, 인공약재 재배는 경상, 경기, 충청도 등지에서 비교적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한지역의 경우는 대체로 약재가 많이 생산되는 지역인 경상도의 대구, 전라도의 전주, 강원도의 원주에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의 최고의 의학서인 “향약구급방(鄕藥救急方: 高麗 高宗朝 大藏都監에서 간행) 3권”이 태종 17년(1417년) 7월 12일에 경상도 의흥에서 중간 반포되었을 뿐 아니라 허준(許浚)의 주요저서 동의보감이 1659년(효종 10년)에 경상감영(慶尙監營: 현 대구 중앙공원)에서 간행되었다. 이는 경상도지



대구 두류공원



대구 중앙공원

역이 남한의 중요약재산출지역이었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조선의 관설시장(官設市場)을 조정에서 관리 독점한 것처럼 왕가(王家)나 고급관료(양반계층)의 약재조달은 조정에서 명(命)을 받고 지방에 파유된 관찰사가 지방 향약의 관리, 재배, 수집 등 모든 책임지고 주도하였기 때문에 관찰사(監司)가 주재하는 감영의 소재지에서 행해졌다고 단정하면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이치(移置: 1601년)된 후부터 약령시가 개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약령시의 최초 개시장소(開市場所)

柳鎭遠(1622~1673)은 그의 저서 『鶴溪隨錄』에서 “— 전략 — 각 읍성(邑城) 내외의 관로(官路) 양변에 약초전(藥草田)을 설치 장려함이 좋을 것이다”라 하고 궁궐주변에 궁시(宮市)를 개시한 점 등을 보아 관(官)과 약재보급과는 매우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최초의 대구 약령시는 효종9년(1658년)에 개시되었으며, 개시장소는 현재의 대구중심부인 객사(客舍: 達城館)경내에 있었다는 사실을 1907년 12월 6일자 대한매일신보에 “대구성저(大邱城底) 북내동(北內洞) 객사전(客舍前)에 약령시를 설치하여 거민생업(居民生業)을 전위(專爲)한 것이 부지기백년(不知幾百年)이러나...”라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약령시는 다른 시장과는 달리 초기에는 왕권을 상징하였던 읍성(邑城)내의 북서부에 위치한 객사일대가 약령시의 최초 개시장소로서 현재의 대구광역시 대인동 경북 인쇄소 부근이 그 위치이다. 약령시의 개시장이 되었던 객사의 건물의 규모나 대지면적에 대하여는 현재 남아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수 없으나 1931년 일본인 河井朝雄의 “大邱物語”에서 객사와 객사 일대에 대하여 언급한 기록에 의하면 “객사(達城館)의 건평(建坪)은 200평 이상이었으며 객사건물은 조선건축문화의 극치라 표현하였고 객사경내는 1천평이 넘는 넓은 공지가 있었는데 여기가 약의 호시장 중심지였다”고 한 점으로 보아 객사 내와 객사주변이 영시의 개시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3) 약령시의 개시절차(開市節次)

약령시는 한약인 대표가 부사(府使)에게 약령시 개시일정에 관한 통고문(通告文)을 진출(轉出)하면 부사는 관찰사(觀察使)에게 관찰사는 조정에 보고하면 조정은 각도의 관찰사에게 약령시 개시절차를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令市가 개시(開市)되면 각도의 약재취급자 재배자 한약 수요자 의원이 모여 오며 관찰사가 약시(藥市)에 모여든 한약인 가운데 뽑은 12명의 대표로 약재를 출시(出市)하도록 하며 심약관(審藥官: 종9품으로 각도에 파견되어 약재에 대하여 모든 것의 관리를 맡는 자)이 구입하여 걸포장에 약 판매자의 성명, 채취일자를 기록하여 심약관이 검인하여 조정에 상납하도록 하였다. 약의 매입방법은 관의 매수가 끝날때까지는 일반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관의 매수가 끝난 뒤 일반거래가 이루어진다. 조선시대의 관찰사는 문관외직(文官外職)으로서 관찰 도내의 행정 사법 군정권을 통괄하는 기능을 가졌으며 약령시에 관련된 관리권 시설 치안 등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었다.

4) 약령시 개시기간(開市期間)

약령시는 객사(客舍: 현 경북 인쇄소 부근)를 중심으로 매년 2회에 걸쳐 개시되었는데 봄에는 남쪽에 令市를 개설했으므로 춘령시라 하여 남시라 하고, 가을에는 북쪽에 令市를 개설했으므로 추령시를 북시라 하였는데, 개시일은 春秋로 음력 2월, 10월에 2회에 걸쳐 개시하였고, 조선시대 약령시는 약재의 생산과 그 출회가 가장 많은 경상도의 대구, 전라도의 전주, 강원도의 원주인데, 이들 3개 시장은 약초의 채취시기 및 출회의 조만이 지역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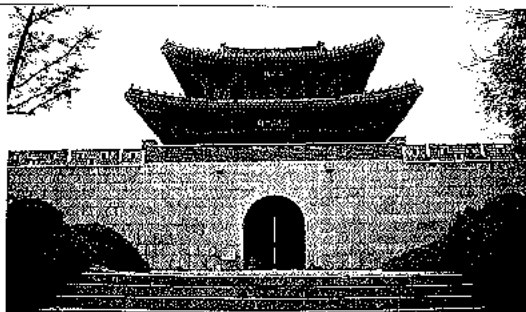
조선 3대 약령시의 개시일은 다음과 같다.

① 원주: 춘시 음력 1월 25일~2월 3, 4일
추시는 음력 9월 25일~10월 3, 4일까지 각각 10여일씩 개시되었다.

② 대구: 춘시 음력 2월 3일~13일 추시는 음력 10월 3일~13일



대구 월공산



대구 영남제1관

③ 전주: 춘시 음력 3월 15일~25일, 추시는 음력10월15일~25일

그러나 원래 약재의 진상은 2월, 4월, 6월, 7월, 8월, 10월 및 12월에 행하여졌으나 2월과 10월은 가장 중요한 약재, 특히 인삼의 수확기일 뿐만 아니라 다른 농산물의 출회기 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개시의 적기로 인정되었다. 약령시는 원주를 시발(始發)로 하여 대구를 거쳐 전주에서 끝나도록 되어 있다.

5) 약령시 규모(規模)

약령시는 조선후기 우리나라의 주요 교통요충 도시에 여러 개 설치되어 경제적 사회적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대구약령시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 설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번창하였다. 이러한 원인은 경상도는 태백·소백산맥에 둘러 쌓여 좋은 약재가 많이 생산되었기 때문에 조선시대(15~16세기)전국각도에서 중앙정부에 진공하는 약재는 317종이었는데 그 중 경상도가 56%를 차지하였다.

허준의 주저 「동의보감(東醫寶鑑)」이 1659년(효종 10년)에 경상감영에서 간행되었고 또한 대구는 고래로부터 부산에서 상경노선의 교통요지일 뿐만 아니라 조선 건국 이래 경상도 감영이 상주, 경주, 안동 등지에 위치하였다가 선조 34년(1601) 경상도 감영이 대구에 이치(移置) 됨으로써 그 이후 경상도의 행정중심지가 대구가 됨으로써 대구약령시가 크게 발전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조선시대 대구약령시의 규모에 대하여 정확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국지겸양(菊池謙讓)의 조선제국기에서 “전조시대(前朝時代)에 개설된 약령시는 조선 전도의 무역시장이었으며 의주의 책시(柵市), 경성의 남시(南市)보다도 대구의 약령시는 조선각지에 있는 상품과 상인이 모인 세계적인 시장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40년에는 매상고가 161만1천5백47원에 달했으며, 출시자수도 17만3백23명에 이르러 이는 당시 대구부(大丘府)인구가 12만 여명이었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였으며, 또한 1918년의 경우는 대구약령시의 거래고가 84만1백40원인데 반하여 조선 3대 시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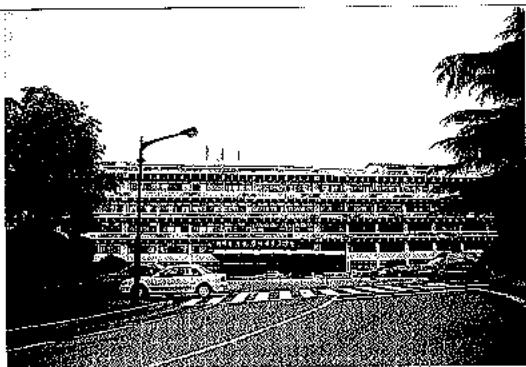
있던 서문시장의 매시 거래고는 3만원에 이었다는 사실로 보아 약령시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1931년 대구부 내의 의료기관 종사자수를 보면 서양의약분야 종사자가 162명이었으며, 동양의약분야는 743명으로 동양의약이 성업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약령시는 각사의 철거로 1908년부터 남성로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 골목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으나 조선은행 지점장이었던 반천간태(飯泉幹太)의 보고에 의하면 “1911년에 현 약전골목에 93개소의 한약관계업자들이 정착하였으나 1933년에 한약방이 42개소로 줄었으며, 분포는 구 영남제일광을 중심으로 밀집되어 있고, 본 골목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신약방과 의원이 5개소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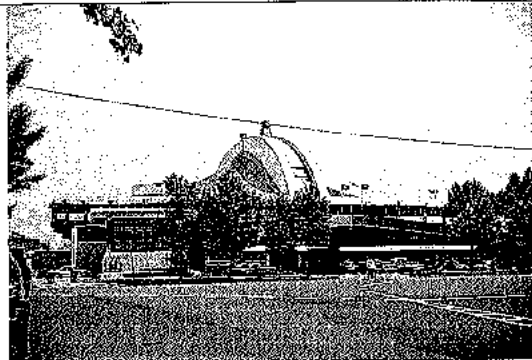
약령시 개시로 인하여 주변지역의 시장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는데 그 예로 서문시장은 고래로 강원, 평양과 더불어 한국의 3대시장의 하나로 손꼽혔는데, 그 중에서도 서문시장은 가장 큰 규모이었다. 이처럼 서문시장이 우리나라의 3대 시장으로 꼽히게 된 것도 약령시의 개시로 전국의 한약업자와 생산자 등이 몰려들게 된 데에 원인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약령시가 성시를 이루었을 때는 전국각지 상인들 뿐만 아니라 중국, 만주, 몽고, 일본 등은 물론이고, 멀리 동남아와 아라비아의 거상들까지 찾아와 교역을 하였기에 국지겸양(菊池謙讓)이 언급하였듯이 대구약령시는 국제적인 시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6) 읍성철거와 약령시 이전

대구읍성은 선조 23년(1590년)에 축성하여 선조 25년(1592년) 임진왜란으로 훼손되어 영조 12년에 다시 석축하여 계속 수축하였으나 대구군수 박종양과 일본인의 동조에 의해서 1906~1907년에 철거됨에 따라 약령시장은 경상도 행정중심부였던 현재의 경북인쇄소 부근에서 남성로로 옮기게 되었는데 대구약령시 이전에 관한 대한매일신보(1907년 12월 6일자)의 기록에 “大邱城底 北內洞 客舍前에 藥市를 設置하여 居民生業을 專爲한 것이 不知幾百年이라니 前郡守 朴重陽씨가



경상북도 청사



대구 실내체육관

— 中路 — 該市市南門外에... 民失生利하야... 觀察使 李忠求 씨가... 市市를 복구함을... ”라 하여 관찰사 이충구가 전임대구 군수 박중양이가 악령시를 강제로 남문밖으로 이전한 것을 다시 환원하여 객사 앞으로 옮겼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대구악령시는 광무 9년(1905년)까지 객사를 중심으로 남북에서 열었던 악령시는 광무 10년(1906년) 대구군수 박중양에 의해 남문 밖으로 이전되었다가 관찰사 이충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나(1907) 객사 앞으로 환원되었다가 1908년 일본거류민단이 한국정부로부터 객사를 무상으로 교부 받아 객사가 철거됨에 따라 악령시는 남성로로 이전하게 되었다.

대구읍성이 헐리기 전 남문 밖(앞밖길)에는 대구의 명물처럼 된 자유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남문 밖은 남문에서 옛 해성학교 뒷골목에 이르는 국도를 말하며 여기는 성내에서 볼 수 없는 망건, 탕건, 갓방들과 숙박시설, 음식점, 그리고 성밖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배추, 무우 등을 파는 자유시장이 크게 번성하여 후에 대구상권을 장악하기도 한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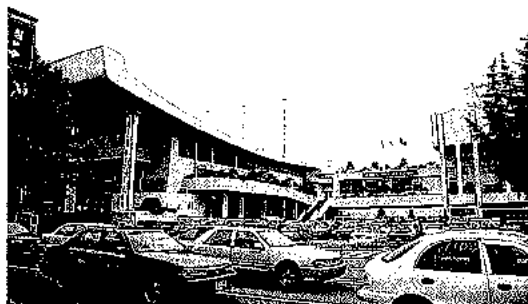
박중양 대구군수가 성벽 철거지인 남성로, 동성로 일대에 대구 춘추영시(春秋令市)를 1908년에(현재의 약전골목) 옮겨 계속 개시(開市)되었으나 1914년 새로운 시장규칙이 반포되면서 공공단체가 아니면 시장을 경영하지 못함에 따라 춘령시가 폐지되고 추령시만 열리게 되었다. 그 이후 1948년도 추령시(1949.1.1~2.15)를 끝으로 종막을 고했던 악령시는 6.25동란이 끝나고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아 대구한약사 협회를 중심으로 악령시 부활책이 논의되다가 1978년에 “한약을 위한 적국시책확립의 건”을 경상북도 당국에 제출하였고 1963년 3월 26일 대구악령시 부흥대책위원회규약을 제정하여 기결하였다. 하지만 부흥운동은 한때 주춤하였으며 1978년 6월 20일에 한약협회관계자와 대구시 당국자가 대구시민축제기간인 동년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악령시를 개장할 것을 협의하였으며 1948년 추령시를 끝으로 폐지된 지 30년만에 재현된 악령시는 반응이 대단하여 당초 3일간 예정된 것을 10일 더 연장해서 대성황을 이루었다. 1978년 9월18일 정국회중 법사위원회에서는 대정부질문을 통해 대구지역 국회의원은 300여년

의 전통을 가진 대구악령시를 사적문화재로 지정보호육성해야 하여 대구를 한약무역도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 후 계속 매년 추령시가 열리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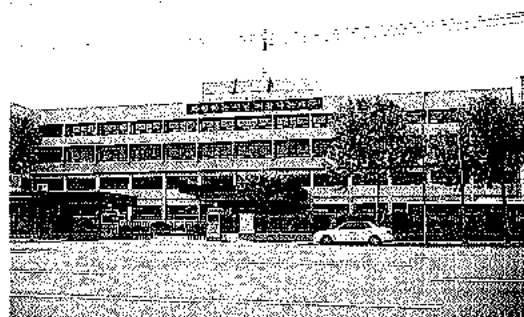
5. 맺음말

현재 우리는 고향상실시대에 살고 있다. 한 나라의 문화는 한 도시의 문화가 대표할 수 없으며 각 지방의 다양한 문화가 국가의 문화로 융합될 때 그 나라 문화는 탄력성이 있고 저력이 있게 된다. 한 나라의 문화를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의 문화를 정확하게 조사함은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다. 지방문화의 활성화는 바로 현대 한국문화를 풍부하게 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지방의 이름 없는 민중들이 어떠한 자연적 혹은 사회적 조건의 근원으로 어떠한 기반 혹은 역사적 환경에서 일어서서 어떠한 정신 어떠한 도구를 가지고 생활력을 신장시켜왔는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지방의 문화발전 없이는 한국의 문화발전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것 없는 세계화는 불가능하다 하겠다. 세계적(世界的)이란 동질적(同質的)인 것이 아니고 이질적(異質的)이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재와 역사적인 환경은 일제시대, 6·25, 그리고 공황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1960년대부터 정부의 개발위주의 도시화과정에서 가장 많이 훼손되고 변질되었다. 그로 인하여 역사적인 맥락을 갖지 못하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었다. 역사적 환경의 주변부 혹은 새로운 개발지의 계획시 무작정 대지를 밀어내거나 메워버려서 평평하게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의 개발을 우리는 버려야 한다. 우리는 부자연스러운 구조물을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개발의 수단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달성 동쪽에 자연적인 해자천(核字川)을 복개하여 현재 도로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역사적 환경주변을 훼손함으로써 역사적 문화공간의 질을 절감시켰다.

조선시대의 성벽은 방어시설물이었지만 오늘 날 그 성벽이 존재한다면 성벽으로써 만이 아니라 도시안에서 도시의 기능을 분담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성벽을 중심으로



대구 시민회관



대구 수성구청사

교통제도(도심통과세)나 토지이용체계를 변경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벽을 경계로 역을 나눌 수도 있을 것이다. 대구읍성을 부분적으로 복원한다면 성벽을 중심으로 지역구분과 성벽내 외의 역사적인 연계(맥락)성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시대의 다양한 건축물이 혼재함으로써 전통적인 건축물의 디자인적 요소의 전시장으로 보전될 수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건축물의 형상으로부터 역사의 흐름을 읽을 수 있을 것이다.

조선시대 대구약령시는 대구와 조선의 경제는 물론 아시아의 보건과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전통 약령시로서 선인들이 물려준 역사적 유산이기에 우리는 이를 잘 계승 발전시켜 보존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보존이란 의미는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걸쳐 전통적인 것은 이미 떨어져 버리고 근대화를 아룩한 오늘날 역사를 부활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결코 복고라는 뜻은 아니고 오늘날의 복잡한 사회경제체제와 유기적으로 융화시키면서 급속히 발전하고 재개발하는 과정에서 잊혀져가는 현대의 도시 속에서의 역사성을 갖는 공간을 찾고 또한 역사성을 갖는 전통공간을 인식 보존함으로써 도시조직의 다양성과 특색 있는 지방도시로 발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조선시대 성문을 중심으로 성내·외에 있었던 전골목(긴골목), 서문시장, 폐지골목, 덩겨전골목, 떡전골목, 재래시장등을 전통상업지구로 지정하여 원래의 기능에도 알맞고 현실성이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면 옛 상인의 투혼과 서민의 애환이 있는 풍요로운 도시로 성장 될 것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문화재 보호법은 지역여건에 알맞는 법 적용을 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적용과 문화재 보존방법 역시 문화재 개체의 점적(占的)인 보존방법을 취함으로써 역사적 환경이 많이 훼손되었다. 앞으로는 면적(面的)인 보존방법을 취함이 타당할 것이다. 역사적 환경과 자연의 형태를 보전하여 가능한 자연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할 것이며 개발위주의 정책으로 부자연스러운 잘못된 개발은 원상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와 미래는 문화공간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문화와 호흡하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것이다. 이제는 우리의 품속에 맞지 않는 서구

의 문화를 무조건적 수용과 무계획적인 개발로 고유한 우리의 문화유산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에 지금 우리는 우리의 문화유산을 발굴조사하고 복원하여 조상들이 만든 역사적 환경을 계승 발전시켜가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세계화의 자름길은 하나 밖에 없는 독특한 지역문화의 보전과 계승적 개발에 있다 하겠다. 우리나라의 도시는 세계 어느 나라의 도시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그리고 무질서하게 도시화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오래지 않아 슬럼화가 예상되어 진다. 선진국을 모방하여 전수 받은 기술을 익혀 국제사회의 무한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지역마다 특성에 맞는 도시나 마을을 만들어가야 한민족(韓民族)은 한민족다운 문화 세계 속의 한(韓)의 문화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대구는 대구다운 도시로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삼국사기, 김부식, 아령도역주, 1985.
전국지리지(경상도속한지리지, 경상도지리지, 동국여지), 아시어문화사, 1983.
읍지(경상도읍지), 아시어문화사, 1983.
삼국사기대성각연구, 이원근, 단국대학박사논문, 1981.
한국의 상학, 방영환, 교양국사총서, 1978.
한국의 성곽과 동수, 한국보이스카우트연맹, 1989.
대구부서, 대구부, 1943.
대구대관, 영남일보사발간, 1957.
영남저일권고증보고서.
고조선시 삼한사연구, 전권우, 일조각, 1989.
광주문화사대, 성명연구소, 1987.
世宗實錄 卷37, 世宗 9年 7月 癸巳條
朝鮮 總督府/朝鮮의 市場, 朝鮮經濟資料 第8號, 1924
崔丙幸, 慶尙市 研究, 韓國研究院, 1986
大邱府, 大正 3年 慶尙市關係書類, 1929
大邱府內務課資料, 第14號에서
風正義, 慶尙(大邱)說, 朝鮮經濟史 研究, 岩波書店, 1922
大邱府史, 第一編, 公報編.
李致策, 朝鮮世宗朝의 福祿政策研究, 韓國大學博士論文, 1987
李弘植, 國史大事典, 韓國出版社, 1982
朝鮮通(1622~1673), "福祿政策" 卷三 敬禮條
河津朝雄, 大邱物語, 1931
慶尙市經濟發展委員會, 大邱慶尙市, 大邱慶尙市編纂委員會, 1984
尹炳基, 朝鮮時代 大邱邑城 研究(1), 大邱國土都市計劃學會, 第27卷, 1991
崔池錄, 朝鮮國記, 大正 14年
尹炳基, 歷史的環境에 關한 研究, 大邱大學校 産業技術研究 第12輯, 1993
崔成遠, 大邱直轄市 西門市場 活性化方案에 關한 研究, 嶺南大學校附設 社會科學研究 大韓每日申報, 1907年 12月 6日字



대구 관역정 순교기념관



대구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대구건축의 지역성 탐구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Architecture of Taegu

권중욱 / 영남대 건축공학과 조교수
by Kwon Jong-Wook

1. 건축과 지역성

지역성은 일정한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특성을 이야기한다. 여기에서 지역의 범위를 한정하는 요인은 행정구역과 같은 인위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산이나 강과 같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성은 지역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나타내기도 한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지역의 구분은 과거보다 애매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과적으로 지역성의 실체를 규명한다는 것도 점차 어려운 일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의 범위가 하나의 마을이든 국가이든 그 지역은 나름대로의 특색을 가지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때로 이것은 지방색으로 불리기도 하고 크게는 국민성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 시대의 제반상황을 가장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건축은 자연히 이러한 독특한 양상을 표현하게 되며 건축적인 지역성으로 표출되게 된다.

1970년대 이후 국제주의양식에 대한 거부를 표명하며 세계적인 건축현상으로 등장한 지역주의의 경향은 국내의 경우 전통성의 표현이라는 양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건축의 지역주의적 경향은 역사주의나 전통주의와는 다른 것이며 맥락주의와 풍토주의와도 차이가 있다.

최근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더불어 지역성의 문

제는 좀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접근방법을 통해 규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계속되고 있다. 건축역사를 통하여 볼 때 지역성의 건축적 표현은 재료와 기후의 영향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소수의 천재적인 건축가나 영향력있는 정치가에 의해서 주도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국내의 건축에서 지역성 혹은 지역적 독창성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의 형성에서부터 지역성의 실체에 대한 규명 및 방법상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근본적인 이유는 물론 건축적 지역성의 규명 및 추구가 그만큼 난해하기 때문일 것이다.

지역성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건축을 통한 지역성의 표현 역시 가능한 것이 분명하며 동시에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건축의 지역성 표현에 가능한 지역성의 요소와 표현방식을 간략하게나마 정의한 후 대구의 지역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건축에서 표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단 도시계획 및 경관의 측면에서의 고찰은 지역성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면관계상 제외시키며 건축물에 대하여 집중적인 언급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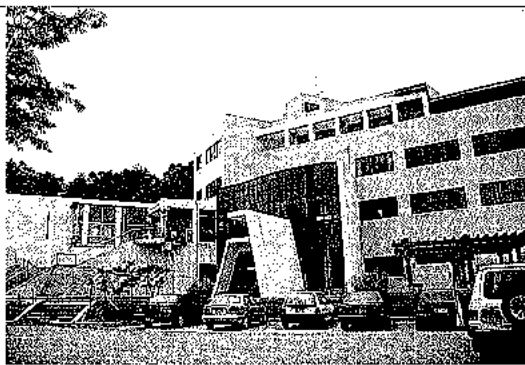
2. 지역성의 건축적 요소와 표현방식

앞에서도 밝힌 바와 같이 지역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한정될 수 있지만 지역성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기후나 지형과 같은 자연적 요인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조건과 같은 인문적 요인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상의 요인들로 인하여 생성되는 지역성은 지역의 전통, 관습, 기질과 같은 추상적 요소를 제공하기도 하며 지역에서 선호되는 색상, 문양, 상징을 결정짓기도 한다. 도시의 상징미크나 상징동물, 상징나무, 상징화 등(대구의 경우에는 독수리, 전나무, 목련)은 지역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대표적인



대구 문화예술회관 전시관



대구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예이며 건축적으로 응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역성의 표현방식은 시각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으며 폐쇄적이거나 개방적인 공간적인 양상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간혹 이것은 건물의 집단 혹은 건물들이 포함된 거리에 의하여 표현되기도 하며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대규모의 단일건물에 의하여 표현되기도 한다.

대구의 대표적인 거리라고 할 수 있는 동대구로, 동성로, 약령시, 봉산동 문화거리, 두산동 들안길, 자갈마당 등의 소지역의 특성이 바로 건물과 도로와 조경이 결합되어 집 단적인 지역성을 보여주는 경우이다.

3. 대구의 지역성과 건축

행정구역상 대구광역시로 지칭되는 대구라는 도시는 중심상업지역과 인근의 주택가로 이루어진 기존의 도심부와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주변의 신도심지역으로 구분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구의 지역성은 광역화 이전의 도심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인근의 경산, 달성, 칠곡, 성서, 하양 등지 역시 광범위하게는 대구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행정구역하에서 대구의 지역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구로부터 연상되는 것들은 TK, 사과, 섬유와 같은 것으로서 지금까지 대구의 산업과 정치성향을 결정한 요인이 되었으며 동시에 건축적인 지역성을 표현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그리고 대구는 국채보상운동과 2.28학생의거가 일어난 의식의 도시이기도 하며 낙동강전투에서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한 보수적인 자존심의 도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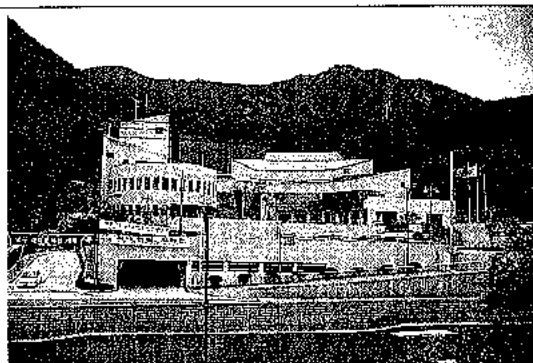
그러나 대구라는 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요인은 무엇보다 분지형의 지형과 그로 인한 혹한과 혹서의 기후를 들 수 있다. 특히 한여름의 더위는 매년 최고기온을 기록하면서 연일 마스크에 소개되기도 한다.

간혹 타도시가 최고기온을 기록하는 날에는 다수의 시민들이 묘한 실망감을 느끼는 것 역시 대구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기후적인 요인은 오랜 기간동안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대구주민의 성격과 기질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쳤으며 건축적인 특성으로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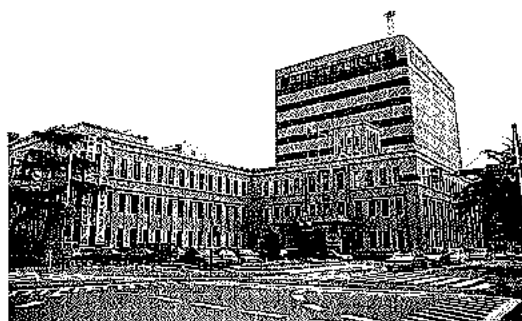
그러면 대구라는 도시에서 건축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까? 먼저 건축전문인력의 측면에서 대구는 국내의 다른 어느 도시에 못지 않게 빨리 전문적인 건축교육을 실시하였으며(1952년 청구대학 건축공학과), 현재 대구지역의 6개의 4년제 대학과 6개 전문대학에서 매년 약 1200여명의 건축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더욱이 등록된 건축사의 수는 서울지역 다음으로 많으며 건설시공업체들은 전국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구의 건축 및 건설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은 국내의 어느 지역보다 양호한 조건을 지니고 있으며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먼저 건축교육의 측면에서 양적인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질적인 보완과 개선을 신속히 이루지 못하여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질적인 하락을 초래하였다. 대구지역의 설계분야 전문가들 역시 해방 이후 세대교체를 거듭하며 지역의 건축발전에 이바지하였지만 건설경기의 호조에 따른 혜택을 경쟁력 향상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양적인 팽창에만 집중하여 현재의 경기부진에 더 많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건축의 발전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대구지역주민들의 건축에 대한 무관심에 있다. 대구의 경관자원에 대한 최근의 한 조사는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 조사에 따르면 대구시민들은 대구의 도시환경에 대하여 그저 그렇게(39%) 혹은 싫어하는(40%)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표적인 경관자원으로 생각하는 것은 동성로나 동대구로와 같은 가로나 팔공산, 신천 등의 자연환경이 주가 되며 건축물은 대구타워만을 제외하고는 거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



대구 대덕문화전당



대구광역시청사

않음을 보여준다. 건축을 문화의 수준에서 인식하지 않고 부동산의 일부로써 경제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이러한 경향이 대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겠지만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왜곡된 현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의 건축여건은 상당히 긍정적인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건축분야 전문가들의 노력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건축에서의 지역성의 표현은 건축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성은 건축가들에게는 지역의 문화발전에 가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주민들에게는 건축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향상시키며 건축을 지역문화의 경지로 승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구조물로서의 건물은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인 요소에 불과하지만 건축은 도시의 문화적인 잣대가 될 수 있다.

4. 대구건축의 지역성 찾기

19세기말 근대건축이 도입되기 전까지 대구는 경상감영의 소재지로서 정치 경제적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이루다가 개항이후 선교사를 중심으로한 서양문물의 도입과 함께 새로운 건축양식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비록 대구를 역사도시로 규정하기는 힘들며 현존하는 전통건축물도 비교적 드문 것이 사실이지만 전통양식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달성공원내의 관풍루, 경상감영공원 내의 선화당과 정청각, 대구향교, 그리고 동화사와 파계사 등의 인근 사찰건물을 들 수 있다.

지역성의 규명과 모색을 위하여 가장 흔히 이용되는 것은 전통적인 요소이다. 지역성이란 문화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전통적인 건축물과 장소는 소중하게 관리되어야 함은 분명한 이치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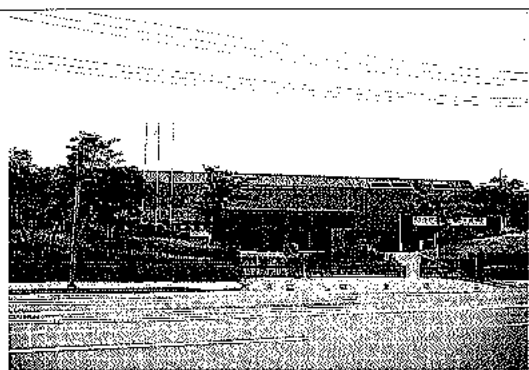
에 완성된 경상감영공원은 기존의 담을 허물고 도심공원으로 개방하여 자연과 전통건축을 일반인이 손쉽게 경험하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이해와 애착심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중심가에 위치한 대구약령시는 300여년의 역사와 규모를 자랑하면서 과거 대구의 역사적 장소성을 간직하고 있는 대표적인 곳이지만 점차 그 특성이 희미해지고 있다. 개발의 미명하에 이러한 전통적인 건축물과 명소들이 자꾸만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구건축의 지역성을 찾고자 하는 이 글은 현제라는 시점을 해방이후 지금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하며 지역성의 표현이 비교적 용이하고 영향력이 큰 공공건물(관공서 및 문화시설)을 중심으로 개별적인 건물이 나타내고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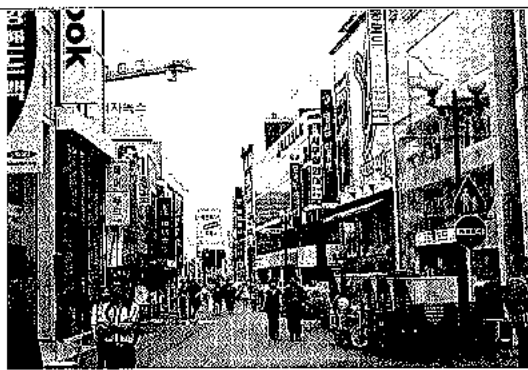
먼저 1965년에 완공된 경상북도청사는 대구의 1세대 건축가라고 할 수 있는 정경운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며 당시 영남북부지역의 최고 관공서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강한 수평성을 통하여 표출하였다. 특히 상층부 처마의 내민보는 연속된 난간과 결합되어 극적인 수평성을 나타내며 현관 캐노피와 옥상 처마부의 굴절형 패턴은 수평성을 강조하고 있다. 도청사는 당시 만연하던 기능주의 양식의 시대에 건립된 것이지만 지역적인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건물로 평가된다.

1972년에 완공된 대구실내체육관은 2세대 건축가인 김인호와 김현산에 의하여 설계되었으며 지붕의 전체적인 형태에서 신라화랑의 투구를 연상시키고 있다. 대구실내체육관에서는 이러한 형상을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열의 3힌지 아치와 텐션링을 주된 골격으로 3힌지 현수형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구조적 우수성을 바탕으로 대구실내체육관은 역사적 대상을 추상적으로 표현한 성공적인 경우라 하겠다.

현상공모를 통하여 1974년에 완공된 대구시민회관은 역시 김인호에 의해 설계되었으며 대구도심에 위치하면서 오랫동안 시민의 사랑을 받아왔다. 대구시민회관은 포르



국립대구박물관



대구 동성로

뒤제풍의 곡선형 지붕과 전면의 십자형기둥이 열려진 상태로 결합되는 특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소강당과 사무동이 있는 별관부분은 상부에 기둥과 보가 노출된 상징적 조형물을 지니고 있으며 외벽에는 잘려진 사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굴절형 가벽이 덧붙여져 있어서 대구의 대표적 생산품을 추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대구시민회관은 대구의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시각적인 측면에서도 건축의 예술성과 상징성을 분명하게 전달하는 대표적인 건축물로 역할을 다하고 있다.

1978년에 완공된 수성구청사는 격자창으로 된 매스와 캐노피로 된 현관부가 중심이 되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된 건물로서 대구관공서의 전형이 되었다. 특히 수성구청사는 상층부의 외벽을 밖으로 돌출시키면서 격자창을 후퇴시킴으로써 외관의 입체감을 높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구지역의 기후요소를 감안한 디자인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대구의 기후적 요인에 대응하는 수직 혹은 수평차양의 이용은 이후 대구의 소규모 건물에서도 등장하는 특징이 된다.

앞산공원의 진입부분에 위치한 낙동강 승전기념관은 김무권에 의해 설계되어 1978년에 완성되었으며 낙동강 전투에 대한 지역주민의 기억을 자부심으로 승화시키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승전기념관은 수평창을 가진 본체부분과는 대조적으로 강한 수직성을 느낄 수 있는 타워부분과 상부의 구형 물탱크로써 시각적인 상징성을 높이고 있으며 방문자로 하여금 무엇인가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는 암시성을 주고 있다. 그리고 시청각실 외부의 경사벽 역시 시각적으로 대구시가 향하는 합성을 느끼게 하며 필로티를 이용한 진입부를 통하여 야외전시장과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고 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대구의 건축은 경제적인 성장을 바탕으로 급격한 양적 성장을 거듭 수 있었으며 사무용 고층건물과 다양한 디자인의 상업용 건물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과정 속에서 이전 세대에 비하여 지역성의 지속적인 성장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양식의 혼란기로 접어들게 되었다. 다만 김영태에 의하여 설계된 관덕정 순교기념관(1987)은 천주교 순교지와 경상감영의 역사적 장소성을 지역성의 표현으로 승화시킨 경우로 볼 수 있다. 관덕정 순교기념관은 한국 고건축의 화강암의 기단 위에 정자를 세우는 이미지를 주제로 가지고 있으며 전사기능을 가진 기념건물로서 전통건축 양식을 현대적 기능의 건물로 과감하게 결합시킨 사례이다.

대구시민회관과 함께 대구의 대규모 문화행사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문화예술회관은 1983년 현상공모를 통하여 결정되었지만 건립자금의 부족 등의 이유로 공사가 지연되다가 공공단체와 시민들의 모금으로 1991년에야 김인호의 유작으로 완공되었다. 문화예술회관은 뒤쪽의 두류산과 앞쪽의 성당못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배치를 하고 있다. 특히 농악에 등장하는 상모형상을 추상화한 공연관의 경사지붕과 대구시화인 목련의 꽃봉우리를 연상하게 하는 전사동의 상부형상이 대구의 지역성을 표현하고자 한 건축가의 노력을 엿볼 수 있게 한다.

1990년대 이후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려는 자치단체의 노력으로 대구에서도 많은 공공문화시설이 현상공모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젊은 건축가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다. 이러한 공공문화시설들은 수려한 자연조건을 가진 장소에 건립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창환의 수성구청소년수련관(1996)과 정원수의 대덕문화전당(1998년)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에도 주변경관과의 조화나 디자인의 창의적 조형성 등은 뛰어나지만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적인 특성을 건축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은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1993년에 완공된 대구광역시청사는 청사 신축을 대비한 임시방편으로 건립된 경우라 하더라도 1955년에 건립된 구청사(시의회건물)와의 시각적 연계성의 측면에서나 시청으로서의 상징성에 있어서도 너무나 부족한 평범한 기



대구 동성로



동대구로

능주의 양식을 지니고 있는 문제가 있다.

더구나 보수적인 대구지역에서는 드물게 1989년의 현상공모에서 당선된 장세양의 국립대구박물관은 시민들의 문화적 애향심의 고취와 지역적인 특징의 표현이란 응모요강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미설정 등의 이유로 디자인이 수차 변경되어 현재의 상태로 1994년에 완공되었다. 결과적으로 국립대구박물관은 건물자체의 사회적, 문화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역적 특성과는 거의 연관성 없이 건축가의 개인적 특성만을 표현하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공공건물에 한정된 고찰이기는 하지만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구의 건축에서 나타나는 건축적인 지역성은 초창기의 건축가들에 의해서는 적극적으로 시도되었으나 개인적 창의성을 강조하는 최근의 건축적 경향으로 인하여 상당히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대구건축의 현재와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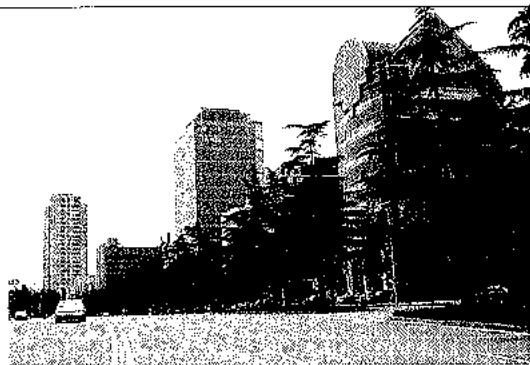
현재 대구건축은 극심한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건설경기의 활성화와 더불어 대구에서 건설은 섬유와 견줄만한 주력산업으로 성장하였고 IMF구제금융 이후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다른 어느 도시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는 곳이다. 그러나 최근 폭락하고 있는 부동산경기는 건축에 대한 현재의 의식을 개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부분의 건축물을 단순한 부동산의 일부로 간주하였으며 재산가치를 가진 소유의 개념만이 지나치게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물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성이 건축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건물이 투자의 대상으로만 간주될 때 건축주는 경제성의 논리에 집착할 수밖에 없으며 시각적인 차별성이 강조된 상품적인 가치에만 치중하기 쉽다.

지금까지의 상황이 양적인 성장의 과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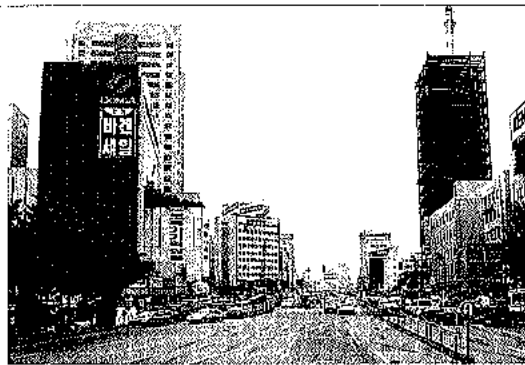
면 앞으로는 편안하고 아름다운 질적인 성장을 차분하게 도모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며 지역성의 추구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진지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많은 대구의 건축가들은 미래의 재도약을 위하여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지금의 상황을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 있다. 건축적 지역성의 강조가 대구건축이 지향해야 할 유일한 방향은 아니겠지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21세기의 독창적인 대구건축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진지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하는 사람은 물론 건축전문가들이다. 결론적으로 지역성 표현을 위한 대구건축의 미래를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건축적 지역성 표현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변환
- ② 대구지역의 지역성에 대한 이해의 증대
- ③ 건축적 표현요소로서 적용가능한 지역성의 규명
- ④ 지역성의 건축적 표현 방식에 대한 연구



동대구로



대동 - 대서로

대구시민의식과 도시

The Civic Consciousness and the City of Taegu

하재명 / 경북대 건축공학과 교수
by Ha Jae-Myung

1. 시작에 앞서

도시를 보는 시각은 전공분야에 따라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다. 경제학자가 보는 눈과 사회학자가 보는 눈이 다를 것이며 건축가의 입장 또한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신이 전공하고 있는 단지계획이나 도시설계분야에서 보는 시각은 도시의 물리적인 측면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건축설계자의 보는 시각이 개별 건축물의 특성에 관심을 갖는다면 나의 관점은 집단적인 도시환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의 초점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구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에 맞추려고 한다. 즉 대구라는 도시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해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분지형 도시로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식세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러한 시민들의 의식이 도시의 공간구조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아울러서 최근에 도시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대구사람

1) 분지적 기질과 보수성

대구 삼각형 모양의 분지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100미터 내외의 낮은 언덕이 곳곳에 펼쳐져 있다. 그리고 분지내를 관통하는 낙동강과 그 지류의 금호강이 형성한 평지

나 구릉성 경사지가 분지상(盆地床)에 넓게 전개되어 있어 대도시로 발전하는데 호적(好適)한 지형적 기반을 구비하고 있다.

내륙분지로서의 대구의 가장 뚜렷한 풍토적 특색은 한 여름철 기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서극(暑極)도시라는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비교적 저위도에 위치한 내륙분지이고, 분지상의 평균고도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여름철에 분지상이나 분지사면에서 발생하는 많은 복사열이 외부로 쉽게 빠져 나가지 못하고 더위를 식혀줄 비의 정도나 양도 적다.

대구 한 여름이 체감상 얼마나 더운지는 단순히 8월의 기온 비교만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는다. 작열하는 태양에 의하여 달구어진 도시의 빌딩이 뿜어대는 후끈한 열기가 텅텅한 먼지와 뒤섞여 바람 한점 없는 도시의 아스팔트를 녹일 때 시가지 전체가 한증탕이나 뜨거운 가마솥으로 변한다. 대구시민의 특유한 기질이나 끈기와 인내심은 이러한 대구의 숨막히는 여름더위와 무관하지는 않은 듯하다.

흔히들 타지역의 사람들은 대구사람들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보수성'으로 축약하곤 한다. 보수적이라는 말은 새로운 것 또는 변화되는 것을 쉽게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의 기질을 일컫는 말이며,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을 유지하려는 기질을 보여준다.

대구시민의 보수적 기질은 지역의 인문, 사회적 환경에서 연유된다. 과거 영남지역이 소백산맥으로 인해 대륙으로부터의 선진문물의 수용이 차단되었기에 주민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 대부분의 촌락이 산간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민 상호간의 왕래가 빈번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연히 폐쇄성을 지니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에도 조선시대 이래 도산서원, 소수서원 등을 중심으로 하여 재지적 토착성을 강하게 지닌 영남의 문인학자들은 퇴계 이황의 학풍을 계승하여 학문적으로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품성을 강조하였는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면을 도외시한 이들의 현학적인 주장도 보수성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조선후기 이래 정권에 철저히 배제된 영남학자들은 향촌에서 강력한 경제적 기반을 소유한 기득권층이었으므로 사회의 변화나, 현실



대동 - 대서로



구 중앙공원(경상감영공원)

의 개혁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향이 근대화 과정에서 더욱 보수성을 지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서울이나 부산, 인천, 대전처럼 여러 지역의 출신들이 뒤섞여 있는 도시가 아니라 주로 대구를 둘러싼 경북 지역의 출신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인의 도시'라고 할 수 있다. 웬만한 사람들끼리는 지연이나 학연으로 얹혀서 인정과 의리가 중요시하고, 합리성이나 진취성을 바탕으로 한 인간관계는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한마디로 대구 시민들의 의식속에는 이러한 동족부락식 혈연의식이나 배타적 보수성이 뿌리깊게 남아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보수성은 이지역주민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어 급변하는 오늘날에도 여러 측면에서 그러한 사례를 볼 수 있다. 정부에서 양력설을 장려할 때 어느 지방보다도 이곳 사람들은 음력설을 고수하는 가구 수가 많았다. 이는 양력설의 도입이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데 대한 반발인 동시에 한 민족의 전통을 고수하려는 의지의 한 예로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아파트가 도시에 보급되기 시작했을 때, 이 지역 주민들은 전국 어느 도시보다도 아파트를 쉽게 수용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아파트 업자들은 생활에 편리한 주거공간을 제공하여 주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노력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대구의 주택업체들이 서울에 진출하였을 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는 교통과 통신, 매스미디어가 고도로 발달한 지구촌 시대가 될 것이다. 세계가 한 마을이 될 지구촌 시대에 있어서 대구지역 주민들의 보수성은 자칫 국제화 감각의 부족을 가져올 수 있고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구시민의 긍정적인 기질들을 변용하면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한 계기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2) 일류지향주의 소비행태

대구를 흔히 '소비'의 도시라고도 한다. 섬유를 주요 산업으로 하는 특성때문이기도 하지만 패션 등 소비행태의 유행에서 최첨단을 달린다. 서울에서 유행하는 것들을 그

다음날 바로 대구의 동성로에서도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행태에서 백화점 의존도가 다른 도시들 보다도 상당히 높다. 특히 많은 여성들은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다른 곳보다 백화점을 선호한다.

대구에서 백화점문화를 정착시킨 대표적인 곳이 두 군데 있는데 바로 대구백화점과 동아백화점이다. 초기의 두 백화점이 발판이 되어 시내에는 동아쇼핑과 대백플라자가 생겼고, 도시외곽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됨에 따라 동아백화점의 수성점과 칠곡점이 차례로 개장되어 현재는 6개의 백화점이 있다. 타지방에서 들어온 몇몇 백화점들이 자리잡을 틈도 남겨 놓지 않을 만큼 이 곳에서 지역 백화점들의 위상은 대단하다. 또한 사람들의 신뢰 또한 그에 못지 않다. 타도시의 경우 재래시장도 백화점에 못지 않게 시장 점유율이 높다고 하는데 대구의 경우는 백화점이 더 우세를 차지하고 있다.

대구에 사는 주부들이 백화점을 좋아하는 단적인 표현으로서 '대월동화(大月東火)'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대구백화점은 월요일에 쉬고, 동아백화점은 화요일에 쉬는' 말에서 앞글자를 따와 새로 생긴 말이다. 이러한 우스개 소리가 있을 정도로 사람들의 백화점을 선호하는 소비행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 이 말은 백화점을 선호하는 대구시민의 과소비 성향을 비꼬는 말도 되기는 하지만 그 만큼 이곳 본고장의 백화점을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일류지향주의의 소비행태는 앞서 말한 사람들의 보수적 기질과도 연관이 있지만 우리나라 근대 현대 정치사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였던 대구 경북인의 자존심에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상 소비행태는 과소비를 부추기고 권력 지향적이며 경쟁적 사회행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와서 이러한 백화점의 위상은 대규모 할인점의 개장에 따라 다소 그 위세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이러한 할인점과 백화점간에 고객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구 중앙공원(경상김영공원)



함교 내부 전경

3. 도시 구조

1) 대구의 성장

1914년 이래 대구는 현대도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 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1938년에는 장래 인구 35만의 대구를 목표로 달성군의 3개 면(수성, 달서, 성북)을 대구에 편입하였다. 해방후 최초의 행정구역 개편은 1957년에 있었는데 달성군의 5개 면(공산, 동촌, 성서, 월배, 가창)이 새로이 편입되었으며, 1963년에는 도시행정의 특성을 강화하는 구제(區制)실시로 시역의 형상이 원형에 접근하게 되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대구시가 지방중심도시의 하나로 발전하게 되자 1981년에 직할시로 승격하게 되었다. 직할시 승격과 더불어 경산군(안심읍, 고산면), 달성군(월배읍, 성서읍, 공산면), 칠곡군(칠곡읍)의 일부지역이 편입되어 시역(市域)이 455.78km², 인구 230만으로 광역화되었으며, 시역의 기본형상도 원형을 지향하게 되어 정상적 공간확대과정을 취하고 있다.

그후 1995년에 광역시로 개칭되면서 달성군을 편입하여 시역 885.30km², 인구 250만을 포용하는 국제적인 도시로서 부산, 광주 및 대전과 함께 서울에 이은 제2위 계층에 속하며 경상도 내륙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대구를 경유하는 고속도로망을 제외하더라도 동서남북 4방향으로 주변 지역을 연결짓는 강력한 지역간 도로망이 구축되어 지역간 연계성이 매우 긴밀하게 되어 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중심성이 강한 도시

현재 대구시의 중심가의 형태는 중앙로를 중심으로 한 대구의 지형적 중심에 강력한 하나의 핵이 형성되어 있고 도시의 중요한 행정시설들이나 상권의 형성도 바로 이곳을 주변으로 하는 강력한 핵을 형성시키면서 발전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도시구조에 맞추어서 대구시민들의 생활패턴이나 사고방식도 자연히 중심지향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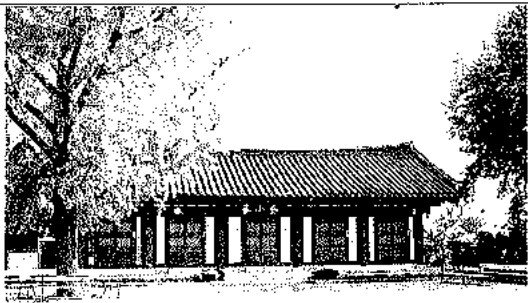
대구시민들의 잠재의식속에는 “대구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일들은 대부분이 대구의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약속도 중심부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대구시민들의 중심지향적 의식과 생활패턴의 가장 큰 원인은 대구라는 도시가 지형적, 지리확상으로 4면이 산으로 둘러싸여진 분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이 곳의 지역민들은 대체로 외부지방으로 향해 뻗어나가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지형적으로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외곽방향보다는 지역의 중심으로 모여드는 생활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시민들의 보수적인 기질과 맞물려서 오랫동안 지속되어온 것 같다.

대구시민들이 인자하고 있는 대구의 중심가에 대한 이미지는 3단계의 공간적인 위계를 보여준다. 1차적으로는 동, 서, 남, 북성로로 둘러싸여진 1차 순환선 내부지역을 말하고, 2차적으로는 이 가운데서도 특히 동성로지역을 말하며, 그리고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동성로에서도 대구백화점 앞의 네거리가 있는 광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동성로는 대구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는 곳으로 대구시민들의 의식속에 도심에 대한 상징적인 장소로 인식되는 곳이다. 그 중 대구백화점 앞의 광장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보행자용 광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많은 대구시민들이 약속장소,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이다. 그리고 대백앞 광장에서 뻗어나가는 네갈래길을 따라서 거대한 상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 부근은 골목마다 각기 특별한 성격을 가지며 성장해 있다.

전체적인 도시규모에 비해서 이렇게 제한된 도심지역에 많은 시설들이 모여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모든 대구시민들의 정신적 지주가 될 수 있는 강력한 도심이 존재한다는 것은 대구가 가진 커다란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9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강력한 집중현상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상권의 분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도심에서의 상권의 확장은 반월당 네거리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



한교 내부



대구상공회의소 회관

며, 도시 외곽부에서는 최근에 개발된 대단위 택지개발지구의 중심지구가 이러한 역할을 부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3) 두 개의 대구(동대구 + 서대구)

예로부터 대구의 대표적인 도심공간 혹은 상권의 중심지는 대구역과 그에 면한 남북방향의 중앙로였다. 지금도 중앙로는 도시의 상징적인 축이 되고 있다. 도시성장 단계를 2단계로 구분해 볼 때 남북방향은 초기성장의 주축이 되었다. 이러한 남북방향의 성장이 한계에 달하자 이후의 성장은 동구와 서구를 잇는 동서방향이 주축이 되고 있다. 산지로 막힌 남북방향과는 달리 탁 트인 분지라는 지형적인 여건과 비교적 평탄지형이 갖는 개발잠재력으로 보아 동서방향으로의 성장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대구시민들은 급속한 발전을 보이는 동쪽과 서쪽, 즉 동대구와 서대구에 대해서 다른 느낌을 가지고 있다. 동쪽은 좋은 학군과 더불어 넓은 동대구를 비롯한 편리한 도로망, 신사가자로서의 깨끗한 이미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가지며, 서쪽은 공업단지가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이 좋지 못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이다.

동대구와 서대구를 구분하게 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교통문제이다. 도시 교통축면에서 볼 때 남북방향의 교통흐름보다 동서방향의 흐름이 더욱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이동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되며, 시민들의 교류도 은연중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남북으로의 이동보다 동서방향의 이동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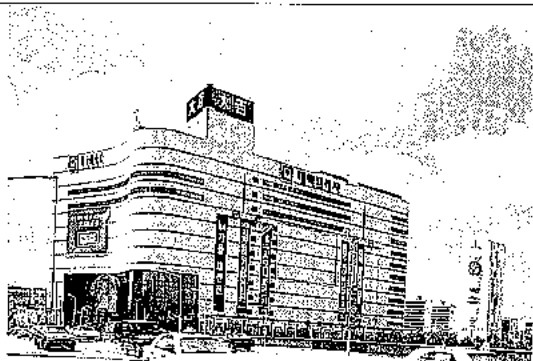
4) 동성로의 형성과 그 주변 건물들

동성로는 대구읍성이 허물어지고 그 동측 성벽이 있던 자리에 만들어진 도로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1909년 12월 개통된 후 몇 차례의 개수를 거쳐 현재의 폭 10m의 도로가 되었다. 이 곳은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가로로 하나로 보행자들을 위한 거리로 발전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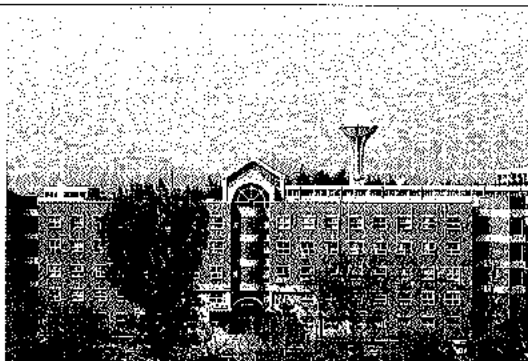
동성로의 발전은 동성로가 개통되기 이전 조선 시대에 동문 부근에 매월 음력 4월과 9월에 정기시장이 열렸던 동문시장에서 그 최초의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그 후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지가가 성내보다 훨씬 저렴했던 성외의 동측과 북측(현 대구역 부근)에 집단 거주하였다. 그들은 동성로를 대구역 부근과 함께 한인의 거주지역인 성내지역에 대한 경제침식의 전방기지로 이용하였으며 이때부터 동성로의 상가형성은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해방이후 특히 6.25동란을 계기로 역전 상가와 도심 시장으로써의 교동시장이 동성로 17와 인접한 것이 중심 상가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동아백화점과 대구백화점의 개설은 도심기능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동성로는 동아백화점에서 대구백화점을 지나 중앙파출소에 이르는 길을 말한다. 하지만 사람들의 머리속에 떠올려지는 것은 거리에 가득한 사람들과 진열장들이지 어디 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딱 꼬집어 경계를 짓지 않는다. 밤이면 거리에는 상점에서 뿜어져 나오는 네온사인과, 여러 종류의 난전들이 각기 밝혀놓은 크고 작은 빛들이 이 거리에 어지럽게 놓여 있다. 여기에서 많은 추억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신세대들은 접해보지 않은 낯선 훈훈함에 눈을 반짝인다. 대구시민들의 발을 가장 많이 보듬는 이곳의 향수는 이렇게 사라지지 않고 끈끈히 그 모습을 조금씩 변화시키면서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성로는 소비문화가 발달한 탓에 유행에 매우 민감하다. 그 결과 짧은 시간에 건물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변한다. 소비가 가져온 유행은 건물에도 영향을 미친다. 소비를 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현재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속도감이나 투명성을 건물에서 느낄 수 있다. 건물의 재료 측면에서도 가장 유행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재료들이 제일 먼저 등장한다. 동성로 거리를 형성하는 건물들은 제각기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개성이 강하다. 물론 간판들로 인해 독특한 경관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개개의 건물 자체도 강한 개성을 가진다.



대백플라자



경북대학교 대학원

5) 최근의 도시성장파 아파트단지 조성

1980년대 초반 주택 200만호 건설정책에 힘입어 이 곳 대구에서도 대단위 택지 개발이 있게 되고 주로 아파트 단지 조성사업으로 진행되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형성은 처음에는 주로 시가지에 존재해있던 공장이나 학교들이 이전한 부지에 형성되었으나 근간에는 동부(시지지구)와 서부(월성, 상인, 성서)에서 공영택지의 개발에 의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시 중심가와 수성지역의 소규모 주거전용택지를 중심으로 원룸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형식의 빌라형 집합주택의 건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기에는 아파트 입주자의 까다로운 요구와 주택업체의 경쟁으로 인해 도시 곳곳에 화려하게 장식된 모델하우스 건물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도시외곽지에 개발된 대규모 아파트단지는 부족한 택지문제를 해결하면서 각종 편의시설들을 유치하여 거주성을 증대시키려고 노력해왔으며 도시 외곽 공업지역 및 교육시설과 연계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서 칠곡지구는 북구 읍내동, 태전동, 관음동 일대 144만평 규모에 거주 인구 17만명을 수용하는 주택지가 건립되었다. 시지지구는 2십8만2천평의 면적에 아파트 8천4백 세대, 단독 주택 5백80 세대가 입주하였으며, 두산지구는 1만여 세대, 3만여 명의 주민을 수용하는 지산동 아파트 단지과 1만여 세대 10만 여명의 주민을 수용하는 범동동 아파트 단지가 완공되었다. 월배·화원 지구는 월배 2동(상인동)택지개발지구에 1만여 가구에 인구 4만 여명을 수용하는 신시가지지를 조성하였다. 최근 계명대학교가 이전된 이후에 공업 지역으로만 두각을 나타내던 성서지구에도 각종 편의시설이 들어섬과 동시에 대규모의 주거단지가 세워졌다. 대곡 지역에 1만2천세대를 수용하고 있으며, 성서택지개발지구에 1지구, 2지구 각각 2만6천4백여 세대, 1만6천2백여 세대가 입주를 마쳤다. 이들 지역의 대부분은 3차원적인 도시설계를 거치지 않고 개발되어 도시경관상 특징이 없고 콘크리트 사막과 같은 단조로운 경관을 구성하고 있다.

시지지구나 노변지구의 시영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건축가들에게 설계경기를 실시하여 좋은 결과와 반응을

얻었으며, 민간주택업체에도 지명설계에 의한 설계경기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동시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소규모 평형의 아파트에서도 계단형을 따르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또한 아파트 외관에 슈퍼그래픽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도시경관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건물 디자인과 분리된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회의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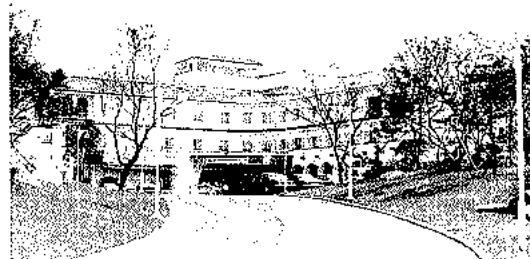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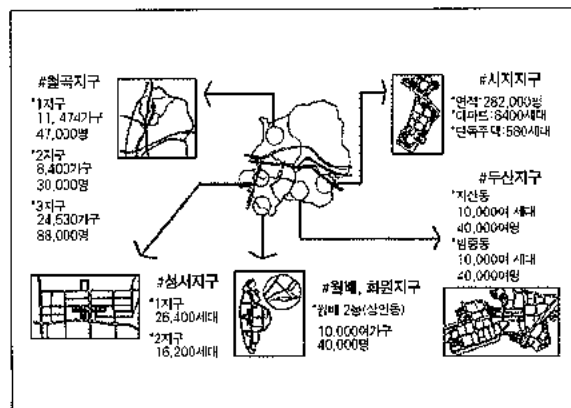
4. 대구의 풍경

1) 간선도로에서의 스케치

어떤 장소의 첫인상은 무엇에 기인하는 것일까? 그 장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우선 그 장소가 풍기는 전체의 이미지인 경관에서 우리는 장소성을 느낀다. 즉 개개의 건축물, 도로의 형태, 자연적 요소, 활동하는 사람들 등 이 모든 것들이 한데 모여서 한 장소의 이미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원리는 도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이다. '대구'라는 도시에 대하여 말할 때, 우리는 대구를 대표할 만한 몇 개의 도로를 떠올리게 된다. 즉 중앙로, 동대구로 그리고 대동-대서로가 그것이다.

① 중앙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대구는 중심성이 매우 강한 도시이다. 수많은 크고 작은 가로들이 있지만 중앙로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가로로써 인식되고 있다. 남북의 주요 연결 가로이기도 한 중앙로는 가까이 있는 동성로와 함께 좌우로 각양각색의 상점들이 늘어서 있는, 대구에서 가장 변화한 상점가로인 셈이다. 도로폭이 그리 넓지 않은 만큼 교통의 혼잡도 상당하지만 그 보다는 보행자와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과거에서부터 지속적으로 형성된 가로의 상점건물들이 이 가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즉 차량을 이용해 중앙로를 지나는 사람들보다 보행자들에게 더 인상적인 가로로 인식되는 곳이다. 얼마전 완전개통된 지하철 1호선이 중앙로를 지나고 있어 가로변 건물들이 이에 발맞추어 낮은 건물들이 개보수를 통하여 현대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으며, 앞으로의 개발 양상



최근의 주택지 건설

대구파크호텔

이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된다.

② 동대구로

도로폭이 매우 넓은 동대구로는 대구의 주요 간선도로 중의 하나이다. 범어로터리에서부터 동대구역까지의 동대구로는 다른 주요 간선도로변의 경관과는 다른 특이한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좌우로 고층건물이 곳곳에 입지하여 건물 층수면에서 보면 도심부와 같은 고밀도 개발양상을 보여준다. 고층의 오피스 건물과 함께 도로의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고 있는 식재 또한 다른 가로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정비되어 있어 건물들과 함께 자연요소의 친근감이 잘 어우러진 신사가지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동대구로는 여기를 지나는 보행자들에게도 물론이고 특히 차량 이용자에게 매우 편리하고 잘 정비된 가로로 인식되고 있으며 대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대구를 대표하는 인상적인 가로로 기억되고 있다.

③ 대동-대서로

대동-대서로는 남북을 연결하는 중앙로와 함께 대구의 동-서를 잇는 주요 간선도로로 도로폭에서나 차량의 통행량에서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개통된 남북 방향의 지하철 1호선이 덕산사거리에서 교차되고, 현재 공사 중인 지하철 2호선은 이 곳을 주 노선으로 하고 있다. 과거에도 크고 작은 건물들이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었지만 최근에는 삼성생명을 비롯하여 20층 이상의 고층 건물들이 많이 건설되고 있어 도심 업무용 건물 입지상 대동-대서로의 위치가 중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어느 도시계획가가 도로를 그렸는지 알 수는 없지만 남북 방향의 중앙로와 비스듬히 교차하고 있어 두 도로의 접합지점에 있는 건물의 축이 왜곡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현재 이 도로는 동대구로와 함께 가장 넓은 도시 간선도로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교통량이 너무 많아 항상 교통체증현상이 심하고 보행자보다는 차량통행이 우선이 되고 있다. 이러한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당국에서는 장래 이곳에 고가도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에서의 경험처럼 고가도로가 건설될 경우 도시경관이 매우 격정이 된다.

2) 특징적 장소들

① 중앙공원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공원은 한때 경상도의 관찰사가 머물며 행정, 군사, 사법 등 3권을 호령하던 감영이 있던 곳이다. 중앙의 행정청이 어떤 지방으로 옮겨오는 것은 그 지역발전의 획기적 계기로 작용하는데 오늘날 대구가 우리나라의 3대 도시 중 하나가 된 까닭도 경상감영이 설치되고 그로 인해 영남지방의 정치, 군사,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잡은데 기인하고 있다. 작년에 새단장을 한 중앙공원은 이미지를 일신하여 경상감영공원으로 명칭을 바꾸었으며 도심의 새로운 휴게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용되고 있다.

② 향교·유교 선현의 정신이 서려있는 곳

대구시 중구 남산동 이마산 기슭의 2천2백 평의 대지 위에 세워진 향교는 대성전(大成殿, 성현 위패 봉안)과 명륜당(明倫堂, 강당)을 양축으로 하여 그 공간을 이루며 그 앞에 동·서무, 동·서재(東·西齋, 기숙사)가 배치하고 있다. 처음 외삼문으로 향교내에 들어서면 중국 북경박물관의 공자상이 위치해 있다. 공자상 바로 옆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통양식을 살린 우리 돌이 화려하지는 않으면서도 은근한 멋을 풍기고 있다. 정원을 사이에 두고 양사재(養士齋, 연구실)와 낙육재(樂育齋, 연구실겸 도서관)가 대성전과 명륜당을 마주보는 공간을 구성한다. 처음 향교는 1398년(태조 7년) 중구 교동 위치에 건립되었으나 임진왜란때 소실되어 달성공원의 위치에 이전 건립되었다. 향교의 본래 목적은 공자 등의 선현을 모시고 그 가르침을 본받아 풍속을 교화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써의 역할뿐만 아니라 중국과 우리나라의 유현을 제사지내는 곳이었지만 현재는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여러 종류의 교화사업과 강좌, 전통 혼례를 치르는 장소로 자주 이용되어 얼마전 시민이 뽑은 10대 명소의 하나로 지명되기도 하였다.

③ 악령시

대구시 중구 남성동의 남성로에는 길이 300m의 골목에 한약방, 한의원, 한약상 등이 위치한 악전골목이 있다. 과거의 악령시 모습이 현재의 악전골목의 형태로 남아 있다.



동명성당



포교 성 베네딕도 수녀원

이곳은 명실상부한 이 땅 한의학의 메카로서, 장터 문물 연 이래 꾸준히 발전을 거듭했고, 국내는 물론 동남아 일대로까지 명성을 떨치기도 했다. 오랜 세월동안 약령시가 국가와 지역경제, 국민보건에 기여한 공은 실로 엄청난 것이다.

④ 달성공원

대구역 동쪽 1.5km 지점에 있는 달성공원은 멀리 삼한시대부터의 옛 숨결을 간직한 유서 깊은 곳으로 사적 62호로 지정된 달성이 있다. 달성은 경주의 월성과 같이 낮은 구릉지대를 이용하여 쌓은 토성으로 그 길이가 1천3백m 나 된다. 공원내에는 종합문화관, 동물원을 비롯 최제우 동상, 달성 서씨 유해비, 아상화 사비 등이 있으며 2층 누각인 관동루와 망향루가 보존되어 있다.

⑤ 팔공산

대구 사람들에게 있어 팔공산은 풍족한 삶의 원천이다. 예로부터 팔공산은 대구 분지를 병풍처럼 감싸 안으며 사람들의 삶의 평안을 지켜 주었고, 명산영악(名山靈岳)으로 국가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정신적 위안과 도움을 주어 왔다. 팔공산은 그야말로 '대구인의 마음'이요 정신적 지주였던 것이다. 이러한 팔공산의 '고상함'과 '높은 덕'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대구를 대구이게 하는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팔공산을 찾는 이유는 다양하다. 여름이 되면 팔공산은 자연 에어컨이 되어 사람을 불러들인다. 그 것은 산 속의 기온이 시내의 온도보다 5도 이상 차이가 나서 더위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며, 주말이 되면 꼬박기마다 발뿌여 놀 곳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가을이면 단풍이 매우 아름답다. 여름에 충분한 일조를 받을 적이면 그 해의 단풍은 특히 아름다워진다. 입구 도로변의 단풍나무는 팔공산을 찾는 이의 가슴을 기쁘게 만든다.

⑥ 치성의 줄 잇는 갯바위

팔공산의 갯바위시설지구에서 돌계단으로 되어 있는 등산로를 따라 약 2시간 정도 올라가면 해발 850m의 관봉에 닿게 된다. 관봉에는 높이 4m의 석불상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 불상의 머리위에는 두께 15cm가량의 평평한 자연석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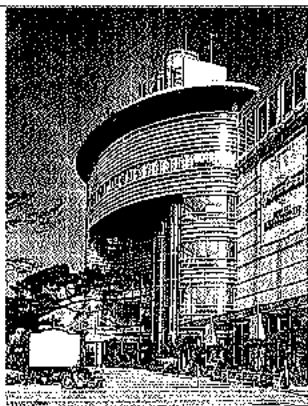
나가 갯모양으로 다듬어져 얹혀 있다. 이 때문에 '갯바위'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진 이 불상은 관봉 석조여래좌상(보물 제 431호)으로 대구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영험하는 부처로 잘 알려져, 지금도 대학입시를 앞두거나 큰일을 맞게 되면 이곳을 찾아 치성을 드리는 행렬이 안산인해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곳은 한국 기복불교의 상징적인 장소라 할 수 있다. 정문으로 오르면 갯까지 토산음식들이 등산객들을 유혹하며 지금은 갯바위 뒷길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 30~40분이면 정상에 오를 수가 있다.

⑦ 대구타워와 우방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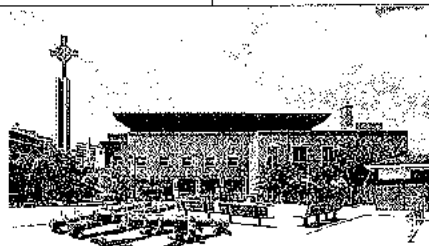
대구시가가지 가운데에 있는 두류산에는 대구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대구타워가 하늘높게 솟아 있다. 대구타워는 먼 곳에 갔다 돌아오는 시민들에게는 대구의 이정표로, 시민들에게는 휴식과 데이트의 장소가 되기도 한다. 경주에 있는 다보탑의 전통적 건축미를 재현한 팔각형 탑신은 타워의 안정감을 더해 준다. 대구타워는 높이가 202m(탑신 153m, 철탑 49m), 해발 높이가 312m이며 국내 최대의 전망탑을 갖추고 있으며, 전망대 3층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대구의 동서남북의 곳곳을 내려다 볼 수 있다.

우방랜드는 대구지역의 최대 위락단지로서 대구타워와 함께 두류산에 위치해 있다. 늘 다양한 공연과 전시 행사가 이루어지고 30여종의 놀이 기구와 잔디썰매장, 눈썰매장이 있다. 그리고 계절별로 바뀌어지는 튜립, 장미, 국화 등의 꽃동산은 신혼부부의 야외 촬영장으로 애용될 뿐 아니라 어린이들에게는 학습의 장이 되기도 한다. 대구타워와 공원이 결합된 테마공원 우방타워랜드는 이제 시민의 휴식 공간이자 주말 레저 공원, 또 문화 예술의 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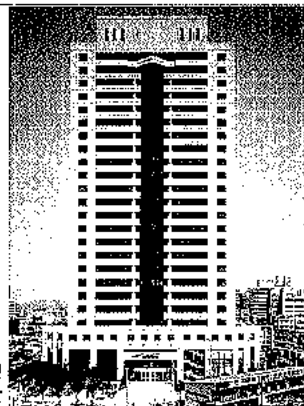
- 다음호(7월호)에 「대구 · 구미 · 김천(하)」편이 계속됩니다 -



대구 웨딩 알리앙스



지산천주교회



삼성생명
대구덕신재개발

무궁화동산 청소년 수련의 집 Youth Training Center of Mugunghwa Hill

최낙진 / (주)사간건축사사무소
by Choi Rak-J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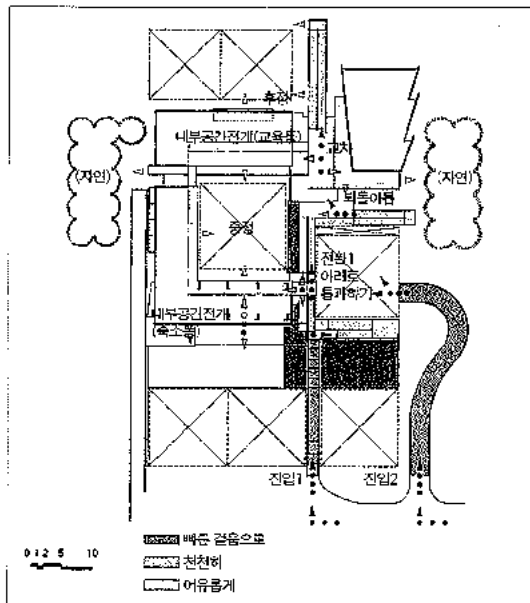
1993년 가을, 청평댐을 지나 강원도 홍천의 모곡 유원지로 가는 길은 시골스러운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어 참으로 정겹고 마음까지 시원하게 하였다. 그곳은 청소년 수련원 부지로 가는 길이었다.

설계사무소를 등록하고 전전긍긍 하다가 처음으로 프로젝트다운 프로젝트를 대하게 되었으니 처녀작인 셈이었다. 그러나 마음 설레고 의욕이 앞섰다. 대지조건이나 상황이 궁금하면 다시 가고 싶었고, 갈 때마다 가슴 벅찬 새로운 기분을 느꼈던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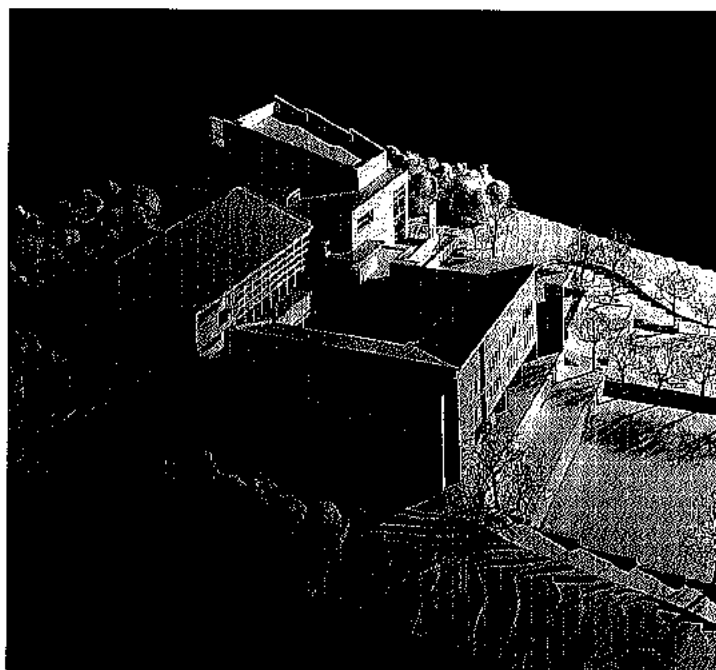
직원으로서 사무실에 근무할 때에는 사뭇 다른 몸가짐을 스스로 느낀 셈이다. 사실 처음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면 실적, 사무실 규모, 경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프로젝트 결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다. 당시 사무실을 같이 운영하던 친구의 활동에 의해 프로젝트를 대하게 되었지만 본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었고 그 이전에 교회 프로젝트 몇 개가 성사되지 않았던 경험도 있고 해서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성사되었고 이는 친구의 대인관계와 신앙심에 의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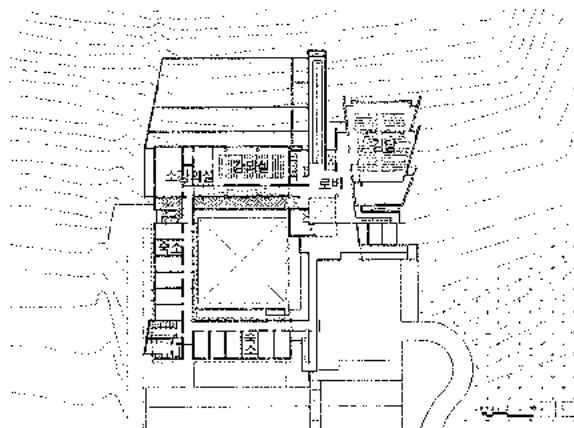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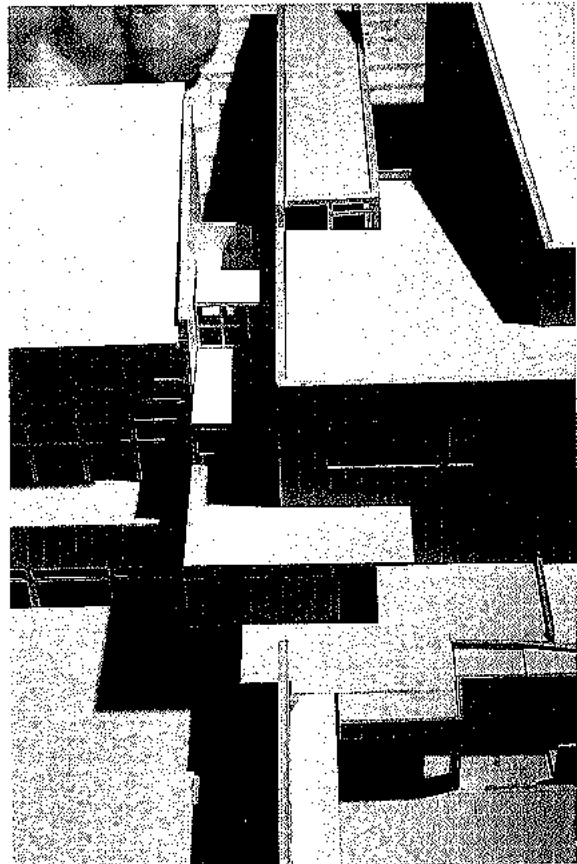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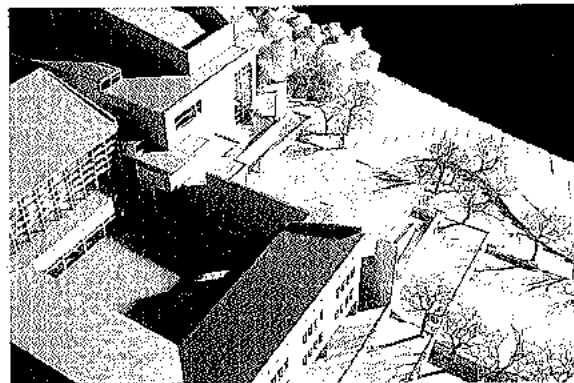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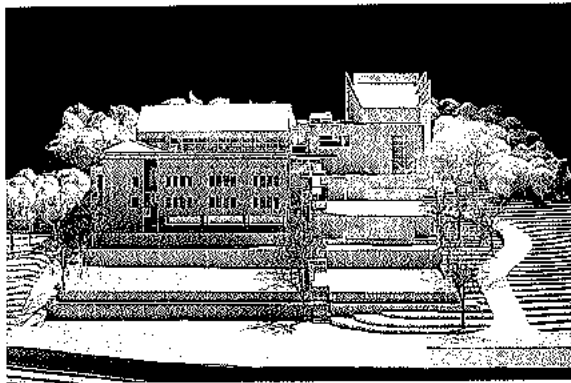
이 수련원의 실제적 수련 대상은 기독교 신자이지만, 신도라고 해서 누구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 이상 신앙심을 지니고 있는 신도들이었다. 그래서 수련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은 정신적으로 일상 생활로부터의 일탈을 요구하였고 오직 수련과정에 충실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러한 종교적 교육적 프로그램은 건축구성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다. 교육과정 동안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원하고 있었기에 한적한 산기슭에 놓여 있는 대지, 그리고 주변 환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관계를 설정할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였다.

부지는 모곡 유원지 조금 못 미쳐서 약 2km 정도 외딴 마을로 들어가게 되는데 전면부에는 병풍처럼 펼쳐 있는 산봉우리가 이어졌고, 그곳에는 형제봉이라는 바위가 정상상을 이루었다. 산으로 둘러 싸여 일조시간은 짧았으며 주변환경이 조용하다 못해 적막감을 느끼게 하였다. 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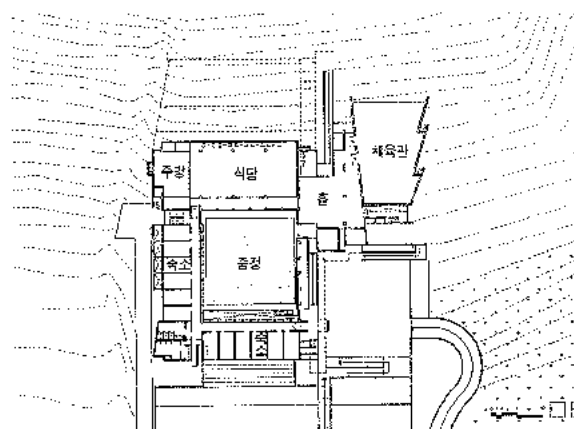


공간개념





1층평면도



지하층평면도

쪽으로 경사진면(북향)을 이루는 대지를 서성거리다보면 한편으로는 따뜻하고 포근함도 있어 이중적 감성을 지니게 되었다. 상황에 따라 감성이 다를 수 있기에 몇차례 방문하여 보았으나 거의 같은 분위기였다. 교육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절제된 행위와 대지를 비롯한 주변환경의 이미지를 적절히 조절하면 공간 성격이 분명해지고 명쾌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인간이 건축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것은 움직임과 시간성을 통해서 얻어진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의 이성과 감성은 자극되어진다.

적절한 건축적 장치를 통해 그러한 자극을 촉발시키고, 그속에서 수련하게 될 인간의 심상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 사물이나 공간을 인식하고 나타나는 내적 심리적 반응은 인간의 보편적 진리로써 공유하지만 문화와 교육, 관습에 의해 조금은 다르게 나타난다. 우리는 근대건축의 영향을 받고 설계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자칫 우리 문화에 대한 생각을 간과하여 소홀히 하거나 조금은 왜곡된 시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근대건축이 역사와의 단절을 피하고 단순성을 추구하였고 현대 서구건축이 새로운 철학을 배경으로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지만, 실제로 많은 서구건축가들의 작품에는 그들의 역사와 문화가 승화되어 나타나고 있음은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히 혁명적이라 일컬어지는 그들의 건축도 역사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

고 시간의 껍적속에서도 동시대성을 느끼게 하는 많은 건축어휘를 보게 된다. 이는 미학 또는 건축 이론의 학문체계의 연속성과 문화의 지속된 맥락과 더불어 해석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이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전달되고 감흥을 더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유럽의 수도원, 사찰건축, 상류주택 등 많은 선례들이 이미지로 떠올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물을 보는 방법론, 공간 인식에 대한 문제, 자연관, 그리고 그속에서 일어나는 행위와 심리적 반응 등이 논의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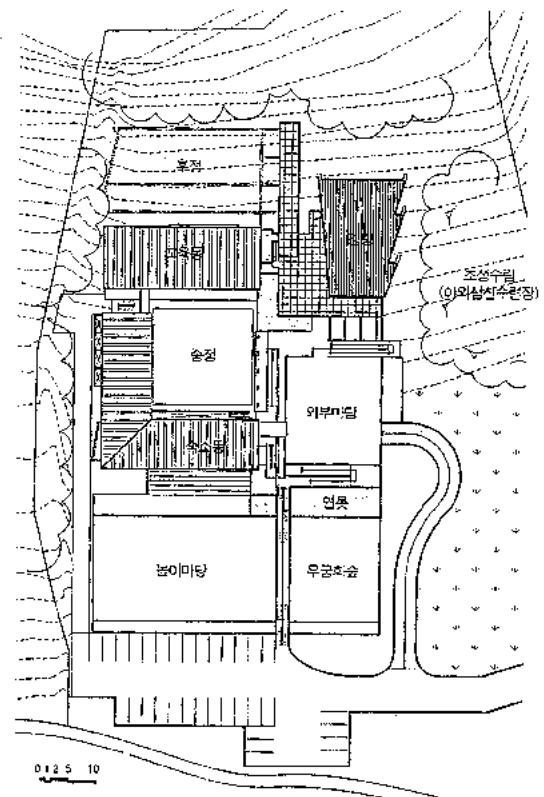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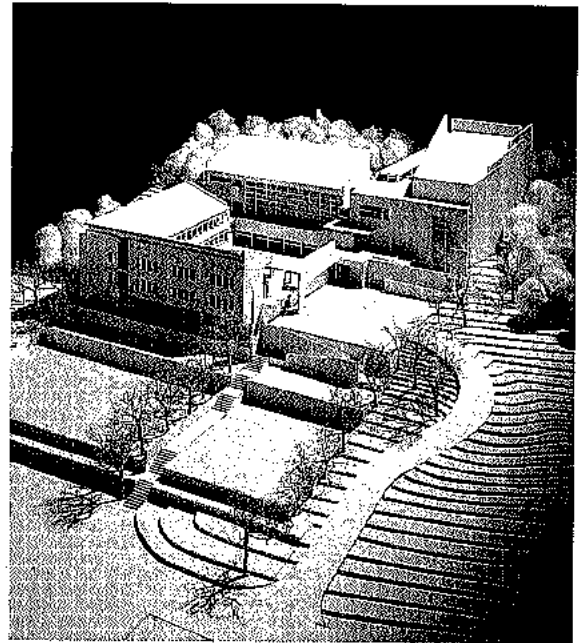
어느정도 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니 걱정이 앞섰다. 처음에 기독교로서의 종교적 이미지가 요구되었는데 본인은 기독교인도 아니고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그결과를 종교인으로서 또한 건축주로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의외였다. 기독교 건축과 불교 건축 이야기, 동양과 서양의 문화차이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선비정신 이야기 등이 스스럼없이 서로 논의 되었고 흔쾌히 받아들여졌다. 오히려 건축가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었다.

그 여운이 지금까지도 감사한 마음으로 남아 있다. 설계를 의뢰했을 때는 목회자로서 많은 의도와 주문이 있기에 마련이고 많은 신도(위원회)들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한데, 설계자의 의도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노력한 의지가 더욱 고맙게 느껴지곤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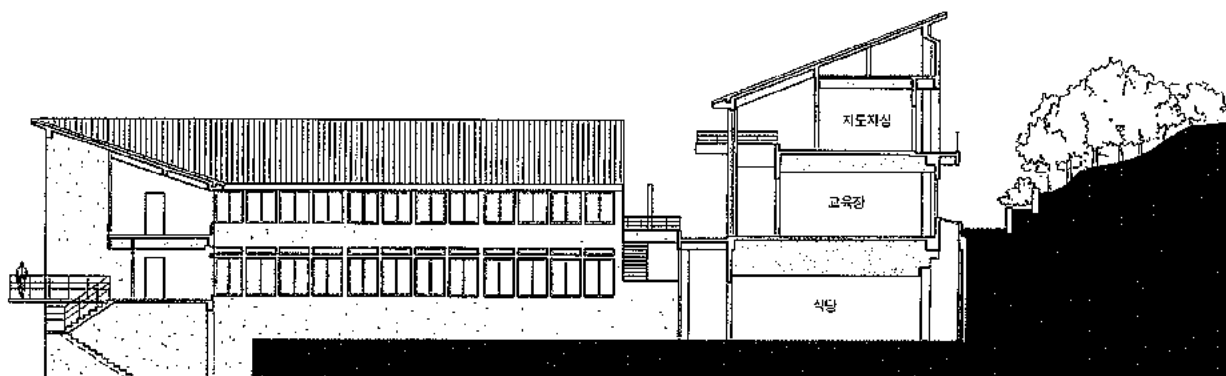
첫 프로젝트라서 애착이 많지만, 그때의 여러 가지 상황이 더욱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컸다. 그러나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지금, 미묘한 감정이 자리하고 있다. 그 한적했던 홍천가는 길은 음식점, 러브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변화하였고 많은 상처를 입었다. 수련원은 예산의 문제로 변질, 생략되면서 의도와는 달리 건축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아직도 골조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몇 년이 흘러 완성될지 미지수이다.

결과가 예측하기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힘들었던 것은 설계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떠나 많은 애정을 가졌었는데, 그 기대가 무너진 것과 설계하면서 생각하였던 것에 대한 정확한 검증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미완의 작품이 된 셈이다.



배치도



한국의 건축가 12 - 김인호(완)

Korean Architect, Kim In-Ho

김인호의 작품세계

박정우 / 계명전문대학 건축과 교수

by Park Jung-Woo

◇ 연 재 목 차 ◇

(계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종업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1. 김순하 (9802~9803)
12. 김인호 (9804~9806)
13. 홍순인 (9807~9809, 예정)

1. 김인호, 그 짧은 삶에 대한 기록
2. 김인호시단의 계보 및 활동
3. 김인호의 작품세계

김인호의 건축은 해방과 6.25전쟁이후, 복구사업과 건설이 막 시작되던 1950년대 중후반부터 출발하게 된다. 그는 스승, 정경운을 도와 청구대학 문화동캠퍼스 본관(1956-58년 완공)과 청구대학 효목동캠퍼스 공학부(1956-60년 완공)를 설계하므로 그가 참여한 최초의 공식적인 작품이 선을 보이게 된다. 정경운과 김인호는 당시의 시대적 조류였던 직선적이고 기하학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주의 양식의 영향하에서도 한국적 건축을 표현하려는 의지가 강하여 형태적 측면에서 한국성을 모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는 곧이어 1960년대의 군사정권의 내셔널리즘과 부합하여 아카데미적이고 역사주의적 성향의 기념비적인 건축이 등장하면서 전국적으로 전통논쟁에 휘말리는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다. 당시는 김종업의 주한 불란서대사관, 이희태의 절두산 복자기념성당에서처럼 모더니즘과 한국적 서정이 절묘하게 절충된 작품도 있었지만, 1966년 고건축의 완전한 복사판이었던 강봉진의 국립중앙박물관과 이듬해 왜색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김수근의 국립부여박물관이 그후 지속적으로 대두하는 전통계승의 본질적 의미를 논의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정경운과 김인호, 그들이 함께 찾아낸 한국성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보나 도리의 머리가 서로 맞물려 교차한 전통건축의 형식을 차용하거나, 기둥과 기둥간에 보나 서까래가 여유롭게 치마아래로 빠져나와 노출된 형상을 도입한 부분이다. 그들은 1965년 설계한 경북도청사의 외관에 각층의 캔틸레버마다 서까래형상을 변용하여 한국성을 적절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¹⁾ 그러나 이러한 형상이 반드시 한국적 모티프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단계 전조의 카가와 현청사(1955-58)만 하더라도 경북도청사의 외관과 많이 닮아 있어 오히려 그것을 모방했을 것이라는 의혹마저 드는 것은 감출 수가 없다. 이 모티프는 정경운과 김인호가 결별한 이후로도 각자가 별도로 유사하게 사용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²⁾

1) 한국건축가협회, 한국의 현대건축, 114쪽

2) 양남대학교 문리대학 및 상경대학(1969), 명성예식장(1970, 현 문화교회)

김인호는 1966년 그의 첫 번째 대표작, 경북실내체육관(현, 대구체육관)이 현상설계에서 당선하므로 주목받는 작가가 되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그후로 그는 수많은 체육관 현상설계를 설계하게 되었다. 1972년에는 대구시민회관 현상설계에 당선하여 그의 건축적 입지를 견고히 다지는 한편, 1981년 경북대학교 대강당, 이듬해에는 대구종합문화예술회관 현상설계에 당선하는 등 그는 문화관련시설에서도 뛰어난 건축적 감각을 유감없이 발휘하였다. 대구에서는 아직도 옥내집회와 관련된 대규모 행사는 상기의 작품들에서만 치루어지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인호의 작품세계는 이미 대구의 몇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진 바 있는 것을 새삼 언급하기가 적어 조심스러우나, 객관적 자료에 입각하여 건축적 접근을 하는 것이 본 기록의 의미와도 부합된다고 사료되어 김인호의 대표작 몇 점을 중심으로 하여 그 건축적 특징을 정리하면서 흥미로운 부분들도 소개해 보고자 한다. 그의 작품집에서 소개하는 총 작품수 81점(물론 실제 그의 작품은 훨씬 더 많다)중에서 그의 놓칠 수 없는 족적이라 판단되는 것만을 필자가 임의로 발췌하여 재정리한 주요작품 년보는 <표1>과 같다.

형태적 이미지의 상징화

김인호의 건축적 사상과 비전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란 지극히 위험하고도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은 김인호가 살아온 시대성과도 무관치 않는 것으로 일제의 강점기와 해방후 혼란기에 의해 단절된 건축적 전통성을 60년대에는 군사정권의 주도하에 의도적으로 집착하였고, 또한 70년대에는 모더니즘과 절충하여 한국적 요소를 가미하거나 80년대를 전후하여서는 포스트모던적 시각으로 전통성을 해석하고자 하던 진보적 도정(道程)상에서 그의 참모습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김인호의 건축은 우선 감각적이고 대담하다. 그의 대표적 건축은 대개가 대형집회시설과 같은 것들이어서 구조적인 모티프를 찾아야 전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 그에게 구조적 문제에 관해 항상 허심탄회

<표1> 주요작품 년보

1965	경상북도 도청사(정경운과의 공동작)/ 대구시
1966	경북실내체육관 현상설계 당선/ 대구시 강원도 춘천실내체육관/ 춘천시 뉴 코리아호텔/ 서울시
1968	대전충무실내체육관/ 대전시
1969	불국사경내 가람일괄 복원설계참여/ 경주시
1970	명성예식장(현, 문화교회)/ 대구시
1971	안동문화관/ 안동시 화랑의 집/ 경주시 대구 대덕산공원 개발계획 및 석도설계/ 대구시
1972	대구시민회관 현상설계 당선
1973	대구스포츠타/ 대구시 대구향교 복원설계/ 대구시
1975	부곡 온천지구 도시계획/ 청녕군 부곡
1976	경북고등학교 체육관/ 대구시 대구의사회관/ 대구시
1977	영주 부석사 복원설계/ 영주시 서울종합운동장 야구장/ 서울시
1978	대건고등학교 체육관/ 대구시 구미시청사 현상설계 당선/ 구미시
1979	백암온천호텔/ 경북 울진 매일신문사사옥/ 대구시 민족통일기원탑 계획안/ 판문점
1980	안동민속박물관/ 안동시 대구 카톨릭병원/ 대구시
1981	경북대학교 대강당/ 대구시
1982	경북대학교 인문사회관/ 대구시 동아쇼핑센터/ 대구시 대구시 종합 문화예술회관/ 대구시
1983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대구시 대구 두류 실내수영장/ 대구시 대구 두류공원 축구장/ 대구시 대구시 종합복지회관 현상설계 당선/ 대구시
1985	부산 천태종 대법당/ 부산시 경북대학교 화학관/ 대구시 덕원중고등학교 체육관/ 대구시 영남대학교 종합강의동/ 경산시 대구시 약사회관/ 대구시
1986	경북대학교 전산소/ 대구시 안병근 유도기념관/ 대구시
1987	대구과학고등학교/ 대구시 팔공산관광호텔/ 대구시
1988	경북대학교8호관/ 대구시 춘천리오향호텔/ 춘천시 경북일보/ 대구시

하게 의논할 수 있는 김현산, 권영환(현, 경북대 건축공학과 교수)과 같은 구조전문가가 주변에 함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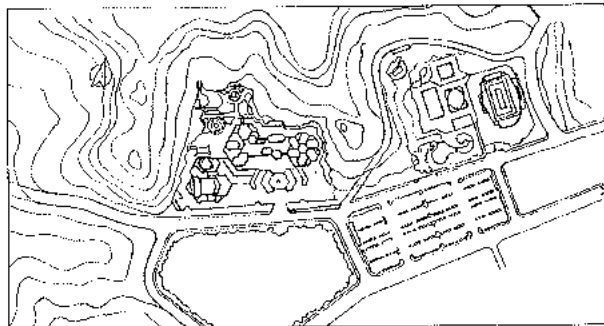
경북도청사



대구 시민회의
카기와 현형사



명성예식장(현 문화교회)



대구 문화예술회관과 대구실내수영장 배치도

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김인호는 작품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초기단계에서부터 구체적 형상의 이미지를 설정하지는 않은 듯하다. 그는 오히려 기능적 해결을 통하여 서서히 주제의 핵심을 찾아가는 편이었고, 일단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스케치해두었다가 설계실에서 그것을 해결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는 그런 스케치를 하는 과정에서 한국적 이미지를 창출하고자 노력하였고, 거기에서 설정되는 개념은 건물의 용도와 완벽하게 부합토록 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당시 건축가들의 이론적 빈곤을 생각해볼 때, 논리적 체계를 미리 세워두고 문제를 풀어갔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보다는 작품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논리성이 형성되는 쪽이었다. 그는 경북실내체육관에서 화랑이나 신라인의 투구형상을 지붕으로 옮겨놓고 스포츠정신을 상징화하였다고는 하나, 80m의 대공간을 덮을 수 있는 구조적 형상을 모색하던 끝에 나중해야 찾아낸 적합한 개념으로 보인다. 또한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의 지붕에서도 감사고개를 쓰고 곱게 춤추는 여인의 모습을 그렸다고 하지만, 이 역시도 마스터 디파징에서 찾아낸 개념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의 너무나도 절묘한 어휘구사와 개념설정에는 그의 성숙된 조형감과 어우러져 김인호건축의 절정을 이룬다.

김인호는 1984년 울산문화회관 현상설계에 응모하면서 처음으로 거북선의 이미지를 주제로 미리 설정, 외관의 형태적 이미지가 거북선을 상징하도록 계획하였다. 단순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울산시의 막대한 자금원인 현대조선의 창업신화를 겨냥한 주제설정이었다는 것 같은데, 거북선의 이미지를

강조하려는 의도성이 너무도 강한 나머지 매스의 전체적인 통일성이 외관만 어지럽게 연출되고 말았다.

김인호는 한국건축의 전통성을 찾고자 노력한 건축가이다. 그에게는 현대건축의 합리주의와 표현주의, 그 어느 범주에도 가둘 수 없을 만치 자유분방하고 다원적이며 절충적인 성향이 있다. 김인호건축을 표현주의적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그의 건축적 외관에는 다소 조소적 경향이 흐르고 장식적 요소를 자주 도입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는 한국의 역사건축을 복원하거나 모사하기도 했고, 역사건축의 형식에 현대적 기능을 가지는 건축도 다루어 보았다. 또 김인호가 한국의 토속적인 모티프를 집요하게 다루었다는 측면에서는 그의 건축을 차라리 전통주의의 범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인호의 건축노정을 보면 그는 한국건축사를 자신의 전공으로 하여 교수생활을 하였고, 또 건축의장을 강의하면서 디자인원리와 요소는 물론 서양건축사 및 근대건축이론을 누구보다 자주 접할 수 있는 꽤 오랜 시간이 그에게는 있었다. 오늘날의 한국건축에서 허다히 볼 수 있듯이 그의 작품에서도 어딘지 수입된 책에서 본 적이 있다는 추측을 낳을 만큼 세계거장들의 작품들과 유형적으로 닮은 부분들을 군데군데서 찾아볼 수 있음은 사실이다. 그것은 김인호가 세계적인 근대건축을 접하면서 작품구상의 아이디어를 얻거나, 선행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얻는데 유용(有用)하였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어느 한 시기동안 에로 사리넨의 작품에서 암시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대표작 2점이 있기도 하다. 김인호와 사리넨의 건축에서는 그들의 대담한 발상이나 자신만의 특정한 스타일과 건축언어가 없는 표현의 다양성, 건축에 역사적인 의미나 커뮤니케이션을 가지려는 노력, 상징적이고 모뉴멘탈한 건축수법이나 장식적 요소의 도입 등 두사람의 건축관마저 너무도 닮아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어쨌든 그는 초기일관 외관의 형태디자인에서 한국의 전통성을 추구하였고, 1982년의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는 더 한층 성숙된 사고로 전통적 공간의 구현으로 눈을 돌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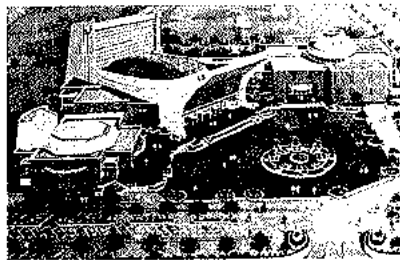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해서 김인호는 자신만의 한국적 건축언어를 창출하여 한국건축의 전통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한 한국의 건축가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실내체육관(현 대구체육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울산문화회관 현상 공모안

전통의 은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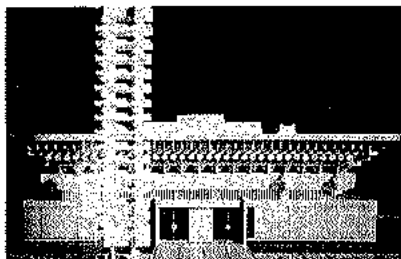
경북도청 - 정경운과 김인호는 청구대학 문화동 본관(1956-58)에서도 이미 국제주의 계열에서 벗어나 한국적 서정과 감수성을 부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왔으나, 1965년의 경북도청은 그러한 로컬리티(Locality)가 더욱 강조되고 그들 나름대로 이름붙힌 코리아니즘의 경향이 묘사된 작품이다. 길게 펼쳐지는 관공서건축물 등에서 자칫 느낄 수 있는 단조로움을 각층마다 처마처럼 캔틸레버를 빼내어 보를 노출시키고 또 장식보까지 만들어 더욱 리듬감을 강조하므로 외관을 경쾌한 이미지로 변신시켜 놓고 있다. 캐노피디자인은 현대적인 맛을 실려 가볍게 느껴지도록 형태에 변화를 준 것이 흥미롭다.

1967년 몬트리올 엑스포에서 김수근이 설계한 한국관의 디테일도 경북도청사의 이미지와 유사한 것은 이처림 보나 서까래를 노출시키는 표현이 한국적인 정서로 쉽사리 전달될 수 있다는 관념에서 곧잘 인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북실내체육관 - 김인호는 경북실내체육관 현상설계에 당선되므로 그후 실로 수많은 체육관련시설을 다루게 되는데, 춘천실내체육관이나 대전충무체육관도 그런 관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당시의 실내체육관이라고 한다면 전국에서도 장충체육관(1960-63)이나 부산구덕체육관(1966) 정도가 지어지고 있을 무렵이다. 또 1964년 동경올림픽이 열리면서 일본은 전후(戰後) 최초로 주목받는 정상급 건축을 세웠다고 할만큼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단계 겐조의 국립육내종합경기장이 국내에서도 단연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김인호의 경북실내체육관은 단계 겐조의 것보다 형태면에서 훨씬 더 유사한 것으로 고래등의 유연한 선을 닮은 에로 사리넨의 예일대학 아이스하키 스타디움(1953-58)에서 힌트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단계 겐조도 경기장 설계당시 사리넨의 이 작품에서 영향받은 바가 크다고 한다. 사리넨은 중앙에 1개의 콘크리트 아치를 건물의 장변방향으로 걸치고 케이틀로 좌우의 웅벽으로 담겨 고정시킨 구조형식을 사용하였고, 동경국립육내종합경기장에서는 중앙의 옴마루선을 타고 건너지르는 고정력케이블에 의해 셸을 형성하는 형식이었다. 김인호는 보다 큰 매스의 콘크리트 아치의 하중을 줄이는 방법으로 속을 비

우고도 강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대나무의 구조를 생각해냈다. 그리고 2열의 3한지 아치와 외주의 텐션 링(Tension Ring)을 주 골격으로 3한지 서스펜디드 빔(3-Hinge Suspended Beam)을 걸쳐 안전성을 도모하였다. 이것은 페터 베렌스의 AEG터빈공장의 구조가 3한지와 아치로 된 트러스로서 기초에서 꼭대기까지 일체화되어 지붕과 벽의 구분을 없애고 있다는 사실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대나무구조의 아치도 사리넨의 제퍼슨 메모리얼(1948-64) 아치의 단면에서 얻어낸 발상이라는 추측은 지나친 비약이 될지 모르겠다. 단계 겐조나 사리넨의 스타디움에서 처럼 경북실내체육관의 경우에도 경기장내부에서 대형아치가 연출하는 현수선의 다이나믹한 형상은 경기에 열중하는 선수들은 물론 관중들에게도 적극적이고 약동적인 에너지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있다. 김인호는 체육관지붕의 형상이 갖는 모티프가 신라인(花郎)의 투구이고, 이것은 체육관의 정정당당한 싸움, 경쟁과도 상통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화랑투구로 보이는 복식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었고 신라토기 기마인물상에서 쓰고 있는 모자나 금속제의 관모가 그중 가장 유사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인호는 체육관의 지붕뿐만 아니라, 산사(山寺)의 일주문을 닮은 출입구의 외관 등에서 콘크리트의 조소적 표현성과 어우러져 자신의 한국적 정서를 담은 상징적 표현의지를 보여주므로 전통적 요소를 적절히 인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민회관 - 1970년대가 되어서도 형태적 소재에서 전통성을 찾으려는 일반의 경향은 지속되고 있었다. 물론 부여박물관의 전통논쟁이후의 김수근의 주장처럼 형에 의한 한국성보다 전통적 공간해석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법 설득력을 갖출 때이기도 하다. 5.16이후 제3공화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일련의 민족적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예술과 스포츠관련시설은 6,70년대 관 주도사업의 단골메뉴였다. 대구시민회관도 그러한 사업의 일환이었지만, 김인호의 작품 어디에서도 그렇듯이 시민회관에서는 더욱더 관료주의적 냄새가 나지 않는다. 김인호는 1972년 한해에 대구시민회관, 달성공원재개발, 서울KBS방송청사 등 3가지 설계경기를 겹치기로 준비하여 출품하는 왕성한 의욕을 보였다. 대구시민회관은 위치적으로 장단점을 안고 있는 프로젝트였다. 당시의 도로조건이나 교통상황



몬트리올 엑스포67 한국관



동경 국립육내종합경기장



예일대학 아이스하키 스타디움

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다지 크지 않은 부지에 대공간이 들어서게 되면서 무대 후면벽과 대구역으로 들어가는 선로와의 거리가 십 수미터에 불과할 수밖에 없도록 배치되어 공연자들에게는 지나치는 열차의 진동과 소음이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반면에 도심부에 위치하여 시민의 도보접근이 용이하고 최근에는 지하철까지 개통되어 더욱 편리해진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것이다. 극장동과 전시동이 'ㄱ' 자형으로 배치되어 광장으로 계획되었던 외부공간은 이제 주차장이 되어 버렸다. 가까이 주된 어프로치는 지하도에서 올라오는 광장쪽인데, 극장의 측면을 보고 접근하게 되므로 건물의 전체모습이 잘 읽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정면에 늘어선 5개의 거대한 열주는 디자인의 초점이 되고 있다. 외부의 조소적이고 대담한 스케일과 표현주의적 장식에 비해 내부 홀은 비교적 좁고 평범한 느낌을 준다. 대구시민회관은 경북실내체육관과 더불어 에로 사리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작품으로 보인다. 당시는 르 꼬르뷔제의 통상교회이후 조소적 경향의 건축이 많이 등장하던 때이기도 했지만, 에로 사리넨의 달레스 국제공항터미널의 웅대한 스케일감, 힘차게 비상하는 형상은 대구시민회관의 외관과 흡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면부가 살짝 치켜 올려지고 가운데가 낮아지다 다시 후면에서 약간 들려지는 유연하면서도 힘찬 지붕선의 처리(김충삼 소장은 긴 담뱃대의 형상을 그렸다고도 하는데)가 돋았고, 기둥이 지붕을 단순히 받쳐주지 않고 지붕을 뚫고 올라가 지붕을 매달아 놓은 형식이 유사하다. 그외 전시동은 1층에 대·소전시실을 두었고, 2층에 소강당을 두고 사람의 출입동선은 별도로 광장쪽에서 외부계단을 이용하도록 처리하였으며, 3, 4층은 사무실공간으로 구성하고, 무의미해질 수 있는 옥탑층에서 보와 기둥을 좌우측 벽에서 빼내어 교차시킨 형상으로 역사적 상징성을 부여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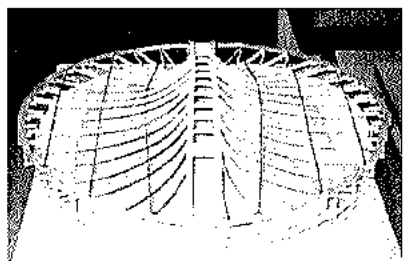
1980년대는 정부의 문화진흥정책이 가속화되면서 프로젝트도 대형화되어간다. 문화예술회관은 두류공원 남측기슭에 위치하여 성당못을 전면에 두고 있다. 김인호는 부지를 직교 그리드가 아닌, 소위 라이트(F. L. Wright)의 그리드라 불리우는 정삼각형그리드로 분할하여 다이내믹한 형상을 연출하였다. 1,100여 석의 대공연장의 지붕선은 승무의 갑사고깔을 표상하며, 전시관 외관은 대구의 시화(市花), 목련화의 이미지를 담고자 하

였다.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종래의 전통의 형태적 모색에서 발전하여 공간적 이미지를 탐구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있다. 외부광장의 중심에서 아리랑 곡선을 사용하여 옥외전시공간의 영역으로 꾸며졌으며, 전시관의 홀에서는 대청마루를 올라서면 뒷뜰이 보이는 전통의 민가형식을 도입한 듯 내부의 수(水)공간을 통하여 후정으로 시원하게 시야를 열어놓는 착상이 탁월하다. 문화예술회관은 내외부공간의 기능적, 조형적 완성도가 높고, 디테일의 마무리도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대구두류공원부지내에는 문화예술회관외에도 배의 모양을 형상화한 실내수영장, 주변지형을 훌륭하게 이용한 축구장, 안병근 기념유도관, 천태종 대성사 등 많은 김인호의 작품이 인접해 있다.

1976년 김수근이 주도하던 남서울대운동장 건설사업이 구체화되면서 김인호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육관련시설을 다루었다는 경력을 인정받아 전체시설에 관한 계획까지 완성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1977년 잠실야구장만을 설계하게 된다. 당시 설계를 담당했던 이 성(李 盛)의 증언에 의하면, 잠실야구장은 경기를 위한 충분한 시설과 관람하기 좋은 내야석을 최대로 확보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설계한 것이, 결과적으로 지붕폭을 외아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감아오면서 넓어지도록 처리하여 일체감을 주게 됐으며, 측면의 상승하는 선을 가진 외관은 마치 편심에 의해 튀쳐나갈 것만 같은 강한 에너지를 느끼게 해주고 타구의 스피드감도 강조하게 되었다고 한다. 여기에서도 김인호는 한국적 모티프를 생각해내는데, 운동장전체의 공간구성이 우리 고유의 악기인 장고의 측면 형상을 상징한다고는 하나, 꿈보다 해몽과 같은 다소의 억지스러움이 느껴지기도 한다.

전통의 직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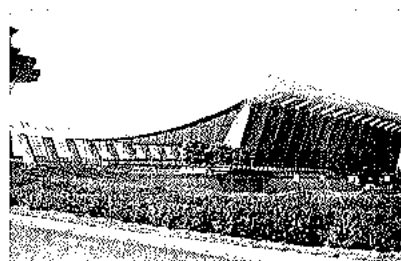
이미 언급한 바 있거니와 김인호는 1956년부터 한국건축사를 전공하였고, 교수시절에는 사찰건축의 조영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는 5.16이후, 관 주도하의 크고 작은 전통건축의 복원에 직접 참여하였고, 1970년에는 화랑교육원으로도 알려져 있는 경주 화랑의 집을 전통양식으로 설계하게 된다. 당시는 이미 강봉진의 국립중앙박물관이 1966



경북실내체육관 배대모형



대구시민회관 전경



달레스 국제공항터미널

년 현상설계에 당선되어 역사건축의 모사(模寫)라는 측면에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었을 때였다. 또 그 때는 최초로 조소성이 강할 뿐만 아니라 소실될 염려가 없는 불연재라는 흥미로운 해석으로, 철근콘크리트구조를 광화문복원공사(1968), 아산 현충사(1969) 등 전통양식의 건축에 도입하기 시작할 때였다. 이 화랑의 집도 관의 의사에 따라 지어진 경주 최초의 철근콘크리트조 전통양식 건축물로 등장하게 된다.

화랑의 집은 우선, 신라사찰의 가람배치형식을 인용하여 일주문을 지나 불단으로 이르는 점승(漸昇)적 과정을 축약시켜 놓은 인상을 받는다. 2층 누각형식의 정문입구는 층단을 놓혀 시선을 끌어 공간의 위계를 갖추었고, 정문을 통과하는 동안은 보이지 않던 가장 높은 레벨의 강당으로 계단을 오르면서 점차로 상승하는 기대감과 정신적인 통일감을 느낄 수 있다. 길지 않은 거리에서도 계단에 의한 레벨의 변화는 상당한 거리감을 강조하고 공간의 위계를 만들어 주고 있다. 또 화랑교육원은 향교의 명륜당을 중심으로 한 동재와 서재와도 같이, 좌우에 교육생들의 숙사를 병치시켰다. 이 숙사부분은 맛배지붕을 동일한 레벨로 반복하여 올라가며 연속시키므로 공간적 상승감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서 구성된 'ㄣ'자공간은 전체가 하나의 통일된 공간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김인호는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지 간에 화랑수련원이라는 프로젝트가 주는 이미지가 그렇고, 클라이언트라할 관의 요구 또한 전통양식의 계승을 원했을 것이다. 그는 단순한 전통의 형태적 모사에 머물지 않고, 부지의 경사를 최대한 이용하면서 중정형식을 도입하여 한국적 공간창출을 꾀하였으며, 신라의 가람배치와 향교의 배치형식을 일체화하여 심신수도의 장으로써의 수련원 이미지를 극대화하므로 전통의 직유를 독창적으로 연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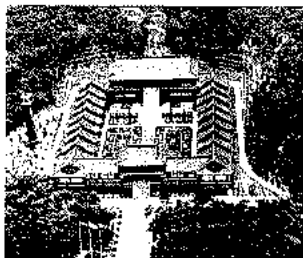
그밖에도 1906년의 대구부사(大邱府史)에 실린 사진을 토대로 중창설계된 영남제일관문(1979), 동화사 동화문(1987) 등이 있으나 건축적 공간의 스케일을 느끼게 하는 것은 3만 5천평 대지위에 세워진 연면적 5천평 규모의 부산 천태종 삼광사(1983)나, 대구 두류산공원 언저리에 위치한 대성사(1985) 등을 들 수 있다. 삼광사의 대법당은 건물 네 모서리에 팔각정 형태의 피난계단실을 두고 브릿지형식으로 법당과 연결하므로 각각의

지붕들을 자유롭게 처리한 것이 외관을 특징짓는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여기서도 그의 대형집회시설과의 특별한 인연을 생각나게 할만큼 대규모의 법당을 만날 수 있다.

그는 또 1979년에는 판문점에 높이 300m에 달하는 민족통일기원탑을 전통양식으로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클라이언트의 불확실한 태도로 인하여 무산되므로 미발표로 그치고 말았다.

글을 마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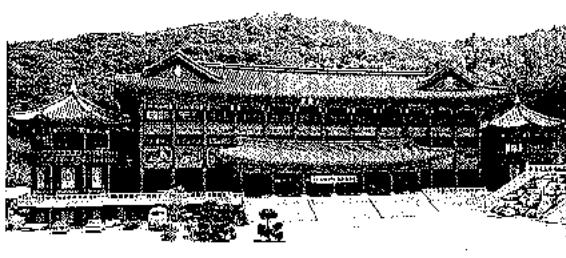
안타깝게도 김인호는 그가 남긴 스케치 한 장 온전히 보존된 것이 없는 건축가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설령 그가 생전에 실천하고자 했던 「무소유」의 철학이 빛을 결과라 할지라도 그의 건축정신을 담은 글과 그림을 어느 누구도 행거두지 않았다는 것이 이 글을 준비하는 동안 내내 가슴을 치게 하였다. 필자로서는 김인호의 실체에 보다 가까이 가고 싶은 욕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김인호 자신부터가 그런 것들을 꼼꼼히 챙겨두는 성품이 아니었으므로 누구를 탓하기 보다 단지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을 뿐이다. 자료를 뒤적이면서 모든 것이 서울중심으로 정리되어 온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사정을 이해 못해서가 아니다. 각 지회와 본회간에 보다 긴밀하고 조직적인 정보교환과 교호활동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대구건축계도 「대구예술30년사」나 「대구시사」 등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어느 지회보다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나, 대구건축의 역사가 보다 완벽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사족이지만 김인호의 서거소식을 당시 제때에 알린 단체는 대한건축학회뿐이었다. 그것도 고인의 영정하나 없는 단 몇 줄의 부고기사가 1988년 7월호 말미에 초라하게 실려 있었다.



화랑의 집 전경



화랑의 집 숙사부분 - 점승적 효과가 살아나 보인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 대법당

중국의 건축사제도와 외국건축사에 대한 자격인정(증) 방법 Chinese Registration System and Mutual Recognition

이관영 / 한인종합건축, 본협회 국제위원
by Lee Kwan-Young

지난호(98년 4월호)에 소개하였던 「일본건축사제도」에 이어 「중국건축사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중국의 건축사제도는 80년대 후반에 시작된 개방정책이후 미국 AIA의 제도를 모델로 하여 성립되었으며 그 역사는 불과 수년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전에는 전통적인 관습에 의한 설계기술자(設計大師; 일종의 디자인 마스터)에 의하여 업무가 이루어져 왔으나, 개방정책을 채택한 이후, 시장개방에 따른 외국과의 교류에 있어 자격·기준·품질에 대한 상호 인증과 표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미국·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제도를 과감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이후 WTO협정에 따라 세계각국 사이에 상호인증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고, 이를 위한 표준화 방안이 AIA가 주도하고 있는 UIA에 의하여 논의되기에 이르렀는데 중국은 낮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한·중·일 3국중에 유일하게 세계수준의 건축사제도를 완비한 나라가 되었다. 이에 비하여 우리와 일본은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증(인정)에 대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므로,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열렸던 한·중·일 3국건축사 협의회('98. 4. 16~19/제주도 서귀포)에서도 한·일 양국과 중국의 입장은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호인증문제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입장뿐 아니라, 넓게는 교육제도의 개편, 법규의 개정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제로써,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훨씬 일찍부터 관심과 연구가 진행되어 왔던 일본에서조차, 아직까지 건축관련단체간의 의견수렴이나,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자격제도의 표준화에 관한 문제는 내년 UIA 실무위원회(Professional Practice Committee)에서 논의될 예정으로 있는 바, 이에 대한 초안은 미국과 중국에 의하여 준비중에 있다. 따라서 아래에 소개하는 내용은 이 중국건축사제도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UIA에 의해 논의되고 있는 외국건축사상호인증안의 추이를 예측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필자주>

중국건축사등록제도

1. 제도의 확립

80년대부터 개혁과 개방정책이 시행된 이래 중국의 경제, 문화, 공공분야는 큰 발전을 이루었다. 뿐만아니라 교통수단의 발전과 공공복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더 건설수요를 증가시켜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의 자격에 대한 표준화가 절실히 요구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그간의 국제관계에서 축적된 경험과 자국내의 실정에 맞추어, 우선 건축사(建築師)에 대한, 뒤를 이어 구조기술자(結構工程師)에 대한 교육과정평가, 전문교육, 시험및자격제도에 관한 제도가 건설부와 인사부에 의하여 마련되어 국무원의 승인을 득하였다. 이 제도는 실무분야에 있어서 건축사와 구조기술자의 능력과 소질을 배양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며, 건강한 복지사회의 건설에 이바지 함은 물론, 건축사와 구조기술자의 상호인증을 통한 국제간의 협력을 도모하는데까지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국무원을 비롯한 유관부처의 승인을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와 학위인증위원회(國務院學位辦公室)의 지

지아래, 5년제 대학건축과정의 공학사학위(Bachelor of Engineering)를 건축학위(Bachelor of Architect)로 바꾸고,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체계화 하기위하여 1990년에 건축교육과정평가기관(NBAA: National Board of Architectural Accreditation/全國建築學認定評 委員會)를 설립하고, 미국과 영국의 관련기관 대표를 초빙하여 평가작업에 참여토록 하였다. 현재 72개 건축학교중 12개 학교가 평가에 합격하였으며, 이 제도는 새로운 면허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학력을 보장하고 있다.

건축사등록에 관한 《중국등록건축법(中華人民共和國注冊建築師條例)》은 1995년에 국무원의 승인을 얻었다. 이 법에 의하여 전국건축사등록위원회(NABAR : National Administration Board of Architectural Registration 全國注冊建築師管理委員會)가 건설부와 인사부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1994년의 시험운영을 거친 뒤, 1995년에 첫 번째 시험이 실시되고, 두 번째는 1997년에 시행되었다. 이제는 매년 시험이 실시되고 있다. 등록제도는 1997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이러한 제도의 확립과 운영에는 한국은 물론,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나라의 전문가의 조언과 참여가 있었으며, 외국의 전문기관에 의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건축사제도의 경험을 살려, 유사한 분야인 구조기술분야에도 등록제도를 마련하였다. 역시 국가교육위원회의 지원아래, 4년제대학의 토목교육과정에 대하여 특별평가기구를 통한 평가절차와 기준을 마련하였다. 현재 총 230개 교육기관중 18개가 평가를 통과하였다. 여기에는 영국, 미국, 홍콩 등의 관련기구대표들이 참여하였다. 전국구조기술사등록위원회(NABER(S): National Administration Board of Engineering Registration(Structural)/全國注冊工程師管理委員會(結))가 건설부와 인사부에 의하여 조직되고, 1996년의 시험운영을 거쳐, 1997년 12월에 최초의 국가시험이 실시되었다. 시험과 평가작업에는 NCEES(미국구조및측량사고시위원회)와 IStructE(런던에 본부를 둔 국제구조학회)등이 참여하여 시험과정을 참관하였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2. 시험제도

중국의 시험제도는 기본적으로 선진제국의 기준과 방법을 기본으로 하여 중국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만들었다. 특히 국제적인 상호인증의 필요에 맞추어 미국과 영연방의 유용한 장점들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있는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1. 1급건축사

국무원의 《條例》에 따라, 1급건축사에 응시하

려면 교육평가에 합격한 5년제 대학에서 건축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3년간의 실무경험이 있어야 응시자격을 갖는다. 시험은 9개과목으로, 기본설계(設計前期工作), 단지설계(場地設計), 건축구조(建築結構), 건축설비(環境控制與建築設備), 건축재료 및 일반구조(建築材料與構造), 건축경제, 시공 및 설계업무관리, 건축설계 및 표현(建築設計與表現), 단지설계작도(場地設計作圖)로, 앞의 7과목은 이론이고 뒤의 2과목은 설계작도시험으로서 모두 32시간에 걸쳐 시험을 치루게 되어있다. (참고: 한국은 약9시간, 일본은 12시간, 미국은 33.5시간이다) 9개 과목중 부분적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5년간 유효하다.

2-2. 1급구조사(1級結構工程師)시험

이 시험은 예비시험과 본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건설부와 인사부규정에 의하여, 1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인증받은 4년제대학에서 공학사학위를 취득하여야 예비시험응시자격을 갖는다. 인증받지 않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간의 실무경험을 거쳐야 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예비시험은, 오전에는 기초이론 9과목 120문제, 오후에는 전문이론과지식에 관하여 8개과목 60문제가 주어진다. 시험시간은 모두 8시간이다.

예비시험 통과후 4년간의 실무경험을 거쳐야 비로서 본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오전에는 철근콘크리트구조(鐵筋混凝土結構), 강구조, 조적구조(砌(體)結構)교량구조(橋梁結構), 기초와 고층구조(地基基礎和高層結構)의 6과목중 4개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오후에도 오전과 같이 6개과목중 4개과목을 선택하여 시험을 치른다. 이외에 건축경제와 업무관리, 기본적 설계개념(綜合概念: Conceptual Design)의 2가지 필수과목에 대하여 시험을 치루어야 한다. 1개과목당 8문제씩 모두 48문제가 출제되고, 총 시험시간은 8시간이다. 동시에 전과목에 합격하여야 하며, 합격후 1급구조사자격을 획득하게 되고, 등록을 할 수 있다.

선진국들에 비교하여 교육수준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소수의 교육기관만이 교육평가기준을 통과하였고, 각 기관마다 상당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구조사시험은 영연방의 기준을 적용하여 개념적인 질문에 비중을 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건축사시험도 미국을 표준으로 하면서 영연방의 방식도 받아들이고 있다. 시험성적을 일정기간 유효하게 인정하는 방법 역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다.

3. 시험면제혜택

등록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려면 경험있는 기술인력의 선발에 정확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험있는 전문기술인력이라 하더라도 나라에 따라 인정기준이 다를 수 있

다. 중국에 있어, 자격등록제도관련법규의 제정이 최근해야 이루어졌으므로,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가로부터 고급 직이라는 칭호를 부여받은 전문가가 존재하였다. 그들의 교육 배경이나 실무경력 등이 새로운 제도에 의한 조건에도 합당하거나 유사할 경우, 그를 전문가(專家), 교수, 중·고급전문기술인원에 있어서는 경력에 따라 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대략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가. 1970년 이전에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설계대사(設計大師)의 칭호 또는 이름 높은 전문가(知名度較高的專家), 교수,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규모, 난이도를 지닌 건물의 공사책임 맡은 경력이 있는 설계자 등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정부로부터 특별히 1급 건축사 또는 1급구조사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나. 가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자는, 1급건축사는 재교육 또는 면제를, 구조사는 평가시험(필기)을 통과한 후 전국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1급건축사 또는 1급구조사의 자격을 갖는다.

다. 1971년부터 1985년 이전 사이에 건축과를 졸업하였거나, 1971년부터 1989년 이전 사이에 구조학과를 졸업한 자에게는 부분적으로 시험과목을 면제해 주고 있다. 즉 건축사는 9과목을 4과목으로, 구조사는 예비시험을 면제해 준다.

이 방법은 효과로 진행되고 있다. 오랜기간에 걸쳐 서로 다른시기에 배출된 전문인력을 각자의 능력에 맞추어 재배치하고, 신·구기술인력을 교체해 나가는 방법으로써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4. 등록제도

시험 또는 특별심사를 통과한 건축사와 구조사는 전문인으로서의 도덕과 법률을 준수할 것을 전제로 하여, 2년유효의 등록증과 업무에 사용할 인장(印章)을 교부받는다. 2년마다 경력, 직업윤리, 계속교육 이수 등을 근거로 하여 새로운 등록증으로 갱신한다. 현재 이미 6,762명의 1급건축사가 배출되었고, 금년(98년)엔 8,000명에 이를 전망이다. 구조사는 금년말부터 등록이 시작될 것이다. 《조례》와 관련법규에 의하여, 모든 건축과 구조관련도서는 등록건축사 또는 구조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갖도록 되어있다.

5. 관리기구

국무원 조례《中華人民共和國注冊建築師條例》와 관련법규에 따라 전국위원회와 지방위원회에서 1,2급을 관리한다. 전국등록건축사관리위원회(全國注冊建築師管理委員會)와 전국등록구조사관리위원회(全國注冊工程師管理委員會(結))는 지방위원회와 국무원의 유관부문대표 및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회 아래에 각각 사무국(秘書處), 시험전문기

구 및 감독위원회(考試專家組和監督委員會)가 있다. 사무국은 위원회의 상설기구로서, 주요업무로는 시험, 등록, 조직관리, 교육표준의 제정과 실시, 시험기준과 등록조건, 국제교류업무 외에도 일상적 행정사무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시험전문기구 는 시험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출제와 채점을 담당하고 있다. 이 업무는 전국등록건축사협회와 전국등록구조사협회가 설립되면, 이들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감독위원회는 업무수행중에 발생하는 위반사항과 비도덕적행위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처리 의견을 전국위원회에 제출·보고하여 처리토록 한다. 지방위원회는 관할행정구역내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부는 국가 편제위원회의 비준을 받아 50인으로 편성된 건설부실무자격 등록센터(建設部執業資格登錄中心)를 정식으로 설치하여, 전국등록건축사관리위원회(NABAR)와 전국등록구조사관리위원회(NABER(S))의 사무국과 함께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현재 시험처, 등록처, 교육처, 국제연락처와 사무처 등 5개부서가 정상가동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식은 시장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관리방식을 보다 완전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하겠다.

6. 국제협력관계

중국은 그들의 새로운 건축사등록제도를 마련함에 있어, 선진각국의 제도를 참고로 하여, 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상호인증이 용이한 제도를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우리나라의 관련기구와 협력관계를 맺고, 특히 미국등록건축사관리위원회(NCARB), 구조·측량사시험관리위원회(NCEES)와 런던의 세계구조학회(IStructE), 일본건축사회연합회(JFABEA), 그리고 우리 건축사협회(KIRA)와 두터운 협력관계를 맺었다.

그 결과 이미 영국의 IStructE와는 시험지각에 대한 상호인정에 합의하였고, 미국의 NCARB와 NCEES와는 각각 3년간의 상호업무협조에 동의하여,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새로운 상호인증표준안을 마련중이다.

그 외에도 중국은 세계건축가(사)연합회(UIA)의 사무국으로, 건축사실무에 관한 국제표준안을 기초하여, 1999년 북경에서 열리는 UIA총회에 제출하는 등 국제무대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7. 자격상호인증(인정; Mutual Recognition)에 대한 중국의 입장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다국적기업의 발달, WTO협정에 의한 세계시장의 개방화는 건설산업에 있어서도,

공사는 물론 설계분야의 국제화라는 변화를 맞게되었다. 이에 대비한 등록건축사자격의 상호인증(인정: Mutual Recognition)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은 실로 발빠른 대응을 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사제도와 기술관련제도의 확립에 있어,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제도를 받아들임으로써, 선진국과의 상호인증에 따른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였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표준과 다른 국가나 지역의 건축사에 대해서도, 평등성과 공정성에 기초한 상호승인원칙을 제시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대강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가. 중국과 유사한 교육평가기구와 시험기준을 갖춘 나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호인증이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보충시험이나 해당국의 법규, 건축기준에 대한 면접이 요구될 수도 있다.

나. 교육과정평가기구와 시험기준이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보다 오랜기간의 경력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에 의한 건축사 혹은 구조사」를 서로 인정하도록 하되 그 조건으로써,

- ① 인증받은 대학에서의 학위취득 여부
- ② 자국에서의 자격취득 여부
- ③ 대학졸업후 7년정도의 실무경력
- ④ 위의 7년 경험중 2년간 본국의 규정에 따른 중요공정을 책임진 경력

⑤ 만족할 만한 수준의 계속교육
⑥ 위의 사항외 상대국의 법규, 직업에 관한 도덕기준을 숙지하고 있는지 여부

다. 단기간내에 교육과정평가기준이나 시험기준에 대한 상호인증이 어려운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국가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중국의 등록유관부처의 승인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처의 동의를 얻어, 제한된 업무내에서 등록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국의 1급건축사 혹은 1급구조사와의 합작이 이루어져야 하며, 중국측 건축사나 구조사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

이외에 상세한 상호인증방안은 중국측에 의하여 마련된 외국건축사(가)와의 상호승인에 관한 원칙(초안)을 부록으로 삽입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맺는 말

우리는 이제까지 건축사자격상호인증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우

리 협회를 비롯한 건축유관단체(대한건축학회, 한국건축가협회)가 게으르거나 무능해서라기보다는, 사안자체가 설불리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방대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격변하고 있는 건설산업환경속에서 더 이상 방치해 둘 수만도 없게 되었다. 이는 건설업계 일각에서 주장하듯, 우리설계기술의 해외진출을 위한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나, 그 보다도 값싸고 질 좋은 기술을 앞세운 외국건축사들의 우리 국내시장 침투를 경계하는 의미에서라도, 하루빨리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로 우리 설계기술의 해외진출을 부르짖는 장본인은 우리건축사가 아닌 일부 건설업체나 건설관련부처인데, 그들은 과연 자격상호인증문제에 대하여 어느정도의 인식과 대안을 갖고 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게다가 그들의 거대한 사육이나, 공공건물의 설계에 있어, 거리낌없이 외국건축사(가)를 불러들이는 현실 또한 경쟁력강화나 상호인증문제와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다행히 지난번의 제주도에서 있었던 한중일3국건축사협의회에 건설교통부의 고위당국자가 참석하여, 사태의 심각성과 문제점을 확인하게 된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라 하겠다. 앞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를 기대해 본다.

또하나, 우리나라에서 상호인증문제를 다루는 데에 사소한 문제가 있기에 이 자리를 빌어 설명하고자 한다.

Architect를 칭하는 건축가와 건축사의 호칭 문제이다. 건축가란 영어의 Architect를 번역한 말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등록된 전문인으로「칭호의 독점」이란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이 유독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만, 「건축사(建築士)」라 불리우고 게다가 중국에서는 아예 「建築師」라고 까지 불리우는 것이다. 거기에 비하여, 건축사협회에 앞서 발족한 건축가협회는 오히려 건축가(Architect)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의 복잡성이 가끔 조그만 혼란을 가져온다. 즉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의 건축사에 해당하는 건축가협회(AIA)나 세계건축가협회(UIA)가 위에서 말한 상호인증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건축가협회(KIA)는 조직의 특성상 꼭 등록건축사만으로 구성되어있지는 않으므로(일본에도 건축가협회(JIA)가 있는데 여기는 전원 등록건축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자격등록에 대한 문제를 토의함에 있어, 대화상대로서, 외국 관련단체들이 가끔 혼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다행히 건축가협회 회원 대부분이 건축사협회 회원이기도 한 터여서, 큰 문제는 일어난 적이 없지만, 그런 이유에서도 최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3단체의 협조관계가 더욱 기대되는 것이다.

全國注冊建築師管理委員會(NABAR) 關於與外境建築師相互承認專業技術資格的辦法(討論稿) 중화인민공화국전국건축사등록관리위원회 외국건축가(사)와의 자격기준에 대한 상호승인원칙(안)

1. 全國注冊建築師管理委員會(以下簡稱 委員會)應在平等互利的原則下與境外注冊建築師管理機構建立相互承認建築師的專業技術資格(以下簡稱 相互承認)。
중국건축사등록위원회(NABAR)는 외국의 건축사등록관리기관과의 관계에 있어 상호주의원칙과 동등성에 기초하여, 자격기준의 상호승인원칙을 다음과 같이 확립시키고자 한다.

2. 相互承認可以採取以下方式之一: 상호승인 방법은 아래 열거한 방식에 의한다.
2-1 在通過雙或多邊對比例研究確認各方具有與對方相當的專業技術資格的條件下 相互承認對方按標準標準的專業技術資格,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기준을 비교검토한 결과 관계국간의 자격기준이 상호 적합(Compatible)하다고 인정되면, 상대방국에 상호 인정이 가능하다.
2-2 通過雙或多邊對比例研究確認各方具有基本相當的專業技術資格, 採取共同接受的對等原則或補充考試或面試的方式取得相互承認,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기준을 비교검토한 결과 상당부분이 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상대방국의 합의에 동등성에 기초한 원칙에 따라 보충시험 또는 면접 등을 통하여 상호승인을 득하는 방법.

3. 委員會在與境外建築師註冊資格管理機構進行對比例研究時, 可以國際建築師協會所 通過的《建築師職業實踐標準》為基礎, 並採取 或多邊同意的對等性條件(附件一)為確認原則。
위원회는 외국의 자격관리제도를 비교함에 있어, 국제건축가협회(UIA)가 채택한 국제건축실무기준(Recommended International Professional Practice Standards)을 기초로 하고, 아울러 서로 대등한 조건(부간-1: Appendix-1)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상호승인의 원칙으로 삼고자 한다.

4. 經雙或多邊研究同意相互承認專業技術資格的管轄範圍內的注冊建築師均應按照雙或多邊協議, 由所在地區的建築師資格管理機構出具證明, 提交對方相應的管理機構受理。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상호승인에 동의하였을 경우, 관할구역내의 건축사등록기구로부터 교부받은 자격증명서 상대방 등록기관에 제출, 심사를 받아 인정한다.

5. 未與本委員會取得相互承認專業資格的國家或地區內的注冊建築師或建築專業人員, 要求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取得注冊建築師專業技術資格的申請者, 可以單獨向本委員會總部提出申請並提交有關證明材料, 經委員會審查同意後, 在指定地點參加全部或 部分考試, 或進行面試。
본 위원회와 상호승인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국가, 혹은 지역의 건축사 또는 건축전문가로서 중국의 등록자격을 원할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본위원회에 신청서와 필요한 증명을 제출하여 본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전부 혹은 부분적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면접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6. 中華人民共和國境內的外資或合資工程, 當外資方面要求自行指定其建築設計師, 而該設計師又未取得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的專業技術資格者應經過本委員會或其 授權的地方委員會審查其資格證件, 合格者給予單項注冊權利, 但必須與中國的1級注冊建築師進行合作設計。
중국내에서의 외국으로부터의 투자 또는 합작투자에 의한 사업에 있어, 투자자가 자신의 건축가들 선임하고자 하고 그 건축가가 본위원회의 상호승인 관계를 맺지 않은 상태일 경우, 본위원회 혹은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해당사업에 한하여 등록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반드시 중국의 1급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에 참여하여야 한다.

7.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取得注冊建築師專業技術資格的境外建築師, 均應參加中國注冊建築師協會為境外會員, 並遵守《注冊建築師職業行為準則》。
중국에서 등록자격을 부여받은 외국건축사는 중국등록건축사협회(NARAC: National Association of Registered Architects PRC/China)의 해외회원으로서 가입하고 협회의 활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8. 境外建築師, 取得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專業技術資格者, 其有效期限為2年, 期滿後 需申請延期, 並提供以下文件:
중국의 등록건축사자격증을 취득한 외국건축사의 등록유효기간은 2년이며,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아래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연기신청을 하되:
8-1 近二年内在本國或中國擔任過的建築設計或相關職業活動
최근 2년간 본국 혹은 중국에서의 설계실적 또는 건축관련 활동증명
8-2 近二年内在本國或中國接受繼續教育的內容和時間
최근 2년간 이수한 계속 교육의 내용과 시간
8-3 由中國注冊建築師出員的最近二年遵守職業行為準則證明
중국등록기관이 발행한, 최근 2년간의 행동강령준수증명
經本委員會審查同意, 可以延期。
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유효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9. 本辦法只適用於中華人民共和國一級注冊建築師專業技術資格, 不包括二級注冊建築師。
이 원칙은 중국에서의 1급건축사에만 적용되며, 2급건축사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

附件一 注冊建築師相互承認專業技術資格中的對等性原則 자격상호인증을 위한 대등한 조건

1. 本委員會與建立相互承認專業技術資格的管理機構共同確認以國際建築師協會通過的《建築師職業實踐標準》為基礎, 確立以下的對等性原則。
본 위원회는 세계건축가협회(UIA)가 채택한 《건축실무기준》을 기초로 하여 아래와 같은 동등성의 원칙을 상호승인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2. 教育資格(Qualification on Education/Accreditation)
교육자격과 교육평가기준
2-1 相互承認注冊建築師, 應當具有在經過核核的全國性獨立教育評 機構評 合格的五年全日制大學建築學系(校、院)取得建築學學士以上的職業學位。
상호승인의 대상이 되는 건축사는 독립된 권한을 갖는 교육평가기관의 평가기준에 합격한 5년 전임제대학의 건축학에서 건축학 학사이상의 전문학위를 득하여야 한다.
2-2 在經過本國政府批准建立, 并經過授權的獨立教育評價機構評 合格的四年全日制大學建築系或建築工程系畢業, 取得理學士或工學士等非職業學位者, 在滿足核心課程的前提下, 可以在增加二年職業實踐的條件下, 被認為具有與(2-1)對等性的資格。
독립된 권한을 갖는 교육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기준에 합격한 4년 전임제대학의 건축과, 혹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이학사 또는 공학사와 같은 비전문화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필수과목을 만족하게 이수하였다는 전제 아래, 2년간의 실무경험을 추가함으로써, 2-1에 언급한 5년제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 것으로 본다.

3. 職業實踐培訓(Practice / Internship Experience)
실무경력 및 인턴과정
3-1 在中華人民共和國申請參加註冊考試的專業技術人員, 在取得規定的職業學位取得以後, 必須取得不少於三年(700有效小時)的系統職業實踐經驗的培訓(詳見有關規定), 才能參加職業考試。
중국에서 등록건축사시험에 참가하려면 규정에 따라 전문학위를 취득한 후, 최소한 3년(700유효시간)의 실무훈련을 거쳐야만 비로서 시험에 참가할 수 있다.
3-2 當國際建築師協會的標準承認職業實踐培訓(五年制大學畢業生)的時間可 是二年, 本委員會擬在實踐經驗滿足以下核心要求:
세계건축가협회가 최소한의 실무훈련기간으로, 5년제 대학 졸업후 2년간의 인턴과정을 갖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하여 본위원회도 아래의 조건을 만족시킬 경우, 수험자격을 인정한다.
- 不少於350有效小時的設計實踐經驗(包括設計前期工作, 方案或初步設計, 施工圖設計等)
최소 350유효시간의 건축설계관련 실무경험(Presentation Study, Concept Design, Design Development, Working Drawing)
- 不少於70有效小時的施工配合經驗(包括工程招標, 合同管理, 施工現場監 督等)
최소 70유효시간의 건축시공관련경험(입찰, 계약관리, 현장감독 등).
- 不少於30有效小時的管理經驗(包括項目管理和設計管理)
최소 30유효시간 이상의 관리업무경험(Project Management, Design Management)
3-3 職業實踐的地點是否必須在對方境內以及在對方境內實踐的最少時間, 通過雙 邊協商確定, 凡實行此項要求時, 雙方應為對方在本國(區)的實踐創造相應條件。
해당국에서의 실무경력과 최소기간을 의무화할 것인가의 여부는 쌍방간의 합의에 의한다. 실무경력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쌍방은 실무경험이 가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4. 考試 (시 험)
4-1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取得注冊建築師資格者, 需參加為時32小時, 9個科目 的專業資格考試(詳見有關部門文件)。
중국등록건축사시험에 참가하는 자는 32시간에 걸쳐, 9개 과목의 전문학과 시험을 치뤄야 한다.(상세한 것은 관련법규 참조)
4-2 本委員會可以以國際建築師協會的標準為基礎, 通過對比例研究, 研究確定在 考試方面的對等性原則。
본위원회는 세계건축가협회의 건축실무 권장기준을 기초로 하여, 연구검토 를 거쳐 시험에 관한 대등성의 원칙을 정하였다.
4-3 不論採取何種方式(全部考試, 部分考試或面試)考生均應證明自己對對方國(地 區)設計法律和規範的掌握了解。
어떠한 형식의 시험(전부, 부분 혹은 면접고사)을 막론하고, 모든 수험자는 상 대국의 설계법규와 규범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對於未能全部滿足以上要求, 但有超過 20年建築設計經驗, 並有設計業績者, 可參 照 國際建築師協會擬定的對「有豐富經驗的建築師」的有關辦法, 由該協雙方具體確 定對等性原則。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20년 이상의 설계경험을 갖추고 완 성된 자신의 작품을 증명할 수 있는 건축가는 UIA의 건축실무위원회(PPC)가 제 인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건축가(Broadly Experienced Architect)」에 대한 원칙을 참조하여 당사국간의 구체적인 합의를 거쳐 상호인증이 가능하다.

협회소식 / 111

건축계소식 / 113

현상설계경기 / 117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22

신입회원 / 124

게시판 / 125

협회소식 KIRA news

「건축법·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개최

건축사사무소 대형화 유도,
건설업체 건축사 설계허용 등 논란

우리 협회는 지난 5월 14일 협회 대강당에서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건축사를 비롯한 관련업계 전문가와 학계인사, 정부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가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건축법 및 건축사법의 개정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져 이번 법개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약 4백여명의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제1주제인 '건축법 개정방안'과 제2주제인 '건축사법 개정방안' 등 각 주제별 발표 및 토론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건교부의 건축사법 개정 발표내용 중 건축사사무소의 전문화·대형화 유도,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 건설회사 소속 건축사 설계허용 등이 이날 토론의 주요 쟁점이 됐다.

일부 토론자들은 이들 쟁점중 건축사사무소의 대형화가 품질향상이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낼지 의문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나타낸 반면 또다른 토론자는 대형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으며, 건축사공제조합 설립근거 마련에 대해서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 한해 업무를 취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업계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없이 재원조달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건설업체 소속 건축사에게 설계를 허용키로 한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경제논리를 우선하는 건설업체들의 관행상 예술성과 공익성이 결여돼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반대입장과 시대적 요구를 들어 찬성하는 입장이 있었다. 한편 건축법 개정에 있어서는 도시설계 구역내 건축허가제를 건축사 확인만으로 대체하는 것과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절차 폐지, 남쪽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우도록 하는 일조기준 변경, 자투리땅 건축허용 등에 대해 대다수 토론자들이 보다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건물의 허가절차 간소화와 건축제도개선위원회 운영, 건축법 간소화 및 지방조례 활성화 등의 개정방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자세한 토론내용은 본지 「건축법 및 건축사법 개정방안 공청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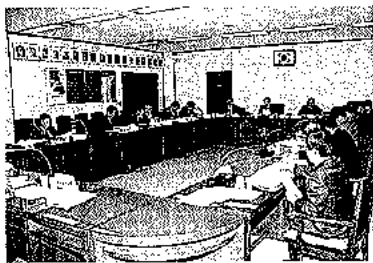


공청회 광경

이사회 개최

제33회 정기총회 오는 10월 29일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7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5월 12일(화)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번 이사회 의 주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 광경

○ 제7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제33회 정기총회 개최일 시 및 장소 결정의 건
- 제33회 정기총회를 '98. 10. 29(목) 10:00 협회 강당에서 개최기로 함.
- 제2호의안: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지역 건축사회 설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지역건축사회명	관할구역	소재지	회원수
금천구건축사회	금천구	금천구 독산동 983	14
도봉구건축사회	도봉구	도봉구 창동 320-1	13
성동구건축사회	성동구	성동구 마장동 465-29	25

- 제3호의안: 연합회제도연구위원회 설치 승인의 건
- 김기완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회장단과 위원장이 협의 결정토록 위임함
- 제4호의안: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유보 → 차기 이사회에서 재심의키로 함.
- 제5호의안: 협회업무 종합전산화사업 계획(안) 및 중장기발전사업비 예산 조정계획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98년도 제1회 임시총회('98. 3. 26)에 보고된 바 있는 건축정보센터사업 계획(안) 및 운용보고서중, 협회업무전산화에 대한 예산은 중장기발전사업비의 정보센터관련 사업비 예산을 조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협회업무 종합전산화사업계획(안) 주요내용〉

-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 협회 행정업무의 자동화
- 시도건축사회간 DB자료 공동 활용
- 정부 건축행정관리시스템과의 연계
- 대화원 서비스 향상

- 협회업무의 과학화 지원
-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제1단계 (기본조성기/ '98. 5 ~ '98. 11.)

- 협회업무 전산화 시스템 및 프로그램 개발
- 협회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운영(시도건축사회 보급)
- 통합 N/W구성

제2단계 (확대구축기 / '98. 12. 이후)

- 협회업무 전산화 프로그램 확대개발
- 협회업무 전산화 기반 확립
- 통합 N/W 정비 및 유지
- 제6호의안: 건축연구소 2단계연구계획(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건축연구소 2단계연구계획(안) 주요내용〉

• 연구내용

연구과제
건축사제도 및 업무개선에 관한 연구(2)
- 해외 건축교육제도 및 미국 건축사 등록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기간
- 건축사제도: '98. 3~'98. 7
- 건축교육제도: '98. 5. 15~8. 15

• 초빙연구원

성명: 전영일(동국대 건축공학과 / 건축학박사, 영국 Strathclyde대학교)
임용기간: '98. 5. 15~8. 15

울산건축사회 제2기 「시민건축대학」 개강

시민 대상 건축상식 등 강좌 마련

울산광역시건축사회는 지난 5월 14일 오후 2시 회관 5층 강당에서 제2기 시민건축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는 수강생을 비롯해 강사와 건축계 인사들이 함께 해 개강을 축하했다.

지난해 1기생 배출에 이어 2기 수강생을 맞은 울산시민건축대학은 건축에 대한 기본상식은 물론 각종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지역건축의 활성화와 건축문화 창달에 이바지하고 있다.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 발표

총 1,441명 합격

지난 5월 10일 홍익대에서 시행된 건축사예비시험의 합격예정자 명단이 발표됐다.

이번 시험에는 총 6천1백56명이 응시, 이중 1천 4백 41명이 합격해 23.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합격예정자는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후 오는 6월 25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본지 게시판란 「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공고 참조)

99년 '건축문화의 해' 지정

건축3단체「조직위」구성,
다양한 사업 추진

99년이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됐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5월 24일, 99년도 문화예술의 해 선정을 위해 문화예술계와 언론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내년을 건축문화의 해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문화관광부는 또 이번 건축문화의 해 지정이 "건축이 공학기술의 일부로만 인식돼 온 기존 관념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중요 분야로서의 위상을 찾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와 한국건축가협회, 대한건축학회 등 건축3단체는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를 구성해 다양한 추진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99년 6월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는 세계건축가연맹(UIA)총회와 연계해 한국건축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사업도 발의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91년부터 특정분야를 선정, 집중지원하는 '문화예술의 해' 행사를 추진해 왔는데 내년 '건축문화의 해'는 연극영화, 춤, 책, 국악, 미술, 문학, 문화유산, 사진영상에 이어 아홉 번째다.

'98건설진흥촉진대회, 6월 18일 개최

유공자 포상과 함께 다채로운
부대행사 열려

'98건설진흥촉진대회가 오는 6월 18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우리협회와 건설협회 등 15개 건설관련 단체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건설인과 업계 대표, 정부인사, 관련 기관장 등 약 1천1백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이날 대회에서는 건설진흥에 기여해 온 유공자들에 대한 포상이 있게 된다.

한편 주최측은 이번 대회의 부대행사로 오는 6월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 1층 로비에서 국내외 각종 건설 현장 모습들을 담은 건설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을 비롯해 행사 당일인 6월 18일 오후 2시부터는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건설산업발전세미나를 개최한다.

건축학회 회장에 이경희 연세대 교수

부회장에 김규석, 한규봉, 조철호, 김진균

대한건축학회는 지난 4월 25일 98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이경희 연세대 교수를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또 부회장에는 김규석(유임, 동국대 교수), 한규봉(유임, (주)천일건축 대표), 조철호(건국대 교수), 김진균(서울대 교수) 등 4인을 선출했다.

엄&이 건축, ISO9001인증 취득

지난 5월 1일 인증서 수여식 가져

(주)엄&이 건축(대표이사 이근창)이 지난 5월 1일 한국경영인증원(KCR)으로부터 건축공사의 설계, 감리 및 서비스분야에서 ISO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엄이 건축은 건축설계분야에서 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진 업체로 그동안 '고객에 대한 최고수준의 품질보장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이라는 경영방침하에, 97년부터 품질보증 체제의 정비 및 구축에 나서 마침내 지난 4월 25일에 인증등록을 하게 됐다. 한편 이근창 대표는 "이번 품질보증체제 구축을 계기로 설계 및 감리 영역 서비스를 업계 최고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인증서 수여식 광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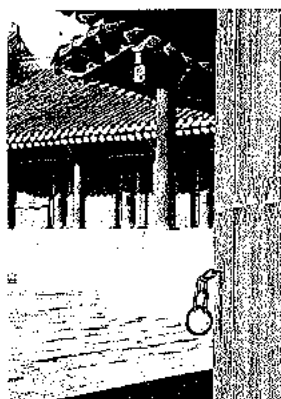
건축사진전-

'건축과 공간의 만남'

사진을 통해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
삼어줘

연세대 건축과학기술연구소 소속 석·박사과정 연구원들이 주축이돼 실제 연구과정에서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이론을 기초로 건축사진전을 개최했다. 지난 5월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광화문 일민미술관 2층 전시실에서 열린 이번 전

사회는 '건축과 공간의 만남'이란 주제가 알려주듯 학문적 시각에서 건축과 공간의 관계를 카메라에 담은 건축사진들이 전시돼 관심을 끌었다. 황대성(동원공업전문대 겸임교수), 주옥자 김석기 김영신(이상 연세대 건축계획 및 평가연구실 연구원), 염성원(연세대 4학년)씨 등이 출품작가로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는 '옛 건축과 현대건축의 만남', '실내공간과 외부공간의 만남', '건축과 자연공간의 만남' 등 각 테마별로 사진작품들이 구분 전시돼 관람객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문을 지나며(종묘) / 김영신작

제3회 경기도건축문화상 작품공모

96년 97년 사이 사용승인된 경기도내 건축물 대상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시상함으로써 경기도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제3회 경기도건축문화상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 건축사회 등 경기도내 4개 건설관련단체가 후원하는 올해 경기도건축문화상은 96년 1월 1일부터 97년 12월 31일 사이에 사용승인된 도내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승인건축물부문과 신인·학생 대상의 계획작품부문 등 2개 부문으

로 구분해 작품을 공모한다. 공모방법 및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응모방법 및 접수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주거부문과 비주거부문 구분 접수, 시상
- 1차접수: 작품설명서가 포함된 B4 규격의 사진첩(8"×10"사진 10매 이내 및 배치도 평면도 수록) 2부와 설계자·시공자·건축주 간이소개서
- 2차접수: 1차 사전접심사 통과 작품에 한해 패널 제출
- 접수기간 및 접수처: '98. 7. 1~7. 14 / 경기도건축사회(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계획작품부문

- 패널(90cm×120cm) 1매 및 모형(100cm×100cm) 각 1점
- 작품설명서 1부
- 공동작품의 경우 작가명의로는 3인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기간 및 접수처: '98. 10. 1~10. 10 / 경기도건축사회(수원시장안구 파장동)

○시상내용

▶사용승인건축물부문

- 주거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설계자-상장 및 상금, 시공자-상장, 건축주-상장 및 건축물부착용 동판)
- 비주거부문: 주거부문 시상내용과 동일

▶계획작품부문

- 주거부문: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각 상장 및 상금 수여)

○시상식: '98. 10. 30(예정) / 대한 건축사협회 경기도건축사회 대강당

○작품전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등 2개지역 순회전시

○문의: 경기도청 주택과 (0331-249-4920) 경기도건축사회(0331-47-6129~31)

'터사랑' 6월 답사여행

참가자 모집

법주사·백제불교 전래자 등 답사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자긍심과 올바른 여행문화의 정착을 위해 결성된 여행동호모임 '터사랑(대표 전숙희)'에서 6월 문화답사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중에는 ▶여수 - 향일암 일출과 이충무공의 발자취를 찾아서(6월 5일~6일) ▶고창·영광 - 선운사와 백제불교의 첫 전래지를 찾아서(6월 13일~14일) ▶법주사와 보은유적지를 찾아서(6월 21일) ▶남원·산청 - 실상사와 천왕봉의 기상 어린 산청의 유적순례(6월 27일~28일) 등 네가지 코스의 답사프로그램이 마련됐는데 참가희망자는 자신의 답사목적이나 시간계획에 맞는 답사코스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건축답사에는 역사탐방연구회의 염상균, 정인식, 이세웅씨 등이 강사로 동행하며 참가비는 1인당 3만5천원~5만원이다.

문의: 터사랑 (02-725-1284)

'99 UIA 국제학생설계경기

참가자 모집

주제는 '21세기의 도시건축'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김한근)에서는 99년 6월 북경에서 열릴 '99 국제학생설계경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국제학생설계경기는 '21세기의 도시건축'을 주제로 실시되며 수상자에게는 세계건축가연맹(UIA)총회 참가 특전이 주어진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9월 15일까지 신청서와 등록비(미화 50달러)를 접수해야

하며 작품은 99년 1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축가협회 (02-744-8050) 또는 중국 X'ian건축기술대학(86-29-2202943, 86-29-5527821 / Liu Kecheng, Li Jiao)으로 하면 된다.

「제9회 김수근건축상」 수상자에 유 결氏

밀알학교 설계로 학교건축의 새로운
전형 구현 공적

건축가 유 결씨가 김수근 문화재단이 주관하는 제9회 김수근건축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올해 초에 한국건축가협회상을 받기도 한 유 결씨는 자폐아 특수학교인 '밀알학교' 설계로 학교건축에 대한 새로운 전형을 구현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건축가 김종규 초청강연회

C3그룹 주최,
주제는 '이론화 과정으로서의 작업'



월간 KA와 C3그룹이 공동주최한 「제2회 C3포럼 - 건축가 김종규 초청강연회」

가 지난 5월 13일 연세대 제3공학관에서 열렸다.

이날 김종규씨는 '이론화과정으로서의 작업'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론화과정으로서의 건축작업은 철저히 관습적 건축작업으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며 우리가 알고 이용해 온 관념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필요로 한다"면서 "건축적 작업은 다양하고 개인적일 수밖에 없으나 개인적 사고의 과정은 우리가 속한 환경과 시대성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우건축과 런던 플로리다 베이컬 아키텍트에서 실무경험을 쌓은 건축가 김종규씨는 현재 M.A.R.U건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종합예술학교 건축과 겸임 교수로도 재직중이다.

경기대 건축전문대학원 개원

지난 5월 29일 개원식 개최

경기대 건축대학원이 지난 5월 29일 서울교사 대학원세미나실에서 개원식을 갖고 전문대학원으로써 새롭게 출발했다. 이 자리에는 우리 협회 윤준섭 부회장을 비롯해 건축계와 문화계, 학계 등 각계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해 국내최초로 설립된 건축전문대학원의 탄생을 축하했다.

특히 이날 개원식에서는 이문영 야태재단 이사장이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기원하고 새출발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에서 '시작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열었으며, 또한 교내 민주광장에선 사물놀이패 '굿태궁', 김운선무용단, 피아니스트 신수정씨 등이 개원 축하공연을 가졌다.

건축역사학회

6월 월례발표회

건축가 현영조, 김영섭씨 등 참여

한국건축역사학회의 6월 월례발표회가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 홍익대학교 T동 101호에서 열린다. '양식으로써의 전통, 형식으로써의 삶 - 그 충돌과 교점'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발표회는 건축가 현영조(서울 환경계획연구소 소장)씨와 김영섭(건축문화연구소 소장)씨가 참여해 실제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남한산성 요철요 주택과 가회동의 능소현·청송재에 대해 발표를 하며 김원식(건축가, 경기대 건축대학원 초빙강사)씨 등 토론자들과의 시간을 갖는다. 이번 발표회는 작업장과 살림집으로써의 두가지 성격을 지닌 현영조씨의 남한산성 요철요 주택과 내외공간의 투명성 보장에 대한 노력이 엮이는 김영섭씨의 기획동도시 한옥을 통해 현대주택 설계과정에서 이들 두 건축가들의 한옥에 대한 건축언어가 어떻게 재 번안돼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한옥 보존과 보수·복원이 갖는 의미도 알아본다.

문의: 성균관대 건축공학과 윤인석 교수
(0331-290-7550)

성균관대 동문 '동바리'

건축작품전

건학 600주년 및 동아리 탄생 10주년
기념행사 일환

성균관대 건축공학과내의 전통있는 설계 동아리 중 하나인 '동바리'가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학과 갤러리에서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이

학교 출신의 젊은 건축가들이 주축이 된 이번 건축작품전에는 학창시절 작업실에서 열정을 쏟았던 30여명의 동문들이 각자의 일터에서 실력있는 건축가로 발돋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 재학생들에게 신선한 자극과 용기를 심어준 것은 물론 전시 마지막날에는 선배 건축가들을 초청해 선후배간 친분과 교류를 다졌다.

경기대 건축전시회

학과생 졸업작품전에 이어
건축전문대학원 개원기념전 열려

경기대 건축공학과와 건축전문대학원에서는 오는 6월 8일부터 22일 기간중 각각 작품전을 개최한다. 경기대 사회교육원 6층 전시장에서 열리는 이들 건축전은 건축공학과 졸업작품전이 6월 8일부터 13일까지, 건축전문대학원 개원기념 작품전이 6월 15일부터 22일까지 각각 열린다. 특히 경기대 건축공학과 작품전은 4학년 졸업작품과 1~3학년 창조작품들이 전시되며 건축전문대학원 작품전은 13개 스튜디오 학생 전원의 작품들이 선보이게 된다.

문의: 경기대 건축대학원 교학부(02-390-5245~6)

건축신간 안내

건축자료 색인집2
건축은 삶과 동지
건축실무편람

◇ 건축자료 색인집2

이 책은 국내외의 주요 건축잡지와 국내 건축관련 학위논문들을 분야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분류, 편집한 자료색인집이

다. 이미 보급돼 있는 1~4권의 기존 자료내용에다 97년 12월까지의 최신자료들을 추가해 보완한 이 책은 각각의 항목에 대한 시작 페이지 수와 분량을 표기해 놓아 자료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고 번별력을 높일 수 있게 구성돼 있다. 특히 이 책에는 건축사, 건축가, 건축문화, 공간, 이상건축, 건축환경, 플러스 등 국내 주요 건축잡지의 목록은 물론 a+u, J'ARCA 해외 유명 건축잡지에 관한 자료들도 함께 수록돼 있다. 따라서 체계적인 건축공부를 지향하는 건축학도나 건축실무 종사자, 학문연구자들에게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본다.

홍익대 건축학과 학생회 編著 / 도서출판 발언(02-929-3546) 펴냄 / 270쪽 / 1만5천원



◇ 건축은 삶과 동지

이 책은 건축사인 저자가 수년간 신문에 연재했던 글들과 그동안 틈틈히 써서 모아둔 글들을 한권의 에세이로 펴낸 것이다. 책 제목에서 느낄 수 있듯이 건축을 삶과 동지로 보는 저자의 일관된 주제의식이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해주며 또한 건축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본 서양건축사와 한국건축사의 이면 얘기들을 적고 있어 일반인들의 건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건축과 인간, 건축물과 건축가, 고건축과 종교건축, 건축의 미학, 풍수, 불교건축 등 여섯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세이인 만큼 건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글로 쉽게 접할 수 있다.

김유봉 著 / 기문당(02-295-6171) 펴냄 / 신국판, 반양장 / 294쪽 / 9천원

건축은 삶과 동지

김유봉 著



◇ 건축실무편람

사회생활 환경구조가 복잡해짐에 따라 생활여건을 충족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상당한 변천을 거듭하여 왔듯이 건축법도 건축행위를 위한 하나의 지표로써 현실정에 맞도록 보완·개정 또는 정비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이 책 건축실무편람은 건축법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 소용(所用)되고, 또한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조문을 유권해석한 내용으로 1970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는 건축관계 법규의 중요사항만을 간추려 1,300여개의 질의·회신사항을 건축법의 목차에 따라 분류·편집해 놓고 있다. 또한 책내용중 회신근거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건축관계법 문답집이라 표기하였고 *표를 이용해 개정법조항을 주기(註記)하고 해설 또는 참고·판례 등으로 관련규정을 발췌, 수록하였다. 또한 이 책 부록편에는 현재 적용되는 행정부처의 공고·고시·행정지시·지침 등을 한데 묶어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다.

김성배 編著 / 도서출판 세진사(02-922-6371) 펴냄 / 1,276쪽 / 6만원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도로종합기술연구원

면적3층 동사무소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도로종합기술연구원

Research Center for General Road Technologies

한국도로공사는 건설시장 개방과 21C 건설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종합기술연구원의 현상설계경기를 도로연구소군과 도로기술대학원군으로 나누어 실시, 총 19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심우갑(서울대), 박영기(연세대), 양동양(고려대), 박용환(한양대), 윤도근(홍익대), 임창복(성균관대), 최찬환(서울시립대), 이재욱(건교부 건축과장), 도로공사측 임원 3명 등의 심사를 거쳐 지난 4월 27일에 그 결과를 발표했다. 당선현황은 다음과 같다.

도로연구소군

당선작/(주)에이텍종합건축(김상길)

우수작/2.5영인건축(김성렬)

가작/(주)무영종합건축(안길원)

도로기술대학원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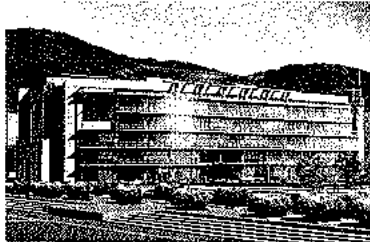
당선작/(주)중현건축(최종철)+(주)코아건축(전병직)

우수작/(주)무영종합건축(안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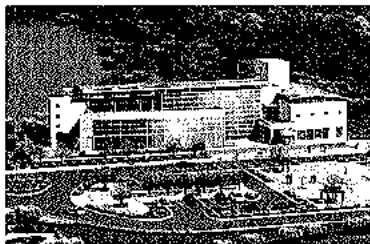
가작/(주)희림종합건축(이영희)

도로연구소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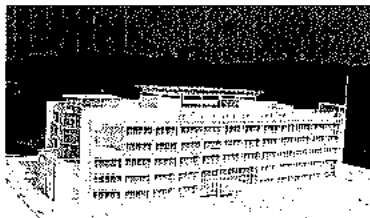
▶ 당선작 / (주)에이텍종합건축(김상길)



도로연구소동 루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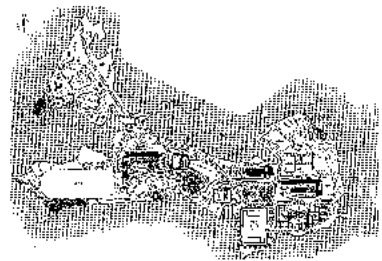


관리후생동 루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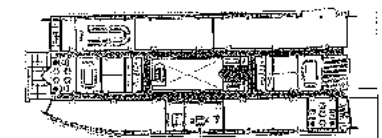


도로연구소동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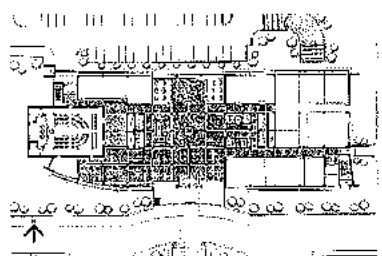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산 26-1번지 일대
지역지구	준농림 지역, 일부농림지역
대지면적	약 192,000㎡(약 58,000평)
건축면적	연구소: 3,046.94㎡ 후생동: 1,509.67㎡
연면적	연구소: 15,400.39㎡ 후생동: 4,554.28㎡
규모	연구소: 지하1층, 지상5층 후생동: 지하1층, 지상3층
구조	연구소: 철골, 철근콘크리트조 후생동: 철근콘크리트조
외부마감	연구소: 알루미늄 복합페널 불소수지 코팅 알루미늄바 THK 24 로어 복층 유리+THK 8 투명유리(Double Skin) 후생동: 화강석 버너구이 불소수지 코팅 알루미늄 바 THK 24 로어 복층 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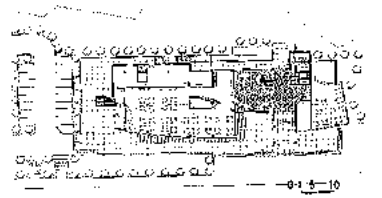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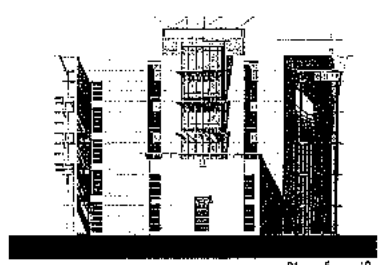
도로연구소동 3층 평면도



도로연구소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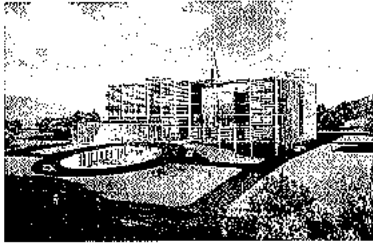


관리후생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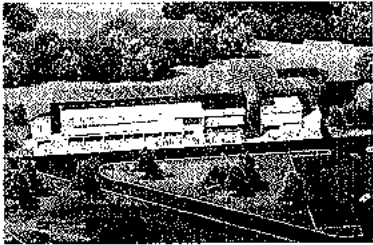


도로연구소동 좌측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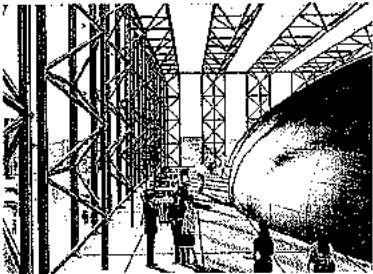
▶ 우수작 / 2.5영인건축(김성렬)



도로연구소동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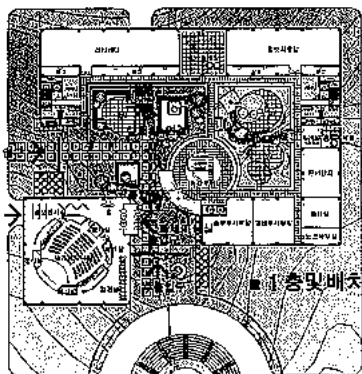


관리후생동 투시도



도로연구소동 내부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산 26-1번지 일대
대지면적 약 192,000㎡
용도 연구소: 연구시설, 국제세미나실
후생동: 식당, 휴게 및 편의시설, 파워플랜트
건축면적 연구소: 3,590.31㎡
후생동: 1,887.02㎡
연면적 연구소: 15,193.66㎡
후생동: 4,381.10㎡
규모 연구소: 지하1층, 지상5층
후생동: 지하1층, 지상2층



도로연구소동 1층 평면도

구조 연구소: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후생동: 철골 철근 콘크리트조



관리후생동 1층 평면도

▶ 가작 / (주)무영종합건축(안길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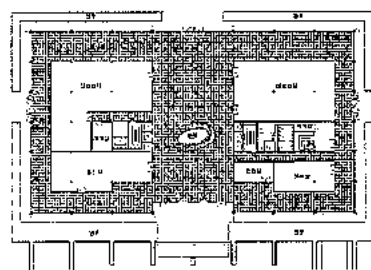


도로연구소동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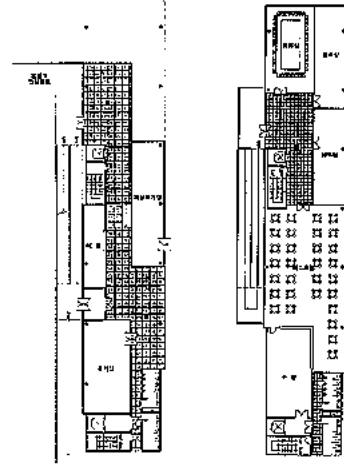


관리후생동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산 26-1번지 일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용도 교육연구시설
대지면적 192,000㎡
건축면적 연구소: 3,342.2㎡
후생동: 814.0㎡
규모 연구소: 지하1층, 지상5층
후생동: 지하1층, 지상3층
주요외장재 연구소: 화강석+THK 24mm
LOW-E 유리
후생동: 화강석+THK 24mm
LOW-E 유리



도로연구소동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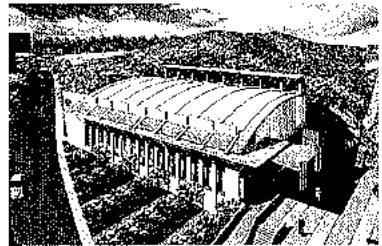
관리후생동 1층, 3층 평면도

도로기술대학원군

▶ 당선작 / (주)종현건축(최종철)
+ (주)코아건축(전병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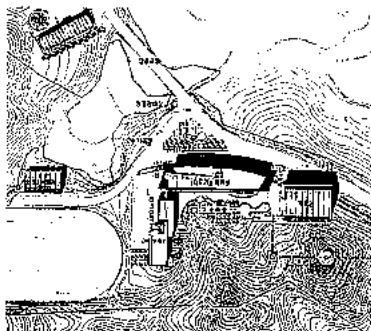


도로기술대학원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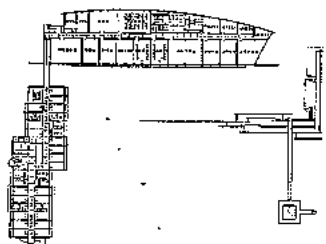


체육관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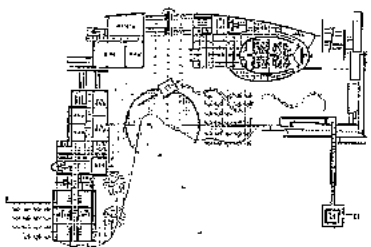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산 26-1번지 일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일부농림지역
대지면적 192,000㎡
건축면적 기술대학원: 2,013.0㎡
체육관: 1,193.0㎡
연면적 기술대학원: 8,521.7㎡
체육관: 2,424.0㎡
규모 기술대학원: 지하1층, 지상4층
체육관: 지하1층,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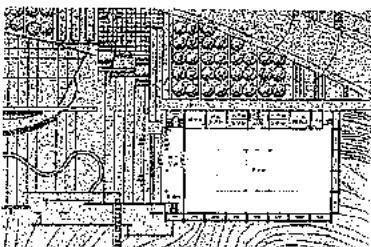
배치도



도로기술대학원 3층 평면도



도로기술대학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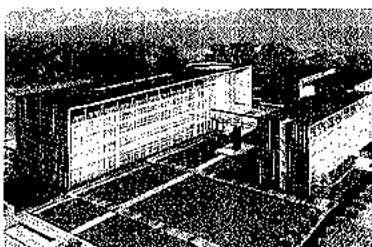


체육관 1층 평면도



도로기술대학원 우측면도

▶ 우수작 / (주)무영종합건축(안길원)



도로기술대학원 투시도



체육관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산 26-1번지 일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대지면적 192,000㎡

건축면적 기술대학원: 2,613.5㎡

체육관: 2,035.4㎡

규모 기술대학원: 지하1층, 지상4층

체육관: 지상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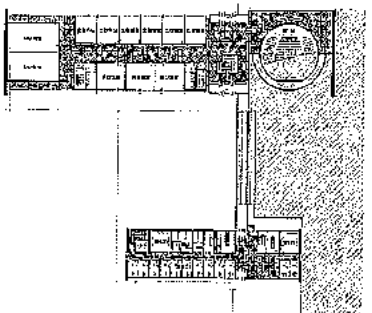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철골구조(체육관)

주요외장재 기술대학원: 화강석+THK 24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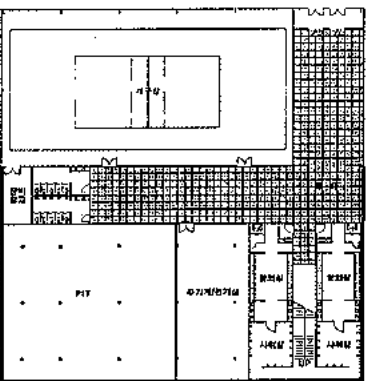
LOW-E 유리

체육관: 금속패널+THK 24mm

LOW-E 유리



기술대학원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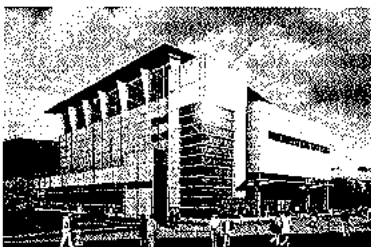


체육관 1층 평면도

▶ 가작 / (주)희림종합건축(이영희)



도로기술대학원 투시도



체육관 투시도

대지위치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 산척리 산 26-1번지 일대

지역지구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대지면적 192,000㎡

건축면적 기술대학원: 2,475.61㎡

체육관: 1,405.98㎡

연면적 기술대학원: 13,097.08㎡

체육관: 2,347.03㎡

건폐율 기술대학원: 1.29%

체육관: 0.73%

용적률 기술대학원: 5.82%

체육관: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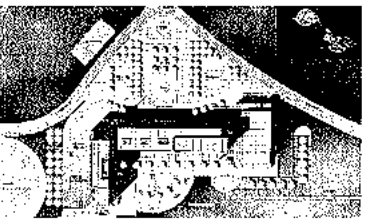
용도 교육연구시설

규모 기술대학원: 지하1층, 지상5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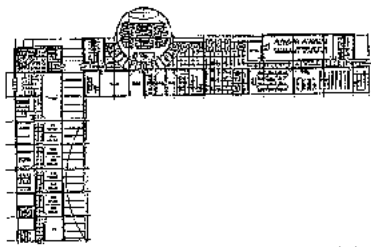
체육관: 지상2층

건축설계 황의표, 정재호, 김태환, 임재호, 송재호, 김수정, 이태호, 정진환, 박해주, 강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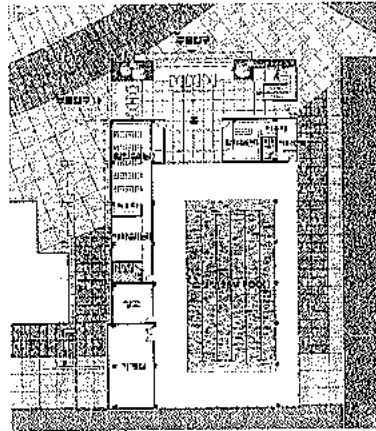
3D 프리젠테이션 김동춘, 이행숙, 권락현, 변미경, 김희호, 임성재, 정재혁



배치도



도로기술대학원 1층 평면도



체육관 1층 평면도

면목3동 동사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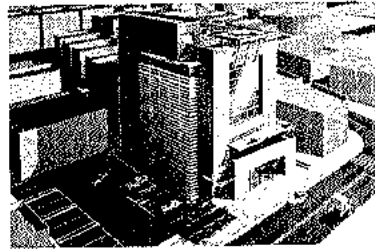
Office of Myunmok-3dong

중랑구는 민원편의와 직원복지를 충족시키기 위해 면목3동 동사무소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25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당선작에 (주)유창건축(안병모)안, 우수작에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그룹 원(박찬정)안을 각각 선정 지난 4월 14일에 발표했다.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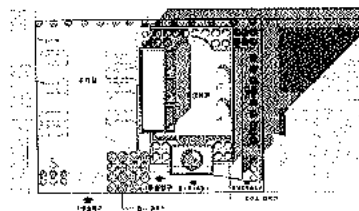
김광문(한양대), 김영하(단국대), 이경희(연세대), 최찬환(서울시립대), 김승제(광운대), 이선구(숭실대), 조철호(건국대)

▶ 당선작 / (주)유창건축(안병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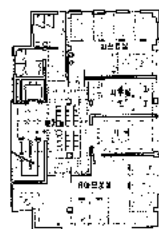


투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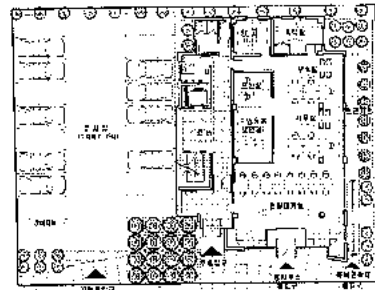
대지위치 서울시 중랑구 면목3동 498-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대지면적 1,005.00㎡(약 304.01평)
도로현황 전면 폭 8m도로에 접함
연면적 1,897.69㎡
건축면적 371.84㎡
건폐율 37.00%
용적률 155.77%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5층
최고높이 19.80m
외부 마감 화강석+알루미늄 복합패널+파스텔 북층유리
설비개요 난방/중앙공급식팬코일, 냉방/개별식 패키지형
주차개요 19대 설치(장애자용 1대 포함)
조경개요 116.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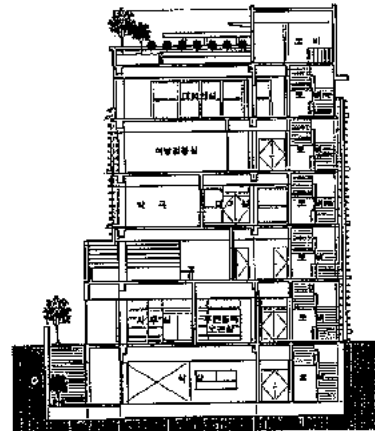
배치도



3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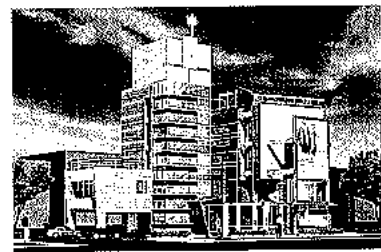


1층 평면도



단면도

▶ 우수작 / 종합건축사사무소(주) 그룹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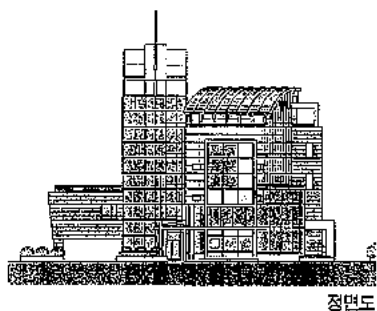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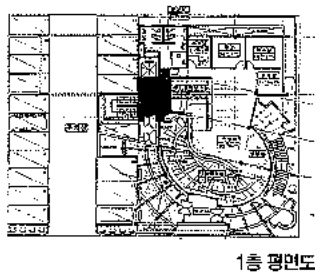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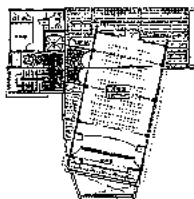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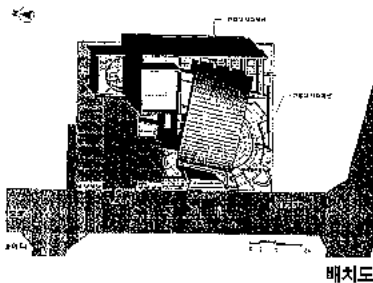
투시도



모형도

대지위치 서울시 중랑구 면목3동 498-6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주차장정비지구)
대지면적 1,005.9㎡(약 304.01평)
도로현황 전면 8m도로
건축면적 416.33㎡(125.94평)
연면적 1,796.72㎡(543.51평)

건폐율 41.39%
 용적률 144.63%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층수 지상 5층, 지하 1층
 최고높이 20.25m
 외부마감 목층유리, 석재, 금속패널, 글라스커튼월
 설비개요 F.C.U(부분 PAC)
 주차개요 18대
 조경개요 114.42㎡(34.61평) 대지면적의 1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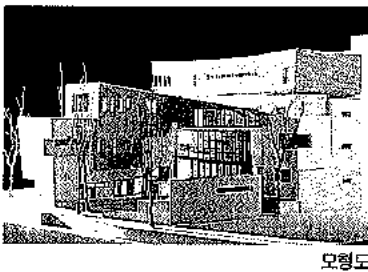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The Children's House
of Seoul City Hall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는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과 실험으로 즐거움과 배움을 만들어갈 터전이 될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 총 13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지난 4월 8일 당선작에 (주)건축사사무소 힘마(서혜림)안을 선정 발표했다.

▶ 당선작 / (주)건축사사무소 힘마(서혜림)



대지위치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72번지
 시청서문별관내 구 갯생보호소 일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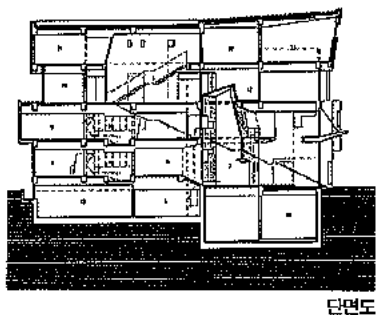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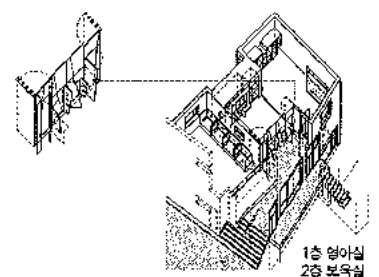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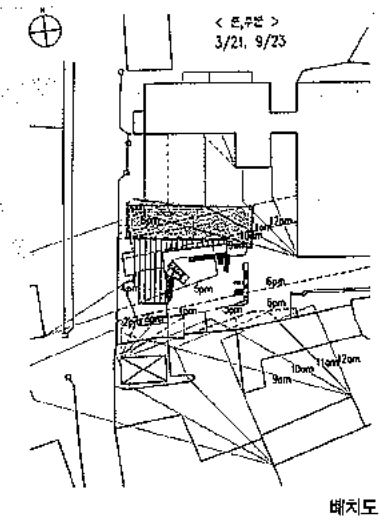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지역
 대지면적 24,200㎡중 992㎡
 연면적 1,582.6㎡
 건축면적 474.6㎡
 건폐율 47.8%
 용적률 131.9%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층수 지하1층, 지상4층

계획개념

아이들은 놀이기구를 통하여 즐거움도 느끼지만 또한 많은 배움이 이루어진다. 시설의 올라감과 내려감은 서로 엇갈리는 시선을 통한 두아이와의 관계에서 '균형'이라는 개념을 일깨워 주며 미끄럼틀은 중력과 마찰이라는 개념을 신체적으로 실험하게 한다.

인생의 첫걸음을 배우는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시설은 이런 놀이기구처럼 다양한 체험과 실험으로 즐거움과 배움을 만들어

가는 터전이다. 어린이들은 개인의 능력 개발로 자심감을 키워가며 공동사회에 대한 예의, 질서 등 서로간의 연관성에 대하여 배운다. 마치 퍼즐처럼... 퍼즐은 무수한 조각들을 끼워 맞추면서 숨겨져 있던 형태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이것은 완성된 총괄적인 그림도 중요하겠지만 각 조각의 중요성, 그리고 그 조각들끼리와 연관성에 깨우침을 준다. 또한 조립하는 과정을 통한 무한한 상상력과 가능성은 마치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의 가능성과도 유사하다.



설계도서신고현황

98년도 4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4월분 1천1백9십9만3천6백44㎡ 보다 63.7%(7백6십4만5천8백57㎡) 감소한 4백3십4만7천7백87㎡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4월분 3천9백2십4만1천5백29㎡ 보다 42.6%(1천6백7십1만1천1백81㎡) 감소한 2천2백5십3만3백48㎡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3월분 5백4십7만5천3백11㎡보다 20.6%(1백1십2만7천5백24㎡) 감소한 4백3십4만7천7백87㎡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7년도	1998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울 산 0	13,455	13,455	—
감소지역	서 울 4,936,135	1,994,605	(2,941,530)	-59.6%
	부 산 1,568,892	122,688	(1,446,204)	-92.2%
	대 구 909,668	75,312	(834,356)	-91.7%
	인 천 932,859	322,059	(610,800)	-65.5%
	광 주 163,701	46,886	(116,815)	-71.4%
	대 전 196,950	70,008	(126,942)	-64.5%
	경 기 1,004,555	641,497	(363,058)	-36.1%
	강 원 241,043	202,427	(38,616)	-16.0%
	충 북 359,052	235,667	(123,385)	-34.4%
	충 남 290,245	126,105	(164,140)	-56.6%
	전 북 201,898	41,555	(160,343)	-79.4%
	전 남 266,351	124,741	(141,610)	-53.2%
	경 북 262,394	99,836	(162,558)	-62.0%
	경 남 591,291	186,453	(404,838)	-68.5%
	제 주 68,810	44,493	(24,317)	-35.3%
합 계	11,993,644	4,347,787	(7,645,857)	-63.7%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

단 독 주 택	187,024 139,311 (-25.5%)	
다 세 대 주 택	197,303 (5.3%) 113,021	
연 립 주 택	89,779 (18.4%) 106,342	
아 파 트		1,739,045 2,662,677 (-34.7%)
근린생활시설	540,500 (-22.8%) 417,226	
종 교 시 설	83,330 (-24.7%) 62,735	3월
의 료 시 설	24,321 (204.9%) 74,163	4월
교육연구시설	228,499 (66.3%) 379,943	연면적 합계/ 3월: 5,475,311㎡ 4월: 4,347,187㎡ (-20.6%)
업 무 시 설	579,445 (-68.4%) 182,845	
숙 박 시 설	40,835 (-35.0%) 26,536	
공 장	251,167 (7.2%) 269,332	
기 타	680,431 (23.0%) 836,688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4월분)

구 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899	2,999	833,807	575	582	139,911	(2,324)	(2,417)	(693,696)	-83.2	
다 세 대 주 택	427	458	239,264	109	123	113,021	(318)	(335)	(126,243)	-52.8	
연 립 주 택	84	103	161,776	41	49	106,342	(43)	(54)	(55,434)	-34.3	
아 파 트	124	388	5,542,530	65	181	1,739,045	(59)	(207)	(3,803,485)	-68.6	
근린생활시설	3,280	3,390	1,592,922	1,100	1,123	417,226	(2,180)	(2,267)	(1,175,696)	-73.8	
종 교 시 설	125	134	158,675	83	91	62,735	(42)	(43)	(95,940)	-60.5	
의 료 시 설	15	15	60,752	8	8	74,163	(7)	(7)	13,411	22.1	
교육연구시설	112	124	378,738	124	128	379,943	12	4	1,205	0.3	
업 무 시 설	103	108	761,253	44	44	182,845	(59)	(64)	(578,408)	-76.0	
숙 박 시 설	170	180	190,516	45	48	26,536	(125)	(132)	(163,980)	-86.1	
공 장	651	834	796,425	271	637	269,332	(380)	(197)	(527,093)	-66.2	
기 타	961	1,119	1,277,186	548	614	836,688	(413)	(505)	(440,498)	-34.5	
합 계	8,951	9,852	11,993,644	3,013	3,628	4,347,787	(5,938)	(6,224)	(7,645,857)	-63.7	()=마이너스

설계도서신고현황

98년도 4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4월분 1천1백9십9만3천6백44㎡ 보다 63.7%(7백6십4만5천8백57㎡) 감소한 4백3십4만7천7백87㎡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4월분 3천9백2십4만1천5백29㎡ 보다 42.6%(1천6백7십1만1천1백81㎡) 감소한 2천2백5십3만3백48㎡의 실적을 보임.

다. 전월비

전월 3월분 5백4십7만5천3백11㎡보다 20.6%(1백1십2만7천5백24㎡) 감소한 4백3십4만7천7백87㎡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연면적기준-전년동월비)

(단위/㎡)

구 분	1997년도	1998년도	증·감	비율(%)
증가지역	울 산 0	13,455	13,455	—
감소지역	서 울 4,936,135	1,994,605	(2,941,530)	-59.6%
	부 산 1,568,892	122,688	(1,446,204)	-92.2%
	대 구 909,668	75,312	(834,356)	-91.7%
	인 천 932,859	322,059	(610,800)	-65.5%
	광 주 163,701	46,886	(116,815)	-71.4%
	대 전 196,950	70,008	(126,942)	-64.5%
	경 기 1,004,555	641,497	(363,058)	-36.1%
	강 원 241,043	202,427	(38,616)	-16.0%
	충 북 359,052	235,667	(123,385)	-34.4%
	충 남 290,245	126,105	(164,140)	-56.6%
	전 북 201,898	41,555	(160,343)	-79.4%
	전 남 266,351	124,741	(141,610)	-53.2%
	경 북 262,394	99,836	(162,558)	-62.0%
	경 남 591,291	186,453	(404,838)	-68.5%
	제 주 68,810	44,493	(24,317)	-35.3%
합 계	11,993,644	4,347,787	(7,645,857)	-63.7%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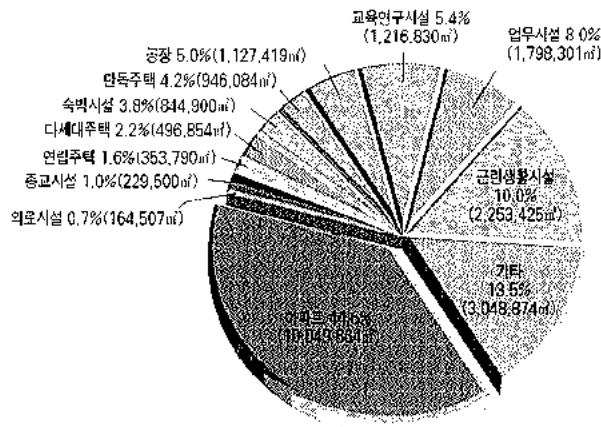
(용도)

단 독 주 택	187,024 139,311 (-25.5%)	
다 세 대 주 택	197,303 (5.3%) 113,021	
연 립 주 택	89,779 (18.4%) 106,342	
아 파 트		1,739,045 2,662,677 (-34.7%)
근린생활시설	540,500 (-22.8%) 417,226	
종 교 시 설	83,330 (-24.7%) 62,735	3월
의 료 시 설	24,321 (204.9%) 74,163	4월
교육연구시설	228,499 (66.3%) 379,943	연면적 합계/ 3월: 5,475,311㎡ 4월: 4,347,187㎡ (-20.6%)
업 무 시 설	579,445 (-68.4%) 182,845	
숙 박 시 설	40,835 (-35.0%) 26,536	
공 장	251,167 (7.2%) 269,332	
기 타	680,431 (23.0%) 836,6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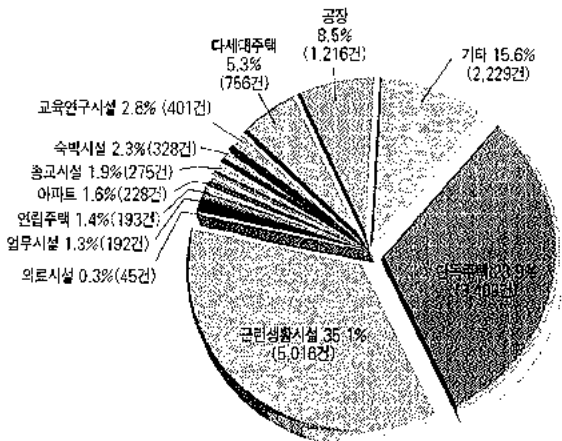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4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 독 주 택	2,899	2,999	833,807	575	582	139,911	(2,324)	(2,417)	(693,696)	-83.2	
다 세 대 주 택	427	458	239,264	109	123	113,021	(318)	(335)	(126,243)	-52.8	
연 립 주 택	84	103	161,776	41	49	106,342	(43)	(54)	(55,434)	-34.3	
아 파 트	124	388	5,542,530	65	181	1,739,045	(59)	(207)	(3,803,485)	-68.6	
근린생활시설	3,280	3,390	1,592,922	1,100	1,123	417,226	(2,180)	(2,267)	(1,175,696)	-73.8	
종 교 시 설	125	134	158,675	83	91	62,735	(42)	(43)	(95,940)	-60.5	
의 료 시 설	15	15	60,752	8	8	74,163	(7)	(7)	13,411	22.1	
교육연구시설	112	124	378,738	124	128	379,943	12	4	1,205	0.3	
업 무 시 설	103	108	761,253	44	44	182,845	(59)	(64)	(578,408)	-76.0	
숙 박 시 설	170	180	190,516	45	48	26,536	(125)	(132)	(163,980)	-86.1	
공 장	651	834	796,425	271	637	269,332	(380)	(197)	(527,093)	-66.2	
기 타	961	1,119	1,277,186	548	614	836,688	(413)	(505)	(440,498)	-34.5	
합 계	8,951	9,852	11,993,644	3,013	3,628	4,347,787	(5,938)	(6,224)	(7,645,857)	-63.7	()=마이너스

용도별 구성비(1998년 4월분 누계)



연면적 (총 22,530,348㎡)



건수 (총 14,228건)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4월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1,512	1,514	4,936,135	618	626	1,994,605	(894)	(888)	(2,941,530)	-59.6	
부산	497	842	1,568,892	104	425	122,688	(393)	(417)	(1,446,204)	-92.2	
대구	557	559	909,668	117	117	75,312	(440)	(442)	(834,356)	-91.7	
인천	406	419	932,859	152	152	322,059	(254)	(267)	(610,800)	-65.5	
광주	245	299	163,701	125	159	46,886	(120)	(140)	(116,815)	-71.4	
대전	338	341	196,950	84	84	70,008	(254)	(257)	(126,942)	-64.5	
울산	0	0	0	33	33	13,455	33	33	13,455	-	
경기	1,711	1,916	1,004,555	537	618	641,497	(1,174)	(1,298)	(363,058)	-36.1	
강원	546	595	241,043	219	251	202,427	(327)	(344)	(38,616)	-16.0	
충북	511	605	359,052	220	260	235,667	(291)	(345)	(123,385)	-34.4	
충남	436	350	290,245	220	191	126,105	(216)	(159)	(164,140)	-56.6	
전북	246	246	201,698	78	78	41,555	(168)	(168)	(160,143)	-79.4	
전남	410	459	266,351	102	129	124,741	(308)	(330)	(141,610)	-53.2	
경북	550	621	262,394	158	179	99,836	(392)	(442)	(162,558)	-62.0	
경남	823	914	591,291	170	246	186,453	(653)	(668)	(404,838)	-68.5	
제주	163	172	68,810	76	80	44,493	(87)	(92)	(24,317)	-35.3	
합계	8,951	9,852	11,993,644	3,013	3,628	4,347,787	(5,938)	(6,224)	(7,645,857)	-63.7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4월 누계)

구분	1997년			1998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서울	5,656	5,696	16,783,519	2,706	2,734	12,257,142	(2,950)	(2,962)	(4,516,377)	-26.9	
부산	2,004	3,043	4,744,913	800	1,542	1,360,491	(1,204)	(1,501)	(3,384,422)	-71.3	
대구	1,813	1,816	2,569,289	325	325	273,013	(1,488)	(1,491)	(2,296,276)	-89.4	
인천	1,233	1,265	2,393,714	613	621	832,783	(620)	(644)	(1,560,931)	-65.2	
광주	1,156	1,315	739,480	419	526	310,339	(737)	(789)	(429,141)	-58.0	
대전	967	982	512,992	411	411	428,896	(556)	(571)	(84,096)	-16.4	
울산	0	0	0	187	191	127,730	187	191	127,730	-	
경기	5,845	6,578	3,858,424	3,806	4,336	2,969,762	(2,039)	(2,242)	(888,662)	-23.0	
강원	1,624	1,747	624,814	827	935	563,034	(797)	(812)	(61,780)	-9.9	
충북	1,648	1,988	1,280,207	784	962	926,710	(864)	(1,026)	(353,497)	-27.6	
충남	1,359	1,050	894,081	681	594	414,855	(678)	(456)	(479,226)	-53.6	
전북	696	696	600,922	301	301	278,003	(395)	(395)	(322,919)	-53.7	
전남	1,174	1,287	593,266	419	467	270,142	(756)	(820)	(323,124)	-54.5	
경북	1,604	1,796	741,988	765	863	473,860	(839)	(933)	(268,128)	-36.1	
경남	3,326	3,748	2,683,069	1,001	1,255	930,759	(2,325)	(2,493)	(1,752,310)	-65.3	
제주	516	554	220,851	243	274	102,829	(273)	(280)	(118,022)	-53.4	
합계	30,621	33,561	39,241,529	14,288	16,337	22,530,348	(16,333)	(17,224)	(16,711,181)	-42.6	()=마이너스

신입회원 new member

〈'98. 4. 1~4. 30 기준〉

강홍수 : 1957년생/홍익대/대우건축사사무소/375-9001/경기도 오산시 원동 753-3
 광병호 : 1962년생/대전공업대/두산건축사사무소/872-7744/관악구 통천4동 877-1
 김봉수 : 1968년생/성균관대/대아건축사사무소/56-4240/제주도 제주시 삼양2동 2245-1
 김성은 : 1962년생/단국대/유/삼오건축사사무소/508-7332/강남구 역삼동 799-5 에미빌딩 2층
 김성철 : 1956년생/중앙대/주/종합건축사사무소/에공/944-1880/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68-16
 김재섭 : 1959년생/인덕공전/덕수건축사사무소/549-2062/충남 아산시 권곡동 543-6
 김재우 : 1964년생/서울시립대대학원/주/서하건축사사무소/443-9555/송파구 가락동 112-1 쌍둥이빌딩 7층
 김재희 : 1964년생/부산공전/주/건축사사무소 대원아키텍/554-5117/강남구 삼성동 112-19 수본빌딩 3층
 김중근 : 1963년생/연세대/주/한건축사사무소/578-1336/강남구 도곡동 416-2
 김태인 : 1958년생/단국대/주/삼성엔지니어링/3458-5452/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스타워
 문광현 : 1956년생/한양대/주/건축사사무소 메디/742-2245/종로구 동숭동 1-79 삼광빌딩
 박대원 : 1953년생/홍익대/주/에이포스트종합건축사사무소/3452-9252/강남구 삼성동 170-4
 박정환 : 1961년생/조선대/성산건축사사무소/366-7351/광주시 서구 능성동 644-1
 박종두 : 1955년생/경북산업대/해원건축사사무소/931-3577/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2095-4
 박현숙 : 1962년생/영남대/주/서림가공단건축사사무소/389-1895/경남 양산시 남부동 97

백승기 : 1966년생/원광대/주/경진건축사사무소/573-7212/강남구 도곡동 422-2 덕원빌딩 3층
 서태경 : 1961년생/서울산업대/맥그로리건축사사무소/567-6832/강남구 대치동 999-9 성림빌딩 1층
 손경범 : 1964년생/단국대/금경건축사사무소/44-9045/제주도 제주시 연동 1953-4
 신현남 : 1963년생/국민대/유오건축사사무소/482-8123/강동구 성내동 550-4 동훈빌딩 502호
 안승만 : 1966년생/인덕공전/건축사사무소 하음설계/656-2622/관악구 신림4동 527-10 금나빌딩 402
 양동윤 : 1965년생/광주대/건축사사무소 장인/527-0566/광주시 북구 우산동 518-80
 양민수 : 1962년생/안양공전/아벨건축사사무소/562-2800/인천시 서구 연희지구 71BL 7LT
 유영만 : 1964년생/충북대/주/연제종합건축사사무소/558-2386/강남구 역삼동 747-24 해은빌딩 4층
 유태원 : 1962년생/한양대/주/스튜디오 메타건축사사무소/747-8836/종로구 혜화동 163-25
 이기관 : 1959년생/안양공전/주/한석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730-8810/강원도 원주시 명륜동 115-4
 이기현 : 1964년생/안양공전/로마건축사사무소/41-1123/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인양동 505-2 상공회의소 206
 이남근 : 1964년생/광주대/우인이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653-0120/광주시 남구 방림동 116-1
 이문석 : 1960년생/대림공전/주/거림종합건축사사무소/515-6163/강남구 논현동 89 해상빌딩 3층
 이석렬 : 1962년생/연세대/주/동인건축사사무소/454-3999/광진구 구의동 210-57
 이연웅 : 1963년생/중앙대/주/삼성엔지니어링/3458-5452/강남구 대치동 946-1 글라

스타워
 이정우 : 1967년생/경일대/주/영원감리건축사사무소/34-3006/경북 영천시 문외동 56-9
 이주호 : 1966년생/강원대/건축사사무소 한울/54-2883/강원도 춘천시 호서2동 700
 이춘우 : 1955년생/서울산업대/주/메원감리단건축사사무소/420-4850/송파구 잠실동 181-7
 장경록 : 1960년생/조선공전/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673-7151/광주시 서구 서동 112
 전병욱 : 1965년생/연세대학원/종합건축사사무소 인터포럼/563-8354/강남구 역삼동 776-13 성원빌딩 303호
 전태영 : 1964년생/울산대/종합건축사사무소 조형/944-7188/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68-5 선우빌딩 3층
 정광민 : 1951년생/광주대/건축사사무소 서로/526-8335/광주시 북구 일동 92-100
 정지주 : 1961년생/경남공전/건축사사무소 토반/748-4535/경남 진주시 산인동 581-1 원창빌딩 3층
 정행문 : 1969년생/부경대/선재건축사사무소/632-5632/부산시 동구 범일동 830-197
 조규상 : 1967년생/명지대/주/아람건축사사무소/373-8804/광주시 서구 화정동 897-2
 조희환 : 1960년생/원광대/주/다림건축사사무소/223-8812/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34-4 두산빌딩5층
 천관순 : 1957년생/전남대대학원/주/건축사사무소 예원/21-3114/경기도 용인시 유방동 244-5
 천근필 : 1962년생/울산대/주/건축사사무소 세진/374-9944/경기도 오산시 원동 753-12
 최두호 : 1956년생/미림건축사사무소/42-3625/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교동 90-3
 최원령 : 1959년생/연세대학원/주/종합건축사사무소 동우건축/519-6300/강남구 논현동 97-7 청호빌딩 8층
 최창진 : 1960년생/조선공전/주/무진건축사사무소/364-7755/광주시 남구 월산동 323-90
 황선욱 : 1965년생/동양공전/건축사사무소 명륜/606-5111/강사구 화곡동 906-22

회원 현황

(98. 4월말 기준)

구 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입회	21	1		1	7			8	2		1			2	2	2	47
전입	5	1			1	1		5			2	1		1			17
전출	7			2	1	2		2	1		1		1				17
해임	16	2	2			1	1	5					1	1	1		30
사망	1							1	1								3
변동	+1	0	-2	-1	+7	-2	-1	+5	0	0	+2	+1	-2	+2	+1	+2	+14
계	2,771	638	518	217	221	244	127	768	157	169	166	187	99	228	331	61	6,902

19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1998년도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합니다.

1998년 5월 21일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구 분	건 축 사 예 비 시 험
1. 합격예정자 명 단	○ 별첨 ※ 상기자는 합격예정자이며 해당 경력에 대한 경력심사후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여 추후 발표함.
2. 제 출 서 류 접 수	가. 제출서류 접수기간: 1998. 5. 27~5. 30(09:00~18:00, 단, 토요일은 13:00까지) 나. 제출서류 접수처: 대한건축사협회 각 시·도건축사회 ○ 서울건축사회: (02)582-5715~8 ○ 부산건축사회: (051)633-6677 ○ 대구건축사회: (053)758-8980~5 ○ 인천건축사회: (032)437-3381~4 ○ 광주건축사회: (062)521-0025~9 ○ 대전건축사회: (042)485-2813~7 ○ 울산건축사회: (052)266-5651 ○ 경기건축사회: (0331)47-6129~31 ○ 강원건축사회: (0361)54-2442 ○ 충북건축사회: (0431)223-3084~6 ○ 충남건축사회: (042)256-4088 ○ 전북건축사회: (0652)251-6040~7 ○ 전남건축사회: (062)365-9944 ○ 경북건축사회: (053)744-7800~2 ○ 경남건축사회: (0551)46-4530~3 ○ 제주건축사회: (064)52-3248
3. 제 출 서 류	(1) 응시표 사본 1부 (2) 주민등록초본 1부: 병역사항(군별, 병과, 복무기간 등)이 명시된 것. (3) 학력증명서 1부: 전공학과, 졸업일자, 발행번호 등이 명시된 것. (4) 경력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아래의 사항을 구비하여야 함. 가. 경력인정기준일은 건축사예비시험 시행일의 전일('98. 5. 9)까지로 하여 경력 및 학력은 중복되지 아니하여야 함. 나. 경력증명서에는 근무부서, 담당업무, 근무기간이 명시되고 발행번호, 발행일자 및 증명발급처의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이 기재 날인되어 있어야 함. • 건축사사무소의 경력: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시도건축사회 회장)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이 발행한 경력증명서 • 건설업체, 엔지니어링활동주체, 주택건설사업체,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유지관리업체 등의 경력: 해당업체장 명의의 경력증명서 또는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및 해당업체의 면허증(등록증)사본 (단, 세무용 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으며, 본인의 근무기간 해당업체의 면허(등록)유효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건설기술자경력증명서를 제출하는 자 중 경력증명서에 경력입증이 되지 않은 확인불가 또는 본인신고 등이 표기된 경력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공무원: 부서, 직종, 직급, 근무기간 및 담당업무 등이 명시되고 기관장이 발행한 것. • 기타 소정의 경력: 해당 경력증명서
5. 최종합격자 발 표	가. 최종합격자 발표: 1998년 6월 25일 각 시·도건축사회 게시판에 공고함. 나. 합격증 교부: 최종합격자 발표 후 제출서류 접수처에서 개별 교부함.
6. 주 의 사 항	○ 응시자격의 절격사유 또는 허위증빙서류 제출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경력심사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고, 제출서류는 지정된 기일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번호, 신분증 지참. ○ 시험 성적열람은 '98. 5. 21~5. 27까지 본 협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기간 이후에는 일체 열람할 수 없습니다. (단, 우편문의는 열람기간내의 우편 소인분에 한함) ○ 기타 시험시행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한건축사협회 시험관리실(581-5711~4) 또는 건설교통부 건축과(504-9139)로 문의 바랍니다.

'98건축사예비시험 합격예정자 명단

00016	00025	00026	00028	00033	00042	00046	00054	00061	00063	00065	00074	00076	00081	00085	00089
00099	00100	00104	00115	00122	00127	00128	00144	00156	00158	00165	00181	00182	00183	00184	00186
00194	00210	00219	00223	00224	00226	00227	00251	00255	00259	00266	00278	00285	00286	00305	00309
00312	00322	00324	00332	00340	00348	00350	00365	00367	00371	00374	00381	00388	00404	00439	00446
00450	00451	00454	00470	00479	00484	00497	00503	00505	00523	00525	00551	00557	00561	00564	00565
00571	00573	00580	00581	00583	00584	00600	00604	00608	00609	00610	00620	00626	00631	00632	00637
00640	00641	00643	00644	00647	00655	00661	00666	00687	00689	00700	00715	00753	00761	00767	00790
00791	00797	00802	00805	00810	00819	00822	00823	00830	00832	00843	00846	00863	00864	00868	00879
00882	00891	00894	00895	00897	00905	00906	00914	00937	00948	00958	00969	00979	00988	00990	
01001	01008	01035	01039	01048	01054	01069	01082	01095	01097	01100	01103	01104	01116	01120	01121
01140	01144	01151	01152	01164	01175	01186	01196	01205	01210	01219	01228	01235	01236	01237	01250
01252	01272	01285	01291	01292	01307	01309	01311	01313	01320	01323	01337	01339	01341	01342	01346
01349	01352	01355	01362	01372	01376	01384	01388	01410	01428	01436	01444	01461	01471	01473	01480
01482	01484	01485	01515	01522	01524	01526	01536	01567	01569	01575	01578	01584	01594	01604	01614
01616	01618	01622	01624	01630	01631	01637	01648	01654	01656	01660	01662	01663	01664	01670	01672
01674	01677	01681	01686	01691	01696	01697	01700	01705	01710	01713	01717	01740	01745	01752	01757
01761	01766	01778	01781	01795	01812	01813	01814	01819	01829	01830	01841	01842	01862	01865	01872
01874	01881	01886	01893	01896	01901	01909	01912	01913	01919	01920	01932	01942	01945	01969	01970
01978	01984	01989	01995	02000	02001	02006	02007	02020	02025	02034	02035	02041	02053	02088	02106
02107	02110	02131	02133	02135	02136	02138	02150	02157	02171	02178	02189	02193	02197	02204	02212
02218	02225	02229	02230	02233	02237	02250	02259	02271	02277	02281	02288	02289	02293	02309	02311
02313	02322	02324	02334	02355	02361	02370	02371	02374	02378	02388	02396	02404	02417	02422	02429
02431	02432	02435	02456	02459	02464	02467	02469	02500	02509	02511	02514	02532	02538	02541	02543
02555	02569	02574	02580	02582	02583	02597	02613	02620	02624	02628	02632	02639	02655	02660	02663
02665	02666	02668	02678	02683	02687	02690	02693	02703	02707	02708	02717	02719	02726	02730	02731
02733	02742	02744	02778	02780	02787	02788	02792	02806	02809	02814	02817	02824	02841	02844	02848
02853	02854	02855	02863	02864	02872	02875	02879	02882	02893	02905	02910	02914	02916	02933	02941
02954	02959	02963	02974	02975	02977	02979	02980	02990	03013	03018	03019	03028	03034	03047	03048
03053	03059	03066	03068	03080	03082	03087	03091	03107	03111	03116	03120	03132	03140	03145	03163
03186	03193	03203	03210	03215	03218	03219	03224	03233	03250	03251	03253	03263	03265	03266	03287
03296	03298	03305	03307	03308	03312	03321	03323	03332	03341	03342	03351	03369	03373	03393	03394
03398	03403	03415	03418	03431	03433	03435	03444	03461	03473	03483	03485	03506	03510	03532	03543
03546	03547	03557	03562	03563	03578	03580	03596	03597	03598	03607	03608	03610	03613	03614	03621
03623	03632	03636	03640	03645	03661	03668	03675	03677	03687	03688	03700	03707	03710	03712	03714
03723	03735	03742	03761	03798	03801	03804	03807	03808	03825	03830	03839	03841	03843	03854	03865
03866	03878	03904	03923	03925	03936	03938	03940	03943	03944	03946	0395	03954	03960	03963	03969
03975	03977	03986	03998	04000	04021	04024	04050	04056	04059	04063	04072	04073	04076	04081	04082
04088	04090	04092	04096	04098	04099	04103	04110	04159	04163	04173	04193	04194	04197	04198	04204
04212	04218	04233	04244	04247	04250	04251	04263	04292	04301	04306	04330	04340	04348	04349	04353
04357	04365	04369	04375	04380	04381	04395	04396	04400	04413	04419	04425	04439	04449	04454	04470
04473	04475	04482	04485	04487	04492	04499	04500	04519	04520	04522	04526	04527	04540	04541	04542
04556	04591	04594	04598	04600	04614	04622	04624	04632	04664	04666	04673	04679	04688	04716	04723
04730	04742	04755	04756	04775	04789	04790	04797	04798	04802	04812	04814	04817	04826	04828	04831
04834	04836	04839	04843	04846	04854	04870	04894	04910	04913	04939	04959	04960	04963	04969	04989
04993	05000	05014	05020	05022	05024	05029	05039	05042	05045	05046	05050	05052	05093	05106	05111
05112	05113	05115	05123	05136	05143	05155	05157	05164	05167	05168	05170	05172	05174	05178	05181
05186	05203	05208	05220	05228	05235	05236	05245	05248	05254	05260	05262	05266	05267	05274	05293
05302	05306	05307	05331	05341	05370	05376	05379	05387	05391	05392	05400	05405	05407	05414	05417
05422	05426	05429	05433	05441	05449	05466	05479	05481	05482	05483	05490	05494	05496	05498	05506
05544	05550	05559	05560	05583	05588	05591	05602	05603	05605	05608	05612	05628	05638	05639	05653
05658	05660	05667	05678	05697	05702	05712	05714	05723	05732	05738	05745	05759	05772	05793	05795
05804	05811	05812	05816	05818	05819	05830	05831	05845	05852	05854	05862	05869	05870	05872	05878
05881	05888	05896	05899	05902	05904	05909	05914	05930	05939	05951	05952	05957	05967	05968	05991
05993	06005	06010	06025	06026	06030	06039	06044	06047	06050	06063	06071	06084	06095	06129	06144
06150	06155	06157	06165	06171	06173	06178	06202	06206	06208	06210	06211	06216	06235	06238	06243
06245	06249	06252	06258	06265	06269	06274	06286	06294	06313	06319	06354	06356	06368	06375	06379
06387	06394	06410	06411	06413	06422	06425	06426	06428	06432	06433	06434	06438	06441	06470	06473
06483	06484	06500	06502	06503	06517	06519	06521	06524	06525	06536	06555	06560	06574	06576	06585
06608	06610	06611	06612	06613	06614	06616	06620	06629	06641	06642	06652	06670	06673	06674	06678
06680	06689	06690	06694	06695	06696	06709	06715	06719	06724	06727	06728	06735	06736	06742	06744
06750	06756	06764	06773	06775	06776	06787	06788	06792	06798	06803	06805	06811	06822	06827	06834
06836	06847	06849	06858	06865	06870	06872	06876	06880	06903	06904	06911	06923	06926	06928	06930
06932	06938	06941	06943	06954	06968	06969	06971	06974	06979	06988	06989	07015	07025	07034	07043
07048	07050	07057	07062	07080	07083	07090	07095	07108	07143	07144	07147	07153	07159	07163	07168
07186	07188	07194	07196	07198	07208	07214	07224	07226	07230	07236	07241	07249	07255	07259	07260
07262	07264	07265	07269	07279	07284	07289	07296	07299	07300	07306	07316	07318	07321	07322	07338
07341	07342	07369	07371	07372	07385	07388	07394	07405	07406	07419	07424	07433	07434	07437	07438
07439	07455	07470	07474	07479	07481	07485	07489	07494	07497	07507	07517	07522	07527	07529	07538
07550	07557	07565	07568	07574	07578	07596	07598	07614	07616	07625	07642	07643	07644	07645	07659
07660	07662	07670	07680	07696	07714	07738	07742	07748	07754	07770	07778	07784	07803	07806	07807
07820	07829	07834	07842	07843	07846	07848	07849	07853	07857	07860	07870	07875	07889	07893	07918
07919	07927	07930	07934	07946	07951	07955	07960	07964	07971	07973	07984	07985	08004	08030	08031
08036	08040	08057	08065	08067	08069	08070	08076	08077	08080	08082	08095	08103	08104	08106	08119
08129	08133	08168	08174	08179	08205	08216	08217	08224	08237	08251	08275	08282	08291	08298	08317
08321	08324	08330	08342	08347	08362	08365	08366	08369	08373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안내

(근거규정: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제2항)

1.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이란?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은 처음 도입당시 기술계(기술자격취득자)건설기술자에 한하였으나 1995년 건설기술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학·경력제 건설기술자까지 범위가 확대되었다. 교육훈련은 건설관련 모든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기술보급과 건설인으로서 사명감을 교육훈련을 통하여 함양하는 데 있다.

2. 교육훈련 대상자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다음 사업 및 업체에 종사하는 자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
 -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
 - 기술사법에 의한 건설관련부문 기술사사무소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
- ※건설기술관련학과 이외의 학과를 졸업

나) 교육기간 및 교육이수기관

업한 "경력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된 후 교육대상자에 해당이 되며 그 이전에는 교육대상이 아님.

3. 종합교육기관과 전문교육기관

가) 종합교육기관: 토목, 건축, 기계, 국토 개발, 안전, 환경, 교통 기타종에서 토목과 건축을 포함한 4개 이상의 분야를 교육시키는 교육기관이다.

(2일, 1주, 2주 교육과정을 교육함)

나) 전문교육기관: 토목, 건축, 기계 등에서 1개분야의 교육을 담당하며, 건축에서도 세분하여 특정분야만을 교육시키는 기관(1주 교육과정을 교육함)

4. 교육주기와 교육기간

가) 교육주기

- 1998년 1월 1일부터 교육훈련을 받는 자는 3년마다 교육을 받으면 됨.
-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일반과정을 이수한 건설기술자는 교육훈련 이수일로부터 5년내에 교육훈련을 받아야 함.
 - 감리(원)과정을 이수한 건설기술자는 교육훈련 이수일로부터 3년내에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함.

다) 최초교육자 교육기산일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거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날
 - 기술계기술자: 취업일로부터
 - 학·경력자: 협회·신고접수 처리일

5. 건설기술자교육과 감리원 교육과의 관계

가) 금년('98.1.1)부터는 건설기술자와 감리원교육을 상호 구분하지 않으므로 감리원 과정이나 기술자과정과 관계없이 모두 수강할 수 있음

나) 감리원의 경우 이미 건설기술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유효하며, 건설기술자가 감리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기술자로서 받은 기존의 교육은 계속 유효하므로 별도의 감리원교육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음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교육은 상호 대체·조정을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 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은 개정·삭제할 예정임

6. 국가기술자격법상의 보수교육과의 관계

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훈련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은 각기 별도로 받아야 하나, 현재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건설기술

교육 대상	교육 기간	교육이수기관
□ 최초교육자 • 자격취득 또는 학력·경력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또는 감리원이 된 후 최초로 교육훈련을 받는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여기에서의 최초교육훈련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교육을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보수교육 및 다른 법률에 의한 교육 등은 해당되지 아니함.	2주 이상	종합교육기관
□ 재교육자 • 기술사(감리원인 건축사 포함) •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으로 건기법령에 의거 인정받은 후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 또는 감리업무를 수행한 경우 -기술사,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이라도 최초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기간은 2주이며, -특급기술자 또는 특급감리원 인정시점은 특급으로 신고·접수 처리된 날 또는 기타 등급으로 신고한 후 소정기간의 경력을 추가하여 특급으로 인정되는 날을 말함.	14시간 이상	종합 또는 전문교육기관
□ 재교육자 • 이상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1주 이상	종합 또는 전문교육기관

교육원, 농 어촌진흥공사, 시설안전 기술공단 3개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보수 교육은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며,

나) 현재 보수교육의무를 타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갈음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 기술자격법시행령 개정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신규로 지정된 나머지 전 교육기관도 보수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예상됨 (국가기술자격 법시행령 개정 공포 예정중 이므로 희망교육기관에 문의 바람)

7. 임의신고자(경력자)의 건설기술자 교육
가) 기술계 자격이 없거나 건설관련학과를 나오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설계, 시공, 감리 등의 건설실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자(임의신고자)는 현재 건설교통부의 『경력인정지침』에 의하면 기술인협회의 인정계획공고에 따라 경력기술자 인정 신청을 받아 경력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면접고사에 합격한 후 2주 이상의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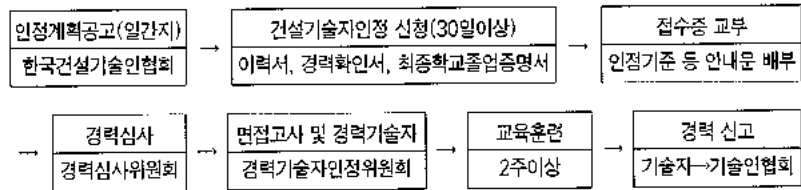
나) 경력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정한 『경력기술자인정지침』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된 후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는 교육훈련대상이 아니므로 경력자 인정신청 후 면접고사를 합격하면 기술인협회에서 지정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야 경력기술자로 인정됨.

- 경력기술자 인정절차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인정계획공고에 따라 경력기술자 인정신청 및 경력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경력기술자 인정위원회의 면접고사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며,
- 면접고사에서 경력기술자로 인정된 자는 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2주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함
- 경력기술자로 인정받기 이전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경력기술자로 인정 받은 후 또다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중낭비 때문에, 반드시 인정절차에 따라 면접고사 합격 후 교육이수해야 함.

※ 참고: 기술인협회(기술부 02-567-5603)에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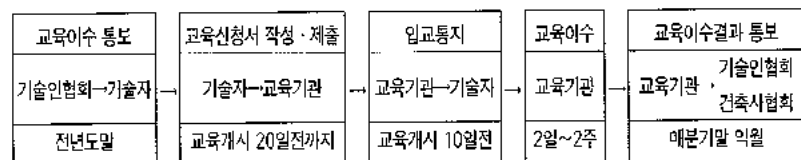
■ 인정절차



■ 경력인정 최소기준

기술 등급	기술 수준	최소 경력
중급기술자	기사 1급	• 학 사: 9년 이상 • 전문대졸: 12년 이상 • 고 졸: 15년 이상
초급기술자	기사 2급	• 전문대졸: 5년 이상 • 고졸이상: 7년 이상 • 고졸미만: 10년 이상

8. 교육훈련 신청절차



※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설기술자도 기술인협회에서 교육훈련통보를 합니다.

9. 교육미이수시 벌칙

- 가)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없이 받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1년 이하의 업무정지(건설기술관리법제6조의4제1항, 동법제43조제1항 및 동시행 규칙제4조의4)
- 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는 감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음(건설기술 관리법 시행령제51조의2제6항)
- 다) 교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사용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함(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3항, 동법제43조제1항)

10. 본 협회 건축교육원의 '98년도 교육 유보

본 협회는 건교부의 교육취지에 부합한 효율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준비중에 있었으나, 작년 말부터 예기치 못한 경제여건의 변화로 건축사사무소의 구조조정과 소속 건설기술자들의 퇴사·이직하는 비율이 높아 본 협회의 교육생(2차대상자: 전문교육과정)확보가 어려워져서 '98년도 건설기술자 교육 훈련을 유보하고, '99년도부터 정상적으로 교육훈련을 시행코자 건설교통부에 교육유보 신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협회 건축교육원에서 교육수강을 할려고 계획한 건설기술자는 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교육훈련기관 현황〉

번호	기관명	소재지	교육과정	교육인원/년	전화
	□ 종합교육기관(5)				
1	건설기술교육원	인천시 남동구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안전		032)463-4900-2
2	건설산업교육원	서울 서대문구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안전		02)394-7200
3	충청건설교육협의회			3,500	02)3449-8814
	—건설공제조합	충북 충주시	토목·건축·안전·환경	1,000	0441)850-4500
	—전문건설공제조합	충북 음성군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2,500	0446)879-2330
4	건설기술호남교육원	광주시 서구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	4,650	062)374-5000
5	영남건설기술교육원	경남 양산시	토목·건축·기계·국토개발·환경	5,000	0523)83-0333
	□ 전문 교육기관(21)				
6	시설안전기술공단	경기 안양시	안전진단		0343)80-3171
7	농어촌진흥공사	경기 의왕시	농어업 토목		0343)20-3271
8	대한주택공사		주택공사관리 및 건축구조설계 실무 건축설비설계 및 시공(기계·전기) 지반재해 예방기술	2,000	02)3416-3765
9	한국토지공사	경기 성남시	연약지반개량, 매립 및 준설 택지개발실무, 도시계획 및 조경실무	1,000	0342)866-8552
10	한국전력공사	서울시 강남구	전력시공관리(토목·건축·기계)	620	02)3456-5558
11	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서초구	건축설계 건축관련법규		02)581-5711
12	한국건설감리협회	서울시 강남구	감리현장관리기법 실무	1,150	02)569-6029
13	대한측량협회	서울시 영등포구	측량	300	02)671-2939
14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서울시 동작구	열사용 기자재 시공	700	02)8476-114
15	한국냉동공조기술협회	서울시 동작구	공기조화 및 위생설비	500	02)583-3673
16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	서울시 강남구	건설기자재 관리	200	02)3458-5826
17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 부천시	건설기술자 안전관리	250	032)667-4191
18	한국건설사업관리협회	서울시 중구	건설사업관리	800	02)773-5901~3
19	한국도로교통협회	서울시 강남구	도로공학·교통공학	800	02)562-5871~3
20	대한토목학회	서울시 송파구	지반기초 및 터널, 구조 및 콘크리트	400	02)407-4115
21	한국콘크리트학회	서울시 강남구	콘크리트 기술	1,000	02)568-5985
22	한국건설경영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건설사업관리·건설디자인	1,000	02)568-0143
23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서울시 송파구	건설방식	1,000	02)3401-8388
24	한국건설품질관리연구소	서울시	강남구 건설품질관리	200	02)501-5561
25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서울시	구로구 건축 및 토목품질시험 실무	1,000	02)830-8234-6
26	한국산업관계연구원	서울시서초구	적산	450	02)588-2162

〈별첨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안내〉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자 교육제도 운영요령”에 따라 건기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수기간 및 교육기간 등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998. 2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교육 대상	교육 이수 기한	교육 기간	교육 기관
기술자격취득자 ○ 교육이수자 - '92.12월말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93.1.1 ~ '93.2.28 교육을 이수한 자 - '93.3.1 ~ '97.12.31 교육을 이수한 자 - '98. 1. 1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미이수자 - '94.12.31 이전에 취업한 자 - '95.1.1 ~ '95. 2월말 취업 한 자 - '95. 3.1 이후에 취업 한 자	- '98. 6.30 - '98. 3.31 - 직전교육이수일로부터 5년을 가산한날까지 - 직전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날까지	- 기술사: 2일 - 기타: 1주	종합·전문 종합
감리원(학력·경력 감리원 포함) ○ 교육이수자 - '94.12월말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93.1.1 ~ '93.2.28 교육을 이수한 자 - '98. 3. 1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미이수자 - '94.12.31 이전에 취업한 자 - '95.1.1 ~ '95. 2.28 취업 한 자 - '95. 3.1 이후에 취업 한 자	- '98. 6.30 - '98. 3.31 - 직전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날까지 - '98. 6.30 - '98. 3.3 - 취업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날까지 ※ 현장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현장 배치일 이전	- 기술사·건축사: 2일 - 기타: 1주 - 2주 - 2주	종합·전문 종합 종합
학력·경력자(감리원 제외) ○ 교육이수자 - '97.12월말 이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98.1.1 이후에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미이수자 - '96.2월말 이전에 학력·경력 기술자로 신고한 자 - '96. 3. 1 ~ '96. 5.31 학력·경력 기술자로 신고한 자 - '96. 6. 1 이후에 학력·경력자로	- 직전교육이수일로부터 5년을 가산한날까지 - 직전교육이수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날까지 - '98. 6. 30까지 - '98년말까지 - 신고·접수일로부터 3년을 가산한 신고한 자 날까지	- 특급기술자로 인정 받은 후 10년 이상 경력자: 2일 - 기타: 1주 - 2주	종합 또는 전문 종합

정정합니다.

본지 98년 5월호(통권 제349호) 신입회원, 현상설계경기, 건축계소식 기사내용중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바로 잡습니다.

- 신입회원 명단 중(128쪽) 김동욱회원의 사무소명이 「건축사사무소 하늘」로 잘못 게재되었기에 이를 「건축사사무소 하늘」로
- 현상설계경기 기사중(120쪽) 영덕공업고등학교의 우수작 대표자 김정숙을 김경숙으로
- 건축계소식 도로종합기술연구원 현상설계당선작 발표 기사중(113쪽) 도로연구소군 우수작 사무소명이 이오영임을 2.5명인으로